20세기 전반기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

-대중종합지 『삼천리(1929~1942)』의 말뭉치 언어학적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안 예 리

20세기 전반기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

-대중종합지 『삼천리(1929～1942)』의 말뭉치 언어학적 분석-

지도 서 상 규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7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안 예 리

안예리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_________________인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____인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____인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____인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____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년 6월 일

차　　례

국문 요약 ········· ix

1.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 ········· 1
1.2. 앞선 연구 ········· 7
1.3. 연구 자료와 방법론 ········· 11
1.3.1. 주 말뭉치: 《삼천리》 ········· 14
1.3.2. 보조 말뭉치: 《세종역사》, 《1890-1900학회지》, 《현대》 ········· 25

2. 연구의 배경 ········· 29
2.1. 언해문과 전통적 문장 쓰기 관습 ········· 30
2.2. 자국어 의식의 발달과 문장의 변화 ········· 36
2.3. 문법적 변이에 대한 해석: 문체사와 국어사 ········· 45

3.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구성적 특징 ········· 52
3.1. 구 구성에 나타난 특징 ········· 52
3.1.1. 명사구 ········· 53
3.1.1.1. 접미사 '-적'의 유입과 정착 ········· 54
3.1.1.2. 조사 '-의'에 의한 명사구 수식 구성 ········· 63
3.1.1.3. 명사구 접속 구성에서 마지막 명사구 뒤 '-과'의 실현 여부 ········· 70
3.1.1.4. 접속조사와 접속부사의 공기 ········· 74
3.1.1.5. 동격 명사구 ········· 79

3.1.2. 동사구 ········· 81
3.1.2.1.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 ········· 81
3.1.2.2. '한문구+하다' 구성 ········· 85
3.2. 절 구성에 나타난 특징 ········· 92
3.2.1. 접속절 ········· 93
3.2.1.1. 가정의 연결어미 ········· 96
3.2.1.2. 인과의 연결어미 ········· 100
3.2.1.3. 양보의 연결어미 ········· 105
3.2.1.4. 대조의 연결어미 ········· 107
3.2.1.5. 나열의 연결어미 ········· 112
3.2.1.6. 의도의 연결어미 ········· 115
3.2.1.7. 기타 연결어미 ········· 117
3.2.1.8.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공기 ········· 119
3.2.2. 명사절 ········· 122
3.2.2.1.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 ········· 124
3.2.2.2. [~음]이 NP이다 ········· 128
3.2.2.3. [~음]이 있다/없다 ········· 129
3.2.2.4. [~음]을 X하다 ········· 132
3.2.2.5. [얼마나 ~음]을 알다 ········· 134
3.2.2.6. [~기]는 NP시간이다 ········· 137
3.2.2.7. [~기] NP시간에/만이다 ········· 138
3.2.2.8. 명사절의 속격 주어 ········· 139
3.2.3. 관형절 ········· 141
3.2.3.1. '-었는'과 '-은'의 혼용 ········· 142
3.2.3.2. 시간 명사 앞에서의 '-을'과 '-는/은'의 혼용 ········· 145

3.2.3.3. '있는'과 '있은', '없는'과 '없은'의 혼용 ········· 148
3.2.3.4. 관형절의 속격 주어 ········· 151
3.2.4. 부사절 ········· 153
3.2.4.1. 부사형 전성어미 ········· 154
3.2.4.2. 부사성 의존명사 ········· 155
3.2.5. 서술절 ········· 156
3.2.5.1. 서술절 주어와 상위문 주어의 의미 관계 ········· 157
3.2.5.2. 서술절 주어로 쓰인 대명사의 동격 관계 ········· 162
3.2.6. 인용절 ········· 164
3.2.6.1. 인용 동사의 위치 ········· 165
3.2.6.2. 인용 표지의 쓰임 ········· 171
3.3. 요약 ········· 176

4.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양상적 특징 ········· 183
4.1. 시간 표현 ········· 183
4.1.1. 완료상의 '-었-' ········· 185
4.1.2. 타동사+'-어 있다' ········· 186
4.1.3. '-고 있다'의 완료상 표시 기능 ········· 189
4.1.4. 형용사+'-어 있다' ········· 191
4.1.5. 형용사+'-어 가다/오다' ········· 192
4.2. 높임 표현 ········· 194
4.2.1. 상대 높임의 '-으시-' ········· 196
4.2.2. 상대 높임의 '-삽-' ········· 197
4.2.3. 상대 높임의 '-이-' ········· 200
4.3. 부정 표현 ········· 203

4.3.1. '아니'와 '안' ··· 204
4.3.2. V본+부정 부사+V보조 ··· 208
4.3.3. '아니하다>안하다>않다'의 재구조화 과정 ··· 209
4.3.4. '-지 아니다'의 쓰임 ··· 212
4.3.5. '-지 말다'의 쓰임 ··· 213
4.3.6. 명제를 부정하는 '不' ··· 218
4.3.7. '無하다'와 '없다' ··· 219
4.3.8. 이중 부정 ··· 221
4.4. 사동 표현 ··· 228
4.4.1. 사동 접미사의 쓰임 ··· 229
4.4.2. '-게 하다' 사동 구문 ··· 235
4.4.3. 사동 구문의 피행위주 표시 형식 ··· 237
4.5. 피동 표현 ··· 240
4.5.1. 피동 접미사의 쓰임 ··· 242
4.5.2. '-어 지다' 피동 구문 ··· 252
4.5.3. 피동 구문의 행위주 표시 형식 ··· 254
4.6. 요약 ··· 256

5. 《삼천리》의 문장의 특징과 『우리말본』의 비교 ··· 260
5.1.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특징 ··· 260
5.2.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에 대한 『우리말본』의 태도 ··· 262
5.3. 『우리말본』의 문법 체계와 문법적 변이 ··· 263

6. 결론 ··· 270

참고문헌 ···················· 274
Abstract ···················· 291

표 차례

<표 1> 《삼천리》의 호별 기사 수와 어절 수 …… 19
<표 2> 《삼천리》의 장르 구성 …… 21
<표 3> 보조 말뭉치《현대》의 장르 구성 …… 27
<표 4> 홍윤표(2004:43)에서 제시한 언해의 10단계 …… 32
<표 5> '-적' 파생 명사의 문장 성분별 쓰임 …… 58
<표 6> 관형어로 쓰인 '-적' 파생 명사의 실현 양상 …… 59
<표 7> 부사어로 쓰인 '-적' 파생 명사의 실현 양상 …… 60
<표 8> [NP_1의 NP_2의 NP_3의 NP_4]$_{NP}$의 내적 구조 …… 69
<표 9> 명사구 접속 구성에서 마지막 명사구 뒤에 결합된 조사의 종류 …… 72
<표 10>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의 종수, 빈도 및 목록 …… 83
<표 11> 가정의 연결어미의 빈도 …… 97
<표 12> 가정의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 99
<표 13> 인과의 연결어미의 빈도 …… 102
<표 14> 인과의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 104
<표 15> 양보의 연결어미의 빈도 …… 106
<표 16> 양보의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 107
<표 17> 지정사 뒤에서 '-거니와'와 '-어니와'의 실현 빈도 …… 108
<표 18> '-건마는'과 '-건만', '-지마는'과 '-지만'의 빈도 비교 …… 108
<표 19> 대조의 연결어미의 빈도 …… 109
<표 20> 대조의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 111
<표 21> 지정사 뒤에서 '-고', '-오', '-요'의 실현 빈도 …… 112
<표 22> 나열의 연결어미의 빈도 …… 113

<표 23> 나열의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 114
<표 24> 의도의 연결어미의 빈도 ········· 115
<표 25> 의도의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 117
<표 26> 의미 기능이 같은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연쇄 ········· 120
<표 27>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의 문장 성분별 쓰임 ········· 125
<표 28> 주어로 쓰인 '-음' 명사절의 상위 서술어 ········· 126
<표 29> 목적어로 쓰인 '-음' 명사절의 상위 서술어 ········· 126
<표 30> 주어로 쓰인 '-기' 명사절의 상위 서술어 ········· 127
<표 31> 목적어로 쓰인 '-기' 명사절의 상위 서술어 ········· 127
<표 32> '있다'와 '없다'의 주어로 쓰인 '-음' 명사절의 빈도 ········· 132
<표 33> '있다'의 관형사형 활용의 변화 ········· 149
<표 34> '없다'의 관형사형 활용의 변화 ········· 150
<표 35> 『소학언해(1586)』(권1~6)의 구결문과 언해문에 쓰인 인용 구문의 대응 관계 ·· 169
<표 36> 간접 인용절의 서법에 따른 인용 표지의 실현 여부 ········· 174
<표 37> 최현배(1937:605) 움직씨 베풂꼴의 때매김법 체계 ········· 184
<표 38> '-삽나이다/-삽내다/-습니다', '-삽더이다/-삽데다/-습디다'의 빈도 ········· 202
<표 39> 부정 부사 '아니'와 '안'의 빈도 비교 ········· 206
<표 40> 부정 보조용언 '아니하다', '안하다', '않다'의 빈도 및 비율 ········· 210
<표 41> '말다'가 명령문, 청유문에 쓰인 예 ········· 214
<표 42> 이중 부정에 쓰인 용언들의 결합 양상 ········· 223
<표 43> 《삼천리》에 쓰인 단일 사동형과 이중 사동형의 빈도 ········· 232
<표 44> 최현배(1937)에 제시된 사동사의 『삼천리』에서의 쓰임 ········· 234
<표 45> 최현배(1937)에 제시된 '-히-' 파생 피동사들의 『삼천리』에서의 쓰임 ······ 250
<표 46> 최현배(1937)에 제시된 '-기-' 파생 피동사들의 『삼천리』에서의 쓰임 ···· 252
<표 47> 《삼천리》에 나타난 문법적 변이에 대한 『우리말본』의 기술 ········· 264

그림 차례

<그림 1> 『삼천리』 표지 ········ 15
<그림 2> 깜짝새를 이용한 용례 검색의 예 ········ 24
<그림 3> AntConc를 이용한 용례 검색의 예 ········ 28

국 문 요 약

20세기 전반기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
-대중종합지 『삼천리(1929～1942)』의 말뭉치 언어학적 분석-

이 연구는 20세기 전반기 국어의 문장에 나타난 문법적 변이를 기술하고 이를 통해 20세기 전반기에 일어난 언어의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이다. 문장을 구성하는 명제와 양상의 각 요소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명제를 이루는 구와 절, 양상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 높임 표현, 부정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국어 문장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20세기 전반기에는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어문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언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나 신·구형이 공존하기 마련이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언어를 둘러싼 제도와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만큼 표기, 어휘, 문법, 문체 등 제반 영역에서 과도기적 특성이 두드러졌다. 20세기 전반기 국어의 이러한 특성은 당시 언어 자료에 나타난 다양한 변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어적 변이에 대한 기술을 통해 언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용례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29년부터 1942년까지 발행되었던 대중적 종합잡지 『삼천리』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를 말뭉치로 가공해 양적·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삼천리 말뭉치(이하, 삼천리)》는 약 290만 어절의 원시 말뭉치로, 그 구성을 살펴보면 소설, 수필, 기행문, 회고, 수기 등의 문학 텍스트가 44%, 논설, 보도, 비평, 설문 조사, 사고 및 편집 후기 등 비문학 텍스트가 56%이다. 말뭉치에 나타난 용례를 통해 당시의 언어적 변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20세기 전반기의 언어적 변이와 변화를 설명할 때 언어 외적 요인과 언어 내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 시기에는 근대국어의 문법 체계가 현대국어의 문법 체계로 변화하며 일어난 과도기적 언어 현상도 확인되지만 그와 동시에 문장 쓰기 관습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문법적 변이나 일본어 등 외국어의 영향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구와 절, 양상 표현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할 때에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삼천리》에 나타난 언어적 변이가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문법적 변화의 각 단계를 반영하는가?, 둘째, 《삼천리》에 나타난 언어적 변이가 문장 쓰기 관습의 변화, 즉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을 벗어나 자국어 글쓰기의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반영하는가?, 셋째, 일본어의 영향으로 새롭게 나타난 현상들이 있는가?

이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고 앞선 연구의 흐름을 검토하며 연구 자료와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의 언어적 상황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배경에 대해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구와 절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말뭉치에 나타난 명사구와 동사구, 그리고 접속절,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쓰임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양상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말뭉치에 나타난 시간 표현, 높임 표현, 부정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의 쓰임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의 분석 결과 밝혀진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특징을 정리하고, 《삼천리》에 나타난 문법적 변이가 『우리말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6장에서는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 등을 밝히고 남은 과제들을 기술하였다.

핵심되는 말 : 20세기, 개화기, 일제강점기, 삼천리, 문장, 문체, 변이, 문법적 변화, 말뭉치, 우리말본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20세기 전반기[1] 국어의 문장 구성에 나타난 문법적 변이를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당시의 언어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2]. 이 연구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명제와 양상의 각 요소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명제를 이루는 구와 절, 양상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 높임 표현, 부정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국어 문장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세기 전반기의 문법에 대한 연구인 동시에 문체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존에 이루어진 문법론과도 문체론과도 그 성격이 같지는 않다. 기존의 문법론적 연구가 언어 내적 측면만을 중시해 온 것과 달리 이 연구는 언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문법에 미친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 또한 기존의 문체론적 연구가 국한문체나 순한글체 등 표기체에 따른 문장의 특징을 밝히는 데에 주력해 왔던 것과 달리 이 연구는 문장의 구조나 문법 형태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문체론과 문법론이라는, 이 연구가 걸쳐 있는 두 가지 영역의 교집합 속에는 '문장'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

그동안 20세기 전반기 국어에 대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시기를 '과도기'로

---

1)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 보통 20세기 전반기 국어는 현대국어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홍윤표(1994:25)에서 지적한 것처럼 "20세기의 국어를 현대국어로 귀속시키는 기존의 국어사 시대구분은 이제 21세기의 국어도 현대국어 속에 포함시켜야 할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구분을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국어의 시기를 세분하기에는 표기, 음운, 문법, 어휘 등에 관한 충분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전기 현대국어'나 '초기 현대국어'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20세기 전반기'라는 중립적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2) 20세기 전반기는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의 언어가 오늘날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는 한 당연한 것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이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20세기 전반기 문장이 갖는 국어학적 특징들을 밝혀내고자 한다. "실증을 통한 통시적 체계의 수립은 해석에 앞선다(김영민, 2008:10)."라는 주장은 어떤 분야의 역사적 연구에서든 중요시되어야 한다.

파악해 왔는데 이러한 관점은 김형철(1997:11)의 지적대로 “새로운 언어요소들의 등장에 따른 신·구 요소의 갈등과 공존을 강조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당시 국어의 문장 구성에 나타난 신·구 요소의 갈등과 공존의 양상, 즉 변이(variation)의 양상을 밝히는 데에 주된 관심을 둔다[3]. 특정 시기에 어떤 언어 요소가 변이를 보인다면 그 시기에 해당 언어 요소가 변화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Romaine(1982:25), Trask(1996: 276-285), Lass(1997:61-68), Campbell(2004:220) 등에서 논의된 것처럼 공시태에 나타난 언어적 변이는 언어 변화의 매커니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4].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공시적 언어 상태는 새로이 생겨나는 요소와 없어져 가는 요소의 혼합체(권재일, 2005:3-4)”이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언제나 “역사적 현재(홍종선, 2000:9)”이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 국어에 대해 유독 이러한 점이 강조되어 온 이유는 이 시기의 언어 변화가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급격했다는

3) 언어학에서 말하는 ‘변이’란 특정한 언어 현상이 일정한 변수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때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로는 성별, 사회적 계층, 출신 지역, 연령대 등이 있다. 변이에 대한 연구는 사회언어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방언학이나 역사언어학도 기본적으로 언어의 변이를 다룬다. 즉, 사회언어학이 언어 현상의 차이를 유발하는 사회적 변수에 초점을 둔다면 방언학은 공간적 변수에 초점을 두고 역사언어학은 시간적 변수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4) 언어학에서 언어의 변화를 변이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였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언어의 변화는 하나의 개별적 요소가 다른 요소로 대치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소쉬르에 의해 언어학에 구조주의가 도입되면서 언어를 이루는 요소들은 개별 요소로서가 아니라 체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언어를 정연한 체계로 바라보는 언어관은 공시태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가졌지만 통시태를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다. Trask(1996:267)은 이를 ‘소쉬르의 역설(Saussurean paradox)’이라 불렀다. 소쉬르의 역설이란 ‘언어가 정연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언어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그 체계가 무너질 것이고 그렇다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져야 하는데 왜 언어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화자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소쉬르의 역설에 대해 Trask(1996:267)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다. 축구나 체스 경기의 규칙이 경기 도중에 끊임없이 바뀌는데 어떻게 경기가 지속될 수 있을까? 공연 도중에 악보가 계속 바뀌는데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연주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러한 비유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축구나 체스 경기는 계속될 수 없고 공연도 계속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언어는 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의사소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문제없이 수행하는 것이다. Trask는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변이’에 있다고 보았다. 1960년대에 William Labov가 그동안 언어학자들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변이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변이에 대한 기술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언어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언어적 변이에 대한 세밀한 기술을 통해 언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20세기 전반기에는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언어적 변화도 극심했다. 20세기 전반기 국어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 내적・외적 요인에 의해 생겨난 언어적 변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당시의 언어적 변이는 시간적 혼재와 공간적 혼재라는 두 가지 틀로 바라볼 수 있다. 시간적 혼재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속한 언어 요소가 뒤섞여 있는 상태이고[5] 공간적 혼재란 지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속한 언어가 뒤섞여 있는 상태이다.

시간적 혼재라는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 전반기 국어에 나타난 언어적 변이는 일반적으로 점진적 변화를 겪을 때 나타나는 변이와는 혼재의 정도와 폭에 큰 차이가 있었다. 한 편의 글 안에서도 어떤 문장은 문법 형태의 쓰임이나 통사 구조가 오늘날과 유사하지만 또 어떤 문장은 오히려 15세기 국어에 가까웠던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문장 구성과 관련해 당시 언어적 변이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다. 1926년에 발행된 『동광』 제5호에는 한결 김윤경의 “조선말과 글에 바루 잡을 것”이라는 논설이 실려 있다. 이 논설에서는 “우리의 이제 쓰는 글을 보면 본보기말을 가지고라도 어느 모양으로 적어야 할찌 머뭇거릴 만치 넘우 여러 가지어서 어느 것이 우리의 본보기글이냐 물으리만치 적는 법이 여러 가지외다.”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

5) 20세기 전반기 문장에 나타난 시간적 혼재 양상은 근대가 갖는 기본적 속성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사회・문화적으로 옛것에서 새것으로의 교체가 급격히 일어난 만큼 역사적으로 그 어느 시기에도 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현상들이 보였다. 이와 관련해 천정환(2003:39)은 “국제적이며 첨단적인 기술조건과, 전통적이며 고유한 문화내용이 결합하는 ‘잡종(hybrid)화’ 현상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즉 전통민요와 잡지가 폴리도르(Polydor)・콜롬비아(Columbia) 같은 서양의 대형 레이블(label) 레코드로 제작되고 유교경전과 족보가 새 활판기술로 대량인쇄되었으며, 판소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등장하는가 하면 고전소설이 유성영화로 제작되었다. 이는 문화의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는 상징들이다.”라고 하였다. 20세기 전반기 근대적 매체에 쓰인 문장을 분석해 시・공간적 혼재 현상을 밝히는 이 연구도 넓은 맥락에서 보면 근대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 문화의 새로운 특징을 밝히는 작업의 일부이다.

(1) a. 배우어서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b. 學하여 時로 習하면 亦 悅하지 아니하냐

c. 學어서 時로 習면 亦한 悅지 不냐
(배우) (때) (익히) (또) (즐겁) (아니하)

d. 學而時習之면 不亦悅乎아

e.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1a)는 국어 어휘를 사용해 국어 문장 구조에 맞게 쓴 것이다. (1b)는 한문이 단어 수준으로 해체되고 국어의 통사 구조가 지배적인 문장으로 음독을 전제로 쓴 것이다. (1c)는 (1b)와 유사하긴 하지만 음독이 아닌 훈독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작은 글씨로 괄호 안에 한자의 뜻을 달았는데 뜻으로 읽으면 (1a)와 같은 문장이 된다. (1d)는 한문구를 해체하지 않은 채 의미상의 분절에 한글로 토만 단 것이고 (1e)는 토조차 달지 않은 순한문이다. 한결의 지적대로 20세기 전반기에는 이 모든 문장의 형태가 '무엇이 본보기이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재돼 있었던 것이다[6].

공간적 혼재라는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 전반기 국어에 나타난 언어적 변이는 질적으로 이전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세기까지는 고전 한문의 영향으로 인해 언어적 변이가 나타났다면 20세기 전반기에는 한문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편 일본어의 영향이 극심해졌고 그와 더불어 영어를 비롯한 서구어 그리고 중국 백화문의 영향이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시간적 혼재라는 틀에서도 공간적 혼재라는 틀에서도 20세기 전반기 국어에는 상당히 복잡한 변이의 양상이 나타났다. 당시의 언어 자료에서 특정 문법 현상에 대한 변이의 양상을 파악해 이를 기술하고, 이로부터 언어 변화의 방향성을 파악

6) 1908년 12월에 발행된 『기호흥학보(畿湖興學報)』5호에 실린 '文法을 宜統一'이라는 글에서도 신채호가 '學而時習之 不亦悅乎'라는 구절을 예로 들어 우리말로 쓸 때 방법이 일정치 않다는 지적을 했다. 어떤 사람은 '學而時習之면 不亦悅乎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學ᄒᆞ야 此를 時習ᄒᆞ면 不亦悅乎'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글을 쓰는 사람마다 문법(글을 적는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청년들이 글을 쓸 때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법을 통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다. 하지만 1926년에 더 많은 종류의 문장 유형이 제시되며 문장의 표준적 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용례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29년부터 1942년까지 발행되었던 대중적 종합잡지 『삼천리』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를 말뭉치로[7] 가공해 양적·질적 분석을 병행하려고 한다.

말뭉치 언어학적 방법론은 '변이'를 통해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큰 효력을 발휘한다. Rissanen(2008:58-59)은 과거에는 언어 변화가 A에서 B로의 변화(A>B)로 여겨졌지만 말뭉치 분석을 통해 밝혀진 언어 변화의 실제적 모습은 '1시기(AAAABB)>2시기(ABBBBC)'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였다. 즉, 어느 시기에나 변이형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중 어느 변이형이 가장 우세한 쓰임을 보이는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언어 변화의 실상이라는 말이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20세기 전반기 국어 문장 구성에 나타난 변이에 대한 기술과 이를 통한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므로 말뭉치를 활용하는 것은 연구 방법론으로서 합당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각 절에서는 말뭉치 언어학적 방법론에 따라 당시 문장에 나타난 언어적 변이를 기술한 뒤 이를 『우리말본』 초판의 문법 기술과 비교해 보려고 한다[8].

지금까지 기술한 것처럼 20세기 전반기는 국어의 역사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 언어적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던 시기였지만 그와 동시에 그 어느 시기보다 국어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 중 1937년에 초판이 발행된 외솔 최현배의 『우리말본』은 현대국어 문법 체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9]. 『우리말본』은 당대의 언어를 정연한 체계로 기술

---

7) 말뭉치에 대해서는 1.3에서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현재 국내 학계에서는 '말뭉치' 외에도 '말모둠', '코퍼스'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8) 『우리말본』에서는 모든 문법 용어를 고유어로 정해 사용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국어학계에서 통용되는 문법 용어를 사용했지만 『우리말본』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우리말본』 초판의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9) 김석득(1983:183-319)는 최현배의 『우리말본』이 나오기까지의 문법 연구의 발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9세기 말 이봉운의 『국문정리(1897)』에서 국어 문법 연구가 처음 시작되었으나 문법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저작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후 최광옥의 『대한문전(1908)』과 유길준의 『대한문전(1909)』에서 근대적이라 할 만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이 두 책은 외국 문법의 영향이 농후했고 국어에 대해 본격적인 천착은 주시경의 저작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한국어문법(1906)』, 『국어문전음학(1908)』, 『국어문법(1910)』, 『조선어문법(1911)』, 『조선어문법(재판)(1913)』, 『말의 소리(1914)』가 그것이다. 주시경이 수립한 문법 체계는 분석주의, 종합주의, 준종

한 문법서이고 《삼천리》는 당대 언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변이를 그대로 노출시킨 잡지이다. 따라서 이 둘의 비교 결과는 당시 실제 언어의 변이 중 어떤 것이 '문법적'이라 여겨졌고 어떤 것이 '비문법적'이라 여겨졌는지를 파악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10]. 『우리말본』이 현대국어 문법 체계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이 문법서에서 당시 언어 현실 중 어떤 것을 문법 체계에 포함시켰는지 혹은 배제시켰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술된 역사라는 것이 보통 그러하듯이 국어 문법의 역사 역시 취사선택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앞선 연구의 동향을 검토하고 이 연구의 주된 자료와 방법론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3~4장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문장 쓰기 관습의 변화가 초래한 문법적 변화 및 변이에 대해 논의한다. 2장의 논의를 통해 20세기 전반기에 문장을 구성하는 구와 절의 구조에 다양한 변이가 존재했고 문법 범주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구조적 요소인 구와 절의 각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4장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양상적 요소인 시간 표현, 높임 표현, 부정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4장의 분석을 마친 뒤 5장에서는 《삼천리》에 나타난 문법적 변이가 『우리말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6장에서는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 등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들을 살펴본다.

합주의의 세 갈래로 전승되었다. 분석주의를 지향한 학자로는 김두봉과 김윤경, 종합주의를 지향한 학자로는 정열모, 준종합주의를 계승한 학자로는 최현배, 정인승, 이희승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현대국어의 문법 체계를 확립시킨 것은 준종합주의로, 최현배의 『우리말본』은 현대국어 문법 체계의 근간이 되었다.

10) 『우리말본』은 전반적으로 기술 문법적 태도를 취했지만 곳곳에서 규범 문법적 처방을 내렸고 이에 대해 외솔은 "때로는 말본이 말보다 앞서나갈 필요가 있다(최현배, 1937:620)."라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우리말본』의 기술 중에는 당대의 언어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2. 앞선 연구

20세기 전반기 국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언어를 둘러싼 사회적·제도적 환경에 초점을 둔 연구와 언어 현상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연구는 주로 어문 정책, 어문 운동, 이중 언어 상황, 어문 교육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후자의 연구는 주로 음운, 표기, 어휘, 문체, 문법 형태, 통사 구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언어에 대한 인식과 언어적 환경이 달라지면서 언어에 관한 제도가 바뀌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언어 현상도 변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앞선 연구의 두 가지 흐름 중 20세기 전반기의 언어 현상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문법 형태 및 통사 구조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세기 전반기 국어 문법에 대한 앞선 연구는 형태론이나 통사론의 주제들을 전반적으로 살핀 개론서 성격의 연구와 특정 주제에 초점을 둔 연구로 나뉜다. 이 단락에서는 먼저 20세기 전반기의 문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술한 연구서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지금부터 소개할 개론적 성격의 연구들은 소위 '개화기'로 불리는 시기, 즉 1880년대부터 1910년 이전까지의 언어 자료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김형철(1997)은 문체와의 관련 속에서 문장의 통사 구조 및 문법 형태의 쓰임을 설명하였으며 교과서, 신문, 성경, 자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당시 국어 문장에 남아 있던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체 변화와 문법 변화의 관련성을 설명했다. 김동언(1999)는 개화기 국어의 형태론에 대한 연구로, 조사와 어미, 용언의 활용, 파생과 합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당시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거나 용법상의 변화를 겪은 문법 형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일어난 국어사의 내적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민현식(1999)는 개화기 국어의 통사론에 대한 연구로, 단문에 대해서는 문장 성분, 서법, 부정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복문에 대해서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접속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문법 범주에 대해서는 사동법, 피동법, 높임법, 시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재일(2005)는 교과서 자료를 대상으로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의 쓰임을 기술하고, 명사절, 관형절, 인용절의 구문적 특징을 밝혔다.

한편, 홍종선 외(2000)은 현대국어를 여러 단계로 세분하고 각 시기별 표기, 음운, 어휘, 형태, 통사, 문체에 대해 분석한 논문집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20세기에 일어난 언어의 변화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밝힐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연구 성과의 축적을 통해 현대국어의 시기 구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논문집에 포함된 개별 연구들을 비교해 보면 현대국어의 시기의 구분이 제각기 달라 현대국어의 시기 구분이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알 수 있다[11]. 한편, 홍종선(2009)는 현대국어를 제1기(현대국어 형성기, 1894년~1910년대 말), 제2기(현대국어 정착기, 1920년대 초~1945)[12], 제3기(현대국어 발전기, 1945~)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문법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제1기에서 제3기로 오는 동안 명사형 어미 '-기'의 쓰임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고, 피동법이나 사동법, 부정법 등 문법 범주가 통사적 구성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가 점차 많아졌으며, 시제 체계가 확립되고 조사의 결합 양상이 다양해졌다. 본고에서 주로 논의할 시기는 홍종선(2009)에서 설정한 제2기에 속하는데, 위에서 지적한 것 외에 홍종선(2009:42-43)에서 제2기의 특징으로 언급한 것은 어휘나 문법에 일본어의 영향이

11) 예를 들어, 홍종선(2000)은 현대국어를 제1기(1880년대 초기~1910), 제2기(1910~1945), 제3기(1945~)로 구분하였지만, 김의수(2000)은 1890년대부터 1930년대 말까지를 전기로 설정하고 1940년대 이후부터를 후기로 설정해 현대국어를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하였다. 그밖에도 1940년을 기준으로 제1기와 제2기를 설정한 경우, 1890년대에서 1910년대를 제1기로 보고 1920년대에서 현재를 제2기로 본 경우, 1890년대에서 1910년까지를 제1기, 1910년부터 1950년까지를 제2기, 1950년 이후를 제3기로 본 경우 등 홍종선 외(2000)은 각각의 주제를 다룬 연구자마다 현대국어의 시기 구분을 서로 다르게 했다.

12) 한편, 홍종선(2009:41)의 각주 4)를 보면 홍종선(2000)에서는 국어 생활사적 요소를 고려해 현대국어 제2기의 시작을 1910년으로 했지만, 실제로 국어의 새로운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10년쯤 뒤였으므로 이를 1920년으로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현대국어를 단계별로 세분화하기에는 연구 성과의 축적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된다. 20세기 전반기 자료 중에는 국어학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자료가 상당수이고 음운, 어휘, 형태, 통사, 표기 등에 관한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아졌고 주격조사 '-이'와 '-가'의 상보적 분포가 뚜렷해졌으며 종결어미가 현대국어의 체계를 갖추게 됐고 대명사 '그', '그녀' 등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는 20세기 전반기 문법을 개관한 연구들이지만 그밖에도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주제를 검토해 보면 그동안 국어학계에서 20세기 전반기 문법 현상 중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해 왔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져 온 주제라면 그것이 당시 언어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일 가능성이 높다.

20세기 전반기 국어 문법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높임법이다. 강윤호(1975), 임재수(1983), 민현식(1984), 강규선(1989), 이경우(1989, 1998), 정길남(1992, 1997, 2002, 2004), 김의수(2000), 이명천(2000), 강지영(2007), 김정호(2011)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러 문법 현상 중 특히 높임법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료의 확대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19세기 말부터는 연구 자료의 종류와 양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인물 간의 다양한 관계를 반영한 자료나 대화체 자료가 풍부해졌다. 따라서 이전 시기의 문헌에는 드러나지 않던 높임법의 다양한 쓰임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높임법 연구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된 앞선 연구는 주로 신소설과 교과서를 분석 자료로 삼았으며 1910년 이전의 높임법의 특징을 밝힌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앞선 연구를 통해 하소서체가 당시까지만 해도 널리 쓰였던 반면 해체는 문헌에 잘 쓰이지 않았으며, 해요체도 아직 본격적으로 발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선어말어미 '-습-'이 상대 높임을 나타냈다는 점이 여러 글에서 확인되었다.

20세기 전반기의 문법 요소 중 접속절을 이루는 연결어미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어 왔다. 권재일(1994), 이동혁(2000), 정길남(2002:134-145)는 연결어미의 유형을 나눈 뒤 각 유형별 목록을 제시하고 그 쓰임을 밝힌 연구이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20세기 전반기에는 앞 시기에 있었던 연결어미에 보조사 '-서'나 선어

말어미 '-거-'가 결합됨으로써 생겨난 연결어미들이 많았다. 한편, 안주호(1999), 정혜선(2007), 이지영(2008b)는 근대국어까지는 쓰이지 않던 새로운 연결어미의 형성 과정과 용법에 대한 논의로, 각각은 '-기에, -길닉, -기로', '-거드면, -을뿐더러, -지마는', '-거드면, -더라면, -을는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밖에도 20세기 전반기의 명사절, 피동법, 부정법, 시제와 상, 서법, 격조사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명사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다. '-음' 명사절은 한문의 언해 과정에서 생겨난 문장 쓰기 관습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기 때문에 주로 문체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었고, '-기' 명사절은 20세기 전반기에 쓰임이 급격히 확대되며 새로운 용법을 확립해 갔기 때문에 주로 문법사적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김형철(1997:125-130)은 당시 자료에 나타난 '-음' 명사절의 빈번한 쓰임은 중세국어 시기 언해문의 문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보았다. 호정은(1999)는 '-음'과 '-기'가 갖는 선행 용언 결합 제약, 상위문 용언 결합 제약, 선어말어미 결합 제약 등을 밝혔다. 안예리(2008)은 말뭉치 분석을 통해 서사 방식 및 텍스트 장르에 따른 '-음', '-기' 명사절 및 '것' 구성의 분포를 밝혔다.

피동법은 20세기 전반기에 급격히 발달된 문법 범주이다. 유수연(2008)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를 제1기(1894-1910), 제2기(1910-1945), 제3기(1945-현재)로 나누고 각 시기의 국어·일본어 대역 자료를 중심으로 피동 표현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로, 시기별 피동 표현의 빈도, 주어 명사의 유·무정성, 동작주 표시 형식, 형태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의 분포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국어 피동법이 후대로 오면서 점차 무정물 주어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고, 동작주 표시 형식이 제1기에는 '-에', '-에게', '-의' 등으로 한정적이었으나 제2기로 오면서 '때문에', '-으로 因하여', '-에 因하여', '-에 依하여, -에 의지하여, -으로 말미암아, -을 통하여, -으로부터, -한테' 등으로 다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정법을 실현시키는 부정 부사와 부정 용언은 20세기 전반기에 음운 축약과 재구조화를 겪었다. 이와 관련해 남윤진(2011)은 1900~1990년대 소설에 나타난 부정문

사용 양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1920년대를 기점으로 가장 현대적인 형태인 ‘않다’가 기존의 형태들보다 우세한 쓰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우인혜(1988)은 개화기 교과서를 자료로 삼아 시제와 상, 서법에 관여하는 문법 형태들의 쓰임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당시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ᄂᆞ-’가 널리 쓰였고 ‘-었-’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쓰임과 완료상을 나타내는 쓰임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추정을 나타낼 때 ‘-겠-’이나 ‘-ㄹ 것’보다 ‘-으리-’가 더 널리 쓰였다고 하여 이 시기까지는 중세국어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용법들이 다수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지연・김민국・윤정원(2008)은 말뭉치 분석을 통해 20세기 초기 격조사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각의 기능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에 발행된 국한문체와 순한글체의 문학적 서사, 논설, 잡보를 말뭉치로 구축하고 조사에 대한 주석을 해 그 쓰임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당시 격조사의 쓰임을 근대국어 및 현대국어에서의 쓰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소개한 앞선 연구들을 통해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된 문법적 변화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들은 몇몇을 빼고는 대개 1910년 이전으로 연구 대상 시기가 한정된다. 따라서 앞선 연구들에서 밝혀진 문법적 변화가 1910년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어졌는지, 그 외에 새로운 특징들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앞선 연구의 흐름을 이어가며 1920~1940년대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3. 연구 자료와 방법론

이 연구는 말뭉치 언어학(Corpus Linguistics)의 방법론을 따른다[13]. 말뭉치 언어

13) 언어학 연구에서 말뭉치가 활용되기 시작한 계기는 1960년대에 브라운 말뭉치(Brown Corpus)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브라운 말뭉치를 시작으로 1970~1980년대에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말뭉치가 구

학은 실제 쓰인 대량의 언어 자료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뒤, 연구 대상과 관련된 용례를 추출해 이를 분석함으로써 언어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연구 방법이다. 말뭉치는 특정한 모집단의 언어 사용을 대표하는 자료이다. 즉, 특정 말뭉치에 나타난 언어 현상에 대한 분석 결과는 특정 모집단의 일반적인 언어 사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려한 뒤 모집단의 언어 사용 양상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말뭉치를 설계해야 한다.

서상규·한영균(1999)는 말뭉치를 "일정한 규모 이상의 크기를 갖추고 내용적으로 다양성과 균형성이 확보된 자료의 집합체(27쪽)", 또는 "실제로 사용된 말이나 글을 언어 자료로서 모아 만든 대량의 데이터베이스(28쪽)"라고 정의하였다. 말뭉치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지만, 위의 두 정의에 나타난 것처럼 '실제 사용된 구어 또는 문어 자료'라는 점과 '언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라는 점, 포함된 자료의 내용이 편중되지 않고 '다양성' 및 '균형성'을 갖추었다는 점, '대규모'라는[14] 점이 공통된 특성이다.

말뭉치는 "모국어 화자의 직관이나 언어 능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언어 현상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증거로 이용되거나 실제 언어생활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홍윤표, 2012:62-63)." 말뭉치 언어학적 방법론은 언어 현상에 대한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에서 모두 강점을 갖는다. 거시적 관점에서 말뭉치 분석이

축되었고 1990년대에 이후로는 말뭉치의 규모가 1억 어절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영어권을 중심으로 한 말뭉치 언어학의 역사에 대해서는 Johansson(2008)를 참고할 수 있으며 ICAME 웹사이트 (http://icame.uib.no/)에서 각 말뭉치의 구축 지침과 말뭉치 파일 등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상섭 (1989)에 의해 '뭉치언어학'으로 소개된 이후, 말뭉치가 사전 편찬과 국어학 연구 등에 활용돼 왔다. 1980년대 후반에 연세대학교 사전편찬실에서 사전 편찬용으로 말뭉치를 구축하기 시작한 이후로 1990년대 초부터는 국립국어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KAIST 등의 연구 기관에서 말뭉치를 구축해 왔다.

14) '대량의 말뭉치'란 몇 어절 이상의 말뭉치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말뭉치의 규모는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고 절대적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말뭉치의 종류, 연구 목적, 연구 대상 등에 따라 적절한 규모가 달리 설정될 수 있고, 그밖에도 자료의 한계, 현실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상규(2002:282)에 따르면 말뭉치의 규모를 설정하는 절차에 대해 밝히고 있는 것은 《조선어빈도수사전말뭉치》가 유일하다고 한다.

갖는 이점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전체 언어 자료에서 특정 언어 현상이 갖는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세기 전반기 자료를 눈으로 읽다가 오늘날과는 다른 문법 현상을 보이는 용례를 하나 발견했다고 했을 때, 아날로그 상태의 문헌 자료만을 활용한다면 그 문법 현상이 당대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는지 예외적인 쓰임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특정 필자 혹은 식자공의 실수로 발생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자료를 읽으며 더 많은 용례들을 찾아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량의 전자화된 데이터베이스인 말뭉치를 활용하면 그러한 탐색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찰의 범위 역시 대폭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언어 현상을 기술하면 특정 문법 형태의 분포를 계량화된 수치 자료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용법이 무엇이었는지, 예외적 용법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미시적 관점에서 말뭉치 분석이 갖는 이점은 대량의 용례 분석을 통해 세밀한 용법을 기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언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수만 개 이상의 용례를 분석하면 한 연구자의 직관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상세한 용법을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은 현대국어 연구에서도 물론 유의미하지만 연구자의 직관이 거의 통하지 않는 시기의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아날로그 형태의 문헌이 아닌 말뭉치를 활용하면 관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

이 연구는 20세기 전반기 한국어 문장에 나타난 문법적 특징을 밝히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20세기 전반기 한국어 문어'라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말뭉치를 구성해야 했다. 이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당시의 문헌 중 여러 사용역에 속한 텍스트를 종합해 균형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이겠지만, 말뭉치의 균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대국어 균형 말뭉치의 경우도 과연 어떤 장르를 몇 %씩 포함시켜야 현대인의 언어 사용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20세기 전반기 자료는 문자나 문체의 선택

에 따라서도 언어 사용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균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대국어 균형 말뭉치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세기 전반기의 여러 자료를 종합해 균형 말뭉치를 구성하지 않고 당시에 계층과 지역을 막론하고 널리 읽혔던 대중 잡지 『삼천리』를 말뭉치 구축의 대상 자료로 선택하였다[15]. 이 말뭉치에 포함된 자료는 1929년에서 1942년에 발행된 잡지 기사이기 때문에, 보다 엄밀히 말해 이 말뭉치가 대표하는 모집단은 1920~1940년대 대중 매체에 사용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뒤 시기와의 차이를 통해 20세기 전반기 언어 사용 양상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역사 말뭉치와 현대국어 균형 말뭉치를 보조 말뭉치로 이용하였다. 이어지는 1.3.1과 1.3.2에서 이 연구에 사용된 주말뭉치와 보조 말뭉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1.3.1. 주 말뭉치:《삼천리》

약 290만 어절의 《삼천리말뭉치(이하, 삼천리)》는 대중 잡지 『삼천리』를 토대로 구축된 원시 말뭉치이다. 『삼천리』는 1929년 6월 12일부터[16] 1942년 1월 1일까지 발행된 월간 종합지로, 파인(巴人) 김동환(金東煥)에[17] 의해 창간되었다. 13년 동안 총 152호가 발행된 『삼천리』는 당대의 잡지들 중 보기 드물게 오랜 기간 동안

15)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에서 구축한 원시 말뭉치 《太陽말뭉치(이하, 太陽》도 1895년부터 1928년까지 일본에서 발행된 대중적 종합잡지 『太陽』의 기사로 구성돼 있다. 이 말뭉치에는 1895년, 1901년, 1917년, 1925년에 발행된 약 3,400개의 기사(약 1,450만 자)가 포함돼 있다.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이 말뭉치를 토대로 19세기 말~20세기 전반기 일본어에 대한 논문집을 출판하였다(國立國語硏究所編 2005). 제1부에서는 잡지 『太陽』의 성격과 말뭉치의 설계 방법을 기술하였고, 검색 도구 '히마와리(ひまわり)'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부는 《太陽》를 활용한 어휘, 문법, 문자와 표기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어휘에 대한 연구에는 한자어 '우수(優秀)'의 정착과 어휘 형성, 글자의 순서가 상반된 2자 한자어 '략탈(掠奪)-탈략(奪掠)', '현출(現出)-출현(出現)' 등의 쓰임, 외국 지명 표기에 나타나는 한자 표기와 가타카나 표기, 역접 접속사와 접속어구에 대한 연구가 있다. 문법에 대한 연구에는 'そして'의 용법에 관한 연구, 부사 'どても'에 관한 연구, 존경 대우 표현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문자와 표기에 대한 연구로는 한자의 실태와 처리 방법, 탁점 문자 사용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16) 발행 날짜는 6월 12일이지만 7월호로 발행된 것이다.

17) 김동환의 생애에 대해서는 김영식(1994), 김영식 편(2002), 오성호(2001) 등이 참고가 된다.

지속적으로 발행된 잡지이다[18].

<그림 1> 『삼천리』 표지(왼쪽부터 1929년 7월호(창간호), 1932년 12월호, 1942년 1월호(종간호))



『삼천리』는 단일한 편집 체제 하에서 장기간 동안 발행된 20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언어 자료이다. 종합지인 만큼,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등의 문예물과 논설문, 설명문, 보도문, 편지 등 여러 장르가 포함돼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사가 두루 실렸다. 천정환(2008)은 『삼천리』를 일제 강점기 최대의 잡지로 꼽으며 “거의 유일하게 1930년대 전체를 관통하여 발간된 잡지로서 1930년대 조선 사회 제 영역의 변화가 다 담겨 있는 매체”라고 평하였다. 그밖에도 언어 자료로서 『삼천리』가 갖는 가치는 필진의 대표성과 폭넓은 독자층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김동환은 동아일보, 시대일보(중외일보), 조선일보 등 여러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다가 『삼천리』를 창간했는데, 언론계에서 쌓은 폭넓은 인맥 덕분에 당대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던 필진을 두루 섭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구, 서재필,

18) 정진석 외(1995)의 「한국잡지 100년」에 정리된 연표를 참고로 『삼천리』와 같은 시기, 즉 1929~1942년 사이에 발행된 잡지들의 발행 기간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총 406개의 잡지 중 10년 이상 발행된 잡지는 28개로 약 6%에 불과했다. 또한 총 152호가 발행되었던 『삼천리』보다 발행 호수가 많았던 잡지들은 5개뿐이었다. 『天道敎會月報』가 296호, 『靑年』이 185호, 『活泉』이 241호, 『아희생활』이 218호, 『新人間』이 189호 발행되었는데 이들 잡지는 모두 종교 단체에서 특정 독자층을 위해 간행한 잡지였다. 이렇게 볼 때 대중종합지로서 『삼천리』의 발행 기간 및 총 발행 호수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신채호, 안창호, 여운형, 윤치호, 이상재, 이승만, 최린 등의 정계 인사가 필진으로 참여했고, 김동인, 심훈, 이광수, 이상, 이태준, 이효석, 장혁주, 전영택, 채만식, 한설야, 홍명희, 현진건 등의 소설가, 김소월, 서정주, 이육사, 정지용, 주요한, 최남선, 한용운 등의 시인들도 활발하게 글을 기고했다. 또한 김활란, 나혜석, 노천명, 모윤숙, 최정희 등 여성 지식인이나 나운규, 박기채, 복혜숙 등의 영화계 인사, 삽화가 안석주, 무용가 배구자와 최승희, 작곡가 김동진과 홍난파, 만담가 신불출, 마라톤 선수 손기정, 화가 이현옥, 판소리 명창 송만갑, 어학자 김윤경, 이희승, 최현배 등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던 인사들이 『삼천리』에 글을 실었다[19].

『삼천리』는 당대를 대표하던 다양한 필진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대중성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삼천리』가 추구했던 대중성은 창간호의 편집 방침에도 잘 드러나 있다.

(2) 『삼천리』 창간호 社告

一. 훨씬 갑이 싼 雜誌를 만들자

二.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또 버릴 記事라고 업는 雜誌를 만들자

三. 民衆에게 利益되는 좋은 雜誌를 만들자

이 세 가지는 『삼천리』 雜誌의 編輯上 根本方針이외다.

편집 방침에서 값이 싸고[20]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잡지, 민중에게 이익이 되는 잡

19) 필자들의 연령대에 있어서도 『삼천리』는 다른 잡지들에 비해 넓은 폭을 보였다. 유석환(2009:258)에 따르면 『삼천리』와 동시대에 발행되었던 『신동아』, 『비판』의 경우 필자들이 주로 30대 신진 문인들이었던 데 반해 『삼천리』는 30대 문인들과 40대 이상의 문인들이 골고루 섞여 있었다.

20) 당시에 발행된 잡지들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김동환의 편집 방침대로 『삼천리』의 가격이 유독 저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천리』는 15전에서 시작해 1930년대에는 거의 정가를 20전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1930년 4월호처럼 특대호로 발행한 경우에만 30전으로 가격을 올렸다. 개벽사의 『별건곤』은 보통호는 52전, 증대호는 72전으로 『삼천리』보다 두 배 이상 비쌌다. 물론 1930년경 『삼천리』의 쪽수는 대개 70쪽 안팎이었던 반면 『별건곤』은 170쪽이 넘어 분량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삼천리』는 이후 지면을 증대하면서도 가격은 그만큼 올리지 않았다. 1935년에 『삼천리』는 면수가 300쪽에 달했지만 가격은 30전 정도였다. 당시 단행본 소설의 가격이 보통 1~2원 사이였던 것과 비교해 보아도 『삼천리』의 염가 전략을 알 수 있다.

지를 만들겠다고 한 것처럼 『삼천리』는 삼천리강산에 살고 있는 모든 대중을 독자로 상정한 잡지였다. 그리고 당대의 기록을 보면 『삼천리』가 표방한 대중성과 판매 전략이 실효를 거두었던 것을 알 수 있다[21].

(3) a. 「三千里」의 내용에는 저급이라할 만한 목차가 없지 아니한 것은 아니외다마는 얼마나 그것이 일반 독자급의 호의를 만족시킬 만한 것입니다. 씨는 분명히 자신의 詩歌의 핵심을 잡듯이 조선 독자 대중의 心像을 잡은 기자외다. 무엇보다도 염가를 잡지에도 단행본에도 표방하는 것을 보아도 씨의 선견을 알만하외다. <1931-08-04-동광24>

b. 그는 벌서 立志傳中의 인물이라고 하기에 足하다. 잡지계의 一高峰인 『三千里』가 거의 그 개인을 그 보다도 然驚異라고 아니할 수 없다.<1932-07-03-동광35>

(3a)는 잡지 『동광(東光)』에 실린 김만(金萬)의 만평 "잡지 기자 만평, 김동환"에서 인용한 것으로, '저급'이라 할 수 있는 글도 있지만 일반 독자급의 호의를 만족시킬만한 것이었으며 김동환의 전략은 조선 독자 대중의 심상을 잡았다고 평가하였다. (3b)는 『동광』에 실린 김기림(金起林)의 "김동환론"에서 발췌한 것으로, 글의 전체적인 요지는 『삼천리』가 저급한 오락 잡지로 타락하게 될까봐 우려를 표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삼천리』를 잡지계의 일고봉이라 평하였다.

하지만 『삼천리』가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것은 단지 가십성 기사가 많았다거나 오락성을 띠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종합지의 성격상 장르나 기사의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독자의 폭이 넓었던 것이다. 유석환(2009:248)에서 『삼천리』의 편집 방침을 '혼합주의'라고 하며 "잡지의 내용상 『삼천리』는 1920년대식으로 말한다면, 『개벽』과 『별건곤』을 뒤섞어놓은 잡지였다."

21) 오성호(2001:51)에서 『삼천리』의 최고 발행 부수가 1만 부에 달했다고 하였는데, 삼천리사에서 스스로 '수만 독자층'을 언급한 기록도 보인다.

예) 끗흐로 수만 독자 諸氏 過歲 안녕히 하시기를 바라나이다.(파인)<1931-12-삼천리03-12-103>

예) 「삼천리」의 수만 독자 중 일 년에도 여러 백명 여러 천명이 관동팔경의 승지인 이 금강산을 차저 보섯슬 것도 상상하기 족한 일이라<1931-06-삼천리03-06-74>

라고 한 것처럼, 실제로 『삼천리』에 실린 기사를 보면 한 호 안에 지식인들의 흥미를 끌 만한 정론적 성격의 기사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통속적 기사가 뒤섞여 있었다. 예를 들어, '최근 비률빈의 반미 운동'이란 제목의 기사와 '초하의 신에로틱'이란 제목의 기사가 한 호에 실려 있는 식이다. 또한 1920년대에 실력양성론자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양분되어 있던 지식인 계층을 포괄하는 전략을 취해, 소위 부르주아 문화파라 불리던 계몽주의 실력양성론자의 글과 사회주의 계열 작가의 글이 함께 게재되는 등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주의적 성격을 띠었다[22].

20세기 전반기는 인쇄·출판업이 전례 없는 성황을 맞았던 시기인 만큼[23] 당시의 언어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 역시 그 종류와 양이 무척 방대하다. 하지만 수많은 자료 중 그 당시 언어 실태의 전체적인 상을 보여주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교과서나 소설처럼 특정 장르에 국한된 자료는 그 장르 내에서의 언어 사용 양상만을 보여줄 뿐이다. 물론 여러 장르의 자료를 두루 모아 연구 자료를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존재하는 자료 중에 단일한 체제 하에서 구성되었으면서도 분량이나 장르, 필자, 독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대표성을 띤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우선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삼천리』라는 하나의 자료 안에 나타난 언어 현상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지만, 뚜렷한 기준 없이 여러 가지 성격의 자료를 뒤섞었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

22) 당대 발행되었던 잡지들에 비해 『삼천리』가 갖는 독보적인 대중성에 대해서는 천정환의 언급이 참고가 된다. "『삼천리』는 『개벽』·『조선지광』·『동광』처럼 특정 단체나 이데올로그들의 주장을 주로 대변하는 잡지가 아니었고, 또 『신동아』나 『조광』처럼 식민지자본의 이해를 본격적으로 대변하는 잡지도 아니었다. 『삼천리』는 단일한 정치적 목적 없이 김동환 1인에 의해 설치된 장으로서 보다 순수하게(?) 대중적 저널리즘의 길을 걸었다(천정환, 2008:219)".

23) 대한인쇄문화협회 사이트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중에서도 특히 1930년대 인쇄업의 발전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인쇄업계의 발전이 거듭되어 한국인 경영의 인쇄소들이 많이 생겨났고 시설도 증대되었다. 1930년도에 215개의 공장에서 4,146명이 종업원이 818만원의 생산액을 기록한 인쇄 및 제본업은 1939년도에는 313개 공장에 8,403명의 종업원이 1,838만원의 생산액을 올림으로서 10년 사이에 공장 수는 46%, 종업원 수는 103%, 생산액은 125%의 성장을 하였다(출처: http://www.print.or.kr/durtk/rmseo8.htm)."

과를 추후 다른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고,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자료의 성격에 근거해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를 위해 84호 분량의 『삼천리』를 대상으로 기사들을 선별하여 연구용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잡지에 개제된 모든 기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전문이 일본어로 작성된 기사나[24] 이미지 위주의 기사[25], 한시와 시, 광고[26], 전화번호 목록 등은 제외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축된 《삼천리》는 3,064개 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869,131어절이다. 각 호별 기사의 수와 어절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삼천리》의 호별 기사 수와 어절 수

권호	발행연월	기사 수	어절 수	권호	발행연월	기사 수	어절 수
1권 1호	1929년 6월	34	18,542	7권 5호	1935년 6월	46	54,827
1권 2호	1929년 9월	34	23,711	7권 6호	1935년 7월	55	47,448
1권 3호	1929년 11월	24	15,432	7권 7호	1935년 8월	34	44,020
2권 1호	1930년 1월	16	13,378	7권 8호	1935년 9월	43	37,401
2권 2호	1930년 4월	14	15,149	7권 9호	1935년 10월	44	37,528
2권 3호	1930년 5월	31	21,889	7권 10호	1935년 11월	43	42,317
2권 4호	1930년 7월	31	21,755	7권 11호	1935년 12월	45	44,398
2권 5호	1930년 9월	27	20,648	8권 1호	1936년 1월	38	46,446
2권 6호	1930년 10월	20	22,554	8권 2호	1936년 2월	39	44,309
2권 7호	1930년 11월	22	20,922	8권 4호	1936년 4월	47	54,968
3권 1호	1931년 1월	28	20,531	8권 6호	1936년 6월	43	33,755
3권 2호	1931년 2월	22	22,537	8권 8호	1936년 8월	29	35,822
3권 3호	1931년 3월	25	20,529	8권 11호	1936년 11월	32	31,615
3권 4호	1931년 4월	28	26,695	8권 12호	1936년 12월	40	45,166
3권 5호	1931년 5월	33	20,700	9권 1호	1937년 1월	34	45,079
3권 6호	1931년 6월	32	25,576	9권 4호	1937년 5월	29	20,382
3권 7호	1931년 7월	36	29,136	10권 5호	1938년 5월	54	57,907

24) 전문이 일본어로 작성된 기사는 1940년대부터 급증하였는데, 1941년 9월에 발행된 13권 9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일본어 기사여서 말뭉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사의 수가 매우 적었다.

25) 이미지 위주의 기사란 전면에 사진이 개제되고 아래쪽에 사진에 대한 설명이 한 줄 이내로 달려 있는 기사를 말한다. 『삼천리』는 사진 등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잡지로, 주로 한 호의 시작 부분에 해당 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진을 한 면이 가득 찰 정도의 크기로 실어 놓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기사의 사진 설명은 말뭉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텍스트의 중간중간에 작은 사진이 삽입된 기사는 글이 주를 이루고 이미지는 보조적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말뭉치에 포함시켰다.

26) 광고를 말뭉치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같은 광고가 여러 호에 반복적으로 실리기 때문에, 용례 검색 시 같은 용례가 수십 번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권 9호	1931년 9월	36	27,425	10권 8호	1938년 8월	46	51,332
3권 10호	1931년 10월	43	43,969	10권 10호	1938년 10월	45	56,845
3권 11호	1931년 11월	46	32,907	10권 11호	1938년 11월	37	48,344
3권 12호	1931년 12월	34	30,715	10권 12호	1938년 12월	31	46,082
4권 1호	1932년 1월	36	38,636	11권 1호	1939년 1월	27	42,345
4권 2호	1932년 2월	39	32,210	11권 4호	1939년 4월	25	32,186
4권 3호	1932년 3월	42	29,434	11권 7호	1939년 6월	38	38,123
4권 4호	1932년 4월	39	31,620	12권 3호	1940년 3월	38	41,343
4권 5호	1932년 5월	34	22,352	12권 4호	1940년 4월	28	34,757
4권 6호	1932년 5월	23	20,694	12권 5호	1940년 5월	34	40,909
4권 9호	1932년 9월	25	26,299	12권 6호	1940년 6월	31	46,721
4권 10호	1932년 10월	37	24,258	12권 7호	1940년 7월	31	33,723
4권 12호	1932년 12월	40	31,283	12권 8호	1940년 9월	32	29,523
5권 1호	1933년 1월	48	29,784	12권 9호	1940년 10월	38	37,166
5권 3호	1933년 3월	37	28,977	12권 10호	1940년 12월	28	31,076
5권 4호	1933년 4월	42	31,574	13권 1호	1941년 1월	29	33,400
5권 9호	1933년 9월	72	29,633	13권 3호	1941년 3월	48	40,531
5권 10호	1933년 10월	52	27,239	13권 4호	1941년 4월	26	24,489
6권 5호	1934년 5월	76	43,291	13권 6호	1941년 6월	45	34,568
6권 7호	1934년 6월	76	50,231	13권 7호	1941년 7월	25	21,831
6권 8호	1934년 8월	43	38,470	13권 9호	1941년 9월	7	3,150
6권 9호	1934년 9월	45	44,500	13권 11호	1941년 11월	11	6,736
6권 11호	1934년 11월	45	44,272	13권 12호	1941년 12월	25	17,051
7권 1호	1935년 1월	78	107,222	14권 1호	1942년 1월	21	20,422
7권 2호	1935년 2월	38	50,476	종합		3,064	2,869,131
7권 3호	1935년 3월	40	55,935				

종합 잡지를 바탕으로 한 만큼 《삼천리》에는 여러 장르의 텍스트가 골고루 포함돼 있다. 아래의 <표 2>는 《삼천리》에 포함된 텍스트를 크게 문학과 비문학으로 분류하고 각각을 세부 장르로 나눈 구성표이다.

<표 2> 《삼천리》의 장르 구성

분류	장르	백분율	어절 수
문학 (44%)	소설	12%	348,041
	수필	14%	414,489
	기행문	6%	164,436
	회고 및 수기	12%	343,813
비문학 (56%)	논설	25%	706,355
	보도	15%	441,679
	비평	6%	180,144
	설문 조사	5%	132,283
	사고 및 편집 후기	1%	16,151
	기타	4%	121,740
총합		100%	2,869,131

문학 텍스트가 전체 말뭉치에서 44%를 차지하고 비문학 텍스트가 56%를 차지했다. 문학 텍스트 중에는 상상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소설이 12%였고 나머지가 비상상적 텍스트였는데, 이를 다시 세분해 보면 수필이 14%, 기행문이 6%, 회고 및 수기가 12%였다. 비문학적 텍스트 중에는 논설이 25%, 보도 기사가 15%, 문예 비평이나 세태 비평 등 비평적 성격의 글이 6%, 설문 조사의 결과를 담은 글이 5%, 삼천리사에서 게재한 광고나 편집 후기가 1%, 그밖에 유머나 표어 등을 담은 잡저 성격의 기타 텍스트가 4%였다.

《삼천리》는 기사별 헤더(header)와 마크업(markup) 정보만 부착된 원시 말뭉치이다. 헤더란 표본의 시작 부분에 부착된 글의 출처에 관한 정보이다. 이 연구에서 구성한 헤더는 기본적으로 장르, 제목, 필자, 출전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장르는 <g>, 제목은 <t>, 필자는 <a> 태그로 표시하였고[27] 출전은 < > 안에 줄표를 매개로 발행연월, 잡지명과 권호, 쪽수에 관한 정보로 구성하였다[28]. 다음은 《삼천

27) 기사에 따라 제목이 없는 경우는 제목 태그에 <t>*****</t>로 표시하였으며 무명으로 작성된 기사의 경우는 필자 태그에 <a>***로 표시하였다.

28) 말뭉치 구축 시 본문 마크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문단이나 문장 경계에 <p>나 <s> 태그를 달아 주지만 본 연구에서 검색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깜짝새 프로그램은 < >를 출전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단이나 문장마다 <p>, <s> 마크업을 해 두면 용례를 추출했을 때 원래의 출전 정보 대신 </p>나 </s>가 출전 정보로 나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시 말뭉치와 달리 문단 및 문장 태그는 부착하지 않았다.

리》 헤더의 기본 형식을 보여주는 예이다.

(4) <g>논설</g>
<t>新興中國展望, 中國當代의 代表人物</t>
<a>朱耀翰
<1931-06-삼천리03-06-47>

위에 제시된 헤더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해당 기사가 논설의 장르적 성격을 가졌으며 제목은 '신흥중국전망, 중국당대의 대표인물'이었으며 글의 저자는 '주요한'이라는 점, 그리고 해당 기사가 1931년 6월에 발행된 삼천리 3권 6호 47쪽에 실려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헤더의 형식은 기사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필자가 소제목을 달아 글을 기고한 기사는 기사의 시작 부분에 상위 헤더를 달고, 필자별 기사의 시작 부분에 하위 헤더를 부착하였다. 다음은 상위 헤더와 하위 헤더의 형태를 보여주는 예이다.

(5) <g>설문</g>
<t>基督 天道敎 兩大陣營 緊張, 三千萬 敎徒와 新首惱部 動向</t>
<a>st
<1935-01-삼천리07-01-17>

…(설문의 취지에 관한 기술)…

<st>門戶開放, 人材聚集이 急</st>
<stn>許憲</stn>
<1935-01-삼천리07-01-19>

…(설문에 대한 허헌의 답변)…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이 기사는 설문의 성격을 가졌으며 제목은 '기독 천도교 양 대진영 긴장, 삼천만 교도와 신수뇌부 동향'이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보면 <a>st는 저자가 2명 이상이기 때문에 저자에 관한 정보는 <st>로 시작되는 하위 헤더에 가서 찾아보라는 정보가 제시돼 있다. 그 다음에는 출전 정보가 있고, 개별 저자들의 답변이 실리기 전에 먼저 설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그리고 소제목(subtitle)을 뜻하는 <st> 태그로 시작되는 하위 헤더에서는 '문호개방, 인재취집이 급'이라는 답변 글의 제목과 답변을 쓴 저자의 이름이 표시되고 다시 하위 헤더가 시작되는 부분의 출전 정보가 부착돼 있다.

지면 관계상 하나의 기사가 여러 쪽에 분산되어 실린 경우, 기사의 순서를 조절해 하나의 기사로 묶어 두었다. 예를 들어, 1934년 5월호에 '朝鮮에 태여난 것이 幸福한가 不幸한가' 라는 제목의 설문이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이 78~81쪽 그리고 139쪽에 나뉘어 실렸다. 이 기사는 원문에서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만 말뭉치에서는 하나의 상위 헤더 아래 통합시켰다. 그리고 복합 장르적 성격의 글은 장르별로 분리하여 별도의 헤더를 부착하였다. 원문에 문학 평론과 평론의 대상이 된 작품이 하나의 기사로 묶여 있는 경우, 이를 평론과 소설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헤더를 따로 부착한 것이다.

말뭉치 용례 분석에 사용한 도구는 전주대 소강춘 교수팀이 개발한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 깜짝새(SynKDP)'이다[29]. 아래의 그림은 깜짝새 활용의 한 예로, '1음절 한자+하다' 구성을 갖는 용언의 용례를 추출한 화면이다.

29)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Synthesized Korean Data Processor: SynKDP)인 깜짝새는 전주대 소강춘 교수팀(소강춘, 김진규, 박진양)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음소, 음절, 어절 단위의 빈도 추출, 현대어 및 고어 검색, KWOC, KWIC 색인 작성 등의 기능이 있다. 깜짝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강춘(2002)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림 2> 깜짝새를 이용한 용례 검색의 예: '1음절 한자+하다' 구성의 용언 검색

검색어와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누르면 열려있는 말뭉치 파일에서 검색어를 포함한 용례들이 추출되는데, 키워드 앞뒤의 문맥과 출전 정보가 함께 표시된다[30]. 깜짝새로 검색을 할 때 특히 유용한 기능은 조건 검색 기능이다. 그림 상단의 조건 창에 걸쳐 있는 작은 박스를 보면 '1=초성, 2=중성' 등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조건 창에 '1'을 입력하면 키워드의 해당 음절과 초성만 일치하는 용례들이 추출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는 검색어 창에 '_뭐하'가[31], 조건 창에 '781'이 입력돼 있다. 검색어의 시작을 빈 칸으로 하고 조건을 '7=음절'로 설정한 이유는 어기를 1음절로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검색어 '뭐'에 걸리는 '8=아무개'라는 조건은 그 자리에 어떤 음절이 있어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에는 '1=초성'이라는 조건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검색어의 세 번째 자리에는 초성이 'ㅎ'인 모든 용례들이 추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加함, 加해, 加햇, 可하'처럼 '하다'의

30) 그밖에도 앞뒤 문맥에서 검색 범위를 지정해 해당 범위 내에 특정 키워드가 나타나는 용례들을 따로 추출할 수 있어 공기 관계 연구에도 유용하다. 그리고 추출된 용례들을 대상으로 키워드 정렬이나 앞 문맥, 뒤 문맥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렬할 수도 있다(<그림 2>는 키워드가 가나다순으로 정렬된 상태이다).

31) '_'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를 눌러 만드는 빈 칸을 의미한다(이하 동일).

활용형을 두루 검색할 수 있다[32].

1.3.2. 보조 말뭉치:《세종역사》, 《1890-1900학회지》, 《현대》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특징을 밝힌다는 것은 곧 앞뒤 시기와의 차이를 밝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삼천리》의 분석 결과를 중세·근대국어 말뭉치 분석 결과 및 현대국어 말뭉치 분석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연구 책임자: 서상규)의 일환으로 구축된 《21세기 세종계획 역사자료 말뭉치》와 국립국어원(연구 책임자: 김한샘)에서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를 목적으로 구축한 《현대국어 빈도 조사용 말뭉치(이하, 현대)》를 보조 말뭉치로 활용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 역사자료 말뭉치》는 15~20세기 초기의 자료로 구성된 원시 말뭉치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배포한 파일 중 20세기 파일이나 연대 미상 파일은 제외하고 15~19세기 자료만으로 말뭉치를 재구성해 《세종역사》를 만들었다. 《세종역사》에는 불경언해, 경서언해, 간찰, 일기, 고소설 등이 포함돼 있는데, 자세한 목록은 국립국어원(2007:595-632)에 기술돼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세종역사》는 약 320만 어절이다. 용례 검색기로는 《삼천리》와 마찬가지로 깜짝새를 사용하였다.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되는 문법 형태 중에는 근대국어 시기까지는 쓰이지 않다가 19세기 말부터 새로 나타난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세종역사》와 《삼천리》에 쓰인 용례를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한해 《1890-1900학회지》 말뭉치를 사용하고자 한다. 《1890-1900학회지》는 약 35만 어절의 원시 말뭉치로,

32) 물론 이 말뭉치는 문법적 주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시말뭉치이기 때문에 '_못해' 등의 불순물들을 눈으로 일일이 확인한 뒤 제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用케 하다' 등에서와 같이 '하다'의 'ㅎ'이 축약된 용례들을 찾기 위해 키워드에 '_뭐코(781)'를 넣고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역사 자료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품사 주석의 기준 마련과 주석 도구의 개발, 주석 말뭉치의 구축, 주석된 역사 말뭉치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도구의 개발 등 말뭉치 언어학의 당면 과제들을 환기시킨다.

1890~1900년대에 발행된 학회지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뭉치에 포함된 학회지에는 『대조선독립협회회보(1896-1897)』, 『대한자강회월보(1906-1907)』, 『서우(1906-1908)』, 『대한유학생회학보(1907)』, 『기호흥학회월보(1908-1909)』, 『대동학회월보(1908-1909)』가 있는데 이 학회지들은 잡지라는 근대적 매체가 처음 나타났을 무렵에 발행된 것이다. 이들 학회지에 쓰인 문장은 아직 한문의 영향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당시 새로 생겨난 어휘나 문법 형태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몇 십 년 후에 발행된 《삼천리》와 비교해 보기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890-1900학회지》는 말뭉치의 규모가 《삼천리》의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계량적 분석 결과를 비교할 때에는 빈도의 정규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말뭉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체 말뭉치 크기를 300만 어절이라 가정하여 환산한 정규화 빈도를 제시할 것이다.

한편, 《삼천리》의 분석 결과를 오늘날의 언어 사용 양상과 비교하기 위해 1990년 이후의 자료로만 구성된 《현대》를 보조 말뭉치로 활용하였다. 《현대》는 국립국어원에서 2005년도에 현대국어의 사용 빈도 조사를 위해 구축한 300만 어절 규모의 균형 말뭉치로 어휘 분석이 되어 있는 주석 말뭉치이다. 이 말뭉치는 문어와 구어를 포괄하는데 그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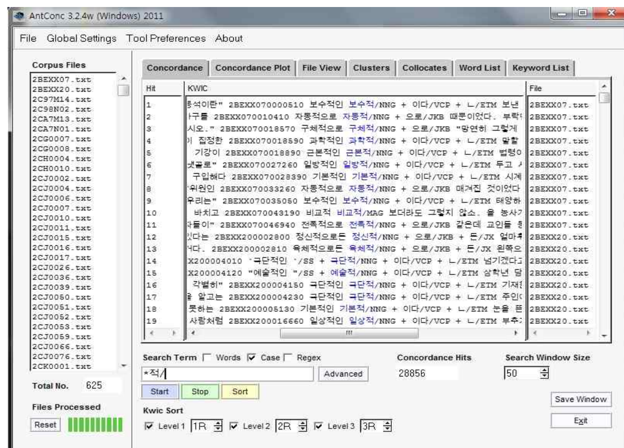
<표 3> 보조 말뭉치《현대》의 장르 구성

장르	백분율	하위 장르	장르별 어절 수	하위 장르별 어절 수
구어	9%	순구어	274,662	195,490
		준구어		79,172
문학	25%	동화	762,274	73,534
		소설		534,338
		희곡/대본		154,402
신문	20%	기타/대화/인터뷰	594,444	36,058
		문화/매체/과학		118,431
		사설/칼럼		116,973
		스포츠/연예/취미/생활		93,512
		정치/사회/경제/외신/북한/종합		229,470
잡지	10%	잡지	289,560	289,560
정보	36%	교육자료	1,079,068	97,381
		체험기술		146,999
		사회		162,984
		예술/취미/생활		164,857
		인문		254,167
		자연		134,905
		총류		117,775
총합	100%		3,000,008	3,000,008

《현대》의 검색 도구로는 와세다(早稻田) 대학의 Laurence Anthony가 개발한 AntConc 3.2.4w를 사용하였다[33]. AntConc는 임의 문자 기호(wildcard)에 의한 검색을 지원한다. 임의 문자 기호란 '*', '+', '@', '#' 등으로, 각각은 '영 또는 그 이상의 문자', '영 또는 하나의 문자', '영 또는 하나의 단어', '임의의 한 단어'를 의미한다. 다음은 《현대》에 쓰인 모든 '-적' 파생어를 찾기 위해, '*적'으로 검색한 화면이다.

33) AntConc는 교실 내에서의 사용을 위해 개발된 말뭉치 분석 도구로, 검색어에 대한 색인 기능과 더불어 말뭉치 파일 내의 검색어의 출현 위치를 그림으로 보여 주는 플롯(plot) 기능, 말뭉치에 사용된 모든 단어의 목록을 제공하는 기능 등이 있다. AntConc의 기능과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thony(2004)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림 3> AntConc를 이용한 용례 검색의 예: ‘-적’ 파생어 검색



이 연구에서 사용한 《현대》 말뭉치는 일부 접미사를 제외하고는 접미사를 주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이라는 글자를 포함한 어절로 검색을 해야 한다. ‘*’이 영 또는 그 이상의 문자를 찾아 주기 때문에 어기가 한 글자인 ‘-적’ 파생어와 두 글자 이상인 ‘-적’ 파생어를 모두 찾을 수 있다34).

지금까지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고 앞선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으며 연구 자료로 삼은 『삼천리』의 언어학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언어적 변이와 변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말뭉치 언어학적 분석이 갖는 장점을 설명하고 원시 말뭉치인 《삼천리》의 구축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말뭉치를 이용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을 기술함으로써 3~4장의 논의에 밑바탕이 된 연구의 기본적 관점을 소개하려고 한다.

34) 하지만 ‘궤적’처럼 ‘-적’ 파생어가 아닌데 ‘적’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용례는 일일이 눈으로 검토한 뒤 삭제해야 했다.

2. 연구의 배경

2장에서는 3~4장의 분석에 앞서 20세기 전반기 국어 문장에 극심한 언어 변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세기 전반기의 언어적 상황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언어 외적 변화로 인해 문장의 형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당시 언어 의식의 변화 및 이로 인한 문장 작법의 변화가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문법적 변이와 갖는 관련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장의 논의를 마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갖는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문법적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 외적 요인과 언어 내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국어사와 문체사의 공동 연구 과제임을 기술할 것이다.

문혜윤(2008:20)이 글쓰기를 "사회적이며 시대적인 어휘의 참고와 문장의 패턴에 의지하는 행위"로 보고 "개인적 문체의 밑바탕에는 역사적인 한 시기에 공유되는 글쓰기의 형식이 작동하고 있"다고 한 것처럼, 특정 개인의 개성적 문체의 밑바탕에는 그 시기의 모어 화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문장의 기본 틀이 존재한다. 김흥수(1988:67)은 이를 "시대적 문체"라고 하였고, 황호덕(2002:20)는 "역사적 표상 체계 혹은 작문 양식"라는 의미의 "에크리튀르"라고 하였으며, 배수찬(2008:16)은 "한 편의 글이 표준으로 삼는 문장의 외양적 형태"라는 의미의 "문장 모델"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용어가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모어 화자들의 직관을 이루는 문장의 기본 틀은 일종의 규범이며 이 규범은 사회적, 역사적 경로를 거쳐 형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20세기 전반기는 문장 쓰기 관습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당시 문장의 문법적 특징을 분석할 때 이러한 점이 특히 중요시 되어야 하는 이유는 20세기 전반기 자료에 나타난 언어적 변이의 상당 부분이 문장의 기본 틀에 대한 선택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매체나 장르의 성격상 보수적인 문장 관습이 선호된 글에는 중세국어 시기 언해문에 나타나던 문법 현상이 더 많이 남아 있었고, 현대화된 문체가 선호되던 글에는 이전 시기 자료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문법 형태나 표현들이 더 많이 쓰였던 것이다.

사용되지 않는 언어는 변하지 않는다. 즉, 언어가 변한다는 것은 언어 사용자들이 집단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다는 의미이다. 한 개인이 아닌 언어 사용자 전체의 정신 작용에 공통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이 장에서는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1은 근대 전환기의 언어 변화가 발생하기 이전의 언어 상황에 대한 논의로, 조선 사회에서 수백 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한문의 위상과 언해문의 문장 쓰기 관습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2에서는 근대 국가의 수립 과정에서 한자문화권의 전통적 질서가 무너지며 언어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과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2.3에서는 문장 쓰기 관습의 변화와 문법적 변이의 관계를 기술하고 20세기 전반기 문장에 대한 연구에서 문체론적 분석과 국어사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2.1. 언해문과 전통적 문장 쓰기 관습

우리말을 적기 위한 글자가 없던 시절에는 향찰, 이두, 구결 등의 방법으로 한자를 빌려 적어야 했지만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에는 한자 없이도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중화(中華)의 질서 속에 있던 조선왕조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에도 여전히 한문이 문어 생활의 중심을 이루었다. 실록을 비롯한 공적인 문서는 모두 한문으로 작성되었고 관리의 선발 시에도 한문의 문장력이 평가의 주된 기준이

되었다. 한글은 한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부녀자나 하층민이 주로 사용했고 이들이 남긴 기록은 일기나 편지 등 사적인 기록물로 남아 있다. 한편, 한문이나 백화문으로 된 문헌 중 일부는 우리말로 번역・간행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언해문(諺解文)에는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펴낸 불경언해와 교정청(校正廳)에서 펴낸 경서언해, 백화문 학습서, 농사・의학 등과 관련된 실용서 등이 있었다.

언해문은 국어 문장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일단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어휘와 문법 형태를 연구하기 위한 1차 자료의 대부분이 언해문이다. 또한 김미형(1997:37-38)이 "국어 문장의 문자 정착의 첫 시기에 언해문이 왕성하게 쓰여졌고 이 문장 습관이 우리 옛 문장의 유형을 형성하는 데에 다분히 영향을 끼쳤"다고 한 것처럼, 언해문의 문장은 수백 년 동안 국어 문장의 전형을 이루었다. 즉, 언해문 문장의 특징은 번역문이 아닌 창작문에도 널리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20세기 전반기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이다(홍윤표, 2008b:348).

언해문은 한문을 직접 우리말로 옮긴 게 아니라 구결문을 매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구결문은 한문의 구두점이 찍힐 자리에[35] 국어 조사나 어미 등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구결 형태를 첨가한 것이다. 한문 원문과 언해문 사이에 구결문이 존재했다는 점은 김완진(1960), 남풍현(1972), 김상대(1985), 윤용선(2003), 홍윤표(2004), 박진호(2007) 등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이 연구들은 주로 『능엄경언해』 김수온의 발문이나[36] 『금강경언해』 한계희의 발문을[37] 근거로 하였다. 그 중 언해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분석한 것은 홍윤표(2004:43)로, 『능엄경언해』 발문을 토대로 언해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10단계로 세분하였고 문헌의 기록을 토대로 단계별 참여

35) 김상대(1985:27-46)에 따르면 구결은 대개 한문의 구두점이 찍힐 자리에 나타나지만 그밖에도 한문의 기능어가 나타날 때나 한문 구절에서 국어 어순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구결이 첨가되었다.

36) "恭惟我主上殿下 … 特徹乙覽 親加口訣 正其句讀 命工曹參判臣韓繼禧及臣守溫 悉以國語依文而譯 (우리 전하께서…철저히 보시고 친히 구결을 더하여 그 句讀을 바르게 하고 공조참판 한계희와 신 수온에게 명하여 모두 우리말로 번역하도록 하였다(윤용선, 2003:41)."

37) "於是親定口訣 臣敬依口訣宣譯 孝寧與僧海超等 更加硏究 凡五日告成 命刊經都監 鏤板印布 (이에 (전하가) 친히 구결을 정하시고 신은 그 구결에 따라 번역하였고, 효령과 승 해초 등이 더 연구하여 5일에 완성을 고하고 간경도감에 명하여 인쇄하고 배포하였다(윤용선, 2003:42)."

자의 수를 함께 제시하였다[38].

<표 4> 홍윤표(2004:43)에서 제시한 언해의 10단계

순서	언해 과정	참여자수
1	구결을 단다	1인
2	그 구결을 확인한다	1인
3	한문과 구결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교정을 한다	1인 이상
4	한글로 번역한다	1인 이상
5	이 번역을 여러 사람이 서로 비교하여 고찰한다	1인 이상
6	예를 일정하게 한다	1인
7	한자음을 단다	1인 이상
8	번역을 교정한다	1인 이상
9	번역을 일정하게 한다	1인
10	번역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확인한다	1인 이상

위와 같은 언해의 절차로 인해 언해문의 문법 형태와 통사 구조에는 구결문의 영향이 두루 반영되곤 했다(남풍현, 1972:14). 1587년에 교정청에서 간행한 『소학언해(小學諺解)』의 예를 통해 언해문의 문법 형태에 미친 구결문의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소학언해』는 주자(朱子)의 『小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의 자제들이 유학(儒學)의 초보 단계에서 보던 학습서였다. 장차 사대부로 자라날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 유학의 도를 익혔을 뿐 아니라 글을 읽어 나가며 자연스럽게 문장의 기본 틀을 익히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문헌을 통한 교육은 지식 전달의 통로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 그 사회의 표준적인 문장이 학습되고 전승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는 『소학언해』 1권에 실린 구결문과 그에 대응되는 언해문을 옮겨온 것이다.

38) 홍윤표(2004)는 『이백시언해(李白詩諺解)』의 구체적인 언해 과정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자료는 『李白 翁 七言』으로 "이태백시 원문을 한문으로 써 놓은 책"이고 두 번째 자료는 『遺響』으로 "한문 원문을 적고 細筆로 구결 및 해석을 달아 놓은 책"이며 세 번째 자료는 『李白 七言』으로 두 번째 자료의 내용을 "언해하여 정리하여 놓은 책"이다. 이 세 자료는 모두 한 명의 필체로 되어 있어서 이를 종합해 보면 『이백시언해』의 언해가 '한문 원문→구결문→언해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 a. 구결문:

孔子ㅣ 曰 弟子ㅣ 入則 孝ᄒᆞ고 出則 第ᄒᆞ며 謹而信ᄒᆞ며 凡愛衆호ᄃᆡ 而親仁이니 行有餘力이어든 則以學文이니라(『소학언해(1587)』 권지일, 14쪽 뒷면)

b. 언해문:

孔子ㅣ ᄀᆞᄅᆞ샤ᄃᆡ 弟子ㅣ 드러는 곧 효도ᄒᆞ고 나는 곧 공슌ᄒᆞ며 삼가고 믿비ᄒᆞ며 모든 사ᄅᆞᆷ을 넙이 ᄉᆞ랑호ᄃᆡ 仁ᄒᆞ니를 親히 홀디니 行홈애 남은 힘이 잇거든 곧 ᄡᅥ 글을 비홀디니라(『소학언해(1587)』 권지일, 14쪽 뒷면)

위의 문장은 인용문을 내포한 복합문이다. 구결문을 보면 원문에서 인용 대상이 되는 '공자'에 주격조사를 달았고 '왈' 뒤에 이어지는 인용문의 구조를 주부인 '제자'와 나머지 술부로 분석하였다. '제자' 뒤에 주격조사가 현결되었고 술부는 의미에 따라 분절하여 'ᄒᆞ고', 'ᄒᆞ며', 'ᄒᆞ며', '호ᄃᆡ', '이니', '이어든', '이니라'와 같은 구결을 달았다.

이에 대응되는 언해문을 보면 구결의 형태가 언해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주격조사 'ㅣ'도 그대로 반영되었고, 'ᄒᆞ고', 'ᄒᆞ며', '호ᄃᆡ'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구결문의 '이니'는 언해문에서 '-ㄹ디니'로, '이어든'은 '-거든'으로, '이니라'는 '-ㄹ디니라'로 바뀌어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영향 관계는 확인할 수 있다.

언해문의 문장은 문법 형태소뿐 아니라 문장 구조 차원에서도 한문과 구결문의 영향을 받았다. 간경도감에서 1461년에 간행한 『능엄경언해』의 예를 통해 한문의 가능조동사 '得'이 구결문과 언해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그것이 그 후 국어의 문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 『능엄경언해』는 불교 경전인 『楞嚴經』을 언해한 것으로 세조가 직접 한글로 구결을 달았으며 간경도감 설치 후 최초로 간행된 불경 언해서이다.

(2) a. 원문: 優遊趣證得無艱險

b. 구결문: 優遊趣證호되 得無艱險ᄒᆞ리니

c. 언해문: 優遊히 證에 나ᅀᅡ가ᄃᆡ 艱險 업수믈 得ᄒᆞ리니

위의 예를 보면, 한문 원문의 문장이 구결문에서는 두 개의 구절로 나뉘었고 각 구절에 구결 형태 '호ᄃᆡ', 'ᄒᆞ리니'가 첨가되었다. 구결문의 두 번째 구절에서 '得'은 아직 네 자로 구성된 한문구 안에 포함돼 있지만 언해문에 가면 해당 구절이 국어의 어순에 맞게 해체되면서 '得ᄒᆞ다'라는 동사로 번역되었다. '得無艱險'라는 한문 구절이 서술어 '得ᄒᆞ다'가 '간험 업수믈'이라는 명사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복문으로 언해된 것이다. '得'은 한문의 가능 조동사로, '간험 업수믈 得ᄒᆞ다'는 '간험이 없어지다' 혹은 '간험이 없는 경지에 이르다'의 의미이다. 하지만 언해 과정에서는 이를 의역하지 않고 한문의 문법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得ᄒᆞ다'가 명사절을 취하는 복문 구조가 된 것이다.

중세국어 언해문의 '명사절+得ᄒᆞ다'의 구조는 20세기 전반기까지도 이어져 내려왔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명사절+得ᄒᆞ다'의 예이다.

(3) a. 他軍은 東門 及 東門외 直近의 空舍를 經하여 遂히 3시부터 4시까지의 사이에 同촌락에 達함을 **得하엿다**.<1932-12-삼천리04-12-16>

b. …그 再犯을 방지하기 위하야 그 사상 及 행동을 관찰하야 適富한 처치를 執함을 **得하는** 제도다.<1936-11-삼천리08-11-16>

(3a)의 '達함을 得하다', (3b)의 '執함을 得하다'는 각각 '도달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의 의미이지만 언해문의 문장 쓰기 관습에 따라 '명사절+得하다'의 구조를 취했다. 위의 예는 한문을 번역한 글이 아닌 창작문인데도 언해문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다. 한문의 영향으로 나타난 통사 구조는 '得'하다를 고유어 동사인 '얻다'로 바꾼 문

장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명사절+얻다' 구문의 예이다.

(4) a. …오전 10시부터 원내에 參列하여 人山人海 속에서 시달니다가 오후 1시 정각에 방청석 제1 前列에 安坐케 되여 기분 좋게 참관함을 **얻었다**.<1941-03-삼천리13-03-29>

b. 그 후 일본유학생界는 右記 諸先覺者의 노력에 의하여 그 단체의식이 向進하여 1906년(明治39년) 冬에 드듸여 東京유학생의 統一體되는 유력한 단일 기관을 형성함을 **어덧다**.<1933-01-삼천리05-01-23>

(4a)의 '참관함을 얻다', (4b)의 '형성함을 얻다'는 중세국어 언해문의 '명사절+得ᄒᆞ다'와의 연관을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참관할 수 있었다',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해도 충분한 것을 언해문의 문투로 표현한 것은 한 개인의 독특한 습관은 아니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문장 쓰기의 관습이 전승된 결과로, '得하다'가 고유어인 '얻다'로 바뀌었다 해도 이는 여전히 언해문 문장의 틀을 따른 것이다. 김형철(1997:130)에서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한글전용의 창작문도 문어체의 성격을 지닌 언해문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한 대로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징들은 20세기 전반기까지도 남아 있었다.

문자는 말과 달리 한번 적어 놓으면 그 자체로 고정성을 갖는다. 정인승은 1937년 『한글』 48호 5쪽에서 "자연히 뒷사람들의 글도 앞사람의 글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당시의 말을 적으면서도 전대의 문체를 본떠서 쓰는 일"이 많아지고 "이것이 말체와 글체가 다르게 되는 한 까닭"이라고 하여 당대의 글이 당대의 말을 반영하기보다 이전 시기의 말을 반영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문자를 통한 세대 간 지식의 전달 과정에서 이전 세대의 글이 다음 세대에 의해 읽히면 그 내용과 함께 문자로 적혀 있는 언어도 전승된다. 선대의 지식이 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갖는 한 그 글은 대를 거듭하여 읽히고 또 읽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장 쓰기의 관습이

굳어지는 것이다.

수백 년간 이어진 언해문의 문장 쓰기 관습은 19세기 말부터 지식 체계가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됐다. 급격히 달라진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대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유학의 지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고, 구시대의 지식을 전달하던 구시대의 문장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히 자국어 의식의 발달이 그 주된 동인이 되었다. 이어지는 2.2에서는 자국어 의식의 발달이 문장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2. 자국어 의식의 발달과 문장의 변화

자국어(vernacular)는[39]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언어이다[40]. 이를 '모어(native language)'라 하지 않고 '자국어'라 할 때

39) 'vernacular'는 '자국어', '민족어', '지방어', '개별어', '속어'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어떻게 번역해도 그 지칭 대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상대 개념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자국어'나 '민족어'로 번역할 경우에는 제국의 질서를 대체할, 민족을 단위로 한 근대 국가를 대표하는 언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자국어'나 '민족어'는 '보편문어'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반면, '지방어', '개별어', '속어'라 했을 때에는 제국의 질서 속에서 보편문어와 공존하던 비공식적 언어라는 의미밖에 나타내지 못한다. 한편, '민족어'라는 개념은 최근 한반도 밖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 개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국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40) '자국어'의 개념은 일찍이 라틴어에 대항해 자국어 글쓰기를 실현한 단테(Alighieri Dante)의 정의를 따른다. 단테는 라틴어가 보편문어이던 중세 유럽에서 이탈리아어로 『신곡(*La Divina Commedia*, 1321)』을 발표했는데, 그에 앞서 1303년에서 1305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속어론(*De Vulgari Eloquentia*)'이라는 글에서 자국어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자국어란 "아기들이 처음 소리를 분별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습득하게 되는 언어"이며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모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언어"이다(Dante. Edited & translated by Steven Botterill, 1996). 단테는 당시 유럽에서 보편문어 역할을 하던 라틴어를 죽은 언어로 규정하고, 라틴어는 오랜 세월 동안 매진해야지만 그 용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벽할 정도로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반해 자국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별다른 노력 없이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어가 라틴어 같은 인공어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기의 한문과 우리말에 대한 담론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단테의 '속어론'이 이탈리아어가 아닌 라틴어로 쓰인 것처럼 근대 계몽기에 국문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선각적 지식인들의 글은 대개 국한문체로 작성되었다.

그 개념은 보편문어에 대한 대립을 전제로 한다. 보편문어는 전통 사회의 제국적 질서에 속한 것이며 자국어는 민족을 단위로 한 근대 국가 체제에 속한 것이다. 세계가 근대 국가로 재편되기 이전에 각 지역은 거대 제국에 속해 있었다. 하나의 제국에 속한 지역들은 제국의 공통어, 즉 보편문어를 사용했다. 보편문어는 언어의 지역적 차이를 초월해 문자를 통한 제국 내 소통을 가능케 했다. 중화의 질서에 속해 있던 동아시아에서는 한자를 통한 필담이 이루어졌고[41] 중세 유럽에서는 라틴어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수백 년 동안 한문 위주의 문자 생활이 이루어지던 조선 사회에서 입으로 하는 말과 문자로 적는 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기록되고 전승될 가치가 있는 고등한 지식은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식자층의 전유물이었고 계층의 분리가 뚜렷했던 사회 구조 속에서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은 고등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없었다. 조선 사회에서 "사대부 계층의 남자들은 공식적인 문자 생활에서 언문을 쓰는 일이 드물었고 반대로 상민이나 여성들이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문과 언문이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정주리・시정곤, 2011:81)[42].

Ferguson(1959)는 어떤 사회에서 기능이 뚜렷하게 분화된 두 언어가 상층 언어와

41) 동아시아의 각국의 외교는 전통적으로 한자를 통한 필담에 의해 이루어졌다. Dudden(2005:45-73)는 이러한 외교의 상황에서 필담이 아닌 영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중화의 질서가 근대 국가의 질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라고 지적하였다. 1885년,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톈진협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영어를 사용했다. 만국공법의 세계 체제 하에서 권력의 언어는 영어였고 일본이 협정의 언어로서 영어를 선택한 것은 이제 양국의 관계가 필담이 이루어지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태도의 표명이었다.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던 두 나라가 제3의 언어를 사용하여 협정을 맺는 모습은 사대 관계에 기반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서구의 국제법적 질서로 편입되는 과정의 일면이었던 것이다.

42) 조선 사회에서 언문은 주로 하층민과 부녀자에 의해 사용됐지만 그와 더불어 상하층의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정주리・시정곤(2011)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언문 관련 기록을 검토해 조선시대의 언문 생활사를 기술하였는데, 하층민들이 언문으로 상소를 올린다든지 '선조언문교서(1593)'처럼 왕이 언문으로 백성들에게 교서를 내리는 일도 있었고 사대부 남성들이 여성들과 서면으로 소통을 할 때에는 항상 언문을 사용해 상하층의 소통에 언문이 사용됐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왕세자의 한문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언문으로 뜻풀이를 해 학습을 돕거나 임진왜란 중에 비밀 문서가 언문으로 작성되는 등 조선 사회에서 언문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층 언어로서 공존하는 상황을 '양층 언어(diglossia)'라 불렀다. 이 논의에 따르면, 언어 사용자들은 그 사회에 특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양층 언어 상황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다. 이때 특정한 변화란 경제적인 이유나 사상적인 이유 등으로 문서에 대한 해독력이 확산될 경우나 여러 지역이나 계층 간에 폭넓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그리고 주권에 대한 의식이 생기며 표준적인 '국어'를 확립하고자 하는 지향이 생길 경우를 말한다. 조선 사회의 양층 언어 상황은 19세기 말부터 발생한 '특정한 변화'에 의해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 문제시되기 시작했다[43].

진서와 언문의[44] 대립 구도가 흔들리게 된 데에는 당시 세계 질서의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19세기 중엽부터 동아시아 각국은 서구 제국주의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45] 이 과정에서 전통적 세계 질서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46]. 황제국인 중국이 아편전쟁(1840~1842)으로 영국에게 힘없이 당하는

---

43) 이러한 언문불일치(言文不一致) 상황이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었지만 그보다 백여 년 전의 문헌에도 한문과 우리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한 기록이 있다. 박제가는 『북학의(1778)』에서 중국은 말이 글자와 일치하기 때문에 말이 변하면 글자의 음도 변하지만 조선은 말과 글이 별개이기 때문에 옛날의 한자음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중국의 현지 한자음과 한국의 한자음의 차이에 대해 박제가가 제시한 해결책은 선진 지식과 문물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버리고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박제가 저/박정주 역 2003:110-111). 이러한 주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8세기의 급진적 지식인에게조차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었던 한문 중심의 언어관이다. 박제가는 "지금 필요한 것은 말과 글을 일치시키는 것이다(박제가 저/박정주 역 2003:111)"라고 하며 당연히 언(言)을 버리고 문(文)을 따라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언문불일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불과 한 세기 후에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즉 '문'을 버리고 '언'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44) 19세기 말에 고종이 국문으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령을 내 놓으며 '한문'과 '국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언문은 공식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문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1894년 11월 21일에 발표된 고종의 칙령 1호 '공문식(公文式)' 제14조를 보면 "모든 법률 칙령에 있어서 국문으로 본을 삼고 한문 번역을 붙이고, 혹 국한문을 혼용한다(法律勅令總以國文爲本漢文附譯或用國漢文)"는 규정을 두었다. 그 후에 1895년 5월 8일 칙령 제86호 '공문식(公文式)' 제9조에도 "第九條 法律命令은 다 國文으로써 本을 삼고 漢譯을 附하며 或國漢文을 混用홈"라고 하여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들을 보면 우리말은 언문이나 반절이라는 표현 대신 '국문'으로 지칭되었고, 중국의 글자는 진서가 아니라 한나라의 글자, 즉 '한문'이라 지칭되었다.

45) 동아시아의 경우 제국주의의 침략이 제국의 질서를 종식시키는 주된 원인이었지만 유럽의 경우는 종교 개혁과 인쇄 혁명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Anderson(1983/2006)은 이 과정에서 하나의 언어권에 속한 사람들, 즉 민족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모어로 된 근대적 매체를 접하며 '공통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민족 국가를 상상하게 되었고, 이렇게 발달된 민족의식이 근대 국가의 수립 과정에서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유럽의 인쇄 혁명과 종교 개혁, 그리고 자국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베르너 파울슈티히 저/황대현 역(2007)을 참고할 수 있다.

것을 목격한 일본은 서둘러 서구의 근대적 지식을 들여와 근대 국가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생겼고 구한말의 지식인들은 변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의 생존책을 모색해 나갔다.

1900년 『제국신문』 1월 17일자에는 “지금 쳥국 형편을 의론컨대 … 그 광대ᄒᆞᆫ 토디가 미구에 삼분 오렬이 될 모양이오 … ᄌᆞ긔 나라도 능히 보존치 못ᄒᆞ거ᄂᆞᆯ 어느 겨를에 다른 나라를 도아줄 힘이 잇스리오”라고 하여 더 이상 중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각이 보인다. 그리고 변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전통적 지식에 기댈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907년 『대한매일신보』 5월 24일자를 보면 “오ᄂᆞᆯ날 이 셰계에 잇셔서 다ᄆᆞᆺ 쳥국 학문의 조박만 가지고 문채를 ᄭᅮ미면 엇지 능히 강포ᄒᆞᆫ 렬국의 셔리 ᄀᆞᆺ흔 검과 우박 ᄀᆞᆺ혼 대포가 교집ᄒᆞ야 츙돌ᄒᆞᄂᆞᆫ 령독ᄒᆞᆫ 위염과 예긔를 막으리오”라고 하여 서구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통적 한학 지식이 아닌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인다.

언어관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로 인해 생겨났다. 즉,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신속히 근대적 지식을 도입해 이를 널리 보급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배우는 데에 수십 년이 걸리는 진서가 아니라 누구든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언문이었던 것이다[47]. 다음은 구한말 신문에 실린 언어관의 변화에 대한 기사이

46) 가라타니 고진 저/조영일 역(2009:177)에서는 제국주의가 전통적 제국의 질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탄생에 대해 논의하며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네이션=스테이트가 확대되면, 그것은 스스로를 제국이라고 부르지만, 구제국과는 다르다. 그것은 ‘제국주의’라고 불러야 한다. 제국주의는 네이션=스테이트의 연장이어서, 다른 민족에 균질화를 강요한다. 그리고 결국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내셔널리즘을 환기시켜 결과적으로 네이션=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난다.”

47) 19세기 말부터는 한자의 본고장인 중국에서조차 교육과 계몽을 위해 ‘한문을 버려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다음은 중국의 자국어 운동 과정을 밝힌 Zhou(2011:15-71)의 논의를 요약한 것이다.
: 캉유웨이(康有爲)가 주동한 1898년의 변법자강운동의 구호 중 하나가 “자국어를 숭상하고 한문을 폐지하자”였으며, 한문을 계속 사용하면 국가가 무지몽매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고 자국어를 사용해야지만 지식을 널리 전파해 강력한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량치차오(梁启超)나 황쥰셴(黃遵憲) 같은 청 말기 지식인들은 자국어 사용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한문 역시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1910년대 후반 후쓰(胡適), 천두슈(陳獨秀)의 주도 하에 문학혁명이 일어나면서 한문에 대한 배척이 더욱 심해졌다. 특히 후쓰는 유럽 르네상스의 핵심이 자국어 운동이었다는 자각을 통해, 중국에서도 “이미 한나라 시절부터 죽은 언어”였던 한문을 버리고 살아 있는 언어인 백화(白話)를 사용해야 중국의 르네상스를 이뤄낼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 시기에는 한자를 폐지하고 중국어를 로마자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 더 급진적으로 문자만이 아니라

다(밑줄은 필자).

(5) a. 죠션 국문ᄒᆞ고 한문ᄒᆞ고 비교ᄒᆞ여 보면 죠션 국문이 한문보다 얼마가 나흔 거시 무어신고 ᄒᆞ니 첫지ᄂᆞᆫ ᄇᆡ호기가 쉬흔이 됴흔 글이요 둘지ᄂᆞᆫ 이 글이 죠션 글이니 죠션 인민들이 알어셔 ᄇᆡᆨᄉᆞ을 한문 ᄃᆡ신 국문으로 써야 샹하 귀쳔이 모도 보고 알어보기가 쉬흘 터이라.<1896-08-07독립신문>

b. 가령 ᄒᆞᆫ문을 십 년 동안 일거 셩취ᄒᆞᄂᆞᆫ 졍력을 삼ᄉᆞ일간에 능통ᄒᆞᄂᆞᆫ 국문에 옴겨 학문샹과 사업샹에 진보ᄒᆞ면 일 년에 될 일은 이삼 일에 필ᄒᆞᆯ 것이오 십 년에 될 일은 수삼 삭에 필ᄒᆞᆯ 것이니 그 리ᄒᆞ며 둔ᄒᆞᆷ과 편ᄒᆞ며 불편ᄒᆞᆫ 것슨 지혜롭지 못ᄒᆞᆫ 쟈라도 가히 알지라.<1907-05-23대한매일신보>

(5a)는 19세기말 『독립신문』 논설의 일부로 한문에 비해 국문은 배우기 쉽기 때문에 국문으로 글을 쓰면 상하귀천이 모두 알아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5b)는 20세기 초 『대한매일신보』에서 순한글판을 다시 발행하기 시작하면서[48] 게재한 '국문신보 발간'이라는 사설의 일부이다. 이 사설에서도 한문은 십 년을 배워야 하지만 국문은 삼사일이면 배울 수 있으므로 그 이로움과 편리함이 한문보다 훨씬 낫다고 하

중국어 자체를 버리고 에스페란토어나 영어, 프랑스어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48) 『대한매일신보』는 발간 초기(1904년 7월 18일~1905년 3월 10일)에 4면이 영문으로 되고 2면이 순한글로 된 한영문판을 발행하였지만 약 5개월간 휴간한 이후 1905년 8월 11일부터는 순한글판을 폐지하고 국한문판과 영문판으로 체재를 변경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순한글판에 대한 식자층의 거부감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1907년 5월 23일부터 신문의 체재를 국한문판, 순한글판, 영문판으로 다시 변경하였을 때에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혔기 때문이다(밑줄은 필자).

"…당초의 국문과 영문으로 합ᄒᆞ야 발간ᄒᆞ든 것을 영문은 ᄯᅡ로 ᄂᆡ고 국믄은 변ᄒᆞ야 한문으로 츌간ᄒᆞ니 그 시에 한문으로 츌간ᄒᆞᆷ은 한국 풍긔가 남자ᄂᆞᆫ 국문을 보지도 안코 여자ᄂᆞᆫ ᄒᆞᆫ문을 ᄇᆡ호지도 안ᄂᆞᆫ 고로 시ᄉᆞ의 급급ᄒᆞᆷ을 응ᄒᆞ야 위션 남자 ᄉᆞ회를 위ᄒᆞ야 발ᄒᆡᆼᄒᆞ고 국문을 즁지ᄒᆞᆷ이 본ᄉᆞ의 유감이 되얏더니…ᄒᆞᆫ문을 모르시ᄂᆞᆫ 쳠위와 부인 여자의 사회를 위ᄒᆞ와 슌국문으로 신보 일부를 다시 발간ᄒᆞ되…남자와 녀ᄌᆞ가 동등으로 문명샹에 진달ᄒᆞ심을 본샤에셔 희망이옵<대한매일신보 19070523>"

위의 인용문은 1907년 5월 23일자 사고(社告)의 내용으로, 이전에 휴간 이후 체재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남자들은 국문을 보지 않고 여자는 한문을 배우지 않는 상황에서 신문이 목표로 하는 독자층을 남자로 결정하고 국문을 중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순한글판을 재개하게 된 것은 이제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독자층으로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인 것이다.

였다. 글이란 것은 소수 지식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글은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1906년 6월 1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이능화의 "國文一定法意見書"라는 글을 보면 당시 순한문, 국한문, 순한글 등 표기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장 유형이 있었는데 이능화는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해독력이라는 관점에서 각각에 대한 평가를 덧붙였다. (2)는 이능화가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의 문장의 예(윗줄)와 그에 대한 이능화의 평가(아랫줄)로, 괄호 안의 해석은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HK사업단(2012:98)을 인용한 것이다.

(6) a. 天地之間萬物之中唯人最貴
 : 純漢文惟雅者讀(순한문으로 오로지 식자층만 읽을 수 있다.)
 b. 텬디ᄉᆞ이 만물가운ᄃᆡ 오직 ᄉᆞ람이 가장 귀하니
 : 純國文俗者讀(순국문으로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다.)
 c. 天地之間萬物之中에 唯人이 最貴ᄒᆞ니
 : 今之國漢文交用法俗者仍不能讀(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한문 혼용법으로 일반인은 끝내 읽을 수 없다.)
 d. 天地(텬디)之 間(ᄉᆞ이) 萬物(만물)之 中(가운ᄃᆡ)에 唯人(오직 사ᄅᆞᆷ)이 最貴(가장 귀)ᄒᆞ니
 : 漢字側附書諺文雅俗共讀(한자 옆에 언문을 붙여 쓴 것으로 식자층과 일반인 모두 읽을 수 있다.)

(6a)는 순한문 문장으로 이렇게 쓰면 식자층만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6b)는 순국문 문장으로 이렇게 쓰면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6c)는 당시 널리 쓰이던 국한혼용 문장이지만 이렇게 써도 일반인들은 읽을 수 없다고 하였다. (6d)는 한자 옆에 한글로 풀이한 것을 덧붙인 문장으로 이능화는 네 가지 중 이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았다. 이능화의 이러한 생각에는 글은 식자층뿐 아니라 일반인들

도 읽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순한글 문장은 식자층에게 널리 읽히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6b)와 같은 순한글 문장도 식자층과 일반인이 모두 해독력을 갖는 문장이었겠지만 이능화는 (6b)가 아닌 (6d)가 식자층과 일반인이 모두 읽을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한 것이다.

자국어에 대한 인식은 보편문어였던 한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갔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나라의 자국어, 즉 타국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전되어 갔다[49]. 1900년 1월 10일자 『제국신문』의 논설을 보면, “대뎌 나라마다 그 나라 글이 잇는고로 골ㅇ딕 국문이라 ᄒᆞ나니 가령 ᄒᆞᆫ문은 쳥국 국문이오 영셔는 영국 국문이오 언문은 우리나라 국문인대…”라는 대목이 있다. 한문이 보편문어가 아니라 청국의 국문일 뿐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언문은 우리의 국문이라는 인식은 영어가 영국의 국어이고 독일어가 독일의 국어이고 프랑스어가 프랑스의 국어라는 논리의 연장선 위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언어적 근대가 타자를 통해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언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바뀌었다고 해서 문장 쓰기 관습이 곧바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수백 년간 고착화되어 있던 관습은 단시간 내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19세기 말부터 『독립신문(1896-1898)』 등 순한글로 된 신문이 발행되었지만 지식인층을 겨냥한 여타의 신문과 잡지는 순한문 혹은 국한문을 사용했다. 이광수가 1910년 여름 『황성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50], 청년들이 “一定ᄒᆞᆫ 文法

49) 19세기 말부터 ‘자국어’의 개념은 ‘타국어’ 그리고 ‘보편문어’와의 대립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타국어에 대한 자각이 보편문어에 대한 자각을 가져오고 그러한 자각이 다시 자국어에 대한 자각을 가져온 상황에 대해 황호덕(2002:24)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외국어가 발견된 순간 다소 갑작스럽게 진문(眞文)으로서의 한문의 가치가 동요되었으며, 그러한 동요와 거의 동시에 조선어라는 새로운 영역이 열리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듯 여기고 있는 ‘국어’라는 개념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립된 개념이다. 이연숙 저/고영진・임경화 역(2006)은 ‘일본정신’과 ‘일본어’의 결합을 표현하는 궁극의 개념으로서 일본의 ‘국어’라는 사상이 정립되어 온 과정을 밝혔고, 김병문(2009, 2012)는 주시경의 근대적 언어 인식에 초점을 두고 한국에서 ‘국어’라는 개념의 형성되어 온 과정을 밝혔다.

50) 1910년 7월 24일자『황성신문』1면, “今日我韓用文에對ᄒᆞ야”.

을 배호지 못홈으로" 신문이나 잡지의 문장을 모범으로 삼아 이를 따라하려 하는데, 신문이나 잡지의 문장이 "名은 비록 國漢文이나 其實은 純漢文에 國文으로 懸吐훈 디셔 지느지 못훙"는 상황이라고 비판하였다. 한문 중심의 전통적 글쓰기 방식을 벗어나 한자와 한글을 섞어 새로운 문체를 시도하려 해도 문자들을 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 즉 문장의 작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문에 한글 토를 첨가하는 것 이상의 진전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기 신문과 잡지를 보면 내용에서는 순한글 글쓰기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글 자체는 국한문체로 쓴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문에 익숙한 지식인들에게 자국어 글쓰기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로 읽는 매체에 그들에게 익숙한 문체로 글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7) a. 試觀훙건딗 國文과 漢文의 利鈍遲速의 分岐됨은 上陳홈과 如훙거니와 何故로 我韓의 固有훈 自國國文은 學훙기 甚히 易훙고 用훙기 極히 便훈거슬 雌文이라 稱훙야 抛棄훙고 漢文은 青春으로 白首에 至토록 攻苦훙여도 特效가 蔑훈거슬 雄文이라 稱훙야 鑽硏훙기에 奔走훙니 哀홉고 憫훙다("國文便利 及 漢文 弊害의 說", 『太極學報』1907. 1. 24)

b. …自國을 興盛코자 훙거나 保全코져 훙는 者는 自國의 文言을 先修훙여야 民智를 發達훙고 團合을 鞏固케 홀지니 是以 自國文言이 某國文言만 못홀지라도 不可不 自國文言을 愛護 改善훙여 當用홈이 可훙도다("必尙自國文言(續)", 『皇城新聞』 1907. 4. 3)

(7a)는 『태극학보(太極學報)』에 실린 강전(姜荃)의 글로 한문 사용의 폐해를 밝히고 국문 사용을 장려하는 글이지만 어휘적 요소는 모두 한자로 적고 문법적 요소만 한글로 적었다. (7b)는 『황성신문(皇城新聞)』에 실린 주시경의 글로 애국적 차원에서 자국의 말과 글을 애호하고 개선하며 마땅히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지만 역시 국한문체로 작성되었다. 김영민(2009:418)에서 유길준 자신은 순한글 글쓰기에

대한 지향을 가졌으면서도 『서유견문』을 국한문체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서유견문』의 현토체는 한문에 익숙하고 심지어 한글에는 거부감까지 지니고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문체였기 때문에 한글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야만 의미 전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처럼, 당시에는 국문이 "한문에 대해 일종의 이념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한문이 담당했던 실제적 언어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던 것이다(임상석, 2008:98-99).

이처럼 순한글 글쓰기에 대한 지향과 현실적 여건의 한계로 인해 20세기 전반기의 문장은 문헌의 성격과 대상 독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취했다. 순한문이나 국한문은 지식층을 겨냥한 것이었고 순한글은 부녀자를 포함해 한문에 대한 문식성이 없던 일반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순한글 기사와 국한문 기사는 단순히 표기 문자만 달랐던 게 아니라 문장의 구조나 문법 형태 및 어휘의 선택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한자를 쓰느냐 한글을 쓰느냐는 표기 수단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筆者가 指向하는 文語의 모델을 반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한영균, 2009:308-309).

일부 순한글로 된 문헌이 있었지만 20세기 전반기 근대적 매체에 나타난 문장은 대체로 한글과 한글을 섞어 쓴 국한문체였다. 민현식(1994a), 홍종선(1996), 김흥수(2004), 임상석(2008), 한영균(2013) 등은 당시 국한문체의 유형을 세분하였는데, 한영균(2013)은 앞선 연구의 분석 결과와 실제 텍스트 분석 결과 얻어진 결과를 종합해 다음의 여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8) 한영균(2013:223-224)이 제시한 근대계몽기 국한문체의 여섯 가지 유형

① 漢文 構文法을 기반으로 하되 國語 文法의 干涉 結果가 섞인 경우(『神斷公案』類)

② 國語 構文法이 기본이지만 構文的으로나 語彙的으로 漢文 文法의 干涉 結果가 개재되는 경우(『是日也放聲大哭』類)

③ 構文的으로는 漢文 文法의 干涉이 해소되지만 語彙的으로 漢文 文法의 干涉 結果가 남아 있는 경우(『西遊見聞』類)

④ ③에 속하는 텍스트와 유사한 문체이지만 한영균(2011)에서 漢文句 用言이라고 지칭한 예들이 쓰이지 않고, 고유어 혹은 한글 표기 한자어가 사용되는 경우(『國民小學讀本』類)

⑤ ④에 속하는 텍스트와 유사한 문체이지만 韓國에서의 訓讀法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상의 표기 방식이 함께 쓰인 경우(『勞動夜學讀本』類)

⑥ 기타: 텍스트별로 獨自的 方式에 의한 國漢混用文을 보여주지만 그 방식을 사용한 다른 예들이 유형을 이룬다고 할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경우

위에 제시된 여섯 가지 국한문체의 유형이 시사하는 바는, 20세기 전반기의 문장에는 문자・어휘・형태・통사의 각 층위에서 한문의 영향을 벗어난 정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문 사용의 오랜 전통, 자국어 글쓰기를 향한 지향, 새로운 작문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였다.

언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이든 과도기적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때는 없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언어를 둘러싼 의식과 제반 환경이 급격히 달라지면서 언어 자체에도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역사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과도기적 특성이 두드러졌다. 이어지는 2.3에서는 언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발생한 문장 쓰기 관습의 변화가 문법적 변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2.3. 문법적 변이에 대한 해석: 문체사와 국어사

20세기 전반기의 국어 문장에는 2.1에서 살펴본 전통적 글쓰기의 영향이 상당 부분 남아 있던 반면 2.2에서 논의한 자국어 의식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문장의 전범을 형성하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문장에 나타난 문법적 변이는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 절에서는 《삼천리》에 쓰인 용례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국어 문장에 나타난 문법적 변이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변이에 대한 해석

에서 문체사적 접근과 국어사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0세기 전반기의 언어적 변이를 문체 변화와의 관련 속에서 분석한 논의로는 한영균(2009)가 있다. 한영균(2009)에서 '其, 吾, 此' 등 한자어 대명사, '幾, 彼, 何' 등 한자어 관형사, '大凡, 現今, 益益' 등 한자어 부사어, '단음절 한자+하-' 형 용언, '2음절 한자+하-'형 용언, 2음절 한자어 체언, 한자어 감탄사, 한문구 등의 사용 정도에 따라 문체의 현대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문체와 문법 형태 사이에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었다.

한영균(2009:314)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어휘적 준거 외에도 통사 구조 차원에서 한문의 영향을 반영하는 예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문의 '問曰～' 구문이 국어 문장에도 그대로 반영돼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선행하는 구조로 쓰이다가 점차 국어의 어순에 맞게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후행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과정을 볼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에는 이러한 통사 구조상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문식 어순을 반영한 구조와 국어식 어순을 반영한 구조가 변이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었다. 《삼천리》에서도 인용절을 내포한 복문에서 이러한 변이가 확인되는데, 말뭉치 분석 결과 발견된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a. 인용 동사+인용절
b. 인용 동사+인용절+하다
c. 인용 동사+인용절+인용 동사
d. 인용절+인용 동사

첫 번째 유형은 한문의 어순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한문과 구결문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한 것으로[51] 이 두 유형은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시기에 흔

51) '인용 동사+인용절+하다' 구성을 한문과 구결문의 영향이 두루 반영된 것으로 본 이유에 대해서는 이

히 나타났다. 한편, 세 번째 유형과 네 번째 유형은 19세기 말부터 나타난 구조로, 주로 네 번째 유형이 주를 이루었다. 세 번째 유형은 극소수의 용례에서 확인될 뿐이지만 이는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선행하던 구조에서 후행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중간적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각 유형의 예이다.

(10) a. 그는 항상 말하되 [술을 시러하는 호걸이 어듸에 잇나? 게집을 실타하는 영웅이 잇는가. 우리들 불우의 인간이 울적할 때에 술이나 먹고 타오루는 정열은 게집에게 풀지!] 이것이 늘 그의 하는 소리이엿다.<1935-03-삼천리07-03-28>

b. 그리고 이 텅빈 초당에 안저서 아조 생색을 내 말하되 [「금년에 내 집을 차저온 過客은 그래도 다-서울 나그내야. 나도 괜찬은 사람이거든.」] 하고 서울 過客을 한돌 맛난 것이 대자만이다.<1932-03-삼천리04-03-68>

c. 그러나 내가 가장 조와하는 사람 또는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말하되 [「그대가 권투를 조와하는냐?」]고 뭇는다면, 나는 서슴지 안코, 「나는 그다지 권투를 조와하지 안는다.」라고 대답하지 안을 수 업는 사실입니다.<1935-10-삼천리07-09-42>

d. 그 병사는 [「나도 울었어- 그리고 같이 있든 자들도 울었지.」]라고 말했다.<1938-12-삼천리10-12-118>

(10a)는 한문의 어순을 따라 '말하다'가 인용절 앞에 쓰였다. (10b)는 한문의 어순을 따르며 구결문의 영향도 반영해, 인용절 앞에는 '말하다'가 쓰였고 뒤에는 '하다'가 쓰였다. (10c)는 인용 동사가 인용절 앞에 나타난 한문식 어순과 인용 동사가 인용절 뒤에 나타난 국어식 어순이 함께 나타난 예로, 인용절 앞에는 '말하다'가 쓰였고 뒤에는 '묻다'가 쓰였다. (10d)는 국어의 어순에 따른 것으로, '말하다'가 인용절 뒤에 쓰였다. 20세기 전반기에는 이처럼 한문의 영향을 반영한 구문, 구결문의 영향을 반영한 구문, 국어 어순대로 변화된 구문, 과도기적 구문 등이 공존하고 있었다.

글의 3.2.6.1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어의 내포절 중 인용절을 안은 복문의 통사 구조에 대한 것이므로 국어 문법사에서 다룰 문제이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인용절의 변화는 언어 내적 동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장 쓰기 관습의 전환이라는 언어 외적 변화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법적 변이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문장 쓰기 관습에서 한문이나 구결문의 영향으로 나타났던 특징이 계승된 결과 나타난 변이가 무엇인지, 자국어 글쓰기의 시행 과정에서 국어의 문법에 맞게 바뀐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적 양상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부정 표현에서 보이는 언어적 변이는 언어 외적 요인과 언어 내적 요인 모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20세기 전반기 국어의 부정 표현을 살펴보면 한문의 영향으로 나타난 변이와 재구조화 과정의 각 단계를 보여주는 변이가 모두 확인된다. 20세기 전반기에는 한문의 '不'이 국어 문장에서도 명제를 부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고, 한문의 '無'가 '無하다'로 받아들여지거나 '없다'로 번역돼 부정문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쓰임은 중세국어 시기 언해문에서 나타나던 특징들이 이 시기까지 전승되어 내려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삼천리》에서 한문의 영향으로 나타난 부정 표현의 예이다.

(11) a. 或 身體가 不康하야 疾病長臥한즉…<1937-01-삼천리09-01-64>
b. …一切를 岐視함이 無한 眞意를 揭示함이요.<1935-12-삼천리07-11-171>
c. 본령에 잇서서는 병적 편입 후의 신분 취급상 內地人과의 간에 하등 차별을 設함이 업다.<1938-05-삼천리10-05-45>

(11a)에서 '不'은 '신체가 건강하다'에 대한 부정을, (11b)에서 '無하다'는 '一切을 岐視하다'에 대한 부정을, (11c)에서 '없다'는 '차별을 설하다'에 대한 부정을 나타낸다.

한편, 이 무렵에는 '아니>안'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결과 '아니하다',

‘않다’뿐 아니라 그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안하다’가 뒤섞여 쓰이고 있었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부정 보조용언의 예이다.

(12) a. 그러나 작품으로 이렇다 할 만한 것이 남지 아니했다<1941-06-삼천리13-06-199>
b. 그러나 팔에 힘을 잔득 드린 괭이는 그러케 깁히 그 날이 흙에 파뭇치지 안햇다.<1935-01-삼천리07-01-243>
c. 半生을 獨身으로 지내면서 허튼 艶聞 하나도 맨들지 않앗다.<1934-11-삼천리06-11-219>

(12a)에는 부정 보조용언 ‘아니하다’가, (12b)에는 ‘안하다’가, (12c)에는 ‘않다’가 쓰였다. 이 세 형태는 재구조화의 각 단계에 속한 것으로 이러한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근대국어 시기부터 시작된 문법사적 변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처럼 20세기 전반기 부정 표현에 나타난 변이는 문장 쓰기 관습의 변화 과정과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한 재구조화 과정과 두루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문체론적 접근과 국어사적 접근이 모두 필요한 것이다.

20세기 전반기의 문장에 대한 분석에서 문체론적 접근과 국어사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 시기 문장에 대한 기존의 국어사적 연구와 문체론적 연구 각각의 한계를 통해서도 방증된다. 유길준의 국한문체에 대해서는 국어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 왔는데, 이기문(1984), 민현식(1994b) 등에서 유길준의 국한문체를 일본 문장의 영향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김영민(2009)는 『서유견문』의 국한문체나 『노동야학독본』의 한문 훈독체를 단순히 일본 문장의 영향이라고만 치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유길준이『서유견문』에서 사용한 국한문혼용의 현토체는 아직은 일반 대중들이 개화의 주체로 나설 수 없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언어 현실과의 타협의 결과”였으며(김영민, 2009:422), 『노동야학독본』에서 선보인 “한자 훈독 주장의 궁극적 의미는 한자를 풀어 한글로 표기하려

는 생각과도 연관"되는데 유길준은 "한자를 훈독해 한글로 표기하면 한자와 한자어의 사용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고, 결국은 한글만으로 쓰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김영민, 2009:414쪽). 김영민(2009)의 비판은 20세기 전반기 국어 문장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에서도 문체사 연구 결과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존의 문체사 연구에서는 국어의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경우들이 있었다. 배수찬(2008)은 논설문 문장 모델을 중심으로 근대적 글쓰기의 정착 과정을 분석하며 문법 형태나 어휘의 쓰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한문이나 구결문의 영향으로 중세국어 시기부터 국어 문장에 흔히 나타나던 현상을 당시에 일본 문장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배수찬(2008:284-285)에서는 당시 문장에 '있다', '없다' 등의 기본 동사를 '有하다', '無하다'로 쓰거나 '얻다'를 '得하다'로 쓰고, '그'를 '其'로, '이'를 '此'로 쓰거나 '만약'을 '若'으로 쓰는 등 "쉬운 대명사・기본 동사・기본 부사 등의 자국어화가 진전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이는 "심각하게 외국문, 특히 일본문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라 하였다.

하지만 이상에서 지적된 쓰임은 15~19세기 국어 문장에 흔히 나타났던 현상으로, 언해문의 문장 쓰기 관습이 20세기까지 전승된 결과이지 당시에 일본 문장의 영향으로 생겨난 현상이 아니었다. 다음은 배수찬(2008)에서 지적한 쓰임이 중세국어 및 근대국어 자료에 나타난 예이다.

(13) a. 眞과 妄괘 다 空ᄒᆞ야 ᄒᆞᆫ갓 妄이 有코…<1465원각경,02,상2,1:050a>
b. 無ᄒᆞ야도 無티 아니ᄒᆞ니 엇뎨오<1464선종영,하,0102a>
c. 네 이제 사ᄅᆞ미 모ᄆᆞᆯ 得ᄒᆞ고 부텨를 맛나 잇ᄂᆞ니…<1447석보상,06:011a>
d. 後世예 이 톄엣 거슬 보면 엇디 其 中에 金玉을 만히 藏티 아년ᄂᆞᆫ 주ᄅᆞᆯ 알리오<1632가례해,8,018b>
e. 若 此不已ᄒᆞ면 賄賂 將行하야 國歌의 危亡이 장찻 朝夕에 잇슬지라<1896,정심소,016a>

(13a)~(13c)는 중세국어 자료에 쓰인 '有하다', '無하다', '得하다'의 예로, '1음절 한자+하다' 꼴의 동사나 형용사는 언해 과정에서 한자에 '-하다'를 결합해 쓰던 관습에 따라 역사적으로 국어 문장에 널리 쓰이던 것이다. (13d)는 근대국어 자료에 쓰인 '其'의 예로 이처럼 한문의 대명사를 국어 문장에 차용해 쓰는 현상도 흔히 보였다. (13e)는 근대국어 자료에 쓰인 '若'의 예로 한문의 기능어를 차용해 쓴 것이다. 이처럼 배수찬(2008)에서 일본어의 영향이라고 지적한 현상들은 15~19세기 국어 문헌에 널리 나타나던 현상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문체사 연구에서도 국어의 역사적 쓰임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 국어 문장에는 언어 내적·외적 요인에 의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위해서는 문체사적 접근과 국어사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3장과 4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될 것이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구와 절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구성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4장에서는 시간 표현, 높임 표현, 부정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양상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

3.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구성적 특징

의미론적으로 볼 때 문장은 명제(proposition)와 양상(modality)으로 이루어진다. Fillmore(1968:23)은 명제를 '명사와 동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포절을 포함한 관계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그 안에는 시간성이 내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상은 문장 전체에 관여하는 요소로, 부정, 시제, 법, 상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양상을 실현시키는 요소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3장에서는 구와 절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구성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4장에서는 시간 표현[52], 높임 표현, 부정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양상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3.1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구 구성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 3.2에서는 절 구성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논의하겠다.

3.1. 구 구성에 나타난 특징

구(句)는 둘 이상의 단어가 문장에서 마치 하나의 품사처럼 쓰인 것으로, 구를 이루는 성분 간에는 주술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온전한 명제를 나타낼 수 없다. 최현배(1937:989)는 "여러 씨가 모혀서 한 겹진(複雜) 뜻을 나타내되 아직 온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못한 것, 곧 월은 勿論이요 아직 마디도 되지 못한 것을 이은말(連語)이라 하느니라."라고 하여 오늘날 구로 논의되는 통사 단위를 '이은말'이라 하였다. 최현배(1937:990)에서는 이은말의 하위 유형으로 임자이은말, 풀이이은말, 어떤이은말, 어찌이은말의 네 가지를 들었는데 이는 오늘날로 보면

52)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 중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대해서는 3.2.3의 관형절에 대한 부분에서 논의할 것이다.

명사구, 동사구(형용사구 포함), 관형사구, 부사구에 해당한다. 최현배(1937)에서는 이은말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고 그 예를 보였지만 이은말의 구조나 특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삼천리》의 용례를 분석해 보면 20세기 전반기 구의 쓰임에는 전통적 문장 쓰기 관습의 영향으로 한문 및 구결문의 특징이 다분히 반영돼 있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근대국어 시기까지는 잘 쓰이지 않던 새로운 문법 형태나 통사 구조가 발달되어 가는 양상도 보였다.

이 절의 논의는 명사구와 동사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관형사구나 부사구는 오늘날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53] 자세히 다루지 않고 형용사구는 동사구의 논의에 포함시켜 함께 다룬다. 이어서 《삼천리》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명사구와 동사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

3.1.1. 명사구

이 절에서는 명사구의 수식 구조와 접속 구조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명사구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삼천리》에 쓰인 명사구 수식 구성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20세기 전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근대국어 시기까지는 쓰이지 않던 명사 파생 접미사 '-적'이 국어의 파생 접미사로서 정착해 가는 양상이 보였는데, 20세기 전반기 동안 지정사와의 결합 여부, 조사 '-의'와의 결합 여부 등에 변화가 있었다. 3.1.1.1에서는 '-적'에 의한 명사구 수식 구성의 변화 및 접미사 '-적'이 현대국어의 용법을 확립해 온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53) 다만 관형사구 중에는 일부 예에서 성상 관형사의 범주에 속하는 1음절 한자로 된 관형사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음을 밝혀 둔다. '가장, 제일, 상당히'와 같은 정도부사가 관형사로 쓰인 '難, 古' 등을 수식하며 관형사구를 이룬 것이다. 그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 각 장면 중 <u>제일 難</u> 장면이 러보씬이라는데 사실 힘들드군요.<1938-08-삼천리10-08-175>

예) 건설 연대는 모르겠으나 <u>상당히 古</u> 건물일다.<1938-08-삼천리10-08-237>

20세기 전반기 명사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조사 '-의'를 매개로 한 명사구 수식 구성이 매우 길게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NP의 NP의 NP'나 'NP의 NP의 NP의 NP'의 구조가 널리 쓰였는데 3.1.1.2에서는 이러한 확장 구성의 내적 구조와 수식 관계로 맺어지는 명사의 의미적 속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삼천리》에 쓰인 명사구 접속 구성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보이는데 이는 그 이전 시기부터 진행되어 오던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변화이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접속된 마지막 명사구 뒤에도 접속조사가 실현되었지만 후대로 올수록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늘날에는 접속된 마지막 명사구 뒤에 접속조사가 거의 쓰이지 않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상당수의 용례에 중세국어의 용법이 남아 있었다. 3.1.1.3에서는 명사구 접속 구성의 마지막 명사구 뒤의 접속조사의 쓰임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3.1.1.4에서는 접속조사와 접속부사가 함께 나타난 용례들을 대상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 서로 다른 문법 형태가 중첩되어 쓰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3.1.1.5에서는 접속 명사구에 후행하는 동격 명사구의 쓰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1.1.1. 접미사 '-적'의 유입과 정착

근대국어 시기와 비교해 볼 때 20세기 전반기 명사구가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접미사 '-적'에 의한 수식 구조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말뭉치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말본』 초판의 기술을 살펴보면, 『우리말본』의 발가지(접미사) 목록에는 '-적'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최현배, 1937:915-932)[54] 어떻씨(형용사)나 어떤씨(관형사)에 대한 기술을 보면 '-적'을 발가지로 언급하였다. 그런데 어떤씨에 대한 기술에서는 "實質的 智識(785쪽)" 등에 쓰인 '○○적'을 어떤씨라 했지만, 어떻씨에 대한 기

54) 『우리말본』 초판에는 발가지 목록에 '-적'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1955년판부터는 '뒷가지(초판의 '발가지'에서 용어 변경함)'의 하위 분류인 "이름씨 아래에 붙어서 뜻을 더하는 뒷가지" 중 "그러한 성질을 띰을 나타내는 것"의 목록에 '-적'과 '-화'가 추가되었다(최현배, 1955:651-652).

술에서는 “『○○的』—이러한 形式의 말이 어떤씨인가, 이름씨인가는 여기에서 얼른 작정하지 아니하더라도(644쪽)”라고 하여 ‘-적’ 결합형의 품사적 범주가 관형사인가 명사인가의 문제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였다.

오늘날 ‘-적’ 결합형은 지정사와 함께 쓰일 때는 명사적 성격을 갖지만 격조사가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명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적’이 국어에 쓰이기 시작했던 초창기인 1890~1900년대에는 오늘날보다 명사적 성격이 강했다. ‘○○적이’, ‘○○적을’, ‘○○적의’ 등과 같이 격조사가 결합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20~1930년대로 오면 격조사와의 결합이 대폭 축소되면서 명사적 성격을 잃어갔다. 이처럼 ‘-적’은 짧은 시기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국어의 문법 형태로 정착해 갔는데, 이 절에서는 먼저 ‘-적’의 기원에 대해 살펴본 뒤 말뭉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그 발달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적’의 기원

전통적으로 한문에서 ‘적(的)’은 어휘적 의미를 가지거나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기능어로 쓰였다[55].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파생 접미사 ‘-적(-的)’이 한국, 일본, 중국의 문헌에 두루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일본이었다. 広田(히로다, 1969:283-303)에 따르면, 일본어 파생 접미사 ‘-的(てき)’는 메이지(明治) 10년을 전후로 학술적 글에서 널리 사용되었다[56]. 이는 영어를 비롯한 서구의 형용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objective’를 ‘客觀的’으로, ‘passive’를 ‘受動的’으로, ‘rational’을 ‘合理的’으로 번역한 것이다[57]. 이처럼 초기에 주로 학술 영역에서 쓰이던

55) 정영숙(1994:34)는 한문에 쓰인 ‘的’의 전통적 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1) 표적이라는 의미, 2) ‘적확하다, 선명하다’의 의미, 3)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용법, 4) ‘的’字句를 만드는 명사적 용법, 5) 사람이라는 의미.
56) 広田(1969:289)에서는 일본어에서 니시아마네(西周)의 문장에서 ‘현대적 용법의 ‘-的’의 최초 용례가 보인다고 하였다. 広田가 인용한 니시아마네의 문장에는 ‘觀察的, 實行的, 外物的, 貪知的’이 쓰였다.
57) 이는 広田(1969:296-297)에서 제시한 『哲學字彙(1881)』 예의 일부를 재인용한 것이다.

‘-的’은 메이지 20년경에는 잡지나 소설 등 비학술적 글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파생 접미사 ‘-的’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시기는 1880년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종합지 『太陽』의 1895년 발행 호만 살펴봐도 아래와 같이 ‘계속적, 소크라테스적, 과학적, 주관적’ 등 파생 접미사로 쓰인 ‘-的’의 용례가 수천 개 이상 나온다[58].

(1) a. 國初より繼續的に習用し來れる階級制の撤去は、…<太陽1895年 01号>
  b. …所謂るソクラテス的滑稽である。<太陽1895年 02号>
  c. 科學的に駢列せる美文は、…<太陽1895年 03号>
  d. 主觀的意衷を越えて…<太陽1895年 12号>

정영숙(1994)는 한국어 문헌 중에는 1896년에 발행된 『친목회회보』에서 파생 접미사 ‘-적’의 최초 용례가 발견된다고 하였다. ‘진보적, 퇴보적, 국민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등이 그 예이다. 『친목회회보』는 ‘대조선 일본 유학생 친목회’에서 발행한 학회지로 일본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던 재일 유학생들이 만든 잡지이다. 국내에서 발행된 자료에도 19세기 말부터 ‘-적’의 용례가 보이지만 그 쓰임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20세기 전반기에 와서이다[59]. 당시 자료에 나타난 ‘-적’의 용례를 보면, 결합된 어기가 거의 대부분 2음절 한자어 명사였다. ‘-적’의 유입과 확산은 이 신생 2음절 한자어 명사들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을 있었다.

2) ‘-적’의 발달 과정

58) 이 용례는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 구축한 《太陽コーパス》에서 검색한 것이다. 이 말뭉치는 1895년부터 1928년까지 발행되었던 종합지 『太陽』을 토대로 구축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田中(다나카, 2005)를 참고할 수 있다.

59) 한영균(2009)는 1890년대, 1909년, 1920년대, 1930년대 신문 논설을 분석해 각 시기의 특징을 비교하였는데, ‘-적’의 쓰임이 본격화된 것이 1920년대부터였다고 하였다(한영균, 2009:320-321).

20세기 전반기 자료에 쓰인 '-적'의 용례를 보면 그것이 결합되던 어기의 종류도 지금보다 훨씬 다양했고[60] "우리는 朝鮮 농업의 자본주의적 발달의 진보적, 발전적 역할을 과정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1931-02-삼천리03-02-35>"의 예에서처럼 한 문장 안에 '-적'이 여러 번 쓰인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 '-적'의 용법을 분석한 송민(1985)는 1900~1910년대 자료에 나타난 '-적'의 초창기 용법을 기술하고 이 용법이 1920년대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송민(1985)에 따르면, 1900~1910년대에는 '-적'에 조사 '-과'나 '-의'가 결합될 수 있었고 '-적' 파생 명사와 피수식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삽입될 수 있었다. 1920년대에는 '-적' 뒤에 조사 '-과'를 쓰지 않고 대신 쉼표를 붙이게 됐으나 조사 '-의'는 여전히 결합되었다. '-적'과 피수식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개재되는 쓰임도 지속되었다. 1920년대에 들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적' 파생 명사에 조사 '-으로'가 결합돼 부사화되거나[61] '-적이다, -적이 아니다, -적이 되다' 등과 같이 술어화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송민(1985)를 참고해, 《1890-1900학회지》, 《삼천리》, 《현대》의 세 말뭉치에 나타난 '-적'의 쓰임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이전 시기의 용법을 살펴보기 위해 《세종역사》를 이용하지 않고 근대 계몽기의 학회지 말뭉치를 이용한 까닭은 접미사 '-적'의 쓰임이 본격화된 것이 19세기 말 이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890-1900학회지》는 《삼천리》나 《현대》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말뭉치 크기를 300만 어절로 설정하고 빈도를 정규화했다. 아래의 표는 세 말뭉치에 쓰인 '-적' 파생 명사의 문장 성분별 쓰임을 정리한 것이다[62].

60) '가능적, 건강적, 노력적, 다양적, 동등적, 반대적, 살균적, 숙녀적, 찬성적, 철저적' 등과 같이 오늘날에는 '-적'이 결합되지 않는 어기에 '-적'이 결합된 예들이 다수 발견된다. 파생 접미사 '-적'의 용법은 20세기 전반기에 들어 급격히 확장되었다가 후대로 오며 점차 축소되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적' 파생 명사가 사라지게 됐는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1) 하지만 이 연구에서 1890~1900년대에 발행된 학회지의 용례를 조사해 본 결과, '-적' 파생 명사에 '-으로'가 결합된 쓰임은 1920년대 이전에 이미 나타났다.

62) '-적' 파생 명사에 '이다'가 결합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술어로 분석하였지만 '-적인'으로 쓰인 경우는 관형어로 분석하였다. '-적인' 역시 '이다'가 결합되었으므로 서술어로 분석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표 5> '-적' 파생 명사의 문장 성분별 쓰임

	1890-1900학회지		삼천리		현대	
	정규화 빈도[63]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주어	94	0.9%	0	0.0%	4	0.0%
목적어	34	0.3%	0	0.0%	0	0.0%
보어	34	0.3%	94	0.4%	44	0.4%
관형어	8940	84.5%	17,311	74.5%	6,087	50.4%
부사어	1260	11.9%	4,784	20.6%	4,736	39.3%
서술어	223	2.1%	1,034	4.5%	1,195	9.9%
총합	10,686	100%	23,223	100%	12,066	100%

'-적' 파생 명사는 세 말뭉치에서 모두 관형어로 쓰인 예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후대로 오면서 관형어로 쓰인 예가 점점 줄고(84.5%→74.5%→50.4%) 부사어(11.9%→20.6%→39.3%)나 서술어(2.1%→4.5%→9.9%)로 쓰인 예는 점점 늘었다. 한편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서의 쓰임은 어느 시기에나 매우 저조했다. 《1890-1900학회지》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로 쓰인 용례가 각각 0.9%, 0.3% 정도 됐지만 후대로 오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세 말뭉치에서 모두 관형어로 쓰인 예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해 '-적' 파생 명사의 주된 용법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후행 명사구를 수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송민(1985)에서 1920년대부터 '-적' 파생 명사가 부사화, 술어화되는 쓰임이 나타났다고 한 것처럼 후대로 오며 명사적 용법은 축소되었고[64] 서술어를 수식하며 부사로 쓰이거나 '이다'와 결합해 서술어로 쓰이는 용법은 확대되었다.

이런 쓰임에서는 '-적인'이 논항을 취하는 서술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적' 파생 명사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말의 절에 대한 분석 기준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나는 맛있는 밥을 먹었다'에서 '맛있는'을 관형절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용언의 관형형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63) 정규화하기 전의 각 성분별 빈도는 다음과 같다. 주어(11), 목적어(4), 보어(4), 관형어(1,043), 부사어(147), 서술어(26).

64) 하지만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삼천리》에는 '-적' 파생 명사가 '이다'와 결합해 서술어로 쓰인 예 중에도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명사적 성격을 띤 경우가 간혹 있었다.
예) 이 「哀怨聲」은 咸慶道 민요의 대표적이다.<1936-08-삼천리08-08-111>

'-적' 파생 명사가 주어, 보어, 서술어로 쓰일 때는 각각 주격조사 '가', 보격조사 '가', 지정사 '이다'가 결합되었다. 하지만 관형어로 쓰일 때는 조사 '-의'뿐 아니라 지정사 '이다'가 결합되기도 했고 문법 형태의 결합 없이 단독으로 쓰이기도 했다. 부사어로 쓰일 때도 조사 '-에'뿐 아니라 조사 '-으로'가 결합되기도 했고 단독으로 쓰이기도 했다. '-적' 파생 명사가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인 경우, 문법 형태와의 결합 양상에 시기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말뭉치의 용례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아래의 표는 《1890-1900학회지》, 《삼천리》, 《현대》에서 '-적' 파생 명사가 관형어로 쓰인 예를 분석해 문법 형태와의 결합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1890-1900학회지》는 《삼천리》나 《현대》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말뭉치 크기를 300만 어절로 설정하고 빈도를 정규화했다.

<표 6> 관형어로 쓰인 '-적' 파생 명사의 실현 양상

성분 \ 시기		1890-1900학회지		삼천리		현대	
		정규화 빈도[65]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관형어	-의	214	2%	355	2%	1	0%
	이다	0	0%	2,181	13%	6,036	99%
	∅	8,726	98%	14,775	85%	50	1%
	합계	8,940	100%	17,311	100%	6,087	100%

'-적' 파생 명사가 관형어로 쓰였을 때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이다' 결합형과 단독형(∅)이었다. 《1890-1900학회지》에서는 '-적' 파생 명사가 단독으로 후행 명사구를 수식하는 쓰임이 98%였고 《삼천리》에서도 85%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현대》로 오면서는 1%로 급격히 줄었다. 반면, '-적' 파생 명사에 '이다'가 결합돼 '-적인'으로 쓰인 예는 《1890-1900학회지》에는 전혀 없었고 《삼천리》에서는 전체 용례의 13%였다가 《현대》로 오며 99%가 됐다. 즉, '-적'의 관형어로서의 용법은 '～적 NP'에서 '～적인 NP'로 변화된 것이다. '-적' 파생 명사가 관형어로 쓰

65) 정규화 이전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의(25), 이다(0), ∅(1,018).

일 때 조사 '-의'가 결합된 쓰임은 《1890-1900학회지》와 《삼천리》의 일부 예에 나타났는데 그 쓰임은 2% 수준에 불과했다[66].

이어서 '-적' 파생 명사가 부사어로 쓰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다. 아래의 표는 《1890-1900학회지》, 《삼천리》, 《현대》에서 '-적' 파생 명사가 부사어로 쓰인 예를 분석해 문법 형태와의 결합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앞의 표와 마찬가지로 《1890-1900학회지》의 빈도는 정규화한 값을 제시하였다.

<표 7> 부사어로 쓰인 '-적' 파생 명사의 실현 양상

성분 \ 시기		1890-1900학회지		삼천리		현대	
		정규화 빈도[67]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부사어	-으로	1,183	94%	4,427	93%	4,531	96%
	-에	77	6%	23	1%	0	0%
	-에서	0	0%	0	0%	1	0%
	-보다	0	0%	1	0%	0	0%
	∅	0	0%	337	7%	204	4%
	합계	1,260	100%	4,784	100%	4,736	100%

어느 시기든 '-적' 파생 명사가 부사어로 쓰였을 때 대부분은 조사 '-으로'가 결합되었다(94%→93%→96%). 시기에 따라 '-에', '-에서', '-보다'와의 결합도 확인되지만 용례 수는 극히 적었다. '-적' 파생 명사가 부사어로 쓰였을 때 시기별로 차이를 보

66) 파생 접미사 '-적' 자체가 일본어에 기원을 두는 만큼 20세기 초 한국어 자료에 나타난 '-적의'는 일본어의 '-的ノ'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広田(1969:295, 299)는 일본어에서 '-的'가 쓰이기 시작하던 메이지 10년경에는 주로 'ノ'가 결합되다가 메이지 15년 이후부터 'ナリ, ニ'가 결합된 용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2%에 불과한 쓰임이었지만 '-적' 뒤에 '-의'가 결합된 예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 「朝鮮民族의 대표」라 하면 對外的의 성질을 띄는 경우와 또한 對內的의 성질을 띄는 두 가지 경우가 잇는 줄 안다.<1931-01-삼천리03-01-1>

예) …이것은 絶對的의 要件이 아니다.<1931-05-삼천리03-05-28>

예) 그러나 이것은 表面的의 現象이다.<1931-06-삼천리03-06-53>

예) …英, 獨, 米, 等의 代表的의 大國家에서도 파시스트的의 獨裁政治가 現實되고 잇으며<1934-09-삼천리06-09-52>

이처럼 일부 예에서는 일본어의 용법 그대로 '-적의'로 쓰이기도 했지만 '-적'이 한국어의 문법 형태로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의'는 결국 탈락하게 되었다.

67) 정규화하기 이전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으로(138), -에(9), -에서(0), -보다(0), ∅(0).

이는 부분은 조사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쓰인 용법이다. 《1890-1900학회지》에서는 ‘-적’ 파생 명사가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인 예가 없었지만 《삼천리》에서는 7%, 《현대》에서는 4%의 예에서 이러한 쓰임이 확인됐다. ‘-적’ 파생 명사가 단독형으로 부사어로 쓰인 예는 두 말뭉치에서 모두 ‘비교적’, ‘가급적’에 한정됐는데, 이들은 《1890-1900학회지》에서는 ‘비교적으로’, ‘가급적으로’의 꼴로 쓰였다.

다음으로 ‘-적’ 파생 명사와 피수식 명사 사이에 수식어가 삽입된 예에 대해 살펴보겠다. 《삼천리》에서 ‘-적’과 피수식 명사 사이에 형용사를 비롯한 다른 수식어가 쓰인 예는 총 83개로 ‘-적’ 파생 명사가 관형어로 쓰인 총 용례의 약 0.5%에 해당한다. 송민(1985)에서 지적한 초창기 용법이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삼천리》에도 일부 남아 있었던 것이다.

(2) a. 佛, 英, 米 등 열강의 호시탐탐한 광경 등 未幾日에 국제적의 미묘한 분주는 엇더한 動因을 지을 것 가치 생각됩니다.<1931-11-삼천리03-11-24>

b. 氏가 이 세상을 버리든 최후 순간은 인도적 순정적의 비장하고도 숭고한 광경에 가득 찻섯스니…<1929-06삼천리01-01-13>

c. 보통 사람은 능히 하지 못할 획세기적 기발한 일과 사상의 건설자를 조아합니다.<1930-01삼천리02-01-11>

d. 憑虛 玄鎭健씨는 누가 보든지, 그의 好男兒的 호방한 기풍을 붓잡을 수 잇는 동시에… <1933-01-삼천리05-01-92>

(2a)나 (2b)처럼 ‘-적’에 ‘-의’가 결합되든, (2c)나 (2d)처럼 ‘-의’가 결합되지 않든, ‘-적’ 파생 명사와 피수식어 사이에는 다른 관형어가 개재될 수 있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적’ 파생 명사 자체의 특성은 아니었다. 수식 요소가 연달아 배열되는 것은 당시 문장 구조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적’ 파생 명사, ‘-의’가 결합된 명사구, 관형절, 형용사의 관형형 등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는 요소가 세

개 이상 연달아 쓰인 용례이다.

(3) a. …商賈船人들의 원시적 유치한 공포적 종교심에서 그 시대의 문화수준을 엿볼 수 있으며…<1940-10-삼천리12-09-200>
b. …오늘의 文化現象을 正確히 把持하는 營利的 明敏한 頭腦가 대담스러히 活動한다면…<1937-01-삼천리09-01-155>
c. …보찜 싸고 집 팔겟다고 「House to sole」의 廣告를 내부친 그러한 神經過敏한 양코백이…<1931-05-삼천리03-05-10>
d. 그것은 오로지 今日의 如何한 整然한 理論에도 不拘하고…<1931-06-삼천리03-06-15>

위의 예를 보면, 용언의 관형사형, 관형절, '-의' 명사구, '-적' 파생 명사 등이 세 개씩 이어져 명사구의 수식 구조를 이루었다. 이는 20세기 전반기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 파생 명사와 피수식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삽입되는 것은 '-적' 파생 명사의 특수성이 아닌 당시 명사구 수식 구성의 일반적 특징으로 봐야 할 것이다.

20세기 전반기에 '-적'의 쓰임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접미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기로 쓰인 2음절 한자어의 확산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68]. '-적'은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2음절 한자어 외에도 당시 유행하던 여러 외래어에 결합될 수 있었다.

(4) a. 百파센트의 스피드的 思想上 飛躍을 하여…<1931-07-삼천리03-07-14>
b. 우리의 이니시애티브的 스로-간<1931-04-삼천리03-04-12>

68) 이는 이들 2음절 한자어 어기를 취한 동사 파생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 점인데, 20세기 전반기에 '-되다' 등 동사 파생 접미사의 용법이 급격히 확대된 것도 이들 어기의 쓰임이 확대된 것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파생 접미사 '-되다'의 쓰임에 대해서는 이 글의 4.5.1에서 논의할 것이다.

c. 어느 듯 우리는 켈트的 精神이 自然에 合致되고 沒入되드시 예이츠의 詩에 合致되고 <1934-11-삼천리06-11-226>

d. 근대 도시의 「쨔즈」的 喧騷를 壓頭的으로 「리-드」하는 特異한 음향일 것이다.<1930-07삼천리02-04-41>

위의 예에 쓰인 외래어 어기는 서구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유입 경로가 '서구어→국어'였는지 '서구어→일본어→국어'였는지에 대해서는 어휘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외래어가 관형어로 활용될 때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파생 접미사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 '-적'이 사용되었다.

3.1.1.2. 조사 '-의'에 의한 명사구 수식 구성

20세기 전반기에는 하나의 명사구 수식 구성 안에 세 개나 네 개의 명사구가 수식 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땅의 문화사상의 有爲의 인물의 하나로서의 朱耀翰<1936-08-삼천리08-08-167>'과 같이 최대 여섯 개의 명사구가 하나의 상위 명사구 안에서 수식 관계를 이루기도 했다. 근대국어 시기에도 세 개의 명사구가 속격조사 '-의'나 '-ㅅ'을 매개로 이어졌지만(홍윤표, 1994:462)[69] 네 개 이상의 명사구가 속격조사로 이어진 쓰임은 흔치 않았다. 이러한 쓰임은 오늘날에도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는 20세기 전반기 명사구의 특징적 쓰임이라 할 수 있다.

최현배(1937:842)는 어떤자리토의 쓰임을 기술하며 'NP의 NP' 구성의 예만 제시했지만, 같은 자리 어떤말의 쓰임을 보인 부분에서는 "周 先生의, 一生의, 著述", "그의,

69) 근대국어에서도 'NP의 NP의 NP' 구성은 흔히 사용되었다. 홍윤표(1994:462)에서는 근대국어에서 'NP의 NP의 NP', 'NP의 NPㅅ NP', 'NPㅅ NP의 NP', 'NP의 NP의 NP'의 네 가지 구성이 가능했는데 이는 형태의 차이일 뿐 실질적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지만 향후 근대국어 자료에 나타난 'NP의 NP의 NP' 구성의 명사구 간 의미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본고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20세기 전반기 'NP의 NP의 NP' 구성이 근대국어의 명사구 수식 구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이 시기에 새로 생겨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文法의, 著書", "世界大戰의, 二千萬 生靈의, 損失"과 같이 'NP의 NP의 NP'의 예를 제시하였다(최현배, 1937:1067). 또한 홑월의 구조를 보인 부분에서도 "人生의 最高의 理想"라는 예를 보였다(최현배, 1937:1104). 이 예들 중 '주 선생의 일생의 저술'이나 '인생의 최고의 이상'은 오늘날의 직관으로도 허용이 되지만 '그의 문법의 저서'에서는 '문법' 다음에 '-의'가 탈락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또한 '세계대전의 이천만 생령의 손실'은 '세계대전' 다음에 '-의'를 쓰는 것보다 '-으로 인한'과 같은 표현을 써서 해당 명사구가 원인을 나타낸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오늘날이라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20세기 전반기에 '-의'의 분포가 오늘날보다 넓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를 매개로 확장된 명사구 수식 구성에 대해서는 일본어 조사 'の'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본어의 영향 관계를 입증할 뚜렷한 근거는 없다. 또한 20세기 전반기에는 '-의'를 매개로 한 수식 구조뿐 아니라 용언의 관형형이나 명사구 등이 여러 개 연달아 쓰인 수식 구조도 널리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일본어 조사 'の'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구성의 기원을 밝히는 데에까지는 논의를 확대하지 않고 《삼천리》에 쓰인 'NP의 NP의 NP' 구성과 'NP의 NP의 NP의 NP' 구성의 내적 구조와 명사구 간 의미 관계를 세밀히 기술하는 데에 주력하려고 한다[70].

1) 'NP의 NP의 NP' 구성의 명사구 간 의미 관계

오늘날 세 개의 명사구가 수식 관계로 이어질 때 '-의'는 명사의 의미나 명사구 간의 관계에 따라 출현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오늘날 세 개 이상의 명사구가 수식 구

---

70) '-의'가 네 번이나 다섯 번 쓰인 예도 있었지만 용례 수가 많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삼천리》에서 'NP의 NP의 NP의 NP의 NP의 NP' 구성은 본문에서 제시한 하나의 예에서만 나타났고, 'NP의 NP의 NP의 NP의 NP' 구성은 19개의 예에서 나타났다.

성을 이룰 때 '-의'의 생략에 관여하는 제약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술성 명사 뒤에는 '-의'가 쓰이지 않는다. 둘째, 동격 관계의 명사구 사이에는 '-의'가 쓰이지 않는다. 셋째, 명사구 사이에 의미상의 주술 관계가 성립할 경우 '-의'의 쓰임이 제한된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 'NP의 NP의 NP' 구성에서는 이러한 문법적 제약이 작용되지 않았다.

첫째는 서술성 명사에 관한 제약이다. 정희정(2000:74)은 '입원, 투쟁, 체포, 재현'과 같은 "서술성 명사가 관형어로 쓰이면 관형 기능의 명사구와 뒤의 보문 명사 사이에 '-의'가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어머니의 입원의 소식'이나 '어머니 입원의 소식'으로는 쓸 수 없고 서술성 명사 뒤의 '-의'를 생략해 '어머니의 입원 소식'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아래의 예에서처럼 서술성 명사 뒤에도 '-의'가 쓰였다.

(5) a. …합법성의 이용이란 미명하에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의식을 저하 내지 말살 식힌 것과 갓치…<1931-12-삼천리03-12-9>

b. …朝鮮人의 **社會 生活의** 記錄에 비추어…<1934-09-삼천리06-09-75>

c. …月香의 **自殺의** 이유를 보이지 아니하였음에 因함인가 하나이다.<1939-06-삼천리11-07-132>

d. 우리는 以上과 같은 朝鮮 공업의 **躍進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도 爲先 最近年의 全 일본 경제의 동향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1939-06-삼천리11-07-81>

위의 예를 보면, '투쟁, 생활, 자살, 약진'과 같은 서술성 명사 뒤에도 조사 '-의'가 결합됐다. 오늘날이라면 '노동자 계급의 투쟁 의식', '조선인의 사회 생활 기록', '월향의 자살 이유', '조선 공업의 약진 원인'과 같이 서술성 명사 뒤의 '-의'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는 동격 관계에 있는 명사 사이의 제약이다. 20세기 전반기에는 아래의 예에

서처럼 동격 관계에 있는 명사들도 '-의'로 연결되었다.

(6) a. 따라서 나의 자신의 주관을 제목과 같은 범주에다가 맞추어 보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1938-12-삼천리10-12-34>
  b. 이것은 崔氏의 자신의 표준으로 충분 불충분을 판정하는 것이 너무 眼下無人의 主視中心的 오만한 태도 일것임니다.<1933-04-삼천리05-04-104>
  c. …流浪하는 찝시-의 무리의 생활이며…<1931-01-삼천리03-01-38>
  d. …또는 간부의 개개인의 활동량을 비교함으로써…<1931-01-삼천리03-01-13>
  e. 그가 數 개인의 자본가의 助力을 어더 한 방적공장을 경영하게 되매…<1931-10-삼천리03-10-28>

'나의 자신의 주관', '최씨의 자신의 표준', '찝시-의 무리의 생활', '간부의 개개인의 활동량', '수 개인의 자본가의 조력'에서 앞뒤 명사구는 동격 관계이다. 오늘날이라면 선행 명사구 뒤의 '-의'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는 의미상의 주어에 관한 제약이다. 오늘날에는 'NP_1의 NP_2의 NP_3' 구성에서 NP_1이 NP_3의 의미상의 주어일 때 NP_2에 조사 '-의'가 결합되지 않는다. 정희정(2000:72)은 주어의 지위를 갖는 명사구가 관형어로 쓰일 때 '-의'의 중복은 어색하다고 하였다. 즉, '여성의 사회에의 진출'과 같은 예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하였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관형어로 쓰여도 '-의'가 중복 출현했다.

(7) a. 新幹會의 解消는 회원의 조합에의 편입을 단행 완료함으로 될 것이오,…<1931-02-삼천리03-02-13>
  b. …금융패권의 米國에의 이동을 보게 되엇섯고…<1936-02-삼천리08-02-18>
  c. …新疆과 蒙古에서는 蘇聯의 中央亞細亞의 進出 工作이 完成되고…<1935-02-삼천리07-02-36>

‘회원의 조합에의 편입’, ‘금융패권의 미국에의 이동’, ‘소련의 중앙아세아의 진출’에서 NP_1은 NP_3의 의미상의 주어이고 NP_2는 의미상의 부사어이다. 각각을 온전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회원이 조합에 편입하다’, ‘금융패권이 미국에 이동하다’, ‘소련이 중앙아세아에 진출하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아래의 예는 NP_1이 NP_3은의 의미상의 주어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NP_2가 목적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8) a. 고로 우리는 그들의 **문제의** 제기에서 우리가 문제로 할 문제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잇다.<1931-02-삼천리03-02-35>

b. …印度人의 **自治의** 要求에 대한 閣下의 正當適切한 措置가…<1934-06-삼천리06-07-50>

c. …독일 군사의 **고사포의** 발사와 소총의 사격과 비행기의 반격 가튼 것을 줄 새가 업시…<1934-08-삼천리06-08-185>

‘그들의 문제의 제기’, ‘인도인의 자치의 요구’, ‘독일군의 고사포의 발사’에서 NP_1은 의미상의 주어, NP_2는 의미상의 목적어이다. 오늘날이라면 ‘그들의 문제 제기’, ‘인도인의 자치 요구’, ‘독일군의 고사포 발사’와 같이 의미상의 목적어인 NP_2 뒤에 ‘-의’가 쓰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2) ‘NP의 NP의 NP의 NP’ 구성의 내적 구조

이 절의 전반부에서는 ‘NP의 NP의 NP’ 구성에 나타난 명사구의 의미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NP의 NP의 NP’ 구성과 더불어 《삼천리》에 널리 쓰이던 ‘NP의 NP의 NP의 NP’ 구성도 명사구의 의미 관계는 앞에서 논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명사구가 하나 더 추가된 만큼 내적 구조는 더 복잡하게 나타났다. 이 절의 후반부에서는 ‘NP의 NP의 NP의 NP’ 구성의 내적 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삼천리》에 쓰인 ‘NP_1의 NP_2의 NP_3의 NP_4’의 용례를 모두 분석해 본 결과 다

섯 가지의 결합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결합 양상은 NP_1과 NP_2가 수식 관계로 상위 명사구를 이룬 뒤 NP_3를 수식하고, 이 세 명사구가 다시 한 덩어리로 NP_4를 수식하는 구조이다.

(9) 제1유형: [[[NP_1의 NP_2의]$_{NP}$ NP_3의]$_{NP}$ NP_4]$_{NP}$

예) [[[愛蘭 文藝 運動의 建設者로써의] 예이츠의] 評價]$_{NP}$<1934-11-삼천리06-11-225>

위의 예는 '[애란 문예 운동의 건설자] → [[애란 문예 운동의 건설자]로써의 예이츠] → [[[애란 문예 운동의 건설자]로써의 예이츠]의 평가]'로 분석된다. 즉, 제1유형은 NP_1부터 NP_4까지 어순을 따라 점차 확장되는 구조이다.

제2유형은 NP_1과 NP_2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그와 별도로 NP_3와 NP_4가 하나의 단위를 이룬 다음, [NP_1의 NP_2]의 결합체가 [NP_3의 NP_4]의 결합체를 수식하는 구조이다. 아래의 예에서는 '[사람의 생활]'이 '[귀부인의 생활]'을 수식한다.

(10) 제2유형: [[N_1의 N_2의]$_{NP}$ [N_3의 N_4]$_{NP}$]$_{NP}$

예) [[사람의 生活로서의]$_{NP}$ [貴婦人의 生活]$_{NP}$]$_{NP}$<1929-11삼천리01-03-20>

제3유형은 먼저 NP_2와 NP_3가 하나의 단위를 이룬 다음 그 앞의 NP_1과 결합되고, 이 세 명사구가 합쳐져 NP_4를 수식하는 구조이다. 아래의 예는 '[3개의 내각] → [삼각형의 [3개의 내각]] → [[삼각형의 [3개의 내각]]의 화]'로 분석된다.

(11) 제3유형: [[NP_1의 [NP_2의 NP_3의]$_{NP}$]$_{NP}$ NP_4]$_{NP}$

예) [[삼각형의 [3개의 內角의]$_{NP}$]$_{NP}$ 和]$_{NP}$<1929-09삼천리01-02-35>

제4유형은 먼저 NP_2와 NP_3가 하나의 단위를 이룬 다음 그 뒤의 NP_4와 결합되고,

이 세 명사구가 합쳐져 NP_1의 수식을 받는 구조이다. 아래의 예는 '[인도의 농업 인구] → [[인도의 농업인구의] 추세] → [좌의 [[인도의 농업인구의] 추세]]'로 분석된다.

(12) 제4유형: [NP_1의 [[NP_2의 NP_3의]$_{NP}$ NP_4]$_{NP}$]$_{NP}$
　예) [左의 [[印度의 농업 인구]$_{NP}$의 추세]$_{NP}$]$_{NP}$<1931-07-삼천리03-07-40>

제5유형은 첫 번째로 살펴본 제1유형과 정반대로 NP_3와 NP_4가 통합되고 점점 앞으로 거슬러 올라오며 명사구가 확장되는 구조이다. 아래의 예는 '[최후의 공판] → [고등법원의 [최후의 공판]] → [그의 [고등법원의 [최후의 공판]]]로 분석된다.

(13) 제5유형: [NP_1의 [NP_2의 [NP_3의 NP_4]$_{NP}$]$_{NP}$]$_{NP}$
　예) [그의 [고등법원의 [최후의 공판]$_{NP}$]$_{NP}$]$_{NP}$<1932-05-삼천리04-05-31>

이처럼 20세기 전반기에 'NP_1의 NP_2의 NP_3의 NP_4' 구성은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내적 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이 다섯 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이 당시 가장 널리 쓰이던 구조인지 알아보기 위해 《삼천리》에서 각 유형의 출현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1유형과 제2유형이 용례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3~5유형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표 8> [NP_1의 NP_2의 NP_3의 NP_4]$_{NP}$의 내적 구조[71]

유형	구조	빈도	백분율
제1유형	[[[NP_1의 NP_2의]$_{NP}$ NP_3의]$_{NP}$ NP_4]$_{NP}$	67	38%
제2유형	[[NP_1의 NP_2의]$_{NP}$ [NP_3의 NP_4]$_{NP}$]$_{NP}$	48	27%
제3유형	[[NP_1의 [NP_2의 NP_3의]$_{NP}$]$_{NP}$ NP_4]$_{NP}$	27	15%
제4유형	[NP_1의 [[NP_2의 NP_3의]$_{NP}$ NP_4]$_{NP}$]$_{NP}$	16	9%
제5유형	[NP_1의 [NP_2의 [NP_3의 NP_4]$_{NP}$]$_{NP}$]$_{NP}$	19	11%
종합		177	100%

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어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장되는 제1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앞의 두 명사구와 뒤의 두 명사구가 각각 수식 관계로 묶인 뒤 두 덩이의 명사구 사이에 다시 수식 관계가 성립되는 제2유형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3.1.1.3. 명사구 접속 구성에서 마지막 명사구 뒤 '-과'의 실현 여부[72]

역사적으로 국어의 명사구 접속 구성에서는 접속된 마지막 명사구 뒤에 '-과'가 탈락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었다. 오늘날에는 'NP와 NP와 NP와의'처럼 '-의' 앞에서는 마지막 명사구 뒤에 접속조사가 쓰이기도 하지만 그런 쓰임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사라진 용법이라 할 수 있다. 최현배(1937:1064)에서 "이음토씨 『과, 와』를 같은자리말마다에 붙인 것은 시방은 별로 없으나, 옛글에는 퍽 많다."라

71) 말뭉치에서 '-의'를 매개로 한 명사구 수식 구성의 용례를 추출한 방법을 기록해 둔다. 깜짝새는 키워드 앞뒤로 나타나는 공기어 검색 기능도 제공하는데, 이때 공기 범위(어절 수)도 설정할 수 있다. 키워드를 '의_'로 지정하고, 1음절 앞뒤의 공기어도 모두 '의_'로 지정한 뒤 해당 용례들을 모두 추출하였다. 그러면 'NP의 NP의 NP의'의 용례들뿐 아니라 'NP의 NP의 NP의 NP의'나 'NP의 NP의 NP의 NP의 NP의' 등의 용례, 즉 적어도 세 개의 'NP의'를 포함하고 있는 용례들이 모두 추출된다. 그런 다음 용례들을 하나씩 눈으로 검토하며 명사구 수식 구성을 이루는 'NP의 NP의 NP의 NP'의 용례를 가려내 이를 대상으로 통사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검색된 용례 중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용례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괄호 안에 NP의 NP 구성이 쓰인 경우

예) …싯누-런 시월**의** 태양(十月**의** 太陽)**의** 지독한 몬지…<1931-06-삼천리03-06-77>

(2) 명사가 'XX'로 표기된 경우(수식 관계의 유형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함)

예) 最後로 XX의 XX에 잇서서**의** XXX**의** 重要任務**의** 하나는 勞働者와 農民의 XXXXX를 組織하는 일일 것이다.<1931-07-삼천리03-07-3>

(3) 수식 구조가 아닌 나열에 해당되는 경우(오늘날이라면 쉼표가 있어야 함)

예) …배우 생활이나 [남**의** 안해로서**의**] [남**의** 어머니로서**의**] 임무가 다 각각 노다거리로 해도 돼나가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1940-05-삼천리12-05-150>

72) 오늘날 명사구가 접속될 때 문법 형태를 매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쉼표가 쓰인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아직 문장 부호의 쓰임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의 예처럼 쉼표도 없고 접속조사나 접속부사 등도 없이 명사구가 그대로 나열되어 쓰이기도 했다.

예) 과연 파리 인심은 자유 평등 박애가 충분하야 누구든지 유쾌히 살 수 잇스며 이곳을 떠날 때는 마치 애인 압흘 떠나는 것 갓다.<1934-06-삼천리06-07-134>

고 한 것처럼 20세기 전반기에도 명사구 접속 구성에서 마지막 명사구 뒤에 '-과'를 쓰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이러한 쓰임이 거의 사라졌던 것은 아니었다.

최현배(1937:881-883)에서는 '-와/과', '-고/이고', '-며/이며', '-랑/이랑', '-하고', '-하며', '-에'가 명사구를 접속시킨 예를 제시하였는데 이 예들을 보면 모두 마지막 명사구 뒤에도 접속조사가 실현돼 있지만 '-와/과'의 예는 "나와 너는 유별난 동무 아닌가", "논과 밭을 다 잃어 버렸다"처럼 마지막 명사구 뒤에 '-과'가 쓰이지 않았다. 『우리말본』에 기술된 이러한 용법은 오늘날의 용법과 일치한다.

《삼천리》에서도 '-과'를 제외한 나머지 접속조사는 마지막 명사구 뒤에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과'는 마지막 명사구 뒤에서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명사구 뒤에도 아래와 같이 '-과'가 실현될 때가 있었다.

(14) a. 모든 [형사와 경비대와]가 우리들을 체포할 만한 조건부의 명령을 밧엇습니다.<1932-01-삼천리04-01-132>
b. 吾人은 독립에 대한 [책임과 위험과]를 직면할 준비가 잇스며…<1931-11-삼천리03-11-2>
c. …그 애기가 [자기와 순영과]의 아이라 단정을 하게 하엿다.<1935-07-삼천리07-06-261>
d. 그런대 대개 일반 교양을 [문화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과]로 구별할 수 잇지마는 <1938-05-삼천리10-05-74>
e. 학교는 결국 시작되엇지마는 1학년에서 [나와 두어 동무와]는 퇴학을 당하고 말엇다.<1931-12-삼천리03-12-58>

위의 예를 보면, 'NP와 NP와' 뒤에 격조사 '-가', '-를', '-의', '-로'나 보조사 '-는'이 결합되었다. 역사적으로 마지막 명사구 뒤에서 '-과'가 탈락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됐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명사구에 결합되는 조사의 종류에 따라 변화의 양

상이 달리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후행 조사의 종류를 시기별로 조사해 보았다. 이를 통해, 접속 구성을 갖는 명사구가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였을 때 '-과'가 마지막 명사구 뒤에 나타나는 용법이 가장 오래 유지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는 《세종역사》, 《삼천리》, 《현대》의 분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9> 명사구 접속 구성에서 마지막 명사구 뒤에 결합된 조사의 종류

	세종역사		삼천리		현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의	33	3%	440	70%	2	67%
-를	804	66%	94	15%	0	0%
-는	238	20%	64	10%	1	33%
-에	3	0%	20	3%	0	0%
-도	12	1%	5	1%	0	0%
-으로	123	10%	2	0%	0	0%
-으로써	3	0%	0	0%	0	0%
-만	0	0%	2	0%	0	0%
총합	1,216	100%	627	100%	3	100%

먼저 빈도의 총합을 보면, 《세종역사》에서 《삼천리》로 가며 접속된 마지막 명사구 뒤에 조사가 결합된 용례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현대》로 오면서는 거의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결합된 조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세종역사》에서는 66%에 해당하는 예에서 '-를'이 결합된 반면, 《삼천리》에서는 '-를'의 비중이 15%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조사 '-의'는 《세종역사》에서는 접속된 마지막 명사구에 결합된 예가 거의 없었지만 《삼천리》에서는 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대》에서는 이런 쓰임 자체가 세 번밖에 나타나지 않아 조사별 쓰임을 논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의'와 '-는'이 결합된 예가 보였다.

이처럼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시기에 명사구 접속 구성은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일 때 'NP와 NP와 NP와를'처럼 조사 '-를'을 동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20세기 전

반기로 오면서 이러한 쓰임은 대개 사라졌고 'NP와 NP와 NP와의'처럼 조사 '-의'를 동반하며 관형어로 쓰이는 용법이 주를 이루게 됐다.

이처럼 후행하는 조사의 종류에 따라 명사구 접속 구성에서 마지막 명사구 뒤에 '-과'가 실현 혹은 생략되는 양상이 시기별로 달랐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마지막 명사구 뒤에서 '-과'가 탈락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됐지만 '-의'가 결합되는 명사구, 즉 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하는 명사구에서는 유독 접속된 마지막 명사구 뒤에서 '-과'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삼천리》에 나타난 용례를 중심으로 명사구 접속 구성에서 마지막 명사구 뒤에서 '-과'가 실현되는 환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절에서는 마지막 명사구 뒤에 '-과'가 실현된 용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삼천리》에 쓰인 명사구 접속 구성 전체를 고려해 본다면 이 절에서 다룬 예들은 예외적 쓰임이다. 그런데 『우리말본』에서는 이처럼 '-과'를 탈락시켰을 경우 문장의 의미 파악이 어려운 예들을 제시하고 이런 경우에는 전통적 용법을 되살려 '-과'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외솔이 문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은 예이다.

(15) a. 福童과 壽男의 언니는 同級生이다.
b. 四에 二와 三의 五倍를 더하면, 얼마이뇨.
c. 史記와 漢書의 列傳을 읽는다.

첫 번째 예문에서는 접속의 단위가 '복동'과 '수남'인지 '복동'과 '수남의 언니'인지 불분명하다. 두 번째 예문에서는 4에 2와 15(3의 5배)를 더하는 것인지, 10(2의 5배)과 15(3의 5배)를 더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세 번째 예문에서는 '사기'라는 책과 '한서 열전'을 읽는다는 것인지 '사기 열전'과 '한서 열전'을 읽는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외솔은 이러한 혼란이 생기는 이유가 접속되는 마지막 명사구 뒤의 '과'를 생략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늘에서라도 그 誤解를 이르키기 쉬운 말에

서는, 그 맨끝의 『와(과)』도 덜어 버리지 말고 一一히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최현배, 1937:883). 그리고 아래와 같이 구별할 것을 제안했다.

(16) a. 福童과 壽男과의 언니는 同級生이다.
a′. 福童과 壽男의 언니와는 同級生이다.
b. 四에 二와 三과의 五倍를 더하면, 얼마이뇨. (答 二九)
b′. 四에 二와 三의 五倍와를 더하면, 얼마이뇨. (答 二一)
c. 史記와 漢書와의 列傳을 읽는다.
c′. 史記와 漢書의 列傳과를 읽는다.

(16a)와 (16a′)를 보면 접속의 단위가 되는 명사구 각각에 접속조사 '과'가 결합됐다. (16a)에서는 '복동'과 '수남', (16a′)에서는 '복동'과 '수남의 언니'가 접속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의미의 해석은 명확해진다. 전자는 복동의 언니와 수남의 언니가 동급생이라는 의미이고, 후자는 복동과 수남의 언니가 동급생이라는 의미이다. (16b)와 (16b′)의 경우도 접속조사를 통해 접속의 단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16b)에서는 '2의 5배'와 '3의 5배'의 합이 된다. 반면 (16b′)에서는 '2'와 '3의 5배'의 합이 된다. 마지막으로 (16c)는 '사기 열전'과 '한서 열전'을 읽었다는 뜻이고 (16c′)는 '사기'와 '한서 열전'을 읽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외솔은 사라져가는 '-과'를 되살려 씀으로써 중의성을 방지하려 했지만 오늘날에도 명사구 접속 구성은 억양이나 쉼표 등의 도움이 없이는 접속 단위가 무엇인지 모호한 채 사용되고 있다.

3.1.1.4. 접속조사와 접속부사의 공기

명사구의 접속 구성은 접속조사뿐 아니라 접속부사를 매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한 문장에 접속조사와 접속부사가 함께 쓰인 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

려고 한다. 한 문장에 접속조사도 쓰이고 접속부사도 쓰일 때 ㉠각각이 서로 다른 명사구를 접속시키는 경우도 있고 ㉡같은 명사구를 접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즉, ㉠의 경우는 접속조사와 접속부사가 제각각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의 경우는 기능이 동일한 문법 요소가 중첩된 것이다.

최현배(1937:819)에서는 이음어찌씨의 종류를 쓰이는 위치에 따라 명사구 사이에 오는 '및, 또는, 곧' 등과 문장 첫머리에 오는 '그러나, 또, 그러니' 등으로 나누었는데, 접속조사와 접속부사가 한 문장에 공기한 경우, '및, 또는, 곧' 등은 주로 ㉠의 쓰임을 보였고 '그러나, 또, 그러니' 등은 주로 ㉡의 쓰임을 보였다.

1) 접속조사와 접속부사가 서로 다른 명사구를 접속시키는 경우

셋 이상의 명사구가 이어질 때에 접속조사와 접속부사는 'NP와 NP 및 NP' 등과 같이 서로 다른 명사구에 결합돼 제각각 접속의 기능을 담당했다. 그런데 어느 명사구 뒤에 접속조사를 쓰고 어느 명사구 뒤에 접속부사를 쓰는가는 명사구 간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경향이 보였다. 먼저 명사구가 대등한 자격으로 접속된 경우를 살펴보겠다.

(17) a. 조선 內 [근대적 산업의 발달과 공장 수의 激增 및 토목 사업의 발전], 이 가튼 사실은 필연적으로 多數한 노동자를 製出하게 되엿다.<1931-10-삼천리03-10-39>
b. 그는 [군대와 당 及 정부] 내에서 대개로 樞要한 지위에 있었다.<1938-11-삼천리10-11-130>
c. 즉 그 保護領인 [外蒙古와 新疆 及 廣大한 支那 北西部]가 그것이다.<1938-11-삼천리10-11-188>

(17a)에서는 '근대적 산업의 발달, 공장 수의 격증, 토목 사업의 발전'이, (17b)에서

는 '군대, 당, 정부'가, (17c)에서는 '외몽고, 신강, 광대한 지나 북서부'가 대등한 자격으로 접속되었다. 그리고 이때 접속조사와 접속부사의 선택은, 'A와 B 및(及) C'와 같이 앞의 두 명사구를 연결할 때는 접속조사를 쓰고 뒤의 두 명사구를 연결할 때는 접속부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접속되는 명사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위계를 갖는 경우에는 또 다른 경향이 보인다. 이때 접속부사는 보통 하위 단위 접속을, 접속조사는 상위 단위 접속을 담당하였다.

(18) a. 卽 [[英國의 保守黨 및 自由黨]과 [米國의 共和黨 및 民主黨]]은 그 體系의 典型的 政黨이엿다.<1936-01-삼천리08-01-49>
b. …1918년 휘전에-하여서는 선언서를 발하여 [자국민의 [[물질적 급 정신적] 권리]와 자유]를 존중히 하고…<1935-09-삼천리07-08-208>
c. 補缺試驗에 역사는 [十字軍의 原因 及 結果]와 [孔子의 畧傳]과 두 문제이엇는데… <1929-09삼천리01-02-28>

(18a)를 보면 '[영국의 보수당 및 자유당]'과 '[미국의 공화당 및 민주당]'이라는 두 하위 명사구 안에 접속부사 '및'이 쓰였고, 상위의 단위에서 이 두 명사구를 접속시킨 것은 접속조사 '-과'이다. (18b)에서도 접속부사로 이어진 '물질적 급 정신적'이라는 명사구가 후행하는 '권리'를 수식하여 다시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고, 이 명사구가 접속조사 '-과'를 매개로 후행하는 '자유'에 접속되었다. 이 경우에도 접속부사는 하위의 통사 구조에, 접속조사는 상위의 통사 구조에 쓰였다. (18c)에서도 하위 단위에서는 접속부사가 쓰여 '원인 급 결과'라는 명사구 접속 구성을 이루었고 상위 단위에서는 접속조사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명사구 접속 구성의 내적 구조가 계층적일 때 접속부사는 하위 명사구에, 접속조사는 상위 명사구에 쓰이는 경향이 있었다.

2) 접속조사와 접속부사가 같은 명사구를 접속시키며 중출한 경우

한 문장에 접속조사와 접속부사가 공기하는 예 중에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각이 서로 다른 명사구를 접속시키는 예도 있었지만 접속조사와 접속부사가 같은 명사구의 접속에 관여하는 예도 있었다. 먼저 그 예를 살펴보겠다.

(19) a. 따라서 금일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및 그 곤란]이란 가히 짐작할 것이다.<1935-11-삼천리07-10-64>

b. 그의 유약한 [외교정책과 及 국내정책]으로 말미아마 팟쇼단체로부터 배척을 밧고 잇다.<1935-08-삼천리07-07-154>

c. 그의 절친한 동지는 [아직 亞米利加에 가 잇는 김마리아와 그리고 10월 6일 서울에 도라온 朴仁德 여사]다.<1931-11-삼천리03-11-37>

d. 「프레멜」정거장의 뿌랏트폼에는 사람들로 어수선한 물결을 치고 잇섯다. [영광스러운 조국을 직히는 용사」라는 일홈 아래에 싸홈터로 향하여 가는 만흔 병정들과 또 그네들을 전별하는 부모 처자 형제들]의 물결이다.<1930-09-삼천리02-05-67>

(19a)는 'NP와 및 NP', (19b)는 'NP와 及 NP', (19c)는 'NP와 그리고 NP', (19d)는 'NP와 또 NP'의 예로, 이때 접속조사와 접속부사는 같은 기능을 수행해 사실상 불필요하게 중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접속조사와 접속부사의 중첩 현상은 중세국어로부터의 용법이 이어진 결과이다. 지금은 강조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접속조사와 접속부사를 연달아 쓰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말 문장에는 접속조사와 접속부사가 연달아 쓰이는 일이 많았다. 다음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예이다.

(20) a. 卽時예 觀世音菩薩이 [모ᄃᆞᆫ 四衆과 ᄯᅩ 天龍 人非人ᄃᆞᆯ]ᄒᆞᆯ 어엿비 너기샤…<1463법화경,07,083b>

b. …[道國王과 밋 舒國王]은 實로 親ᄒᆞᆫ 兄弟니라<1481두시초08,005b>

c. …이 禮 [諸侯와 태우와 밋 士와 庶人]의게 達ᄒᆞ니…<1590중용초020b>

d. …도적이 [그 지아비과 밋 그 아ᄃᆞᆯ]을 주기고…<1617동삼열6,073b>

e. …成祖 [黃의 妻 雍氏와 밋 女]로ᄡᅥ 象奴ᄅᆞᆯ 配ᄒᆞ야…<1736여사서4,034a>

f. …딘실노 [우리 슌죵대왕과 밋 우리 졍슌대비] 겨오샤니…<1882중등윤003b>

기능이 같은 두 문법 형태가 중첩되어 쓰인 이유는 중세국어 시기 한문 언해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한문 원문에 접속사가 쓰였을 때 구결 단계에서 접속조사를 현결하고 이 구결문을 토대로 언해를 할 때 접속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한문의 접속사를 접속부사로 언해한 것이다. 한문 원문, 구결문, 언해문을 비교해 보기 위해 『소학언해』의 예를 살펴보겠다(띄어쓰기 필자).

(21) a. 한문 원문: 八年 出入門戶 **及** 卽席飮食 必後長者 始敎之讓

b. 구결문: 八年이어든 出入門戶**와 及** 卽席飮食애 必後長者ᄒᆞ야 始敎之讓이니라

c. 언해문: 여듧 ᄒᆡ어든 門과 戶애 나며 드롬**과 밋** 돗끠 나아가며 飮食호매 반ᄃᆞ시 얼운의게 후에 ᄒᆞ야 비로소 ᄉᆞ양ᄒᆞ기ᄅᆞᆯ ᄀᆞᄅᆞ칠디니라<1586소학언,01,004a/b>

한문 원문을 보면 접속사 ‘及’이 ‘出入門戶’와 ‘卽席飮食’를 연결한다. 구결문을 보면 ‘出入門戶’ 뒤에 접속조사 ‘-와’가 현결되었다. 구결문의 ‘-와’는 언해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出入門戶’에 대한 언해 부분인 ‘門과 戶애 나며 드롬’ 뒤에 ‘-과’가 쓰였다. 우리말 문법만 고려한다면 중세국어 시기에도 ‘門과 戶애 나며 드롬과 돗끠 나아가며 飮食홈’으로만 언해했어도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문의 ‘及’을 직역해 ‘밋’으로 언해함으로써 ‘-과 밋’의 중첩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20세기 전반기 자료에 나타난 접속조사와 접속부사의 중첩 현상은 이러한 언해 관습이 전승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1.1.5. 동격 명사구

명사구 접속 구성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논의할 것은 동격 명사구이다. 《삼천리》에 쓰인 명사구 접속 구성의 예 중에는 접속된 명사구들의 의미를 아우르는 제3의 명사구가 이어진 예가 있었다. 동격 명사구는 선행 명사구 뒤에 아무 표지 없이 이어지기도 했고 '-의'를 매개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음은 아무 표지 없이 이어진 예이다.

(22) a. 일행에 [朴英熙, 寺田瑛, 金東煥, 辛島驍, 杉本長夫] 5씨와 필자와 합 6인 城東驛을 떠난 것이<1940-05-삼천리12-05-217>

b. [수학, 영어, 국어, 한문] 여러 가지 중에 한문 한 가지는 비교적 좀 나핫슬 것이나…<1929-09삼천리01-02-28>

c. 그 날 [총무이사 趙東植씨와 나(이사)와] 2인이 총독을 방문하고…<1938-05-삼천리10-05-40>

d. 黃土峴 네거리에 자리를 잡는 우리 신문사의 편집국에는 [당시의 국장이든 C씨와 나와] 단 두 사람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가슴을 조리며 마조 안젓고…<1930-07삼천리02-04-40>

위의 예에 쓰인 '5씨', '여러 가지', '2인', '단 두 사람'은 선행하는 명사구에 대한 동격 명사구이다. 이때 접속 구조로 이루어진 선행 명사구의 마지막 명사구 뒤에는 (22a), (22b)에서처럼 접속조사가 쓰이지 않기도 했고 (22c), (22d)에서처럼 '-과'가 쓰이기도 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접속 구성을 갖는 명사구 뒤에 조사 '-의'가 쓰여 선행 명사구와

동격 명사구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23) a. …[중국의 문예와 신극과 영화]의 모든 예술운동은 이 南國社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될 것갓치 보인다.<1930-04삼천리02-02-17>

b. 학과는 지금의 전문학교가 [영문학과와 음악과와 家事科]의 셋으로 나뉘어 잇는데… <1930-07삼천리02-04-9>

c. 천식 요법은 [발작 시의 요법과 間歇 시의 요법]의 2종이 有하다.<1935-08-삼천리07-07-178>

d. 처음에는 [김옥균, 서광범(徐光範)과 그와]의 세 사람이 동지가 되여 천하의 투사(鬪士)를 규합하엿다.<1931-05-삼천리03-05-40>

e. 改宗의 용기 잇는 청년문사 등이 [자연 과학과 실험 철학과]의 2대 무기를 손에 들고 奮然蹶起하자…<1933-04-삼천리05-04-68>

(23a)~(23c)를 보면, 접속 구성을 갖는 명사구 뒤에 조사 '-의'가 결합되고 그 다음에 동격 명사구가 쓰였다. 그리고 (23d), (23e)를 보면, 접속된 마지막 명사구에 접속조사가 쓰였고 그 뒤에 '-의'가 쓰였다. 이렇게 선행 명사구와 동격 명사구가 '-의'를 매개로 이어지는 쓰임은 이현희(1994a)에서 논의한 대로 중세국어로부터의 용법이 이어진 결과이다. 이현희(1994a:45)는 동격 명사구[73] 앞에 나타나는 속격조사에 대해 그것이 한문의 '之'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구결문 '開卽有無中之三相이니<금삼5:30>'가 언해문에서 '열면 有와 無와 中괏 세 相이니'가 돼 '之'가 속격조사 'ㅅ'으로 번역된 예를 들었다.

지금까지 《삼천리》에 쓰인 명사구의 용례를 분석해 20세기 전반기 명사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20세기 전반기의 명사구 접속 구성에는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진 중세국어의 특징이 다소 남아 있었던 데 반해, 명사구 수식 구성에서는 중세국

73) 이현희(1994a)의 용어로는 '아우름 명사구'이다.

어나 근대국어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났다. 이어지는 3.1.2에서는 《삼천리》에 쓰인 동사구의 용례를 분석해 20세기 전반기 동사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

3.1.2. 동사구

이 절에서는 《삼천리》에 나타난 용례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동사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74]. 20세기 전반기 동사구의 쓰임에서 오늘날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동사구 수식 구성에 참여하는 부사 중에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의 빈도가 높았다는 점, 그리고 한문구에 '하다'가 결합된 구성이 널리 쓰였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전통적 문장 쓰기 관습에서 나타나던, 한문의 영향을 반영하는 특징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 이루어질 20세기 전반기 동사구의 특징에 대한 논의는 당시의 동사구가 한문의 영향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었는지, 혹은 그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어지는 3.1.2.1에서는 동사구 수식 구성에 참여하는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고 3.1.2.2에서는 '한문구+하다' 구성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3.1.2.1.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

《삼천리》에서 동사를 수식하던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 중에는 오늘날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것이 상당수였다. 먼저 그 예를 살펴보겠다.

74) 최현배(1937:991)에서는 풀이이은말의 예로 "잊어 버렸다", "硏究해 보았다", "아름답지 아니하다" 등의 보조용언 구성을 들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20세기 전반기 보조용언의 특징을 4장의 각 항목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보조용언 구성이 아닌 동사구의 다른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4) a. …당시 本國에 代表을 送치 안엇든 아메리가는 代表 업스면 課稅 업다고 따하야 [大히 反抗하엿다].<1935-01-삼천리07-01-86>

b. …오인의 종래의 그릇된 민족관 국가관 세계관은 [潔히 창산함]을 得하였다.<1938-08-삼천리10-08-24>

c. …추태를 연출하며 동민족 간에 투쟁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이라면 [寧히 해소하는] 것이 무방함.<1931-02-삼천리03-02-17>

d. …그는 己身보다 사회를 [先히 아는] 慷慨之士라<1933-09-삼천리05-09-65>

위의 예에 나타난 '大히, 潔히, 寧히, 先히'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이러한 어휘적 변화는 개별 어휘 차원에서뿐 아니라 1음절 한자를 어기로 하는 '-히' 파생 부사류의 전체적 변화 속에서도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들 부사의 쓰임은 단순히 개개 어휘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체의 현대화 과정, 즉 우리말 문장이 한문의 영향을 벗어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는 대개[75] 번역 과정에서 한문의 부사 기능을 하는 한자에 '-히'를 결합시킨 것이다. 아래에 제시한 세 쌍의 예는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난 구결문과 언해문의 대응 부분으로, 이를 통해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에 의한 수식 동사구 구성에 미친 한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25) a. 구결문: 唯正修者ㄴ…

a′. 언해문: 오직 正히 닷ᄀ린…<1461능엄언09,040a>

b. 구결문: 心境萬類롤 通謂之法이니…

b′. 언해문: 心과 境과 萬類롤 通히 닐오듸 法이니…<1545법화경01,003b>

75) 여기서 '대개'라고 한 것은 한문 원문에 쓰인 동사를 '부사+하다'로 언해하는 과정에서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가 발생한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에서 '平'은 동사로 쓰였지만 언해 과정에서 이를 '平히 하다'의 수식 동사구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예) 구결문: 皆所以爲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本이니…

예) 언해문: 다 뻐 몸올 닷ᄀ며 집을 ᄀ즈기 ᄒ며 나라홀 다ᄉ리며 天下롤 平히 홀 근본을 ᄒᄂ 배니…<1586소학언,서,001b>

c. 구결문: 子能食食ㅣ어든…

c′. 언해문: ᄌᆞ식이 能히 밥 먹거든…<1586소학언,01,003b>

(25a)에서는 동사 ‘修’를 수식하는 부사어 ‘正’이 언해 과정에서 ‘-히’와 결합하여 ‘正히’가 되었고, (25b)에서는 동사 ‘謂’를 수식하는 ‘通’이, (25c)에서는 동사 ‘食’을 수식하는 ‘能’이 ‘-히’ 파생 부사로 언해되었다. 이처럼 한문에서는 한자가 그 자체로 부사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우리말에서는 부사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히’를 결합시켜 언해한 것이다.

한문을 언해하며 생겨난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는 현대로 오며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세종역사》, 《삼천리》, 《현대》에 쓰인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의 빈도를 비교해 보면 후대로 올수록 그 쓰임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세 말뭉치에 쓰인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의 종수(type), 총 빈도(token), 목록, 개별 빈도를 제시한 것이다.

<표 10>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의 종수, 빈도 및 목록[76]

말뭉치	종수	빈도	목록
세종역사	250	21,648	能히(5,931), 可히(5,314), 敢히(1,960), 甚히(1,488), 正히(1,456), 親히(947), 急히(820), 足히(623), 重히(389), 極히(340), 快히(155), 嚴히(148), 順히(128), 便히(130), 永히(123), 貴히(121), 妄히(99), 輕히(97), 通히(90), 厚히(82), 過히(76), 虛히(66), 善히(55), 平히(53), 精히(49), 賤히(39), 速히(38), 緊히(37), 盛히(37), 純히(32), 略히(28), 利히(27), 倍히(26), 難히(23), 困히(21), 壯히(18), 現히(17), 和히(16), 博히(15), 圓히(14), 尊히(13), 篤히(12), 微히(12), 切히(12), 邪히(11), 偏히(11), 强히(9), 空히(9), 靈히(8), 津히(8), 巧히(7), 屑히(7), 疎히(7), 實히(7), 危히(7), 幸히(7), 怪히(6), 苟히(6), 毒히(6), 昭히(6), 宛히(6), 直히(6), 特히(6), 賢히(6), 孔히(5), 令히(5), 素히(5), 專히(5), 靜히(5), 麤히(5), 幾히(4), 鈍히(4), 畧히(4), 慢히(4), 明히(4), 勃히(4), 富히(4), 弱히(4), 然히(4), 貞히(4), 貪히(4), 赫히(4), 顯히(4), 慊히(3), 窮히(3), 克히(3), 近히(3), 淡히(3), 敦히(3), 細히(3), 小히(3), 安히(3), 勇히(3), 遠히(3), 疾히(3), 悄히(3), 泰히(3), 飽히(3), 幻히(3), 假히(2), 嘉히(2), 鏗히(2), 儉히(2), 經히(2), 曲히(2), 躩히(2), 煖히(2), 濫히(2), 短히(2), 大히(2), 突히(2), 樂히(2), 冷히(2), 廉히(2), 猛히(2), 文히(2), 敏히(2), 菲히(2), 徐히(2), 巽히(2), 勝히(2), 信히(2), 惡히(2), 嚶히(2), 略히(2), 如히(2), 緩히(2), 雄히(2), 殷히(2), 隱히(2), 利히(2), 異히(2), 臧히(2), 定

			히(2), 情히(2), 至히(2), 錯히(2), 啜히(2), 諂히(2), 嘅히(2), 豊히(2), 閑히(2), 惑히(2), 簡히(1), 坎히(1), 居히(1), 健히(1), 激히(1), 闃히(1), 堅히(1), 潔히(1), 京히(1), 境히(1), 固히(1), 高히(1), 共히(1), 恭히(1), 果히(1), 寬히(1), 仇히(1), 眷히(1), 詭히(1), 歸히(1), 棘히(1), 亟히(1), 勤히(1), 頎히(1), 亂히(1), 惄히(1), 單히(1), 當히(1), 鐙히(1), 爛히(1), 良히(1), 漣히(1), 孌히(1), 瀏히(1), 理히(1), 吝히(1), 末히(1), 忘히(1), 望히(1), 穆히(1), 藐히(1), 茂히(1), 瀰히(1), 閔히(1), 密히(1), 薄히(1), 半히(1), 拌히(1), 放히(1), 范히(1), 簿히(1), 紛히(1), 卑히(1), 濆히(1), 鮮히(1), 孫히(1), 淑히(1), 施히(1), 深히(1), 鄂히(1), 哀히(1), 易히(1), 溫히(1), 芸히(1), 義히(1), 夷히(1), 易히(1), 雜히(1), 傳히(1), 靦히(1), 整히(1), 齊히(1), 早히(1), 條히(1), 縱히(1), 駿히(1), 蹲히(1), 茁히(1), 盡히(1), 軫히(1), 瑳히(1), 粲히(1), 薦히(1), 踐히(1), 洊히(1), 忝히(1), 諦히(1), 忠히(1), 忡히(1), 夬히(1), 沱히(1), 慟히(1), 翩히(1), 摽히(1), 恒히(1), 許히(1), 歇히(1), 弘히(1), 確히(1), 橫히(1), 洽히(1), 絜히(1), 炏히(1), 裦히(1), 雱히(1), 鬫히(1), 鷕히(1)
삼천리	83	3,969	特히(994), 極히(661), 甚히(327), 能히(259), 速히(198), 急히(170), 可히(168), 敢히(145), 親히(112), 如히(111), 盛히(101), 正히(100), 共히(81), 過히(69), 足히(61), 總히(44), 便히(33), 更히(32), 必히(23), 重히(21), 快히(21), 旣히(14), 殆히(13), 困히(13), 單히(12), 僅히(12), 殊히(12), 貴히(11), 善히(10), 輕히(9), 頗히(9), 反히(9), 幸히(9), 獨히(8), 各히(8), 寧히(5), 但히(5), 直히(5), 眞히(4), 嚴히(4), 壯히(4), 厚히(4), 啻히(3), 先히(3), 遂히(3), 暗히(3), 卽히(3), 賤히(3), 謹히(2), 大히(2), 無히(2), 須히(2), 優히(2), 蓋히(1), 夙히(1), 强히(1), 潔히(1), 廣히(1), 克히(1), 己히(1), 緊히(1), 達히(1), 副히(1), 憤히(1), 新히(1), 實히(1), 豫히(1), 遙히(1), 頂히(1), 此히(1), 確히(1), 並히(1), 例히(1), 汎히(1), 別히(1), 尙히(1), 疎히(1), 洵히(1), 因히(1), 全히(1), 專히(1), 稍히(1), 通히(1)
현대	21	1,680	特히(1,283), 極히(83), 敢히(68), 可히(63), 急히(38), 便히(29), 能히(20), 共히(19), 甚히(15), 足히(13), 過히(9), 重히(8), 親히(8), 困히(7), 緊히(4), 速히(4), 必히(3), 貴히(2), 嚴히(2), 輕히(1), 快히(1)

위의 표를 보면,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의 종수와 빈도가 후대로 올수록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역사》에서 《삼천리》로, 그리고 다시 《현대》로 오면서 종수는 250→83→21로, 총 빈도는 21,648→3,969→1,680으로 감소의 폭이

76) 위의 표에서는 대표형을 'X히' 꼴로 제시했지만 제시된 빈도에는 해당 부사가 'X이'로 쓰인 빈도도 포함되었다. 《세종역사》와 《삼천리》에서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의 용례를 추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깜짝새에서 검색어로 '_뭐히_'를 입력하고 조건을 '7877'로 설정한다. 이렇게 해서 추출된 용례를 눈으로 검토하며 '고히, 나히' 등 ㅎ종성 체언의 용례를 제외하고, '깁히, 소히, 슬히, 작히' 등 고유어 부사의 용례도 제외하였다. 그런데 역사 자료에서 파생 접미사 '-히'는 '-이'로도 쓰였기 때문에 'X이'의 꼴을 취한 부사도 추출해야 했다. 하지만 'X이'로 검색을 하면 주어로 쓰인 수만 개의 불필요한 용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X히'로 추출된 목록을 대상으로 각각이 'X이'로 쓰인 예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보충을 했다. 두 말뭉치에서 모두 '-히' 파생 부사는 'X히'의 꼴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X히'로는 안 쓰이고 'X이'로만 쓰이는 부사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이러한 검색 방법에는 큰 결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매우 컸다.

위의 표에서 개별 목록의 빈도를 보면, 세 말뭉치에서 모두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의 쓰임은 고빈도 어휘에 집중돼 있었다. 《세종역사》에 쓰인 ‘1음절 한자+히’ 부사는 모두 250종이지만 평균 빈도(86.6) 이상을 기록한 부사는 19개였다. 《삼천리》에는 모두 83종이 쓰였지만 평균 빈도(47.8) 이상을 기록한 부사는 15개였다. 《현대》에는 모두 21종이 쓰였지만 평균 빈도(80) 이상을 기록한 부사는 2개에 불과했다.

역사 자료에서 고빈도로 쓰인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는 대부분 현대까지 그 쓰임이 이어졌다. 《세종역사》에 쓰인 평균 빈도 이상의 부사 중 ‘順히, 永히, 妄히’를 제외한 나머지 16개는 모두 20세기 전반기에도 쓰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삼천리》에 쓰인 평균 빈도 이상의 부사 중 ‘盛히, 正히’를 제외한 나머지 13개는 모두 오늘날에도 쓰임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는 대체로 역사적으로 오랜 쓰임을 유지해 온 것들이지만, 《삼천리》와 《현대》에서 2위와의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한 ‘特히’는 20세기 전반기부터 갑자기 그 쓰임이 많아진 부사이다. 중세국어 시기 용례 중 ‘特別히’가 보이긴 하지만 ‘特히’는 《세종역사》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3.1.2.2. ‘한문구+하다’ 구성

《삼천리》에는 4자 이상의 한문구에 ‘하다’가 결합돼 서술어로 쓰인 ‘한문구+하다’ 구성이 빈번히 나타난다. 오늘날 이런 쓰임은 고사성어에 한정되지만 당시에는 굳어진 표현이 아니라 동사구를 이루는 매우 생산적인 방식이었다. 한자어나 한문구에 ‘하다’를 결합해 용언 또는 동사구를 만드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던 방법이다. 최현배(1937:921)에서 “漢子로서의 그 本義가 임자씨인 것은 勿論이요, 設令 그 본대가 分明히 움직씨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조선말이 될 적에는 반드시

이름씨로 보고, 그것에 다시 발가지 『하다』를 붙이어서 비로소 움직씨나 어떻씨로 만드나니, 이는 一般으로 다른 나라 말을 조선말로 만드는 대에 한 普遍的 法則이 되느니라."라고 하여 이러한 쓰임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우리말본』에서 이러한 쓰임의 예로 제시한 것은 "求하다, 動하다, 運動하다, 硏究하다" 등 파생 용언에 한정되었고 '한문구+하다'에 대해서는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삼천리》에 쓰인 '한문구+하다' 구성의 출현 빈도나 그 종류를 보면 20세기 전반기에 '한문구+하다' 구성은 동사구를 이루는 생산적인 방법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이 절에서는 '한문구+하다' 구성의 내적 구조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구성이 갖는 생산성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던 고사성어가 여러 가지 다른 한문구로 변형된 예들을 살펴보겠다[77].

'한문구+하다' 구성이 생산적인 구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로 '切齒腐心'의 변형 꼴들을 들 수 있다.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이다'라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한불자전(韓佛字典, 1880)』에 그 첫 예가 보이며 『국한회어(國漢會語, 1895)』에도 실려 있다. 사전에 등재돼 있다는 것은 해당 구성이 어휘부에 등재될 만큼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여겨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삼천리』에는 '切齒腐心' 외에도 '切齒深恨, 切齒扼腕, 切齒痛恨'과 같이 처음 두 개의 한자어를 공유하는 유사한 의미의 표현이 보인다. 이처럼 고사성어에서 한 두 한자만 바꾼 유사한 의미의 '한문구+하다'의 예를 몇 가지 더 들면 다음과 같다.

(26) a. 그는 <u>呵呵大笑하며</u> 궁둥이를 툭툭털며 나가바린다.<1935-10-삼천리07-09-268>

a′. 그의 머리에는 靑年드리 쓰는 滿行帽가 언처 잇는 것을 볼 때는 <u>呵呵失笑하야</u> 버린다.<1931-04-삼천리03-04-27>

77) 송민(2013:30-31)에서는 『삼국사기』에 나타난 '改過自新'이라는 한자성어가 후대에 중국에서는 '改過從善', '改過遷善', '改過作新', '改過向善' 등으로 변형되어 쓰이기도 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고할 때 20세기 전반기 자료에 나타난 4음절 한자성어의 변용 현상은 중국에서 4자성어의 용법에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도 있다.

b. 刻苦精勵하여 작품을 만들고 잇든 숨은 幾多天才…<1933-09-삼천리05-09-110>

b′. 일즉이 數次 재산을 만히 모흔 이로, 刻苦勤勉한 분이다.<1936-01-삼천리08-01-102>

b″. …반도 각지에 數多한 학교를 창립하야 第二世 國民養成에 刻苦奮鬪하든 분이다.<1930-07삼천리02-04-24>

c. 그러나 나는 누가 12장이 더욱 簡明直截함을 발견하였다.<1937-01-삼천리09-01-74>

c′. 다시 우리는 시인의 생활이 비굴하지 아니하고 簡明率直하다는 것을…<1939-06-삼천리11-07-265>

d. 堅忍不拔하는 志操<1933-10-삼천리05-10-32>

d′. 신문기자는 堅忍不屈하야 정확한 보도를 함에 잇다.<1930-05삼천리02-03-59>

e. 七顚八起하는 根氣를 길으라<1932-10-삼천리04-10-36>

e′. 復興 途中에 七顚八覆하는 狀態로 X國的 靑年團體는 非常한 苦痛과 受難을 堪耐하면서 體驗하엿다.<1935-01-삼천리07-01-170>

(26a)의 ‘가가대소(呵呵大笑)’는 한바탕 껄껄 크게 웃는다는 뜻의 고사성어인데 (26a′)에서는 실소를 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大’자 대신 ‘失’자를 썼다. (26b)의 ‘각고정려(刻苦精勵)’는 몹시 애를 쓰고 정성을 들인다는 뜻인데 (26b′)에서는 ‘정려’ 대신 ‘근면’을 썼다. (26c)의 ‘간명직절(簡明直截)’은 간단명료하고 직선적이어서 모호함이 없다는 뜻인데, (26c′)에서는 ‘직절’ 대신 ‘솔직’을 썼다. (26d)의 ‘견인불발(堅忍不拔)’은 굳게 참고 견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인데, (26d′)에서는 ‘拔’ 대신 ‘屈’을 썼다. (26e)의 ‘칠전팔기(七顚八起)’는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난다는 말로 실패를 거듭해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뜻인데, (26e′)에서는 ‘起’와 의미가 반대되는 ‘覆’을 써서 ‘일곱 번 넘어진 뒤 여덟 번째에도 다시 넘어지는’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고사성어의 일부를 다른 한자로 대치해 비슷한 뜻 혹은 반대의 뜻을 나타낸 예는 당시 ‘4음절 한문구+하다’ 구성이 가졌던 생산성을 보여준다.

《삼천리》에 쓰인 ‘4음절 한문구+하다’는 그 구성 성분과 어순에 따라 세 가지 유

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유형은 하나의 한자가 하나의 문장 성분 구실을 하며 한문의 어순에 따라 배열된 것이다. 제2유형은 두 개의 한자가 합쳐져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며 한문의 어순에 따라 배열된 것이다. 제3유형은 두 개의 한자가 합쳐져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며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배열된 것이다. 각 유형별로 많이 나타난 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7) a. 제1유형: $X_{주}+X_{서}+X_{주}+X_{서}$, $X_{서}+X_{목}+X_{서}+X_{목}$, $X_{조동}+X_{서}+X_{조동}+X_{서}$, $X_{조동}+X_{서}+X_{관}+X_{목}$

b. 제2유형: $XX_{서}+XX_{목}$

c. 제3유형: $XX_{주}+XX_{서}$, $XX_{목}+XX_{서}$, $XX_{서}+XX_{서}$

제1유형에는 전통적으로 쓰이던 고사성어도 있고, 굳어진 표현은 아니지만 한문의 사자성어를 만드는 원리를 따라 이루어진 한문구도 있다. 제1유형은 한문의 어순을 따라 개개의 한자가 배열된 것으로, 주술구조나 술목구조가 반복된 것, 한문의 기능어 뒤에 술어가 온 구조가 반복된 것 등 다양한 구조가 나타났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제1유형의 예이다.

(28) a. $X_{주}+X_{서}+X_{주}+X_{서}$: 한글 硏究家들끼리 우리말의 整理와 統一 때문에 서로 意見을 달리하야 가지고 서로 甲論乙駁하다가…<1934-08-삼천리06-08-151>

b. $X_{서}+X_{목}+X_{서}+X_{목}$: 檀君王儉께서 … 建邦設都하고 神敎를 베풀어 民物을 理化하셧스니…<1936-04-삼천리08-04-139>

c. $X_{조동}+X_{서}+X_{조동}+X_{서}$: 그 우는 寧히 可笑可憐할 것이며…<1935-12-삼천리07-11-75>

d. $X_{조동}+X_{서}+X_{관}+X_{목}$: 선생은 吏曹判書 시대에 無論某事하고 上下官員이 互相論調하는 合意制度를 실시하셨음니다.<1939-04-삼천리11-04-99>

(28a)의 '갑론을박(甲論乙駁)'에서는 주술구조가 반복되었고, (28b)의 '건방설도(建邦

設都)'에서는 술목구조가 반복되었다. (28c)의 '가소가련(可笑可憐)'에서는 가능 조동사와 술어의 결합이 반복되었다. (28d)의 '무론모사(無論某事)'에서는 조동사 뒤에 술어가 쓰인 술부가 선행하고 그 뒤에서 목적어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았다. 이러한 구조는 모두 한문의 어순을 따른 것이다.

제2유형은 한문의 어순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제1유형과 마찬가지이지만 1음절 단위가 아니라 2음절 단위로 결합됐다는 차이가 있다. 제2유형은 용례가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전통적 '한문구+하다' 구조가 해체되는 중간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9) a. 一動一靜 知彼知己 因其勢面導之하야 改良風俗하는 것도 대장부의 일이로다.<1930-10삼천리02-06>

위의 예에 쓰인 '풍속'은 16세기부터 용례가 나타나지만 '개량'은 19세기 말부터 쓰이기 시작한 단어로, '개량풍속하다'는 새로 생겨난 2음절 한자어가 기존에 쓰이던 2음절 한자어와 결합한 예이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볼 때 선행하는 '개량'은 서술어 역할을 하고 후행하는 '풍속'은 목적어 역할을 해 한문의 어순을 따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구성 성분은 새로 생겨난 2음절 어휘이지만 그것의 배열 방식은 전통적 방식을 유지한 것이다.

제3유형은 2음절 단위로 결합하되 우리말 어순을 따른 것으로, 《삼천리》에 쓰인 '한문구+하다' 구성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었다[78]. 이는 세 유형의 '한문구+하다' 구성 중에서는 우리말 구조에 가장 가깝지만 'XXXX하다'라는 틀 자체는 여전히 한문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삼천리》에 쓰인 제3유형의 내적 구조에는 주어+서술어, 목적어+서술어, 서술어+서술어 등이 있었다.

78) 배수찬(2008:242-243)에서는 국한문체를 세분하며,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한문의 4자 구성을 '구절 현토식 국한문체'로, '2음절+2음절'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4자 구성을 '음절 다발 어절 현토식 국한문체'로 구별하였다.

(30) a. XX$_{주}$+XX$_{서}$: 京城府에서는 國立公園까지 만든다는 說이 잇는 景致秀麗한 곳으로…
<1936-02-삼천리08-02-91>

b. XX$_{목}$+XX$_{서}$: …그 학교는 金性洙學校지 우리들의 것이냐, 하야 대스럽지 안케 價値評價하여 버리는 일이 잇슴니다<1933-04-삼천리05-04-14>

c. XX$_{서}$+XX$_{서}$: …用語用文은 모다 조선글과 말로 編輯印刷하며…<1931-09-삼천리03-09-11>

(30a)의 '경치수려(景致秀麗)하다'에서는 '경치'와 '수려'가 '주어+서술어'의 관계를 맺고 있다. '경치'는 근대국어 시기부터 한 단어로 쓰였지만 '수려'는 20세기에 들어 쓰이기 시작했다. (30b)의 '가치평가(價値評價)하다'에서는 '가치'와 '평가'가 '목적어+서술어'의 관계를 맺고 있다[79]. '가치'와 '평가'는 둘 다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던 단어이다. (30c)의 '편집인쇄(編輯印刷)하다'에서는 편집하고 인쇄한다는 뜻으로 두 개의 의미상의 서술어가 대등하게 이어졌다. '편집'과 '인쇄'는 모두 근대적 매체가 생겨난 뒤에 쓰이기 시작한 단어들이다. 당시 '편집하다'와 '인쇄하다'가 각각 동사로 쓰이고 있었는데, 이 둘을 연결할 때 '편집하고 인쇄하다'로 쓰지 않고 어기끼리 접속시켜 '편집인쇄하다'로 쓴 것은 '2음절 한자어+하다' 용언들이 국어 문장에 정착해 가는 과정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삼천리》에서는 아래의 예에서처럼 이러한 쓰임이 널리 나타났다.

---

79) 2음절 한자어가 '목적어+서술어'의 관계로 이어진 예를 몇 가지 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 …서울로 올나가기로 결심하고 家産放賣하여 가지고 甲午年에 서울로 와서…<1930-05삼천리02-03-48>

예) 市內 仁寺洞 白寅基氏 집터를 買受하야 家屋新築하여 巨利를 보앗다고 전하는…<1934-06-삼천리06-07-21>

예) 戰時가튼 때에 國債募集하는 연설을 식혓스면 훌융히 성공할 것 갓다<1929-11삼천리01-03-6>

예) 朝鮮人이 學校經營하기까지…<1940-09-삼천리12-08-135>

예) …한번 歐米旅行하여 보시면 如何 하실고<1935-01-삼천리07-01-15>

(31) a. 이런 意味에 잇서 當面利益은 一階級 乃至 一民族의 最高利益과 最大綱領을 獲得成就하는 全體過程의 構成的 內容과 意義를 가지며…<1931-04-삼천리03-04-3>

b. 此가 未久에 全國的으로 擴張發達하야 自然에 親近케 된 것이다.<1935-01-삼천리07-01-169>

c. …13道 代議員들이 모여 여러 가지로 새 政策을 協議決定하엿슬 뿐더러<1935-02-삼천리07-02-30>

d. 他人種 他國家를 교묘한 수단과 野獸적 폭력으로 侵略搾取하면서도…<1942-01-삼천리14-01-27>

e. …또는 滿洲國內의 여러 가지 動向에 着眼硏究하기를 바랍니다.<1941-01-삼천리13-01-50>

f. 어떠한 理想이라고 指摘明示하기는 甚히 困難한 事입니다만…<1937-01-삼천리09-01-101>

g. 信義잇은 朝鮮靑年을 糾合訓鍊하야 新文化建設의 力量은 增長함으로 目的함<1934-09-삼천리06-09-74>

h. 좀더 具體的으로 究明批判하여 보자!<1931-09-삼천리03-09-34>

i. …現代 評論社에서 押收된 原稿에는 原稿料 안 준다는 것을 强行談判하야 40圓을 차저주다.<1934-06-삼천리06-07-250>

j. …이번에 人蔘의 各等級으로 約一割以上을 改訂引下하니…<1931-04-삼천리03-04-48>

20세기 전반기에 '한문구+하다' 구성에서 그 구성 단위가 1음절에서 2음절로 변화한 것은 시기적 특성상 일본제 2음절 한자어가 유입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2음절 한자어들의 기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시 널리 쓰이던 2음절 한자어가 외래적 요소였다면 이는 일본에서 유입됐을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유입됐을 수도 있다[80]. 그리고 처음 만들어진 게 일본이었다 해도 중국을 경유해 우리말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

80) 송민(2013:17)에서는 중국에서도 고대에는 1음절어가 많이 쓰였지만 기원전부터 이미 2음절어의 쓰임이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만들어진 단어가 일본을 경유해 우리말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81].

지금까지 《삼천리》에 쓰인 동사구의 용례를 분석해 20세기 전반기 동사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20세기 전반기에는 동사구 중세국어 시기 언해문에 나타나던 특징들이 오늘날보다 더 널리 나타났지만 《세종역사》, 《삼천리》, 《현대》의 세 말뭉치를 비교해 봤을 때 동사구에 나타난 언해문의 특징은 점차 감소해 가는 추세에 있었다. 또한 한문의 영향으로 생겨난 통사 구조가 신생 어휘로 인해 구조상의 변화를 겪고 어순 역시 한문식에서 국어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어지는 3.2에서는 《삼천리》에 나타난 절 구성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

3.2. 절 구성에 나타난 특징

절(節)은 따로 쓰이면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있는 통사 구조가 상위문의 한 요소로 쓰인 것을 말하는데, 최현배(1937:984)에서는 이를 '마디'라 하고 "끝나기만 하면 월이 될 만한 짜힘(組織)을 가진 말이 完全히 끝나지 아니하고 다만 월의 한 조각이 됨에 그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절은 문장에서 통사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하위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최현배(1937:985)에서는 '임자마디, 풀이마디, 어떤마디, 어찌마디, 맞선마디'의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이는 각각 오늘날의 문법 용어로는 명사절, 서술절[82], 관형절, 부사절, 접속절에 해당한다. 『우리말본』의 마

81) 당시 새로 생겨난 한자어에 대해서는 일본어와 중국어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본어의 2음절 한자어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広田(1969), 柳父(1976) 등 비교적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중국어에 차용된 일본어 어휘에 대해서는 션궈웨이 저/이한섭 외 역(2012)이 참고가 된다. 또한 국립국어원(2012)는 오늘날 일본어 투 어휘로 여겨지는 단어들을 선정해 각각이 한국, 일본, 중국 문헌에 최초로 나타난 예를 조사하고 그 유입 경로를 분석하였다.

82) 이 글에서는 『우리말본』의 체계를 따라 서술절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서술절이 과연 절의 일종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서술절은 최현배(1937:985-986)에서 '풀이마디(용언절)'를 설정한 이후로 허웅(1983, 1999), 권재일(1992), 남기심・고영근(1993), 임동훈(1997), 남기심(2001), 고영근・구본관(2008) 등 여러 연구에서 내포절의 한 유형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들 논의는 '토끼가 앞발이 짧다'와 같은 문장이 서술절을 내포한 복문이라고 분석한다. 서술절의 범위를 넓게 보는 논의는 '되다(물이 얼음이 되다)'나 '아니다(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구문도 서술절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서술절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토끼가 앞발이 짧다'를 단문으로 본다(임홍빈 1974, 서정수 1994, 이익섭・채완

디 체계에는 인용절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인용절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어지는 3.2.1에서는 접속절, 3.2.2에서는 명사절, 3.2.3에서는 관형절, 3.2.4에서는 부사절, 3.2.5에서는 서술절, 3.2.6에서는 인용절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3.2.1. 접속절

접속절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통사적으로 대등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최현배(1937:987)은 이를 "맞선마디(對立節)"이라 하고, 맞선마디를 "아래우 마디가 서로 同等의 價値를 가지고 마주선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접속절로 이루어지는 복문 구성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연결어미를 매개로 접속된다. 접속절의 선행절에는 연결어미가 결합돼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때 사용되는 연결어미는

1999, 이관규 2002 등). 이러한 견해는 다시 이중 주어설과 주제어설, 변형설로 세분된다. 이익섭·채완(1999:163)는 서술절 설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높임법 호응 문제를 들었다. 만약 서술절을 인정할 경우 '할아버지가 돈이 제일 많으시다'에서 '-으시-'가 서술절의 주어인 '돈'이 아니라 상위절의 주어인 '할아버지'와 호응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술절을 인정하는 허웅(1999:760)에서는 이를 '건너높임'이라 하여 서술절에서의 높임의 호응이 다른 절에서와 다르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남기심(2001)은 서술절을 내포절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서술절 설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술을 덧붙였다. 첫째, 서술절은 다른 내포절과 달리 절 표지를 갖지 않는다. 둘째, 다른 절은 그것에 대응되는 품사의 명칭으로 부를 수 있지만 서술절을 그렇지 않다. 셋째, 보통의 내포절은 주절의 요소가 내포절 안으로 자리 옮김을 할 수 없는 반면 서술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넷째, 서술절 구문에서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선택 제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상이 남기심(2001)에서 서술절 설정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이다.

앞선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술절을 설정하면 내포절의 하위 유형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어떤 절이 관형절인 동시에 서술절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은 서술절의 전형적인 예로 제시되어 온 문장들을 관계 관형절로 바꿔본 것이다.

예) 토끼가 [앞발이 짧다]$_{서}$. → [앞발이 짧은]$_{관/서}$ 토끼

예) 코끼리가 [코가 길다]$_{서}$. → [코가 긴]$_{관/서}$ 코끼리

예) 철수가 [키가 크다]$_{서}$. → [키가 큰]$_{관/서}$ 철수

'토끼가 앞발이 짧다'라는 문장에서 '앞발이 짧다' 부분은 이른바 서술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앞발이 짧은 토끼'와 같이 바꾸어 보면, [앞발이 짧은]이 서술절이면서 동시에 관형절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코가 긴] 코끼리', '[키가 큰] 철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술절을 인정한다면 서술절과 관형절은 내포절의 하위 유형으로서 동일한 층위에 있게 되는데, 하나의 절이 같은 층위에 있는 복수의 절의 자격을 갖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절의 체계를 논하는 이론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당시 언어의 실상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려고 한다.

그 의미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 접속절의 통사 구조에서는 오늘날과 특별히 다른 점이 보이지 않았지만, 선·후행절을 매개하는 연결어미의 목록이나 쓰임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발견됐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접속절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최현배(1937:364)에서는 절 접속에 쓰이는 연결어미의 유형을 “매는꼴(拘束形), 안매는꼴(不拘形), 벌림꼴(羅列形), 풀이꼴(說明形), 견줌꼴(比較形), 가림꼴(選擇形), 잇달음꼴(連發形), 그침꼴(中止形), 더보탬꼴(添加形)[83], 더해감꼴(益甚形), 하렴꼴(意圖形), 목적꼴(目的形), 미침꼴(到及形), 되푸리꼴(反覆形)”의 14가지로 나누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말본』의 연결어미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 절의 논의의 순서를 정해 보고자 한다. 14가지 유형 중 일부는 그 하위 유형이 존재하고 각각에 속한 연결어미의 수가 많지만 어떤 유형은 하나의 연결어미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미의 수가 많은 유형만 독립된 절로 다루고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서 설명하려고 한다.

‘매는꼴’은 “그 잇는 말의 內容(곧 事件)의 들어남을 매는(拘束하는) 條件(매개)이 되는 꼴(364쪽)”이다. 매는꼴의 하위 유형에는 “아직 들어나지 아니한 것을 거짓으로 들어나리라고 잡는 拘束을 보이는 꼴(364쪽)”인 ‘거짓잡기 매는꼴(假定拘束形)’과 “이미 참일(事實)로 들어난 拘束을 보이는(366쪽)” 꼴인 ‘참일 매는꼴(事實拘束形)’, 그리고 “반드시 들어나아야 할 拘束을 보이는(377쪽)” 꼴인 ‘꼭쓰기 매는꼴(必要拘束形)’의 세 가지가 있다. ‘거짓잡기 매는꼴’에는 ‘-으면’ 등 가정을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해당되고 ‘참일 매는꼴’에는 ‘-으니’ 등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해당되는데, 이 절의 3.2.1.1에서는 가정의 연결어미에 대해 살펴보고 3.2.1.2에서는 인과의 연결어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매는꼴 중 꼭쓰기 매는꼴에는 ‘-어야, -어야만, -아야, -아야만’이 제시돼 있지만 이는 ‘-어야’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3.2.1.6의 기타에

83) 최현배(1937:364)의 목록에는 ‘보탬꼴’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앞에 한 칸의 공백이 있는데 실제로 이에 대해 기술한 405쪽에는 ‘더보탬꼴’이라고 나와 있다.

서 다루려고 한다.

'안매는꼴'은 "그 아래에 다른 말을 잇게 하기는 하되, 그 아래에 잇는 말의 內容-事件이 들어남에는 상관없음을 보이는 꼴(378쪽)"이다. 안매는꼴의 하위 유형에는 "아직 그렇게는 되지 아니하였지마는, 設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이는 꼴(378쪽)"인 '거짓잡기 안매는꼴(假定不拘形)'과 "아무리 접어주더라도, 그 아래의 말의 內容이 들어남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이는 꼴(379쪽)"인 '접어주기 안매는꼴(讓步不拘形)', "참일(事實)임을 認定하되, 그것이 그 다음의 말의 內容이 들어남에는 상관이 없음을 보이는 꼴(380쪽)"인 '참일 안매는꼴(事實不拘形)'의 세 가지가 있다. '거짓잡기 안매는꼴'에는 '-더라도' 등의 연결어미가 해당되고 '접어주기 안매는꼴'에는 '-을지언정' 등의 연결어미가 해당되는데 이는 모두 양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3.2.1.3의 양보의 연결어미에서 함께 다룬다. '참일 안매는꼴'에는 '-지마는' 등의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3.2.1.4의 대조의 연결어미에서 논의하겠다.

'벌림꼴'은 "다시 그 아래에 다른 말을 잇게 하여, 생각의 벌림을 나타내는 꼴(382쪽)"이다. 벌림꼴의 하위 유형에는 "말을 時間的으로 벌리는 꼴(382쪽)"인 '때벌림꼴(時間的羅列形)'과 "두 가지나 두 가지 더되는 움직임이 각각 딴 임자 또는 한 임자로 말미암아 들어남을 空間的으로(얼안으로) 벌리는 꼴(388쪽)"인 '얼안벌림꼴(空間的羅列形)'의 두 가지가 있다. '때벌림꼴'에는 '-면서' 등이 해당되고 '얼안벌림꼴'에는 '-고' 등이 해당되는데 실제 용례에서는 '-고'도 때벌림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3.2.1.5에서 이 둘을 합쳐 나열의 연결어미로 다루고자 한다.

'풀이꼴'은 "그 아래에 다시 그 일을 풀이하는 말이 오게 하는 꼴(395쪽)"이다. '견줌꼴'은 "한 가지의 事實을 다른 것에 견주는 뜻을 보이는 꼴(402쪽)"이다. '가림꼴'은 "그 움직임을 가려서 함을 보이는 꼴(403쪽)"이다. '잇달음꼴'은 "한 움직임이 일어남에 잇달아(일어나자 마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남을 보이는 꼴(404쪽)"이다. '그침꼴'은 "여태까지 하던 움직임을 그치고 다른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꼴(404쪽)"이다. '더보탬

꼴'은 "그 움직임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도 다른 일이 더 일어남을 보이는 꼴(405쪽)"이다. '더해감꼴'은 "그 움직임을 작고 더 하여 감을 따라 다른 일이 더욱 나타남을 보이는 꼴(406쪽)"이다. '하렴꼴'은 "어떠한 움직임을 하려 하는 뜻을 나타내는 꼴(405쪽)"이다. '하렴꼴'에는 '-고자' 등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해당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어미가 여러 개이므로 3.2.1.6에서 따로 살펴보고, 이 단락에서 언급한 나머지 유형은 각각에 속한 연결어미가 한두 개에 그치기 때문에 3.2.1.7의 기타 연결어미에 대한 논의에서 묶어서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이 3.2.1.1~3.2.1.7에서 《삼천리》에 쓰인 연결어미의 쓰임을 살펴본 다음 3.2.1.8에서는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중첩 현상에 대해 논의하겠다.

3.2.1.1. 가정의 연결어미

《삼천리》에 쓰인 연결어미 중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한 가정임을 나타내는 것에는 '-거드면', '-거든01[84]', '-노라면[85]', '-는다면[86]', '-더라면', '-더면', '-던들', '-으려면', '-으면', '-을지면', '-을진대', '-자면' 등이 있었다. '-더라면', '-더면', '-던들'을 '-는다면', '-으면', '-은들'에 '-더-'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어미로 보았다. 당시 해당 어미들이 쓰인 용례에 1인칭 주어가 쓰여 '-더-'의 1인칭 주어 제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것으로 본 것이다.

가정의 연결어미 중 《삼천리》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으면'으로, 가정의 연결어미 전체 용례 중 75.3%가 '-으면'의 용례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인 것은 '-는다

84) '-거든'은 'ㅣ' 모음 뒤에서는 'ㄱ'이 탈락한 '-어든'의 형태로 쓰였다. 선어말어미 '-으리-'에 결합될 때에는 언제나 '-어든'의 꼴로 쓰여 '-으려든'으로 실현되었고, 지정사 뒤에서는 이러한 음운 변동이 수의적으로 일어나 '-거든'으로 쓰이기도 했고 '-어든'으로 쓰이기도 했다. 당시 '-거든'은 가정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고(-거든01), 견줌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거든02).

85) '-노라면'은 '-느라면'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각각의 선택에 일정한 규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6) '-는다면'은 동사의 어간에 결합될 때는 '-는다면'의 꼴로 쓰였지만 '있다', '없다'를 포함한 형용사에 결합될 때나 선어말어미 '-었-', '-겠-', '-으시-' 뒤에서는 '-다면'으로 쓰였다. 또한 지정사 '이다', '아니다'에 결합될 때나 선어말어미 '-더-' 뒤에서는 '-라면'으로 쓰였다.

면'이었지만 가정의 연결어미 전체 용례의 15.0%에 해당하는 쓰임으로 '-으면'과 빈도상으로 큰 차이가 났다. 그 뒤로 '-자면>-으려면>-거든01>-더면>-을진대>-던들>-노라면>-더라면>-거드면/-을지면'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삼천리》에 쓰인 가정의 연결어미 '-거드면[87]', '-거든01[88]', '-노라면', '-는다면', '-더라면', '-더면', '-던들[89]', '-으려면', '-으면', '-을지면', '-을진대[90]', '-자면' 각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한 것이다.

<표 11> 가정의 연결어미의 빈도

연결어미	빈도	백분율
-으면	19,945	75.3%
-는다면	3,963	15.0%
-자면	958	3.6%
-으려면	487	1.8%
-거든01	443	1.7%
-더면	225	0.8%
-을진대	170	0.6%
-던들	122	0.5%
-노라면	96	0.4%
-더라면	73	0.3%
-거드면	2	0.0%
-을지면	2	0.0%
총합	26,486	100%

87) 가정의 연결어미 중에는 '면'으로 끝나는 어미들이 많기 때문에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면_', '면,_'을 넣고 추출된 용례들을 분석해 '-거드면', '-노라면', '-는다면', '-더면', '-으면', '-으려면', '-을지면', '-자면'의 용례를 얻었다. 그 중 '라면'의 형태를 포함한 용례들은 '-는다면'의 이형태로 쓰인 것과 '~라고 하면'이 줄어든 것이 있어서 문맥의 뜻을 통해 '-는다면'의 예와 '-으면'의 예로 구별하였다. '자면'의 형태를 포함한 용례들도 연결어미 '-자면'과 '-자고 하면'이 줄어든 것이 있어서 문맥의 뜻을 통해 '-자면'과 '-으면'의 예로 구별하였다.

88) 연결어미 '-거든'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거든_', '거든,_', '려든_', '려든,_', '어든_', '어든,_'을 넣고 추출된 용례들을 종합해 빈도를 냈다. '다거든', '랴거든', '려거든'은 각각 '다고 하거든', '랴고 하거든', '려고 하거든'이 줄어든 것이므로 '-거든'의 용례에 포함시켰다. 그런 다음 '-거든'의 의미에 따라 가정의 뜻을 나타내면 '-거든01', 견줌의 뜻을 나타내면 '-거든02'로 분류하였다.

89) 연결어미 '-던들'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던들'을 넣고 조건을 57로 설정해 '-던들', '-든들'의 용례를 모두 추출하였다.

90) 연결어미 '-을진대'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을진대'를 넣고 조건을 371로 설정해 추출된 용례들을 종합하였다.

다음은 선·후행절이 가정의 연결어미를 매개로 접속된 예로, 제시 순서는 위의 표에 나타난 빈도순이다.

(32) a. 저편에서 대답을 하여 주엇스면 어색하나마 써 보겟는대 그도 되지 안으니까 내가 생각하여서 써 보는 수밧게 업게 되엿다.<1930-04삼천리02-02-46>

b. 누가 돈 십 만원을 내 손에 쥐어 준다면 나는 조선의 불우한 천재들을 교육하는 사업에 쓰겟습니다.<1929-06삼천리01-01-3>

c. 李東輝군의 청년시대를 기록하자면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만흘 것이다.<1930-07삼천리02-04-3>

d. …큰 고기를 잡으려면 큰 바다에 뛰여들지 안으면 안 된다고…<1935-03-삼천리07-03-128>

e. 당신과 내 힘으로 못 살겟거든 우리 宗敎를 잘 밋어 宗敎의 힘으로 삽세다.<1934-08-삼천리06-08-93>

f. 나는 각금각금 사내엿더면 엇더케 조흘가하고 생각하는 때가 잇서요. <1931-02-삼천리03-02-62>

g. 그러기 까닭에 우리들이 自治를 엇고저 할진대 帝國의 援助를 우리들의 責任으로 하지 안으면 안 되오.<1934-06-삼천리06-07-48>

h. 내가 일즉이 담배를 못 배왔던들 이렇게 온갓 맛 중에 제일가는 좋은 맛 하나를 영원히 모르고 지나게 되었을 것이 아닌가…<1940-07-삼천리12-07-177>

i. 이러케 안젓노라면 바로 정면에 德皇 카이서의 肖像이 걸렷습데다.<1930-11-삼천리02-07-33>

j. 내가 만일 다행히 詩人다운 소질을 가젓더라면 혹은 유명한 詩人이 되얏슬넌지도 모른다.<1932-04-삼천리04-04-85>

k. 님이 곳 게시거드면 // 엇지거저 지나리<1929-09삼천리01-02-46>

l. 1935年의 印度통치법의 개정에 여지가 있을지면, 전쟁 종료 후 英印圓卓會議를 開하고 토의할 일과 … 英領印度 並印度王侯領의 대표를 참가케 할 事를 제의하고 있다.<1940-03-삼천리12-03-67>

가정의 연결어미 중 일부는 ‘-는’, ‘-야’ 등의 보조사와 결합되기도 했는데 《삼천리》에 쓰인 용례를 토대로 볼 때 ‘-는다면’, ‘-더면’, ‘-으면’, ‘-으려면’, ‘-을진대’, ‘-자면’은 보조사와 결합될 수 있었다. 각 연결어미는 보조사와의 결합 여부뿐 아니라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아래의 표는 《삼천리》에 쓰인 가정의 연결어미 각각이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용례를 제시한 것으로, 보조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여부가 달라지기도 했기 때문에 보조사 결합형과 비결합형의 빈도를 따로 제시하였다.

<표 12> 가정의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연결 어미		총 빈도	-었-	-었었-	-겠-	-으리-	-더-
-거드면	-거드면	2					
-거든01	-거든	443	35		12	1	
-노라면	-노라면	96	3				
-는다면	-는다면	3,927	257	6	11	2	
	-는다면야	8	1				
	-는다면은	28	3				
-더라면	-더라면	73	67	1			
-더면	-더면	224	212				
	-더면은	1	1				
-던들	-던들	122	118	4			
-으면	-으면	19,814	737		9		
	-으면야	31	3				
	-으면은	100	1				
-으려면	-으려면	466					
	-으려면야	3					
	-으려면은	18					
-을지면	-을지면	2					
-을진대	-을진대	134	2	1			
	-을진댄	34	3				
	-을진대는	2					
-자면	-자면	954					
	-자면은	4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가정의 연결어미 중 '-거드면', '-으려면', '-을지면', '-자면'은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예가 보이지 않았다. 나머지 연결어미들은 모두 '-었-'과의 결합이 허용되었고 '-겠-'이나 '-으리-'는 일부 어미에만 결합되었다. 한편 '-더라면', '-더면', '-던들'은 거의 대부분의 예에서 '-었-'과 결합돼 쓰였다.

3.2.1.2. 인과의 연결어미

《삼천리》에 쓰인 연결어미 중 선행절과 후행절이 원인과 결과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에는 '-거늘[91]', '-기', '-기에', '-기로01', '-길래', '-나니', '-는지라', '-더니', '-어서', '-으니', '-으니까', '-으매', '-으므로', '-은즉', '-을지니' 등이 있었다. '-기에'는 인과의 연결어미 '-기'에 조사 '-에'가 결합돼 형성된 것으로, 두 어미는 근대국어 시기부터[92] 경쟁 관계를 이루다가[93] 오늘날에는 '-기에'만 남게 되었다. 《삼천리》에는 '-기에'의 용례가 '-기'의 용례보다[94] 12배 정도 많이 나타나 당시에 '-기에'가 '-기'보다 훨씬 우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더니'를 '-으니'에 '-더-'가 결합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어미로 본 것은 당시 해당 어미들이 쓰인 용례에 1인칭 주어가 쓰

---

91) '-거늘'은 이전부터 쓰이던 연결어미 '-어늘'에 선어말어미 '-거-'가 결합돼 형성된 것으로, 20세기 전반기에도 'ㅣ' 모음 뒤에서는 수의적으로 '-어늘'로 쓰였다.

92) 유창돈(1964)의 「이조어사전」에서 표제어에 '-기에'는 없지만 '-기'는 연결어미로 등재돼 있다. 어미 '-기'의 뜻풀이는 '-기에'로 되어 있으며 용례로 제시된 것은 다음의 18세기 후반의 문장이다.

예) 닙고 시브냐 ᄒᆞ시기 ᄂᆡ ᄃᆡᄒᆞᄃᆡ 슬ᄉᆞ오이다<閑中 p.26>

93) 18세기 자료에 나타난 연결어미 '-기(예1)'와 '-기에(예2)'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예1) 修補ᄂᆞᆫ 거의 다 ᄒᆞ여시되 [아직 방을 채 꾸미지 몯ᄒᆞ엳습기] 塗褙나 ᄒᆞᆫ 후에 들게 ᄒᆞ엳습ᄂᆡ.<1790 인어대,9,0023b>

예2) …[풍쇽이 아름답지 아니ᄒᆞ기에] 비위ᄅᆞᆯ 뎡ᄒᆞ기 어렵다 ᄒᆞᄂᆞᆫ 재 ᄯᅩᄒᆞᆫ 흉특ᄒᆞ고 불울ᄒᆞ기로…<1777 명의해,2,021a>

94) 《삼천리》에는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기'가 연결어미로 쓰였는데 이러한 쓰임은 현재는 거의 사라졌다.

예) [그렇다고 길게 쓸 수는 없기] 간단이 적습니다.<1933-10-삼천리05-10-50>

예) …[새로 마른 모래가 흐터저 있기] 그리로 거름을 옮겨보니…<1938-08-삼천리10-08-217>

예) [세상에 향해서 쓰지 안키로 생각하엿기] 아직 침묵을 직히겟소이다.<1938-05-삼천리10-05-297>

예) …停車場 襲擊과 李甲 等의 活躍이 잇섯스나 [그것은 딴 題目으로 技術할 날이 잇겟기] 여기는 略하기로 한다.<1930-11-삼천리02-07-22>

여 '-더-'의 1인칭 주어 제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과의 연결어미 중 《삼천리》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어서'로, 인과의 연결어미 전체 용례 중 55.6%가 '-어서'의 용례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인 것은 '-으니'였지만 인과의 연결어미 전체 용례의 21.9%에 해당하는 쓰임으로 '-어서'와 빈도상으로 큰 차이가 났다. 그 뒤로 '-으므로>-더니>-으니까>-은즉>-기에>-으매>-나니>-는지라>-거늘>-길래>-기>-을지니>-기로01'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삼천리》에 쓰인 인과의 연결어미 '-거늘[95]', '-기[96]', '-기에[97]', '-기로01[98]', '-길래[99]', '-나니[100]', '-는지라[101]', '-더니[102]', '-어서[103]', '-으니[104]', '-으니까[105]', '-으매[106]', '-으므로[107]', '-은즉[108]', '-을지니[109]' 각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한 것이다.

---

95) 연결어미 '-거늘'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거늘', '어늘', '-여늘'을 넣고 추출된 용례들을 종합해 빈도를 냈다.

96) 연결어미 '-기'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기_'를 넣고 추출된 용례 중 명사형 어미로 쓰인 예를 제외하였다.

97) 연결어미 '-기에'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기에'를 넣고 추출된 용례들을 종합해 빈도를 냈다. 이때 '지방 문화와 산업을 소개하기에 주력하였는데'와 같이 명사형 어미 '-기'에 조사 '-에'가 결합된 예들을 제외하였고, '-다기에', '-려기에(-랴기에)'는 각각 '-다고 하기에', '-려고 하기에'가 줄어든 것이므로 연결어미 '-기에'의 용례에 포함시켰다.

98) 연결어미 '-기로'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기로'를 넣고, 검색된 용례 중 명사형 전성어미 '-기'의 용례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인과의 연결어미 '-기로'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의 뜻으로 쓰인 연결어미 '-기로'를 구별해 각각을 '-기로01'과 '-기로02'로 분석하였다.

99) 연결어미 '-길래'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길래', '길내'를 넣고 추출된 용례들을 종합해 빈도를 냈다.

100) 이 글의 각주 104) '-으니'의 검색 방법 참고.

101) 연결어미 '-는지라'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는지라'를 넣고 조건을 377로 하였다.

102) 이 글의 각주 104) '-으니'의 검색 방법 참고.

103) 연결어미 '-어서'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어서', '아서', '여서', '야서', '해서', '워서', '와서'를 넣고 추출된 용례들을 종합해 빈도를 냈다.

104) 연결어미 '-으니'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니_', '니,_'를 넣고 추출된 용례들 중 '~니 ~니' 구성을 이루는 조사 '-니', '~으니 ~으니' 구성을 이루는 연결어미 '-으니', 연결어미 '-을지니', '-자니', 종결어미 '-니'의 용례를 제외하였다. 또한 '멀둥허니'처럼 '-니'가 부사형 어미(『표준국어대사전』 '-게10'의 의미)로 쓰인 용례도 제외하였다. 한편, '-ㄴ다니', '-라니'는 각각 '-ㄴ다고 하니', '-라고 하니'가 줄어든 것이므로 연결어미 '-으니'의 용례에 포함시켰다(단, '-라고 하니'로 쓰인 예 중 '-라고 하다니'가 줄어든 예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이 중 '-나니', '-더니'의 용례를 따로 모았다.

105) 연결어미 '-으니까'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니까', '닛가', '닛까'를 넣고 추출된 용례들 중 종결어미 '-습니까'의 용례를 제외하였다.

106) 연결어미 '-으매'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매_', '매,_', '음애(37)_', '음애(37),_'을 넣고 추출된 용례들을 종합하였다.

107) 연결어미 '-으므로'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므로_', '므로,_', '음으로(377)_', '음으로

<표 13> 인과의 연결어미의 빈도

연결어미	빈도	백분율
-어서	30,254	55.6%
-으니	11,924	21.9%
-으므로	3,471	6.4%
-더니	2,821	5.2%
-으니까	1,800	3.3%
-은즉	1,110	2.0%
-기에	979	1.8%
-으매	868	1.6%
-나니	384	0.7%
-는지라	366	0.7%
-거늘	179	0.3%
-길래	79	0.1%
-기	76	0.1%
-을지니	70	0.1%
-기로01	50	0.1%
총합	54,431	100%

다음은 선・후행절이 인과의 연결어미를 매개로 접속된 예로, 제시 순서는 위의 표에 나타난 빈도순이다.

(33) a. …증조모가 안방을 내 노코 대방으로 옴기게 되어서 안방할머니란 칭호를 대방할머니라고 고치엇다.<1929-06삼천리01-01-11>

b. 近者 우리 집에 쥐가 만으니 고양이가 뎨일 所重하다 할까요.<1930-09-삼천리02-05-51>

c. K선생이 머리를 돌릴 때 별안간 앞이 아득해지므로 잠간 정신을 수습하려 눈을 감았다<1938-05-삼천리10-05-264>

d. …나는 病后의 몸을 靜養하려고 山寺에 나왓더니 새벽에 울니는 梵鐘소리에 그 만 뛰

(377),_'을 넣고 추출된 용례들을 종합하였다.

108) 연결어미 '-은즉'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은즉'을 넣고 조건을 37로 하였으며, 띄어쓰기 된 예를 찾기 위해 '은_즉'을 넣고 조건을 377로 하여 용례를 종합하였다.

109) 연결어미 '-을지니'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을지니'를 넣고 조건을 377로 하였다.

어 이러나…<1929-06삼천리01-01-23>

e. …좌우간 손해는 업슬 터이니까 한번 하야 보라고 하얏지요<1931-01-삼천리03-01-51>

f. 당신의 생명이 경각에 딸였슨즉 이렇게 잠잘 때가 아닌가 하오!<1936-11-삼천리08-11-120>

g. 이러케 갈피를 못찻는 遺族 數효가 漸漸 늘어가기에 警察에서는 危險地帶인 現場으로 드러가는 것을 꽉 막아버리엇다.<1934-09-삼천리06-09-81>

h. 이 統軍亭이 언제 建立되었는지 詳考할 바 없으매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1940-12-삼천리12-10-127>

i. …예술상에도 관념론이 생기나니 일로 인하야 예술가는 형상 대신에 상징을 사용하며…<1932-09-삼천리04-09-87>

j. 맘에 생각하는 바가 잇는지라 물결 소리조차 다릇치 아니할 수 업는 것이요…<1932-03-삼천리04-03-64>

k. …톱시가 울며 손발을 버둥거리고 아단을 하거늘 오베리아와 크렐이 이 소리를 듯고 달아와 물어본 즉…<1936-02-삼천리08-02-284>

l. …아직도 車시간이 두어 시간이나 남어 잇길래 待合室에서 기다리기 어러워 附近 카페-집에 드러가 茶를 請하얏다.<1931-07-삼천리03-07-70>

m. …한 두 해 장사하여 본 이는 다 알겟기 더 길게 쓰지 안습니다.<1934-08-삼천리06-08-135>

n. 그러므로 伊에 戰爭은 계속되고 經濟制裁는 점차로 度를 가하야 峻烈해 갈지니, 이리되면 伊太利는 莫不得已 制裁反對國 墺匈兩國과 非聯盟國인 米國, 日本, 獨逸에서 그 군수품 기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업다.<1935-11-삼천리07-10-48>

o. 오늘에 딴님의 신변에 위험이 잇겟기로 그것을 방비하기 위하야 일부러 차저 온 것이오니…<1935-01-삼천리07-01-114>

인과의 연결어미 중 일부는 보조사와 결합될 수 있었는데 결합되는 보조사의 종류는 어미마다 달랐다. 《삼천리》에 쓰인 용례를 토대로 볼 때 '-더니', '-어서', '-으니'는 다양한 보조사와 결합될 수 있었다. '-더니'와 '-으니'는 둘 다 '-만큼', '-만치'

와 결합한 예가 있었고, '-어서'는 '-는', '-도', '-라도', '-만', '-부터', '-야' 등 다양한 조사와 결합돼 쓰였다.

각 연결어미는 보조사와의 결합 여부뿐 아니라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아래의 표는 《삼천리》에 쓰인 인과의 연결어미 각각이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용례를 제시한 것으로, 보조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여부가 달라지기도 했기 때문에 보조사 결합형과 비결합형의 빈도를 따로 제시하였다.

<표 14> 인과의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연결 어미		총 빈도	-었-	-었었-	-겠-	-으리-	-더-
-거늘	-거늘	179	17		9		
-기	-기	76	30		7		
-기에	-기에	979	119		38		
-기로01	-기로	50	11		6		
-길래	-길래	79	7				
-나니	-나니	384	87	5			
-는지라	-는지라	366	38				5
-더니	-더니	2,801	824				
	-더니만큼	4	4				
	-더니만치	16	13				
-어서	-어서	25,425					
	-어서는	3,445					
	-어서도	874					
	-어서라도	111					
	-어서만	141					
	-어서부터	102					
	-어서야	156					
-으니	-으니	11,715	2,327	36	94	33	
	-으니만큼	56	3				
	-으니만치	153	8				
-으니까	-으니까	1,800	197	3	4		
-으매	-으매	868	41		1		
-으므로	-으므로	3,471	892	15	44		
-은즉	-은즉	1,110	34		2		
-을지니	-을지니	70	1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인과의 연결어미 중 유일하게 '-어서'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예가 보이지 않았다. 나머지 연결어미들은 모두 '-었-'과의 결합이 허용되었고 '-었었-', '-겠-', '-으리-', '-더-'는 일부 어미에만 결합되었다.

3.2.1.3. 양보의 연결어미

《삼천리》에 쓰인 연결어미 중 선행절의 명제가 참이라도 후행절 명제의 진리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나타내는 양보의 연결어미에는 '-더라도', '-은들', '-을망정', '-을지라도', '-을지언정' 등이 있었다. '-더라도'를 '-어도'에 '-더-'가 결합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어미로 본 것은 당시 '-더라도'의 용례에 1인칭 주어가 쓰여 '-더-'의 1인칭 주어 제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보의 연결어미 중 《삼천리》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은 '-더라도'로, 양보의 연결어미 전체 용례 중 51.4%가 '-더라도'의 용례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인 것은 '-을지라도'로 양보의 연결어미 전체 용례 중 32.2%에 해당했다. 그 뒤로 '-을망정>-은들>-을지언정'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삼천리》에 쓰인 양보의 연결어미 '-더라도[110]', '-을지라도[111]', '-은들[112]', '-을지언정[113]', '-을망정[114]' 각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한 것이다.

---

110) 연결어미 '-더라도'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더라도'를 넣고 조건을 '117'로 설정해 '더라도', '드라도', '더래도', '드래도'의 형태를 모두 검색했으며, 어간말 'ㅎ'과 축약이 일어난 형태를 추출하기 위해 '터라도'를 넣고 조건을 '117'로 설정해 추가 검색을 한 뒤 용례를 통합하였다.

111) 연결어미 '-을지라도'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을지라도'를 넣고 조건을 '3777'로 설정해 '-ㄹ지라도', '-을지라도'의 용례를 모두 추출하였다.

112) 연결어미 '-은들'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은들'을 넣고 조건을 '37'로 설정해 추출된 용례들을 종합하였다. 이 중 '-던들'의 용례를 제외하고 조사 '-ㄴ들'의 예도 제외하였다.

113) 연결어미 '-을지언정'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을지언정', '을지언뎡'을 넣고 조건을 '3777'로 설정해 '-ㄹ지언정', '-을지언정', '-ㄹ지언뎡', '-을지언뎡'의 용례를 모두 추출하였다.

114) 연결어미 '-을망정'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을망정', '을망뎡'을 넣고 조건을 '377'로 설정했다. '-을망정'은 '-을 망정'처럼 띄어서 쓰기도 했기 때문에 '을 망정(3777)', '을 망뎡(3777)'으로도 검색해 용례를 통합하였다.

<표 15> 양보의 연결어미의 빈도

연결어미	빈도	백분율
-더라도	1,422	51.4%
-을지라도	890	32.2%
-을망정	174	6.3%
-은들	146	5.3%
-을지언정	135	4.9%
총합	2,767	100%

다음은 선·후행절이 양보의 연결어미를 매개로 접속된 예로, 제시 순서는 위의 표에 나타난 빈도순이다.

(34) a. 나는 죽더라도 당신의 안해인 이상 이 나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영원히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당신의 품안에 고이 안긔워 지내렴니다<1933-10-삼천리 05-10-110>

b. 또한 그가 죽을지라도 누가 또 그 뒤를 이으리다.<1934-06-삼천리06-07-161>

c. …내 얼굴이 잘 생기지는 못했을망정 누구에게나 惡 印象은 줄 것 같지 않다.<1941-06-삼천리13-06-262>

d. 우리 농민의 실내에 고려청자 봉황상감의 화병이 없은들 생활에 관계될 바 무엇이랴마는…<1935-08-삼천리07-07-290>

c. 卿과 나와 몸은 달을지언정 마음은 兄弟가티 서로 同情하고 지냅시다.<1935-01-삼천리 07-01-140>

《삼천리》에는 양보의 연결어미는 보조사와 결합한 예가 보이지 않았지만, 일부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예는 있었다. 아래의 표는 《삼천리》에 쓰인 양보의 연결어미 각각이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표 16> 양보의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연결 어미		총 빈도	-었-	-었었-	-겠-	-으리-	-더-
-더라도	-더라도	1,422	47				
-을지라도	-을지라도	890	16				
-은들	-은들	146	4				
-을망정	-을망정	174	41				
-을지언정	-을지언정	135	8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양보의 연결어미는 모두 '-었-'과 결합될 수 있었지만 다른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예는 보이지 않았다.

3.2.1.4. 대조의 연결어미

《삼천리》에 쓰인 연결어미 중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가 대조적임을 나타내는 것에는 '-거니와[115]', '-건마는(건만)', '-더나', '-어도', '-으나', '-으나마', '-으되01[116]', '-지마는(지만)', '-지만서도' 등이 있었다.

'-거니와'는 지정사 뒤에서 수의적으로 '-어니와'로 꼴이 바뀌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거니와'로만 쓰이기 때문에 20세기 동안 '-어니와'의 쓰임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가 20세기 전반기에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정사 뒤에서 '-거니와'와 '-어니와'가 쓰인 빈도를 비교해 보았다.

115) 이 글에서는 최현배(1937:305)을 따라 '-거니와'를 '-으나', '-지만' 등과 함께 대조의 연결어미로 분류하였지만 권재일(2005:104)에서는 이를 나열의 연결어미로 분류하였다. 실제로 '-거니와'의 용례를 보면 '자기는 창작을 하거니와 論評도 쓴다.<1930-07삼천리02-04-61>'에서와 같이 나열인지 대조인지가 불분명한 예들이 있다. 이 예에서는 '-거니와'를 '-고'로 바꿀 수도 있고 '-지만'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최현배(1937)의 체계를 따라 '-거니와'를 대조의 연결어미로 보았다.

116) 오늘날 '-으되'는 '있다', '없다'나 선어말어미 '-었-', '-겠-' 뒤에서만 '-으되'의 꼴로 쓰이고 그 외에는 '-되'의 꼴로 쓰인다. 하지만 《삼천리》에는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서도 '-으되'로 쓰일 수 있었다. 최현배(1937:179)에서도 당시 어간 말 자음 뒤에서 '-으되'와 '-되'의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언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즉, 경상도나 평안도 지방에서는 "먹으되, 잡으되, 묶으되"의 꼴로 쓰고 서울에서는 "먹되, 잡되, 묶되"의 꼴로 쓴다는 것이다. 최현배(1937:180)은 서울에서도 '있다', '없다'나 '-었-', '-겠-' 뒤에서는 반드시 '-으되'로 쓰므로 자음 뒤에서는 '-으되' 꼴을 원칙으로 삼고 '-으-'가 탈락된 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으되'는 대조를 나타내기도 했고(-으되01) 인용을 나타내기도 했다(-으되02).

<표 17> 지정사 뒤에서 '-거니와'와 '-어니와'의 실현 빈도

연결어미		빈도	백분율	총합
-거니와	-거니와	86	24.1%	357(100%)
	-어니와	271	75.9%	

위의 표를 보면 지정사 뒤에서 '-어니와'로 쓰인 비율이 75.9%로, 20세기 전반기에는 아직 지정사 뒤에서 '-어니와'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건마는'과 '-지마는'은 당시 축약형인 '-건만'과 '-지만'으로도 쓰였다. 이 두 어미는 모두 오늘날에는 주로 축약형으로 쓰인다. 《삼천리》에 나타난 용례를 분석해 이 두 어미의 원형과 축약형의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았다.

<표 18> '-건마는'과 '-건만', '-지마는'과 '-지만'의 빈도 비교

연결어미		빈도	백분율	총합
-건마는	-건마는	183	27.2%	673(100%)
	-건만	490	72.8%	
-지마는	-지마는	1,773	36.1%	4,917(100%)
	-지만	3,144	63.9%	

위의 표를 보면, '-건마는'과 '-지마는' 모두 축약형으로 쓰인 예가 원형으로 쓰인 예보다 훨씬 많았다. '-건만'의 예는 72.8%, '-지만'의 예는 63.9%로 각각 '-건마는', '-지마는'보다 우세한 쓰임을 보였다.

대조의 연결어미 중 《삼천리》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으나'로, 대조의 연결어미 전체 용례 중 42.2%가 '-으나'의 용례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인 것은 '-지마는'으로, 대조의 연결어미 전체 용례의 24.7%를 차지했다. 그 뒤로 '-어도>-거니와>-건마는>-으되>-으나마>-지만서도>-더나'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삼천리》에 쓰인 대조의 연결어미 '-거니와117)', '-건마는(건만)118)', '-더나119)', '-어도120)', '-

117) 연결어미 '-거니와'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거니와_', '거니와,_', '려니와_', '려니와,_', '어니와_', '어니와,_'를 넣고 추출된 용례들을 종합해 빈도를 냈다.

으나121)', '-으나마122)', '-으되01123)', '-지마는(지만)124)', '-지만서도125)' 각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한 것이다.

<표 19> 대조의 연결어미의 빈도

연결어미	빈도	백분율
-으나	8,407	42.2%
-지마는	4,916	24.7%
-어도	3,688	18.5%
-거니와	1,534	7.7%
-건마는	673	3.4%
-으되	513	2.6%
-으나마	163	0.8%
-지만서도	3	0.0%
-더나	2	0.0%
총합	19,899	100%

다음은 선·후행절이 대조의 연결어미를 매개로 접속된 예로, 제시 순서는 위의

118) 연결어미 '-건마는'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건마는', '건만은', '것마는', '것만은', '련마는', '련만은', '렷마는', '렷만은', '언마는', '언만은', '엇마는', '엇만은'을 넣고 추출된 용례들을 종합해 빈도를 냈다. 이때 의존명사 '것'에 '-만은'이 결합된 예는 제외하였다.

119) 이 글의 각주 121) '-으나'의 검색 방법 참고.

120) 연결어미 '-어도'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어도_', '어도,_', '아도_', '아도,_', '여도_', '여도,_', '야도_', '야도,_', '해도_', '해도,_'를 입력하고 조건을 277로 설정해 '-어도'의 다양한 변이형을 추출하였다. 이때 '달래도 보았고' 등과 같이 보조적 연결어미 뒤에 보조사 '-도'가 결합된 예와 보조사 '-라도'의 예는 제외하였다. 한편, '~ㄴ대도', '~래도', '~캐도'의 예는 각각 '~ㄴ다고 하여도', '~라고 하여도', '~고 해도'의 준말이기 때문에 '-어도'의 예에 포함시켰다. 단, 원꼴의 앞 어절 부분에 선어말어미가 쓰인 경우 이는 '-어도'에 결합된 선어말어미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었더래도'는 '~었더라고 해도'의 준말로 이때 '-었-'은 '해도'와는 무관한 것이다.

121) 연결어미 '-으나'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나_', '나,_'를 넣고 추출된 용례 중 조사 '-이나', 종결어미 '-나'의 예를 제외한 뒤 빈도를 냈다. 그런 뒤 '-더나'의 용례를 따로 모았다.

122) 연결어미 '-으나마'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나마'를 넣고 추출된 용례 중 조사 '-나마'의 예를 제외하였다.

123) 연결어미 '-으되'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되_', '되,_'를 넣고 추출된 용례들을 종합해 빈도를 냈다. 그리고 대조를 나타내는 '-으되01'과 인용을 나타내는 '-으되02'로 분류하였다.

124) 연결어미 '-지마는'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지마는', '지만은'을 넣고 추출된 용례들을 종합해 빈도를 냈다. 축약형 '-지만'의 용례 검색 시에는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지만_', '지만,_'을 넣어 추출된 용례 중 '가야지만'과 같이 '-어야지'에 보조사 '-만'이 결합된 예를 제외하고 '죽지만 말어'와 같이 보조적 연결어미 '-지' 뒤에 보조사 '-만'이 결합된 예도 제외하였다.

125) 연결어미 '-지만서도'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지만서도'를 넣어 추출된 용례를 종합해 빈도를 냈다.

표에 나타난 빈도순이다. '-지마는'과 '-건마는'은 축약형의 예를 함께 제시하였다.

(35) a. 얼골에 악의는 잇서 보이지 안으나 만흔 고난을 격근 것 갓햇다.<1932-02-삼천리04-02-98>

b. 또 우연히 일어까지 배우게 되엇지마는 일본은 가보고 십흔 맘이 별로 업섯섯는데,…<1929-09삼천리01-02-26>

b′. 가슴에 恨懷가 가득하지만 元氣는 더욱 潑剌하여집니다.<1929-06삼천리01-01-21>

c.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느 국가의 시민이 되여도 끗까지 틀림 업는 日本人이다.<1932-09-삼천리04-09-11>

d. 나는 東京이나 巴里 等地엔 「모델」도 女性의 職業이 되엇다 하거니와 조선서는 아직 듯지 못하엿는데…<1930-09-삼천리02-05-58>

e. 金華山을 고개 넘는 바람은 아즉도 맵건마는 나는 분명히 그 잡지속에서 제일 먼저 이 봄을 맛보앗든 것이다.<1936-04-삼천리08-04-259>

e′. 시간은 거지반 다 되엇건만 출석자는 겨우 다섯 사람 밧게,…<1931-01-삼천리03-01-23>

f. 여하간 나는 중산 계급 내지는 소시민이기는 하되 「부자」는 아니다.<1938-08-삼천리10-08-208>

g. 수업료에 출연한 역이 비록 단역이엿으나마 氏에게는 큰 성공이 아닐 수 없다.<1941-06-삼천리13-06-231>

h. 그 사람은 벌서 죽엇습니다. 죽엇지만서도 예전대로 그저 그러케 불업지요.<1935-07-삼천리07-06-288>

i. 태원이는 주사란 말을 듯고 가삼이 들컥하며 겁을 먹고 거절하는 듯이 「어어어」하였더나 단념한 듯 눈을 꼭 깜었다.<1935-12-삼천리07-11-198>

대조의 연결어미는 대체로 보조사와 결합되어 쓰이지 않았지만 '-건만', '-지만'에 한해 '-는', '-도' 등의 보조사와 결합한 쓰임이 보였다. 하지만 '-건마는'과 '-지마는'이 보조사와 결합한 예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대조의 연결어미는 다른 유형의 연결

어미들에 비해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선어말어미 '-었-'은 모든 대조의 연결어미에 결합될 수 있었다. 아래의 표는 《삼천리》에 쓰인 대조의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건마는'과 '-지마는'의 경우는 축약형으로 쓰인 경우를 따로 제시하였다.

<표 20> 대조의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연결 어미		총 빈도	-었-	-었었-	-겠-	-으리-	-더-
-거니와	-거니와	1,534	249	1	40	284	
-건마는	-건마는	183	36			43	
	-건만	483	173	1		73	
	-건만도	7	1			3	
-더나	-더나	2	2				
-어도	-어도	3,688	42				
-으나	-으나	8,407	2,778	134	278		
-으나마	-으나마	163	8				
-으되01	-으되	513	56		1		
-지마는	-지마는	1,773	316	20	185		
	-지만	3,137	676	20	414		
	-지만도	2			1		
	-지만요	4					
-지만서도	-지만서도	3	3				

위의 표를 보면, '-거니와'와 '-건마는'은 다른 어미들과 달리 '-으리-'와도 결합되었는데 '-으리-'와 결합할 때 각각 '-으려니와', '-으련마는'으로 쓰였다. 당시 '-겠-'은 '-으리-'와 분포적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126], '-건마는'은 '-겠-'과 결합한 예는 보이지 않았고 '-거니와'는 '-겠-'과 결합한 예가 있었지만 '-으리-'와 결합한 예가 7배 이상 많았다.

---

126) 아래의 예1), 예2)에서 볼 수 있듯이 '-거니와'가 '-겠-'과 결합했을 때나 '-으리-'와 결합했을 때나 의미는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1) 東亞日報의 정치면 지면을 보시면 아시려니와 우리 신문은 「움지기는 그 세계 정계의 초점」을 반영하여 노키에 힘씀니다.<1935-07-삼천리07-06-42>

예2) 여러분 중에 或 愛蘭을 가보신 이가 잇스면 아시겟거니와 首** 떠부린市의 中央停車場에 나리어 東으로 人波를 헤치고 한참 가노라면 中央郵便局의 巍然한 石造建物이 나진다 한다.<1930-09-삼천리02-05-29>

3.2.1.5. 나열의 연결어미

《삼천리》에 쓰인 연결어미 중 선행절과 후행절이 의미적으로 대등한 자격을 갖고 나열됐음을 나타내는 것에는 '-고', '-고서', '-으며', '-으면서', '-을지며' 등이 있었다.

당시 '-고'는 지정사 뒤에서 수의적으로 '-오'로 변하기도 했고 'ㅣ' 모음의 영향을 받아 '-요'로 쓰이기도 했다. '-고'는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오'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20세기 전반기를 지나며 '-오'가 자취를 감추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당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삼천리》에서 지정사 뒤에서 '-고'와 '-오(-요)'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비교해 보았다.

<표 21> 지정사 뒤에서 '-고', '-오', '-요'의 실현 빈도

연결어미		빈도	백분율	총합
-고	-고	1,347	23.7%	5,688(100%)
	-오	2,369	41.6%	
	-요	1,972	34.7%	

위의 표를 보면 '-고'가 지정사 뒤에서 '-오(-요)'로 쓰인 비율은 76.3%였다. 즉, 20세기 전반기에는 아직 지정사 뒤에서 '-오'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앞서 살펴본 대조의 연결어미 '-거니와'와 '-어니와'도 지정사 뒤에서 '-어니와'로 쓰인 용례가 75.9%였는데, 이 두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ㄱ' 실현형과 비실현형이 공존하는 연결어미의 경우 지정사 뒤에서 아직 'ㄱ' 비실현형의 쓰임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열의 연결어미 중 《삼천리》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은 '-고'로, 나열의 연결어미 전체 용례 중 77.3%가 '-고'의 용례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인 것은 '-으며'였지만 나열의 연결어미 전체 용례의 15.7%에 해당하는 쓰임으로 '-고'와 빈도상으로 큰 차이가 났다. 그 뒤로 '-으면서>-고서>-을지며'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삼

천리》에 쓰인 나열의 연결어미 '-고', '-고서', '-으며', '-으면서', '-을지며' 각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한 것이다.

<표 22> 나열의 연결어미의 빈도

연결어미	빈도	백분율
-고	75,416	77.3%
-으며	15,266	15.7%
-으면서	6,083	6.2%
-고서	731	0.7%
-을지며	25	0.0%
총합	97,521	100%

다음은 선・후행절이 나열의 연결어미를 매개로 접속된 예로, 제시 순서는 위의 표에 나타난 빈도순이다.

(36) a. 兄은 문학 즉 소설가이엿고 나는 음악 學徒이엿습니다.<1932-10-삼천리04-10-71>

b. 劉相奎씨는 일즉이 의학전문학교를 나왔으며 현재는 「의전」외과 조교수로 있는 이다.<1935-12-삼천리07-11-141>

c. 차차 자라나면서 내게는 큰 의문이 생겻다.<1931-11-삼천리03-11-50>

d. 刑吏는 그날 밤 非常한 결심을 품고서 上官의 私宅을 방문하엿습니다.<1930-04삼천리02-02-54>

e. 그래서 汝等은 승리의 愛顧를 부단히 밧을 목적물이 될지며 국민은 환희로써 汝等의 귀환을 축하하리라.<1933-10-삼천리05-10-70>

나열의 연결어미 중 '-으며', '-을지며'를 제외하고는 여러 보조사와 결합한 예가 나타났는데, '-고'는 '-는', '-도', '-라도', '-야' 등, '-고서'는 '-는', '-야', '-으면서'는 '-까지', '-는', '-도', '-라도' 등과 결합될 수 있었다. 한편, 나열의 연결어미는 제각기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양상이 달리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삼천리》에 쓰인 나열의

연결어미 각각이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용례를 제시한 것으로, 보조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여부가 달라지기도 했기 때문에 보조사 결합형과 비결합형의 빈도를 따로 제시하였다.

<표 23> 나열의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연결 어미		총 빈도	-었-	-었었-	-겠-	-으리-	-더-
-고	-고	73,313	4,317	173	232		
	-고는	1,140					
	-고도	791					
	-고라도	86					
	-고부터도	1					
	-고야	85					
-고서	-고서	636					
	-고서는	72					
	-고서야	23					
-으며	-으며	15,266	1,863	24	40		
-으면서	-으면서	4,895	9				
	-으면서까지	23					
	-으면서까지도	2					
	-으면서는	13					
	-으면서도	1,030	21				
	-으면서라도	24					
	-으면서부터	78					
	-으면서부터는	18					
-을지며	-을지며	25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고'와 '-으며'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용례가 많았지만 '-고서'와 '-을지며'는 선어말어미와 결합된 예가 없었고 '-으면서'는 제한적인 결합을 보였다. 한편, '-고'는 조사 없이 쓰일 때는 '-었-', '-었었-', '-겠-'과 두루 결합되었지만 조사가 결합된 경우는 선어말어미가 나타난 예가 보이지 않았다.

3.2.1.6. 의도의 연결어미

《삼천리》에 쓰인 연결어미 중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한 의도임을 나타내는 것에는 '-고자[127]', '-느라[128]', '-느라고', '-으려', '-으려고' 등이 있었다. 의도의 연결어미가 쓰일 때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고 주어 자리에 유정 명사가 쓰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다른 부류의 연결어미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조건이다.

의도의 연결어미 중 《삼천리》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으려고'로, 의도의 연결어미 전체 용례 중 44.5%가 '-으려고'의 용례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인 것은 '-으려'로, 의도의 연결어미 전체 용례의 32.1%에 해당했다. 그 뒤로 '-고자>-느라고>-느라'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삼천리》에 쓰인 의도의 연결어미 '-고자[129]', '-느라[130]', '-느라고[131]', '-으려[132]', '-으려고[133]' 각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한 것이다.

<표 24> 의도의 연결어미의 빈도

연결어미	빈도	백분율
-으려고	2,448	44.5%
-으려	1,768	32.1%
-고자	858	15.6%
-느라고	391	7.1%
-느라	35	0.6%
총합	5,500	100%

127) '-고자'는 '-고자', '-고져'로 쓰였고 종성이 'ㅎ'인 어간 뒤에서는 '-코자', '-코져'로 쓰였다. 양성모음이든 음성모음이든 '-고자'와 '-고져'가 결합된 예가 두루 보여, '-고자'와 '-고져'의 선택에 특정한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28) '-느라'와 '-느라고'는 각각 '-노라'와 '-노라고'로도 쓰였다.

129) 연결어미 '-고자'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고자, 코자, 고져, 고져'를 넣고 추출된 용례들을 종합하였다.

130) 연결어미 '-느라'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느라', '노라'를 넣고 추출된 용례 중 종결어미의 예를 제외하였다.

131) 연결어미 '-느라고'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느라고', '노라고'를 넣고 추출된 용례 중 종결어미 '-느라/노라'에 인용 표지 '-고'가 결합된 예를 제외하였다.

132) 연결어미 '-으려'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려_', '려,_', '랴_', '랴,_', '려고', '랴고', '을여고(377)', '을야고(377)'을 넣어 추출된 용례들을 종합하였다. 이때 종결어미 '-는구랴', '-으랴' 등의 예를 제외하였다.

133) 연결어미 '-으려고'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려고', '랴고', '을야고(377)', '을여고(377)'을 넣고 추출된 용례를 종합하였다.

'-느라'와 '-느라고', '-으려'와 '-으려고'는 각각 형태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어미인데, 위의 표를 보면 '-고'가 나타난 형태가 그렇지 않은 형태보다 더 많이 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음은 선・후행절이 의도의 연결어미를 매개로 접속된 예로, 제시 순서는 위의 표에 나타난 빈도순이다.

(37) a. 우리가 제 동포를 죽이려고 이 벌판을 여러 해를 헤매이엿든가!<1933-03-삼천리05-03-21>

b. …新羅 高句麗 때의 氣風으로 遡上식혀 노으려 힘쓸 것이다.<1933-10-삼천리05-10-1>

c. 엇잿던 나는 지금 만흔 불행한 사람을 행복스럽게 맨드는 일에 한 일꾼이 되고자 당분간 이곳을 떠납니다.<1931-12-삼천리03-12-68>

d. 더구나 그가 청년시대에 이태리로 가느라고 알프쓰산을 넘다가…<1931-09-삼천리03-09-90>

e. 동네 어구에 이 동네를 직히느라 혼자 비스듬이 서 있는 노송이 머-ㄴ 데 전등불을 받어 히미하게 떠 있다.<1941-03-삼천리13-03-110>

의도의 연결어미가 쓰인 선행절의 주어는 유정명사여야 하지만 (1e)에서처럼 무정명사가 의인화되어 쓰일 수도 있었다.

의도의 연결어미 중 '-느라고'는 보조사 '-는'과 결합될 수 있었고, '-으려고'는 '-까지', '-나', '-는', '-도', '-만' 등 다양한 보조사와 결합되었다. 한편, 의도의 연결어미는 다른 유형의 연결어미와 달리 어느 것도 선어말어미와 결합된 예가 보이지 않았다.

<표 25> 의도의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연결어미		총 빈도	-었-	-었었-	-겠-	-으리-	-더-
-고자	-고자	858					
-느라	-느라	35					
-느라고	-느라고	389					
	-느라고는	2					
-으려	-으려	1,768					
-으려고	-으려고	2,337					
	-으려고까지	7					
	-으려고나	1					
	-으려고는	25					
	-으려고도	61					
	-으려고들	2					
	-으려고만	6					
	-으려고서는	1					
	-으려고요	8					

지금까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연결어미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어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유형들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결어미들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3.2.1.7. 기타 연결어미

지금까지 《삼천리》에 쓰인 연결어미의 유형을 가정, 인과, 양보, 대조, 나열, 의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 절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연결어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한다.

기타 연결어미 중에 '-는데'와 '-어야'는 다른 연결어미와 비교해 볼 때 빈도가 높은 편으로, '-는데'는 《삼천리》에 8,052회 나타났고[134] '-어야'는 1,594회 나타났다[135]. '-는데'는 보조사 '-도'와 결합된 예가 보였고 '-어야'는 '-만'과 결합된 예가

134) 연결어미 '-는데'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는데_', '는데,_'를 넣고 377의 조건을 설정해 '-는데', '-은데', '-ㄴ데' 등의 용례를 모두 추출했다.
135) 연결어미 '-어야'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어야, 아야, 여야, 야야, 해야, 워야, 와야'를

보였다. 두 어미는 모두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한 예가 많았고 '-는데'는 '-었었-'이나 '-겠-'과도 결합될 수 있었다.

그밖에도 '-는바', '-으되02[136]', '-을새', '-거든02[137]', '-자', '-다가', '-을뿐더러', '-기로02[138]' 등이 있었다. 《삼천리》에 쓰인 각 연결어미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8) a. 나의 아버지의 雅號는 耕南이엇는데 나는 어릴 때에 「苧谷」이라 불넛다.<1930-05 삼천리02-03-75>

b. …단체는 부절히 일을 하여야 그 일홈이 서거든 웨 이리 한산할고?<1929-06삼천리01-01-29>

c. 英國과 가티 政黨政治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國務大臣은 하원의 多數黨의 다수의 신임을 밧는 의원이라야 하는바 이러한 제도는 의회에 대한 국무대신의 책임을 명백히 하려는데 잇지아니할가.<1933-01-삼천리05-01-33>

d. 史家는 말하되 愛蘭은 千年의 反逆史를 가젓다 한다.<1930-09-삼천리02-05-11>

e. 궁정에는 여러 왕자가 留守하고 잇슬새 그네들 사이에도 의견의 衝突이 생기여…<1929-06삼천리01-01-17>

f. 땅 우에도 위험하거든 하물며 공중으로 나려다닌다니, 그게 무슨 위태한 짓이냐.<1935-07-삼천리07-06-138>

g. 일본의 房總半島조차 수평선 저쪽에 사라지자 어듸를 보아도 파-란 바다물결 뿐이다.<1929-06삼천리01-01-7>

h. 東京 大阪에서 몃칠 지내다가 6월 16일 아츰에 橫濱을 떠나는 太洋丸에 몸을 싯고…

넣고 각각에 대해 27로 조건을 설정했다. 그 중 '우서야 크게 웃지 않고' 등과 같이 보조사 '-야'가 쓰인 용례를 제외하였다.

136) '-으되'는 대조의 연결어미로도 쓰였고 인용 동사와 결합해 발화 내용이 이어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으되02'는 후자에 해당한다.

137) '-거든'은 가정의 연결어미로도 쓰였고 '~거든 하물며 ~랴' 등으로 쓰여 견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거든02'는 후자에 해당한다.

138) '-기로'는 인과의 연결어미로도 쓰였고 '아무리 ~기로 ~랴' 등으로 쓰여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기로02'는 후자에 해당한다.

<1929-06삼천리01-01-6>

i. 李源喆 군은 지금까지 동양 각국의 美國 유학생 중 처음 보는 수재일뿐더러 歐美에도 드문 놀라운 學者라<1929-11삼천리01-03-12>

j. 아무리 도적놈이기로 그렇게 용할 수야 있오.<1938-12-삼천리10-12-229>

지금까지 《삼천리》에 나타난 쓰임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접속절을 이어주는 연결어미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접속절에 대한 논의의 마지막으로 다음 절에서는 당시 문장에 흔히 나타나던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중첩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3.2.1.8.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공기

선행 접속절과 후행 접속절은 연결어미를 매개로 하지만, 《삼천리》에는 연결어미와 함께 접속부사가 쓰인 예도 상당수였다. '-고 그리고', '-나 그러나', '-어서 그래서'와 같이 연결어미 바로 뒤에 의미 기능이 동일한 접속부사가 쓰인 것이다. 몇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39) a. …이 애를 안해로 삼고 그리고 벌어먹고 지나면 안 조흔가.<1935-01-삼천리07-01-206>

b. …그럿케까지 할 熱도 나지 안으며 그리고 시간도 업다.<1933-04-삼천리05-04-52>

c. 기술적 교육은 과거에 잇서서는 극단으로 빈약하엿스나 그러나 徐徐로 발달하게 시작되엇다.<1931-07-삼천리03-07-45>

d. 만일 억지로 된다고 하면 물론 그것은 매우 좋을 바겠지만 그러나 사실상 참말 그렇게 될까?<1940-06-삼천리12-06-38>

e. 爲先 돈이 업서서 그래서 어느 때는 백화점의 貨物 運搬 人夫로 되여 몃 푸랭의 삭전을 어더 쥐고 몃칠씩 주우린 배에 빵조각을 뜨더 너헛고…<1931-01-삼천리03-01-21>

f. 그러나 재원의 錮渴 물자의 결핍은 구출할 방책이 업스니 그럼으로 공채 및 정부증권의 남발을 단행치 아니할 수 업다.<1935-08-삼천리07-07-108>

(39a)와 (39b)는 '-고'나 '-며'만으로 충분히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음에도 '그리고'를 덧붙였다. (39c)와 (39d)는 '-으나'나 '-지만'만으로 충분한데도 '그러나'를 덧붙였다. (39e)와 (39f)는 '-어서'나 '-으니'만으로 충분한데도 '그래서'나 '그러므로'를 덧붙였다139).

의미 기능이 동일한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연쇄가 어떤 어미 혹은 어떤 접속부사에서 주로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천리》에 나타난 용례를 대상으로 계량적 분석을 해 보았다140). 다음은 각각의 접속부사 앞에 나타난 연결어미 중 비교적 빈도가 높은 것을 제시한 것이다.

<표 26> 의미 기능이 같은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연쇄

접속부사 / 연결어미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고	349			
-으며	48			
-으나		214		
-지만		31		
-으니			3	17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고 그리고'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으나 그러나'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밖에도 '-으며 그리고', '-지만 그러나', '-으니

139) 접속부사 중 '그러니까'는 연결어미에 후행한 예가 없었다.

140) 아래의 예와 같이 의미 기능이 동일하지 않은 연결어미와 접속부사가 연달아 쓰인 예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1)에서 '그리고'는 '-니까'에 이끌리는 앞뒤의 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예2)에서도 '그리고'는 '-면'에 이끌리는 앞뒤의 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의미 기능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중첩의 예로 보지 않았다.

예1) 안해는 별안간 자기에게 경어를 쓰게 되니까 그리고 아조 점잔을 빼니까 엇전 영문인지도 모르고 우스면서 힐끗 치여다 보면서 대답이 업다.<1930-04삼천리02-02-46>

예2) 그 때에 어머님이 게섯드라면- 그리고 옵바가 게섯드라면 그이와 나 사에는 첫사랑의 고흔 싹이 움트지 안엇을 것을…<1932-05-삼천리04-05-27>

그러므로', '-으니 그래서' 등의 쓰임이 보였다.

이경호(2000:320-321)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 자료에 동일한 기능의 연결어미와 접속부사가 연쇄하는 현상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긴 문장을 사용하면서 오는 접속된 절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의미 기능이 같은 두 문법 형태가 연이어 나타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열이나 대조, 인과의 의미가 강조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대국어 화자의 직관에 따른 판단일 것이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삼천리》에 쓰인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연쇄 현상은 긴 문장뿐 아니라 짧은 문장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났다.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연쇄 현상은 의미상의 강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문장 쓰기의 관습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형철(1997:147-148)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기 문헌에 나타난 접속 표현의 중복이 한문의 영향이라고 지적하며 "한문을 번역할 때 국어 문맥에 따라 용언의 접속 어미를 연결시키고, 여기에 한문에서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자립 형태소를 번역하여 덧붙이기 때문에 결국 중복 표현이 되고 만다. 이러한 중복 사용 현상은 언해문뿐만 아니라 창작문에도 그대로 사용되어 문어체적 성격을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라고 하였다. 다음은 중세국어에 나타난 연결어미와 접속부사 연쇄의 예이다.

(40) a. 비록 ᄒᆞ나콰 여ᄉᆞᆺ괘 업슨 ᄠᅳ들 아나 그러나 ᄉᆞᆫ지 圓通本根ᄋᆞᆯ 아디 몯ᄒᆞᄂᆞ니 … <1461능엄언05,029b>

b. 第二 時中에 비록 徧計所執을 브트샤 諸法의 空ᄋᆞᆯ 니ᄅᆞ시나 그러나 依他와 圓成에 ᄉᆞᆫ지 有를 니ᄅᆞ디 아니ᄒᆞ시니 곧 諸部般若라<1465원각경,02,상2,1:036b>

c. …비록 鄧禹의 功이 업스시나 그러나 平生애 義ᄅᆞᆯ 時急히 ᄒᆞ더시니…<1475내훈언,02,105b>

d. 申國夫人이 性이 嚴ᄒᆞ고 法度 이셔 비록 심히 公을 ᄉᆞ랑ᄒᆞ나 그러나 公을 ᄀᆞᄅᆞ츄ᄃᆡ

ᄆᆡᄉᆞᄅᆞᆯ 規矩ᄅᆞᆯ 조차 ᄇᆞᆲ드듸게 ᄒᆞ더라<1586소학언,06,001b>

중세국어에서는 주로 대조의 연결어미와 ‘그러나’가 연쇄형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구조가 후대까지 이어졌고 새로 생겨난 접속부사도 이러한 구조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삼천리》에 쓰인 연결어미의 용법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접속절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정의 연결어미 중에는 ‘-으면(19,945회)’이, 인과의 연결어미 중에는 ‘-어서(30,254회)’가, 양보의 연결어미 중에는 ‘-더라도(1,422회)’가, 대조의 연결어미 중에는 ‘-으나(8,407회)’가, 나열의 연결어미 중에는 ‘-고(75,416회)’가, 의도의 연결어미 중에는 ‘-으려고(2,448회)’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이 이어진 결과 연결어미와 접속부사가 중첩된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삼천리》에는 ‘-고 그리고’, ‘-으나 그러나’의 중첩 예가 특히 많았다. 3.2의 남은 부분에서는 20세기 전반기 내포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어지는 3.2.2에서는 그 중 첫 번째로 명사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3.2.2. 명사절

명사절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절을 말하는 것으로 최현배(1937:986)은 이를 “이름마디”라 하고, 이름마디를 “임자씨(體言)같이 쓰히는 마디”라고 정의하였다. 명사절은 명사형 전성어미로 이루어지는데, 최현배(1937:352)에서 “이름꼴(名詞形)”에는 “-ㅁ, -음, -기”가 있다고 한 것처럼 명사절은 전성어미 ‘-음’, ‘-기’에 의해 형성되었다. ‘-음’은 “움직임 그것을 觀念的으로 가리키는 이름꼴(352쪽)”이고 ‘-기’는 “그 움직임의 나아감(進行 또는 過程)을 가리키는 이름꼴(354쪽)”이다.

‘-음’ 명사절은 중세국어 자료에도 널리 나타나고 ‘-기’ 명사절은 근대국어 시기부

터 발달했는데, 이 두 유형은 그 후로 줄곧 경쟁 관계를 이루었다[141]. 20세기 전반기에도 이러한 경향이 일부 확인되지만[142], 당시에는 '-음'과 '-기' 사이의 경쟁보다는 '-음'과 의문형 어미, '-기'와 의존명사 구성 사이의 경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전반기에도 '-는지', '-을지' 등으로 끝나는 의문문이 상위문에 내포될 수 있었는데 이때 의문형 종결어미 대신 '-음'이 쓰일 수 있었다. 또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것', '지' 등 의존명사 구성이 명사절 자리에 쓰일 수 있었는데, 이때 '~ㄴ 것', '~ㄴ 지' 대신 '-기'가 쓰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법 형태 간의 경쟁 관계는 20세기 전반기 명사절에 일어난 특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명사절은 문장 쓰기 관습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용법이 달라지기도 했는데 20세기 전반기까지는 한문의 영향을 반영한 '-음' 명사절 구문이 널리 쓰였다.

이어지는 3.2.2.1에서는 《삼천리》에 나타난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의 쓰임을 개관한다. 이 절에서 이루어질 계량적 분석 결과는 당시 각 명사절의 쓰임에서 보이는 몇 가지 주된 특징들을 드러내 준다. 이 절의 계량적 분석 결과에 근거해 이어지는 3.2.2.2에서는 '-음' 명사절을 주어로 취한 지정사 구문에 대해, 3.2.2.3에서는 '있다', '없다'가 '-음' 명사절을 주어로 취하며 각각 긍정, 부정을 나타내던 구문에 대해, 3.2.2.4에서는 1음절 한자를 어기로 취하는 '-하다' 파생 동사가 '-음' 명사절을 논항으로 취하는 구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세 절의 논의를 통해 전통적인 한문 언

---

141) 명사형 전성어미의 역사에 대해서는 채완(1979), 홍종선(1983a), 권재일(1995), 홍윤표(1995), 서은아(2003), 양정호(2005) 등 여러 연구에서 논의하였다.

142) '-음' 명사절이 '이다'와 결합해 서술어로 쓰인 예 중에는, 오늘날 '[~기] 때문이다'가 쓰일 자리에 '[~음]이다'가 쓰인 경우가 있었다. 아래의 예들은 각각 두 문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후행하는 문장은 선행하는 문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음' 명사절이 이유를 설명하는 기능은 후대로 오며 '-기' 명사절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예) 1927년 12월 4일! …이 날은 우리들에게 잇서서 무한히 슬프고 애처러운 날이엇다. 그는 [우리의 운동을 위하여 가진 뼈와 피를 다 바처오든 동지 朴元熙 여사가 이 세상을 떠낫슴]이다.<1930-07 삼천리02-04-34>

예) …이것을 가지고 나는 吉林으로 향하엇다. [그곳에 가서 屯田兵 計劃을 실행하고저 함]이엇다.<1932-01-삼천리04-01-33>

예) 박선생은 하는 수 없이 리문호의 손목을 잡고 무리히 맥을 집헛다. [성한 사람 같지는 안았음]이다.<1936-12-삼천리08-12-177>

해의 관습이 20세기 전반기 명사절의 용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3.2.2.5에서는 의문문이 명사절로 내포되었을 때 '-음' 명사절과 의문형 어미 간의 경쟁 양상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3.2.2.6과 3.2.2.7에서는 '-ㄴ 지', '-ㄴ 것' 등 의존명사 구성과 경쟁 관계를 이루던 '-기' 명사절의 용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러한 쓰임은 둘 다 시간 관련된 구문에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2.2.8에서는 명사절에 나타난 속격 주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2.2.1.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

이 절에서는 《삼천리》에 쓰인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의 쓰임을 개관해 보려고 한다. 명사절은 하나의 명사처럼 쓰여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으로 기능하는데[143] 《삼천리》에 쓰인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의 주된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둘 다 주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쓰인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음' 명사절이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던 데 반해[144] '-기' 명사절은 이러한 용법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기' 명사절은 '-기 전에', '-기 때문에' 등과 같이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며 관형어로 쓰인 용례가 다수 보이지만 '-음' 명사절은 관형어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아래의 표는《삼천리》에 쓰인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의 성분별 쓰임을 정리한 것이다.

---

143) '-음'과 '-기'는 문장을 종결시키는 기능도 담당하였다. 《삼천리》에서 '-음'이 문장을 종결시킨 예는 757개였고, '-기'가 문장을 종결시킨 예는 15개로, '-음'이 종결 기능을 담당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문장 종결에 사용된 '-음'과 '-기'는 내포절을 이루기 위한 전성어미가 아니라 일종의 종결어미적 쓰임이기 때문에 이 절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144) 다음은 '-음' 명사절이 '이다'와 결합해 서술어로 쓰인 예이다.

예)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뜻과 갓지 못한 것은 [天生의 弱質로 들어눕는 날이 만코 心神조차 늘 깨긋지 못함]이엇다.<1935-06-삼천리07-05-247>

예) 여긔에 『그때 그 시절』이라 함은, [東亞日報 初刊때부터 약 2년 동안을 말함]이다.<1939-01-삼천리11-01-102>

예) …이것은 前述한 바대로 [取締의 강화에 기인함]이다.<1942-01-삼천리14-01-96>

<표 27>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의 문장 성분별 쓰임

	-음		-기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주어	2,074	30%	2,516	22%
목적어	1,735	25%	3,708	32%
보어	281	4%	0	0%
부사어	1,817	26%	2,984	26%
관형어	2	0%	2,337	20%
서술어	1,008	15%	0	0%
합계	6,917	100%	11,545	100%

위의 표를 보면,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 모두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쓰인 비율이 20~30% 내외였다. 하지만 관형어나 서술어로 쓰인 비율은 상당히 차이가 났다. '-음' 명사절은 관형어로는 거의 쓰이지 않은 반면 서술어로 쓰인 예는 전체 용례의 15%였다. 반면, '-기' 명사절은 관형어로 쓰인 예는 전체 용례의 20%였지만, 서술어로는 쓰이지 않았다[145].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삼천리》에서 '-기' 명사절이 '-음' 명사절보다 훨씬 많이 쓰였다는 점이다. '-음' 명사절의 총 빈도는 6,917이고, '-기' 명사절의 총 빈도는 11,545로, '-기' 명사절의 빈도가 훨씬 높았다.

'-음' 명사절이 주어와 목적어로 쓰인 예를 살펴보면 각 명사절이 특정한 종류의 상위 서술어를 취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두 표는 《삼천리》에서

145) 김일환(2005)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현대국어 문어 말뭉치와 구어 말뭉치, 개화기 국어 말뭉치(세종 역사자료 말뭉치의 일부)에 나타난 명사절의 용법을 분석한 논의인데, 그의 연구의 47쪽에 제시된 <표 13>을 보면, '-기' 명사절이 '이다'와 결합해 서술어로 쓰인 용례는 현대국어 문어 말뭉치에서 전체 용례의 0.2%에 나타났고 현대국어 구어 말뭉치나 개화기 국어 말뭉치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음' 명사절은 현대국어 문어 말뭉치에서는 4.1%, 구어 말뭉치에서는 14.5%, 개화기 국어 말뭉치에서는 78.7%의 용례에서 '이다'와 결합해 서술어로 쓰였다. 《삼천리》의 분석 결과에서는 '-음' 명사절이 '이다'와 결합한 예가 '-음' 명사절의 전체 용례의 15%로 김일환(2005)의 분석 결과와 큰 차이가 난다. 김일환(2005)에서는 그 출처가 세종 역사자료 말뭉치였다고만 밝힐 뿐 개화기 국어 말뭉치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포함돼 있는지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개화기라고 한 것으로 보아 1910년 이전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78.7%와 15%의 차이는 1910년 이전에서 1920년 이후 사이에 서술어로 쓰인 '-음' 명사절의 용례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시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확실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20세기 전반기를 더 이상 세분하지 않고 전반적 경향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였지만, 앞으로 20세기 전반기를 10년 단위 혹은 다른 세부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변화 양상을 보다 세밀히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어와 목적어로 쓰인 '-음' 명사절의 고빈도 상위 서술어 10개의 쓰임을 정리한 것이다.

<표 28> 주어로 쓰인 '-음' 명사절의 상위 서술어

순위	상위 서술어		빈도	백분율
1	이다	지	883	43%
2	있다[146]	형	145	7%
3	아니다	지	127	6%
4	없다	형	113	5%
5	좋다	형	45	2%
6	可하다	형	36	2%
7	옳다	형	31	2%
8	많다	형	30	1%
9	필요하다	형	26	1%
9	되다	동	26	1%
총합			1,462	70%

<표 29> 목적어로 쓰인 '-음' 명사절의 상위 서술어

순위	상위 서술어[147]	빈도	백분율
1	알다	215	12%
2	보다	173	10%
3	느끼다	101	6%
4	得하다	71	4%
5	깨닫다	59	3%
6	말하다	55	3%
7	생각하다	53	3%
8	따르다	43	3%
9	하다	24	1%
10	要하다	23	1%
총합		817	46%

먼저 고빈도 상위 서술어 10개의 총 빈도를 살펴보겠다. '-음'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경우는 고빈도 상위 서술어 10개의 빈도가 전체 용례의 70%, 목적어로 쓰인 경우는 전체 용례의 46%였다. 즉, 주어로 쓰였을 때가 목적으로 쓰였을 때보다 특정한 서술어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표 28>의 1순위 상위 서술어를 보면, '-음'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용례의 43%에서 상위 서술어가 지정사 '이다'로 나타났다. 한편, 목적어로 쓰인 '-음' 명사절의 고빈도 상위서술어 중에는 인지 동사나 지각 동사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표 29>에서 인지 동사 '알다', '깨닫다', '생각하다'는 각각 1위, 5위, 7위였고, 지각 동사 '보다', '느끼다'는 각각 2위, 3위였다.

'-기' 명사절 역시 주어와 목적어로 쓰인 경우, 특정 상위 서술어와 강한 공기 관계를 보였다. 아래의 두 표는 《삼천리》에서 주어와 목적어로 쓰인 '-기' 명사절의

146) 동사로 쓰인 '있다'의 예는 제외한 빈도이다.
147) 목적어를 취한다는 것은 모두 타동사라는 의미이므로 품사는 따로 표시하지 않고 빈도와 백분율만 제시하였다.

고빈도 상위 서술어 10개의 쓰임을 정리한 것이다.

<표 30> 주어로 쓰인 '-기' 명사절의 상위 서술어

순위	상위서술어		빈도	백분율
1	어렵다	형	618	25%
2	이다	지	452	18%
3	쉽다	형	330	13%
4	싫다	형	236	9%
5	좋다	형	128	5%
6	곤란하다	형	90	4%
7	힘들다	형	49	2%
8	드물다	형	30	1%
8	바쁘다	형	30	1%
10	불가능하다	형	25	1%
총합			1,988	79%

<표 31> 목적어로 쓰인 '-기' 명사절의 상위 서술어

순위	상위서술어	빈도	백분율
1	爲하다	1,460	39%
2	시작하다	819	22%
3	바라다	426	11%
4	하다148)	70	2%
5	말다	61	2%
6	빌다	56	2%
7	싫어하다	53	1%
8	좋아하다	43	1%
9	願하다	41	1%
10	희망하다	41	1%
총합		3,070	82%

먼저 고빈도 상위 서술어 10개의 총 빈도를 살펴보겠다. '-기'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전체 용례 중 79%, 목적어로 쓰인 전체 용례 중 82%가 고빈도 10개의 용언에 집중돼 있었다. 앞서 살펴본 '-음' 명사절은 주어로 쓰일 때 고빈도 상위 서술어 10개의 총 빈도가 전체 용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 목적어의 경우는 46%로, 주어로 쓰였을 때가 특정 서술어와 결합하는 경향이 현저히 높았다. 하지만 '-기' 명사절은 주어로 쓰일 때나 목적어로 쓰일 때나 고빈도 상위 서술어 10개가 점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 명사절이 주어로 쓰일 때 고빈도 상위 서술어는 대부분 형용사였고 지정사 '이다'도 포함돼 있었다. 형용사 중에도 특히 난이도를 나타내는 '어렵다', '쉽다'가 각각 1위와 3위였고, 기호를 나타내는 '싫다', '좋다'가 각각 4위와 5위였다.

지금까지 《삼천리》에 쓰인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의 용법을 계량적 관점에서 개관해 보았다. 3.2.2의 남은 부분에서는 계량적 분석 결과를 참고해 당시 두드러지는 용법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사라졌거나 변화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148) 이 표에 제시된 '하다'의 용례는 '하다'가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만을 센 값이다. '하다'가 보조용언으로 사용된 용례는 모두 별도로 분석하였다.

고 한다.

3.2.2.2. [～음]이 NP이다

앞서 <표 28>에서 살펴보았듯이, 《삼천리》에서 '-음'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경우 상위 서술어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지정사 '이다'였다. '[～음]이 NP이다'로 쓰인 용례가 '-음'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전체 용례의 43%였던 것이다. '아니다'도 3위로 높은 순위를 보였지만 전체 용례에서 차지한 비율은 6%로 '이다'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났다. 다음은 《삼천리》에서 '-음' 명사절이 주어로 쓰이고 상위 서술어로 '이다'가 쓰인 예이다.

(41) a. [이 점 등을 설명하기 위함]이 본문의 목적이다.<1931-03-삼천리03-03-31>
b. [또 어떠한 分布 狀態를 보이고 잇는가 함]이 이 論의 中心이다.<1936-06-삼천리08-06-68>
c. […이 史的 意義를 전망함]이 本稿에서의 나의 의욕이다.<1939-06-삼천리11-07-259>

위의 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음]이 NP이다' 구문은 'NP가 [～음]이다'에 대한 분열문이다. (41a)는 '본문의 목적은 [이 점 등을 설명하기 위함]이다'의 분열문, (41b)는 '이 논의 중심은 [또 어떠한 분포 상태를 보이고 잇는가 함]'의 분열문, (41c)는 '본고에서의 나의 의욕은 […이 사적 의의를 전망함]이다'의 분열문인 것이다.

분열문의 원래 구조인 'NP가 [～음]이다' 구문은 명사절이 지정사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인 것이다. <표 27>에서 기술한 것처럼, '-기' 명사절과 달리 '-음' 명사절은 지정사와 결합해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었는데, '[～음]이 NP이다' 구문이 널리 쓰인 것은 근본적으로 '-음' 명사절의 서술어로서의 용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음]이 NP이다' 구문과 달리 '[∼음]이 NP가 아니다' 구문은 분열문 구조를 이루지 않았다. 먼저 그 예를 살펴보겠다.

(42) a. … [절문 마드로스가 이성을 그리워 함]은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다.<1932-03-삼천리04-03-84>

b. [근래에 와서 뿌르조아 자유주의자 등이 『연애의 자유』와 『性의 해방』을 부르지즘으로써 强固한 봉건적 因襲을 깨트리려고 함]은 아주 무의미한 일은 안이나… <1932-04-삼천리04-04-57>

c. … [대전 직후와 가튼 경제 재정의 파멸적 위기가 전개된다 함]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1935-08-삼천리07-07-108>

위의 예를 보면, 주어로 쓰인 '-음' 명사절은 어떤 상태나 행위를 나타내고, 보어와 '아니다'가 함께 주어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 오늘날에는 '-음'이 쓰일 자리에 '-ㄴ 것'이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천리》에서도 '-ㄴ 것'이 널리 쓰이긴 했지만 위와 같이 '-음'이 쓰인 예도 드물지 않았다.

3.2.2.3. [∼음]이 있다/없다

앞 절에서 살펴본 '이다', '아니다' 외에 '-음' 명사절을 주어로 취한 상위 서술어 중에는 존재 형용사 '있다'와 '없다'도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표 28>에서 '있다'는 2위, '없다'는 4위였으며 각각은 '-음'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총 용례의 7%, 5%를 차지했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음]이 있다/없다'의 예이다.

(43) a. 이와 가티 그내의 詩는 [민중의 영감을 催促하고 사회를 鞭撻함]이 잇다.<1931-01-삼천리03-01-47>

b. [힘의 使用과 生의 根本法則인 愛와는 兩立치 안는다 함]이 잇소.<1934-08-삼천리06-08-97>

c. …[그 발금의 光明이 마침내 다 다함]이 업도록…<1936-01-삼천리08-01-183>

d. 十三. [如何한 形式을 불문코 自己의 意에 反하야 勞役을 강제로 함]이 없다.<1940-06-삼천리12-06-221>

어휘적 의미로 '있다', '없다'는 주어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지만 위의 예에서 '있다'와 '없다'는 각각 명제의 긍정・부정 여부를 나타낸다. (43a)는 '…민중의 영감을 최촉하고 사회를 편달한다'로 바꿀 수 있고, (43c)는 '그 발금의 광명이 마침내 다 다하지 않도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있다', '없다'가 각각 긍정과 부정을 표시하는 용법은 중세국어 시기의 용법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이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음' 명사절의 쓰임이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했는데, 김종택(1983:117), 김미형(1997:43-45), 윤용선(2003:191-202) 등에 따르면 중세국어 '-음' 명사절의 쓰임은 상당 부분 한문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윤용선(2003:191-202)은 직역 문헌에 특히 '-음' 명사절이 많이 쓰였다고 지적하며 이는 구결문의 영향과 고정적 언해 습관의 영향이라고 하였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중세국어 문헌에 '[~음]이 있다' 구문이 많이 쓰인 것은 한문의 조동사적 요소인 '有'를 언해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원문에 대한 의역 문헌과 직역 문헌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윤용선(2003)에서 제시한 직역 문헌 『소학언해』와 의역 문헌 『번역소학』의 예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44) a. 직역: 엇디 사름을 感動티 몯홈이 이시리오(豈有不動得人이리오<소학5:58>)

b. 의역: 엇디 사ᄅᆞᄆᆞᆯ 感動티 몯ᄒᆞ리오<번소7:25>

위의 예에서 직역 문헌에서는 한문의 '有'가 '있다'로 번역되었고 그 앞에 '-음' 명

사절이 주어로 쓰였지만 같은 원문에 대한 의역 문헌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이 없다' 구문도 중세국어 자료에 많은 예가 나타나는데 이 역시 한문의 '無'를 직역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문에서 '無'와 '不'은 모두 동사 앞에 쓰여 동사의 뜻을 부정하지만 '無+동사'는 '[~음]이 없다' 로, '不+동사'는 '~디 아니ᄒᆞ다'로 언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소학언해』의 용례 중 한 문장에 두 가지 번역 양상이 함께 나타난 것이 있어 그 예를 보이고자 한다.

(45) a. 구결문: 父母ㅣ 惡之어시든 懼而無怨ᄒᆞ며 父母ㅣ 有過ㅣ어시든 諫而不逆이니라.

b. 언해문: 父母ㅣ 외오녀기거시든 저허호ᄃᆡ 원망홈이 업스며 父母ㅣ 허믈이 잇거시든 諫호ᄃᆡ 거스리디 아니홀디니라

위의 예문에서 한문의 '無怨'은 '원망홈이 없다'로, '不逆'은 '거스르디 아니하다'로 언해되었다. 대구를 이루는 한문구에서 부정 표현이 쓰였는데 하나는 명사절을 안은 내포문으로, 하나는 부정소를 포함한 단문으로 번역된 것이다.

우리말 문장에 미친 한문의 이러한 영향은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시기뿐 아니라 20세기 전반기까지도 남아 있었다. 김종택(1983:118)에서 중세국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명사문 표현이 오늘날 거의 쓰이지 않게 된 것은 "자연적인 발달 소장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 중국어 번역의 결과 이루어진 언해문이 지녔던 원문의 영향이 후대로 오면서 극복된 결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것이다."라고 기술한 것처럼, '-음' 명사절의 변화는 한문의 영향을 벗어나는 과정과 관련이 깊다. 《삼천리》에서 '-음' 명사절이 주어로 쓰였을 때 서술어 자리에 '有하다'나 '無하다'가 쓰인 예는 많지 않았지만, 명제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있다'와 '없다'의 용례가 많았다는 점은 당시 우리말 문장에 한문 언해문의 영향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의 표는 《세종역사》, 《삼천리》, 《현대》의 세 말뭉치에서 ‘있다’나 ‘없다’의 주어로 ‘-음’ 명사절이 쓰인 용례를 추출해 그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32> ‘있다’와 ‘없다’의 주어로 쓰인 ‘-음’ 명사절의 빈도[149]

	세종역사	삼천리	현대
‘-음’이 있다	2,875	145	5
‘-음’이 없다	2,517	113	45

위의 표를 보면, 후대로 올수록 ‘있다’와 ‘없다’의 주어 자리에 ‘-음’ 명사절이 쓰인 용례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있다’, ‘없다’의 경우 모두 《세종역사》에서 《삼천리》로 오며 용례 수가 2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현대》에서는 더욱 미미한 쓰임을 보였다[150]. 이처럼 부정문 형태의 단문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을 ‘없다’가 ‘-음’ 명사절을 주어로 취하는 복문 구조로 쓴 것은 전통적 문장 쓰기 관습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3.2.2.4. [～음]을 X하다

‘-음’ 명사절을 목적어로 취한 고빈도 상위 서술어 중에는 인지 동사나 지각 동사

149) 용례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세종역사》와 《삼천리》는 어휘 주석이 되지 않은 원시 말뭉치이기 때문에 깜짝새에서 조건식을 이용해 검색어란에 ‘미_잇(777)’, ‘미_있(777)’, ‘함이_잇(3777)’, ‘함이_있(3777)’, ‘미_업(777)’, ‘미_없(777)’, ‘함이_업(3777)’, ‘함이_없(3777)’을 입력해 연철과 분철, 종성의 이표기 등을 모두 검색했다(7: 음절 그대로, 3: 종성만 일치). 그리고 그 결과를 눈으로 검토하며 ‘있다’, ‘없다’ 앞에 쓰인 요소가 ‘ᄌᆞ미, 어미, ᄆᆞᅀᆞ미, 말ᄊᆞ미, 모미, 시르미, 사ᄅᆞ미, 히미’ 등 ‘-음’ 명사절이 아닌 예를 제외하였다. 《현대》는 어휘 주석이 돼 있기 때문에 태그를 이용해 검색하였다.

150) 《현대》에서는 용례 수 자체가 매우 적긴 하지만 ‘있다’보다 ‘없다’의 용례가 9배가량 많았다. 《현대》에서 ‘있다’가 ‘-음’ 명사절을 주어로 취한 예는 5개 중 4개가 하나의 기독교 문헌에서 ‘[NP_1이 NP_2와 사귐]이 있다’로 쓰인 예로, 일반적으로는 ‘있다’가 ‘-음’ 명사절을 주어로 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에서 ‘없다’가 ‘-음’ 명사절을 주어로 취한 예는 명사절의 서술어 자리에 나타난 용언이 ‘있다’의 경우보다 다양했다. 많이 나타난 예는 ‘[NP_1이 NP_2와 다름]이 없다’, ‘[NP_1은 변함]이 없다’로, 이들 예문은 의미상 ‘NP_1이 NP_2와 다르지 않다’, ‘NP_1은 변하지 않는다’처럼 단문으로 바꿀 수 있다.

외에도 '得하다'나 '要하다'와 같은 '1음절 한자+하다' 동사가 있었다. <표 29>에서 각각은 빈도 순위가 4위와 10위였다. '[~음]을 得하다/要하다'와 같은 구문이 높은 빈도로 쓰인 이유는 앞서 '[~음]이 있다/없다' 구문에서처럼 한문의 영향이 잔존한 결과로 보인다. 한문에서 '得'은 가능 여부를, '要'는 당위를 나타내며 술어 앞에서 그 뜻을 보충해 주는 일종의 조동사이다. 전통적으로 언해 과정에서는 한문의 동사에 '하다'를 결합해 언해문에 그대로 쓰는 관습이 있었고, 특히 직역체에서는 '得', '要'와 같은 기능어에도 '하다'를 결합해 언해문에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었다. 《삼천리》에 쓰인 아래와 같은 예는 이러한 한문 언해문의 특징이 전승된 결과이다.

(46) a. 외국의 침입도 印度가 통일되고만 잇섯스면 [훌융히 격퇴함]을 得하엿겟스나 분열한 印度는 西北境으로의 외적에 대하여 거지반 무력하엿다.<1931-03-삼천리03-03-15>
b. …충분한 군비 충실을 圖하야 소위 국방국가로서의 내용 충실에 至하면 … [전쟁의 참화를 미연에 저지함]을 得하겠고…<1936-12-삼천리08-12-152>
c. 前者에 잇서 그 全面的 考察로서 [어떠한 統計的 혹은 政治文化的 批判을 함]을 要함이 主되는 者이오…<1936-06-삼천리08-06-52>
d. 혼인屆는 [夫될 者 妻될 者 及 성년자인 증인 2인 이상으로부터 口頭 又는 서면으로 屆出함]을 요한다.<1932-09-삼천리04-09-49>

위의 예에서 '[~음]을 得하다'는 '~ㄹ 수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음]을 要하다'는 '~어야 한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오늘날 '要하다' 구문이나 '得하다' 구문은 공문 등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일부 쓰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삼천리》에 쓰인 문장 중에는 '得하다' 구문과 관련이 깊은 '얻다' 구문이 있다. '得'이라는 한자의 뜻을 '얻다'로 풀이하고 전통적인 '[~음]을 得하다'의 구문에서 '得하다' 대신 '얻다'를 쓴 문장이다.

(47) a. 1월 21일은 전례대로 국무대신의 시정연설을 듣는 날이라 오전 10시부터 원내에 參列하여 人山人海 속에서 시달니다가 오후 1시 정각에 방청석 제1 前列에 安坐케 되어 [기분 좋게 참관함]을 얻었다.<1941-03-삼천리13-03-29>

b. [太平洋 會議 朝鮮分會의 代表로써 오늘 이 盛大하고도 光揮잇는 大會에 出席함]을 어더 이에 濠太利, 加奈多, 中國, 英吉利, 米國, 比律賓其他 諸國同胞를 代表한 여러 紳士淑女와 더부러 자리를 가치하게 됨을 無限히 깁버 하나이다.<1934-08-삼천리06-08-41>

위의 문장에서 '기분 좋게 참관함을 얻었다'나 '대회에 출석함을 얻어'에서 보이는 '[～ㅁ]을 얻다'는 '[～ㅁ]을 得하다'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위의 문장들이 '기분 좋게 참관할 수 있었다', '대회에 출석할 수 있어서'라는 의미를 갖는데도 '[～ㅁ]을 얻다'라는 구문으로 쓰인 것은 한문의 영향을 반영하는 전통적 글쓰기 방식이 당시까지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151].

3.2.2.5. 얼마나 [～음]을 알다

'-은지', '-을지' 등 의문형 종결어미는 중세국어 시기부터 줄곧 내포절을 이루는 명사형 어미로 쓰일 수 있었다(정재영 1996, 이지영 2008b)[152]. 오늘날에는 '-은지', '-을지'는 의문문을 명사화시키고 '-음', '-기'는 평서문을 명사화시켜 그 기능이 분화

151) 일본의 종합지 『太陽』 1895～1925년 기사들을 분석해 가능 표현의 변화에 대해 연구한 小木曾(오기소, 2005:254-255)는 전체 기사의 중 구어문으로 작성된 기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能ふ, 得る' 등 문어체의 가능 표현은 감소된 반면 구어체인 'てきる'는 급격하게 증가되었다는 계량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能ふ, 得る'를 문어체에 주로 쓰이던 가능 표현이라고만 하고 그 기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본 역시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다가 언문일치 운동과 함께 자국어 글쓰기를 본격화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통적 글쓰기 방식에서는 한문의 '能, 得'의 영향으로 '能ふ, 得る'를 사용하다가 한문의 영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구어의 'てきる'로 대치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152) 정재영(1996), 이지영(2008b) 등에서 논의한 것처럼 '-은지'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내포절을 이루는 명사형 어미로 쓰이거나 연결어미로 쓰이다가 근대국어 시기에 그 용법이 확대돼 종결어미로도 쓰이게 됐고, '-을지'는 중세국어에 명사형 어미로만 쓰이다가 근대국어 시기에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용법이 확대됐다.

되어 있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내포절에서 의문형 종결어미와 명사형 전성어미의 기능이 뚜렷하게 분화되지 않았었다. 다음은 오늘날 의문형 종결어미가 쓰일 자리에 '-음'이 쓰인 예이다.

(48) a. 幾 백 원 幾 천 원 정도가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그 정도가 과함]을 알 만하다.<1936-02-삼천리08-02-70>

b. …우리는 [당시 唐나라의 文風이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하얏음]을 가히 엿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1936-04-삼천리08-04-290>

c. …또「植山洪山林門置煙具於十里之外」라 햇스니, [自古로 우리 조상들이 吸煙을 얼마나 警戒햇슴]을 가히 알 만하다.<1936-08-삼천리08-08-73>

d. 이 점으로 보아 [그가 얼마나 재력이 그 방면에 출중함]을 알 수 있겟다.<1937-01-삼천리09-01-127>

위의 예를 보면, 내포절에는 모두 의문사 '얼마나'가 쓰였고 상위 서술어 자리에는 '알다'가 쓰였다. 오늘날 의문형 종결어미로 끝난 문장이 내포될 자리에 '-음' 명사절이 쓰인 예는 위와 같이 '얼마나 ~음을 알다'의 구성이 전형적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예도 보인다[153].

(49) a. …그 책부는 200,000부의 거대한 부수에 달하여 [수 3년 내의 朝鮮 시장이 얼마나 홍왕함]을 설명하고도 남음이 있는데…<1940-04-삼천리12-04-27>

b. …[군의 억측이 얼마만큼 군 자신을 손상했음]을 먼저 알 일이다.<1938-05-삼천리10-05-236>

c. 그 지방의 농사형편과 [무엇이 필요함]을 조사하며…<1935-06-삼천리07-05-117>

---

153) 의문문이 명사절로 내포될 때, 의문형 종결어미 대신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것'이 쓰이기도 했다.

예) 이러한 거스로 미루워 보와 [우리들의 일상회화의 數爻가 얼마나 빈약하다는] 거슬 알 수 잇습니다.<1935-11-삼천리07-10-126>

예) 더욱 [「유-롭」의 장대한 품은 羅馬의 문명이 어떻게나 찬란하든] 것을 이야기하고…<1940-06-삼천리12-06-136>

d. …천생의 순진 그대로이여서 [정치가 무엇이고 정책이 엇던 것임]을 몰낫다.<1932-01-삼천리04-01-37>

e. …[이 中國이란 나라에는 남달니 무슨 특징이 잇슴]을 알 바이외다.<1933-04-삼천리05-04-32>

위의 예에서처럼 상위문 서술어 자리에 '설명하다, 필요하다, 모르다' 등이 쓰일 수 있었고, 의문사 자리에 '얼마, 무엇, 어떤, 무슨' 등이 쓰일 수 있었다.

20세기 전반기에는 의문문이 내포될 때 의문형 종결어미가 쓰이는 용법이 거의 정착된 단계였다. 그런데 유독 의문사가 쓰일 때는 명사형 어미의 결합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의문사가 쓰이지 않으면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해야 해당 절의 의문문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의문사가 있으면 굳이 의문형 종결어미가 없더라도 절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처럼 의문사가 쓰이면 해당 내포절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점이 이미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어미를 통해 또다시 의문문임을 나타내지 않아도 됐던 것이다.

한편, 20세기 전반기 '-은가'와 '-을가'의 용례 중에는 아래와 같이 명사절에 쓰이되 명사형 어미 '-음'을 대동한 예가 보인다[154].

(50) a. 우리는 [朝鮮극장이 압흐로 엇더한 방향으로 경영에 全주력을 기우릴까 함]을 모른다<1932-04-삼천리04-04-50>

b. …[朝鮮이라는 實在가 엇더한 形態로 吾人에게 나타나는가 함]을 測定하야…<1934-06-삼천리06-07-76>

c. …중요한 사상범들이 만히 모여 있는 京城에 대하야 [그 保護司로 누가 될가 함]이 그 방면의 주목거리가 되여 있는데,<1936-12-삼천리08-12-15>

d. [여기에서 누가 몬저 着手하는가 함]은 크게 흥미를 끄으는 일이라 한다.<1935-09-삼천리07-08-23>

154) 계량화 과정에서 이런 예들은 '-음'의 예로 보았다.

e. 支那에서의 전투는 [일본 국민이 他의 동양 제국에 대하여 어떻게나 우수한가 함]을 여실히 示하였다.<1938-08-삼천리10-08-107>

위의 예를 보면, 내포절에 의문형 종결어미 '-을가'와 '-은가'가 쓰이고 그 뒤에서 '하다'가 명사형 어미 '-음'을 취했다. 의문문을 명사화할 때 의문형 종결어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명사형 어미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 쓰인 '하다'는 '-음'과 결합해 명사절을 구성하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을가'와 '-은가'만으로도 명사절을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의 예에 쓰인 '하다'의 명사형은 문법적으로는 불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은지'나 '-을지'는 그 자체로 명사절을 이룰 뿐 '하다'의 명사형을 대동하는 일은 없었다. 위와 같은 쓰임은 '-은가'나 '-을가'가 '-은지'나 '-을지'에 비해 명사절에서의 용법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2.2.6. [-기]는 $NP_{시간}$이다

앞서 <표 30>에 나타난 대로, 《삼천리》에서 '-기'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용례 중에는 상위 서술어가 지정사 '이다'인 용례가 2위로 18%를 차지했다. '[~기]는 NP이다' 구문의 용례 중 NP 자리에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가 쓰인 경우에는 오늘날과 다른 특징들이 보인다. 먼저 그 예를 살펴보겠다.

(51) a. [英國에 議會政治가 발생되기]는 13세기의 일이엇다.<1933-01-삼천리05-01-30>
b. [지금의 애인을 맛나기]는 도리유-대학에 잇슬 때이엿지요.<1935-08-삼천리07-07-166>
c. [이 「올림픽」이 국제적 경기로 되기]는 1895년부터의 일입니다.<1935-10-삼천리07-09-51>
d. [내가 그와 사괴이고 서로 굳게 믿어오기]는 甲申政變 이전부터이였다.<1936-08-삼천리

08-08-44>

e. [나파륜이 도레스덴에 도착되기]는 1812년 5월 중순이였다.<1938-12-삼천리10-12-149>

위의 예를 보면, 주어 자리에 쓰인 '-기' 명사절이 과거에 발생한 어떤 사건을 나타내고, 그에 이어지는 'NP이다'가 그 사건이 발생한 때가 언제인지를 나타낸다. 이런 용법의 '-기' 명사절은 오늘날에는 보통 '-은'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 '것' 구성으로 쓰인다. 《삼천리》에도 해당 구문이 '[~은] 것'으로 쓰인 예가 있었지만[155] 그와 동시에 '-기' 명사절로도 쓰였던 것이다[156].

3.2.2.7. [-기] $\text{NP}_{\text{시간}}$에/만이다

앞 절에서는 '[~기]는 NP이다' 구문에서 NP 자리에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쓰인 예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절에서는 NP 자리에 사건의 발생 시점과 발화시 간의 시간적 간격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온 경우, '-기' 명사절의 쓰임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그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52) a. 저녁에 「23년」만이란 연제로 회당에서 강연하니 [이것이 실로 鏡城에서 연단에 올나보기] 23년 만이오…<1931-10-삼천리03-10-55>

b. [정어리 공장의 굴뚝이 높찍 높찍이 솟은 하늘을 치여다보며 백사장(白沙場)을 것기] 한 시간 만에 육대(六臺)수상비행장에 다었다.<1941-12-삼천리13-12-46>

c. [서구에 체류하시기] 약 5년 만에 오랫 동안 그리웁든 이 강산을 차저 도라오시였음니

155) 《삼천리》에서 이런 경우 '[~은] 것'이 쓰인 예는 다음과 같다.

예) 1879년에 이 회사가 창립되여 [電車, 傳燈, 水道 등 계약한 일을 시작한 것]은 1898년 9월이다.<1932-10-삼천리04-10-55>

156) 해당 예가 극소수이긴 하지만 《삼천리》에 쓰인 '-기' 명사절 중에는 그 뒤에 사건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와, '[~은 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예도 있었다.

예) [그는 일생간 고향을 떠나 보기]가 1차밖에 없었고…<1938-08-삼천리10-08-291>

다.<1938-05-삼천리10-05-67>

d. …[그의 영토를 專占하랴는 唐人과 다시 싸우기] 7, 8년에 맛침내 그를 좃차 내고 평양 이남의 반도를 완전이 점령하게 되얏섯다.<1929-06삼천리01-01-18>

(52a)에서는 '-기' 명사절은 '[~기] NP시간 만이다' 구문의 주어로 쓰였는데, 오늘날이라면 '-기' 대신 '-ㄴ 지'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52b), (52c)는 '[~기] NP시간 만에'의 예로, 이 역시 오늘날에는 '-기' 대신 '-ㄴ 지'가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52d)는 (52b), (52c)와 같은 구조를 보이지만 의존명사 '만'이 실현되지 않고 시간 명사에 바로 '-에'가 결합된 예이다.

《삼천리》에도 해당 구문이 '[~은] 지'로 쓰인 예가 있었다[157].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발생 시점과 발화시 사이의 시간적 거리를 기술할 때 주어 자리에 '-기' 명사절과 '[~은] 지'가 모두 쓰이다가 후대로 오며 '[~은] 지'만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3.2.2.8. 명사절의 속격 주어

속격 주어란 복문의 내포절, 특히 명사절과 관형절에서 나타나던 주어 실현 양식의 일종으로, 의미상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구에 속격조사 '-의'와 결합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명사절의 주어가 '-의'와 결합되어 쓰이는 일이 거의 없지만 명사절에 쓰인 속격 주어의 용례는 15세기 자료에서부터 흔히 나타났고[158] 20세기 전반기에도 널리 쓰였다[159].

157) 《삼천리》에서 이런 경우에 '[~은] 지'가 쓰인 예는 다음과 같다.

예) 이번 東京行은 우연처럼 왓엇지만 [學窓의 東京을 떠난 지] 22년 만에 지금 이 첫 거름인 나에게는 하염 업시 무한한 感慨를 자어냄니다.<1935-07-삼천리07-06-33>

158) 중세국어의 속격 주어에 대해서는 홍윤표(1969), 이기문(1972), 이광호(1976), 이현희(1994a), 이동석(2009, 2011), 이상욱(2006, 2007) 등을, 근대국어의 속격 주어에 대해서는 홍윤표(1980, 1994)를 참고할 수 있다.

159) 속격 주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한국어의 속격 주어는 알타이제어의 공통 특질을 반영한 것이라는 이기문(1972:177)의 논의, 향가 자료부터 시작해 중세국어,

명사절에서 속격 주어는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에 모두 나타났다. 다음은 '-음' 명사절에 나타난 속격 주어의 예이다.

(53) a. 나는 [그의 指路함]을 딸아 修道院 客室 압에 일으럿다.<1931-04-삼천리03-04-41>
  b. 우리가 [하로살이의 短命함]을 비웃거니와…<1939-04-삼천리11-04-66>
  c. …[가정교육의 더욱 중대함]과…<1938-08-삼천리10-08-161>
  d. …늘 [내 자신의 너머나 적음]을 깨달으며…<1938-12-삼천리10-12-258>

각각의 예에서 '그', '하로살이', '가정교육', '내 자신'은 모두 '-음' 명사절의 의미상의 주어이지만 주격조사가 아닌 속격조사 '-의'가 결합되었다. 이는 아래의 '-기' 명사절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4) a. 나는 人力車를 멈추고 [그의 오기]를 긔다리엇다.<1932-12-삼천리04-12-34>
  b. …검술과 병법을 통달한 중에 [그의 활 잘 쏘기]는 참으로 만인을 놀내는지라.<1933-01-삼천리05-01-75>
  c. 즉 역시 [이 소년의 오기]를 기다리는 듯이<1934-09-삼천리…06-09-282>
  d. 만날 [돌아오지 않는 언니의 돌아오기]를 기다리든 애애는,…<1934-09-삼천리06-09-297>

각각의 예에서 '그', '그', '이 소년', '돌아오지 않는 언니'는 모두 '-기' 명사절의 의미상의 주어이지만 속격조사가 결합되었다.

《삼천리》에서 명사절의 주어는 속격으로 실현되기도 했고 주격으로 실현되기도 했는데 그 선택에 특정한 기준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4b)에서 '-기' 명사절의 주어가 '[그의 활 잘 쏘기]'와 같이 속격으로 실현되었는데, 같은 글 안에 '[그가 활을

근대국어의 여러 자료에 나타난 용례들을 검토해 속격 주어의 역사성을 입증한 이동석(2009, 2011)의 논의, 그리고 기존에 속격 주어라 논의되어 온 현상은 한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구결문 통사 구조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이상욱(2006, 2007)의 논의 등이 있다.

잘 쏘기]는 참으로 세계의 제일이라.<1933-01-삼천리05-01-75>'라는 문장도 있었다.

지금까지 《삼천리》에 쓰인 명사형 어미 '-음'과 '-기'의 용례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20세기 전반기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의 쓰임을 개관하였고, 이 분석 결과 중 당시 명사절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구문 유형에 대해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명사절에 나타난 속격 주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지는 3.2.3에서는 《삼천리》에 나타난 용례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관형절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3.2.3. 관형절

관형절은[160] 문장에서 관형사처럼 쓰이는 절을 말한다. 최현배(1937:986)은 이를 '어떤마디'라 하고, 어떤마디를 "어떤씨(冠形詞)같이 쓰히는 마디"라고 정의하였다. 관형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이루어지는데, 최현배(1937:349)에서 "어떤꼴"은 그 나타내는 때를 따라 "이제(現在): -ㄹ, -을, 이제이음(現在繼續): -는, 올적(未來): -ㄹ, -을, 지난적(過去): -ㄴ, -은"의 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161]. '-는'은 관형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일치함을 나타내고 '-은'은 관형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 있음을 나타낸다. '-을'은 관형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뒤임을 나타내지만[162] 시

160) 기본적으로 절의 명칭을 지을 때 품사의 명칭에 '절'을 붙여 '명사절, 부사절'과 같이 불렀기 때문에 관형사처럼 쓰이는 절은 원칙적으로 '관형사절'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이를 '관형절'로 부르고 있으며, 둘 중 어느 하나로 부르든 논의 전개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널리 쓰이는 용어를 따른다.

161) 최현배(1937)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던'도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쓰이고 있었다. '-던'은 기원적으로 '-더-'와 '-ㄴ'의 결합형이지만 20세기 전반기에 1인칭 주어와 공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의 형태소로 굳어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던' 관형절에 1인칭 주어가 쓰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 [내가 혼자 상상하던] 조선과 실지로 目睹하는 조선과는 천리의 차가 잇다.<1930-05삼천리02-03-68>

예) [내가 떠나오던] 前日밤…<1932-10-삼천리04-10-71>

예) 그만큼 [제가 어렸던] 까닭이라고 깨달읍니다.<1938-10-삼천리10-10-87>

162) 이 글에서는 최현배(1937)의 체계를 따라 '-을'이 미래를 나타낸다고 보았지만, 사실 '-을'의 용례를

간 명사 '때'나 '적' 등을 수식할 때는 관형절과 주절의 시제가 일치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상의 기술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각각의 주된 용법에 대한 것으로 오늘날의 쓰임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최현배(1937:619)에서 "어떤꼴의 때매김은 매우 不完全할 뿐 아니라, 또한 複雜하"다고 지적한 것처럼 《삼천리》에 나타난 '-는', '-은', '-을'의 용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된 쓰임에서 벗어난 용례들도 상당수 발견된다[163]. 이어지는 3.2.3.1에서는 '-은'과 '-었는'의 혼용에 대해, 3.2.3.2에서는 '때', '적' 등 시간 명사 앞에서의 '-을'과 '-는/은'의 혼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2.3.3에서는 '있다'와 '없다'의 관형사형 활용형에 대해 논의하며 3.2.3.4에서는 관형절에 나타난 속격 주어에 대해 살펴보겠다.

3.2.3.1. '-었는'과 '-은'의 혼용

《삼천리》에 쓰인 용례를 분석해 보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은 오늘날과 달리 그 앞에 선어말어미 '-었-'이 쓰인 경우가 많았다. '-는'은 관형절의 시제가 주절과

살펴보면 이는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라기보다 명제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법(mood) 형태소라고 생각된다. '-을' 관형절이 나타내는 상황은 미래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진행 중인 상황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황일 수도 있다. 아래에 제시된 예1)에서는 관형절이 미래의 상황을, 예2)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예3)에서는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는데, 각각에는 '-을'을 통해 추측법이 실현되었다. 예3)의 '주엇슬'에서처럼 과거의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경우, 일반적으로 '-을' 앞에 선어말어미 '-었-'이 쓰였다.

예1) 금일에 반성이 업스면 [이러한 私行問題로, 민중의 시비를 살] 날이 오리라.<1935-08-삼천리07-07-34>

예2) [웨 그렇게 演壇에까지 나서서 떠들까하고 지금 생각하실] 분도 계시리라 짐작합니다.<1941-11-삼천리13-11-19>

예3) 그러치만 尹양이 아무리 朝鮮서 人氣가 잇는 음악가라 하드래도 [『레코-드』한장을 넛는데 3만원식이나 되는 莫大한 보수금을 주엇슬] 리가 잇슬가?<1931-01-삼천리03-01-50>

하지만 이 연구는 시제 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문법을 기술한 최현배(1937)의 체계를 따른다.

163) 최현배(1937:619)에서 "우리말의 본을 풀이함에 있어서 가장 그 본이 整然하지 못한 것은 움직씨의 입음법(被動法)과 때매김법(時制法)이다. 이는 곧 입음법과 때매김법이 우리말에서 아직 잘 發達되지 못한 것을 보임이다."라고 하고 때매김법 중에서도 특히 어떤꼴이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삼천리》에서도 관형사형 전성어미들은 시제 표시 기능이 확립되지 않은 양상을 보였지만 선어말어미는 대체로 안정된 쓰임을 보였다.

일치됨을 나타내지만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에 후행할 경우에는 시제 표시의 기능을 '-었-'이 전담하게 되고 '-는'은 전성어미로서의 기능만을 갖게 된다.

(55) a. 더구나 [전면 벽은 전부 유리로 깔엇는] 것이 이색이다.<1934-05-삼천리06-05-154>
b.…[이상야릇한 결과를 짓고 말었는] 것을 생각하매…<1937-01-삼천리09-01-318>
c. 島山 安昌浩씨는…이제는 [완전한 자유의 人, 해방의 人이 되엇는] 바…<1935-12-삼천리07-11-18>
d. 牛鼻井은 牛頭上峯 山頂에 있다. [푸른 이끼가 끼었는] 天水바지의 옹달샘이다.<1940-06-삼천리12-06-91>

위의 예에서 선어말어미 '-었-'은 관형절이 나타내는 사건이 시간적으로 기준 시점보다 앞서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었-'과 '-는'이 같이 쓰였을 때 그 기능은 전성어미 '-은'과 같아진다. 당시 '-은'도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20세기 전반기에 '-었는'과 '-은'이 혼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예문에 쓰인 '깔엇는, 말었는, 되엇는, 끼었는'은 모두 '깐, 만, 된, 낀'으로도 대치가 가능했다. '-었는'은 위의 예에서처럼 관형절의 서술어가 동사일 때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아래와 같이 관형절의 서술어가 형용사나 지정사일 때도 나타났다[164].

(56) a. …항쟁하는 때마다는 [성공이 만엇는] 반면에 실패도 잇섯다.<1931-05-삼천리03-05-34>
b. …[그 가정이나 사회가 병들지 않을 수 없었는] 것인즉…<1936-02-삼천리08-02-106>
c. …[本來 朝鮮에서 이 파시즘文學을 指摘한 것은 누구도 아니고 내 自身이엇는] 까닭에…<1936-06-삼천리08-06-244>

164) 《삼천리》에 쓰인 '-었는'의 총 용례 203개 중 동사 뒤에 쓰인 예는 158개(77.8%), 형용사 뒤에 쓰인 예는 31개(15.3%), 지정사 뒤에 쓰인 예는 14개(6.9%)였다. 용례는 깜짝새에서 검색어를 '엇는_', '었는_'의 두 가지로 하고 검색조건을 377로 하여 추출하였다. 이렇게 하면 '-앗는, -엇는, -았는, -었는'의 용례를 모두 얻을 수 있다.

d. [최초의 大臣에 임한 것은 명성 분분한 「힌덴부루히」이엇는] 바 이때를 一新紀念으로 獨逸 식민정책이 다시 광채를 발한 것은 누구나 知悉하는 일이다<1931-11-삼천리 03-11-14>

'-는' 관형절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쓰인 예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자료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165) 《삼천리》에 나타난 '-었는'은 역사적 쓰임이 계승된 결과로 볼 수 있다166). 《삼천리》에 나타난 용례를 분석해 보면, '-은'은 분포상의 제약이 보이지 않지만, '-었는'은 주로 '바' 앞에만 나타나 분포가 제한적이었다. 《삼천리》에 쓰인 '-었는'의 용례 203개 중에 27%에 해당되는 용례에서 머리명사 자리에 '바'가 쓰였다. 이처럼 20세기 전반기에 '-었는'은 분포가 극히 제한돼 있었고 그 결과 '-은'에 밀려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본』의 '어떤꼴의 지난적' 항목을 보면, '죽었는 범'에서처럼 '-었는'을 쓰는 첫째꼴과 '죽은 범'처럼 '-은'을 쓰는 둘째꼴이 있다고 기술하고 그 뒤의 '잡이1'에 "이 두 가지 꼴 가운대에서 첫째꼴은 옛적법(古法)이니, 시방 쓰이는 곳(慶尙道)이 적고, 둘째꼴은 이제법(今法)이니, 그 쓰히는 얼안(範圍)이 넓으니라."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처럼 『우리말본』에서는 이 두 가지 쓰임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은'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지적하였다167).

이처럼 20세기 전반기에 관형절의 시상 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은'은 '-었는'

165)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 여러 모맷 微塵이 世界 밍ᄀᆞ랫ᄂᆞᆫ 微塵과 ᄀᆞᆮᄒᆞ야<1461능엄언05,068b>
예) 듕환이 흉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먹엇ᄂᆞᆫ 줄 알고…<16??서궁일,004b>
예) 너희 婦人 되엇ᄂᆞᆫ 이…<1721오륜해,7,010b>
예) ᄯᅩ 허망히 놀나셔 죽엇ᄂᆞᆫ 늙은이며…<1792증수해,1,008b>

166) 남기심(1972:233)의 지적처럼 경상도 방언에서는 지금도 '왔는 사람', '샀는 것' 등이 쓰이기 때문에 '-었는'의 소멸 과정은 방언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167) 최현배(1937:618-619)에서는 이에 대한 예들을 제시하며 그 중 특히 '-었는'에 대해서는 잘 쓰이는 용법에는 (+) 표시를, 잘 쓰이지 않는 용법에는 (-) 표시를 추가해 놓았다.
예) 그건 내가 발서 보았는 것이어. (-)
저 사람도 한 마리 잡았는 걸. (+)
죽었는 범을 살았는 줄로만 알았지요. (-)

경쟁 양상을 보이다가 '-은'이 '-었는'을 밀어내고 관형절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용법을 독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2.3.2. 시간 명사 앞에서의 '-을'과 '-는/은'의 혼용

'-을'은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가 '때', '적' 등과 같은 시간 관련 명사일 경우에 한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다음은 '-을' 관형절이 '때'를 수식하는 예이다.

(57) a. …[덜덜덜 떨며 부자ㅅ집 대문깐에서 찬밥뎅이를 어더먹을] 때 그들의 가슴은 쓰리고 압헛다.<1935-03-삼천리07-03-281>
  b. 나는 그것을 [22년 전 日本에서 中學校 다닐] 때에 처음 읽엇다.<1931-01-삼천리03-01-37>
  c. 그러나 우리 一行은 [윌헤름스하펜을 출발할] 때에 줄곳 따따넬스를 目的地로 定하고 一念으로 오즉 그 目的을 到達하기에만 전력하얏소.<1935-06-삼천리07-05-68>
  d. 나는 [조선을 떠날] 때에 노자와 학비로 800원을 어더 쥐엇다.<1932-01-삼천리04-01-33>
  e. [제가 결혼할] 때는 8년 전 겨우 17살이엿슴으로 무엇이 무엇인지도 몰으고 구식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엿습니다.<1931-11-삼천리03-11-46>

위의 예에서 '-을'은 관형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일치함을 나타낸다. 이는 아래와 같이 '-을' 관형절이 '적'을 수식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58) a. 그리고 [공부 다 하고 졸업할] 적에도 다른 사람들과 갓치 어려운 시험에 파쓰까지 햇지만은 학사지위는 주지 안터라고 합듸다.<1932-03-삼천리04-03-45>
  b. [저번에 맛날] 적에도 명함을 내 노며 요새 집을 떠나겟다고 하지 안엇나.<1933-04-삼천리05-04-53>

그런데 《삼천리》에 쓰인 '때'나 '적'의 용례를 보면,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이를 수식하는 관형절에 '-는'이나 '-은'이 쓰이기도 했다.

(59) a. 그럼으로 나는 [절세미인으로 환생하여 모든 사내들의 마음을 깃부게 하여 드릴 그런 생각을 하여 보는] 때가 만다.<1929-06삼천리01-01-25>

b. 그는 자긔가 하로 동안에 만히 보는 날이면 사내를 십여 명식 보며…얼골이 어엽부니 만치 [삼사 명을 아니 보는] 때가 업다.<1929-09삼천리01-02-51>

c. 의문의 사건이야 내가 이 직업에 종사한 뒤 수업시 격거 보앗스나 [이번 일가치 막연한] 때가 드물엇습니다.<1929-06삼천리01-01-31>

d. 그리고 정치상 사회상의 영향으로 [그 심신이 유쾌한] 때라고 별로 업서 대개 憂鬱하며…<1929-09삼천리01-02-40>

(59a), (59b)에서는 관형절의 서술어로 동사가 쓰였고 전성어미로 '-는'이 쓰였다. (59c), (59d)에서는 관형절의 서술어로 형용사가 쓰였고 전성어미로 '-은'이 쓰였다.

『우리말본』에서는 '-을'과 '-는/은'의 혼용 현상을 두고 관형절 서술어가 동사일 경우와 형용사일 경우에 대해 서로 다르게 기술하였다. "움직씨 어떤꼴의 이제(現在)"는 '-을'을 써서 나타낸다고 하여 관형절의 서술어가 동사일 경우에는 이제 때매김의 꼴이 '-을' 하나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덧붙인 설명에서는 "그러나, 흔히는 이 이제꼴을 적게 쓰고, 그 대신에 이제이음꼴(現在繼續形)"을 쓴다고 기술해 실제로는 '-는'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최현배, 1937:618). 그리고 그러한 예로 "가는 사람", "지는 해" 등의 예를 들었는데 이때 머리 명사 자리에는 시간 명사가 아닌 다른 일반 명사가 쓰였다. 즉, 시간 명사 앞에서의 쓰임을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관형절의 현재 시제는 '-을'로 나타낸다고 기술한 것이다. 실제로는 관형절의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는'을 쓰는 일이 더 많다고 하면서도 문법의 체계를 잡

을 때는 '-을'을 이제꼴로 설정한 것이다.

한편, 관형절의 서술어가 형용사일 경우에는 이제 때매김의 꼴이 '-을'과 '-은'으로 두 가지라고 제시하였다. 그 중 첫째꼴인 '-을'의 예에는 머리 명사 자리에 시간 명사가 쓰였고, 둘째꼴인 '-은'의 예에는 머리 명사 자리에 시간 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가 쓰였다. 그리고 '잡이'를 덧붙여 '-을'을 쓸 때와 '-은'을 쓸 때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기술하였다. 즉, '어릴 때'처럼 '-을'을 쓰면 "지난적의 일을 現在的으로, 瞬間的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반가운 친구'처럼 '-은'을 쓰면 "이미 되어 있는 性質을 固定的으로 가리키는 것"이라 한 것이다(최현배, 1937:737-738). 이러한 설명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둘째꼴이 시간 명사 앞에 쓰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이다[168]. 하지만 (57)~(59)에서 살펴본 것같이 당시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시간 명사 앞에 '-을'과 '-은'이 모두 쓰였고, '어릴 때'와 '어린 때'는 이러한 의미 차이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말본』의 문법 기술을 통해 문법 체계에 합리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외솔은 동사 뒤에서의 '-을'과 '-는'의 혼용에 대해서는 '-을'을 표준으로 설정하고, 형용사 뒤에서의 '-을'과 '-은'의 혼용에 대해서는 둘 사이에 의미적 차이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문법 체계는 서로 다른 문법 형태 간의 기능상의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을'과 '-는', '-을'과 '-은'이 아무 차이 없이 문장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체계의 수립에 심각한 결점이라 여겨졌을 것이다.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시제 표시 기능에 대한 외솔의 기술 태도는 당시 국어의 실제 쓰임에 내재돼 있던 불합리성을 타파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

168) 이와 관련해 최현배(1937:739)의 '잡이'의 설명에서는 문법 기술과 실제 용법 사이의 차이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때에 關한 임자씨 우에는 첫째꼴과 둘째꼴이 두루 쓰히되, 그 뜻이 각각 달라, 서로 아무렇게나 마구 바꾸지 못한다."라고 기술한 것이다. '약이 따뜻할 적에'를 '약이 따뜻한 적에'로 바꾸거나, '쌀값이 쌀 적에'를 '쌀값이 싼 적에'로 바꾸면 그 뜻도 달라진다고 하고 또 "그 말이 普通으로 잘 쓰히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라고 덧붙였다(739쪽). 예를 제시하기 전에는 첫째꼴과 둘째꼴이 두루 쓰인다고 하였지만 예를 제시한 후에는 둘째꼴은 보통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고 기술한 점에는 모순이 보이지만, 이러한 기술은 현실적으로 둘째꼴도 쓰이긴 하지만 첫째꼴을 쓰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둘째꼴의 쓰임을 "古式"이라고 하였다.

다[169].

3.2.3.3. '있는'과 '있은', '없는'과 '없은'의 혼용

오늘날 보통의 형용사는 '-는'과의 결합이 제약되고 '-은'하고만 결합되지만 유독 '있다'와 '없다'는 '-는'과 결합해 '있는', '없는'으로 쓰인다. 오늘날 '있다'는 예외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서 '있은 뒤/후/다음'처럼 쓰이지만 보통은 '있는'으로 쓰인다. 한편, '없은'은 오늘날에는 아예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있다'와 '없다'가 관형사형 어미 '-은'과도 결합되고 '-는'과도 결합되었다. 즉, 20세기 전반기에 '있다'와 '없다'는 관형형으로 활용될 때 동사처럼 변하기도 했고(있는, 없는) 형용사처럼 변하기도 했던 것이다(있은, 없은)[170].

'있다'는 중세국어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기에나 관형형으로 쓰일 때에는 주로 '-는'과 결합되었고 일부 시간 명사 앞에서만 '-은'과 결합되었다. 다음은 《세종역사》, 《삼천리》, 《현대》의 세 말뭉치에서 '있다'의 관형사형 활용형을 조사한 것이다[171].

---

169) 이처럼 『우리말본』에서는 둘 이상의 문법 형태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의 문법 형태가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문제시되었다. 외솔은 사동 접미사와 피동 접미사의 형태가 같다는 것을 문제시하고 합리적 문법 체계를 세움으로써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 4.4와 4.5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외솔은 사동 접미사는 실제 쓰임을 대부분 인정하는 대신 피동 접미사는 그 목록을 대폭 축소해 사동과 피동의 형태가 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170) 오늘날에도 '있다, 없다'의 활용 양상은 동사적인 면과 형용사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는다'와의 결합이 제약된다는 점에서는 형용사와 일치하지만 '-느냐'나 '-는'과의 결합이 허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사와 일치한다.

171) 이때 본용언으로 쓰인 '있다'와 보조용언으로 쓰인 '있다'를 구별하지 않았다. 활용에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표 33> '있다'의 관형사형 활용의 변화[172)]

	세종역사		삼천리		현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있는	5,269	96.9%	13,793	97.8%	5,198	99.8%
있은	167	3.1%	311	2.2%	9	0.2%
총합	5,436	100%	14,104	100%	5,207	100%

위의 표를 보면, 후대로 올수록 '있은'의 비중이 줄었다(3.1%→2.2%→0.2%). 이러한 수치만 보면 '있다' 활용의 예외적 양상이 줄어들며 차츰 안정을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례를 분석해 보면 앞뒤 시기와 달리 20세기 전반기에만 나타나는 특징도 찾아볼 수 있다.

중세 및 근대국어에서 관형절의 '있다'가 '-은'을 취한 예는 거의 대부분 시간 관련 명사 앞에서 나타났다[173)].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삼천리》를 보면, '있은'으로 쓰인 용례의 약 40%에서는 시간 관련 명사가 쓰였지만 나머지 약 60%에서는 시간과 무관한 명사가 쓰였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있은'의 예이다.

(60) a. 김낭의 문명(文名)은 [이 일이 잇슨] 뒤 더욱 놉하젓고…<1935-09-삼천리07-08-80>

b. [조선에 총독 정치가 있은] 지 벌서 25주년을 넘었다.<1938-10-삼천리10-10-146>

c. …[日本軍의 錦州폭격이 잇은] 후 연맹 관계자는 분개하야…<1933-03-삼천리05-03-22>

d. [貴國에 俳儒運動이 있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다.<1937-01-삼천리09-01-86>

e. …서울 안에 [돈 잇은] 獨身女子가 만하…<1934-09-삼천리06-09-84>

f. 또 이것은 [植民地에 오래 잇슨] 사람으로야 겨우 알어내는 事情이라고<1930-09-삼천리02-05-11>

g. [지금 남편 되는 이가 서울에 잇고 나는 元山에 잇슨] 까닭에 자조 만날 긔회를 가지지

172) 《세종》에서 '있는'은 '잇논, 잇ᄂᆞᆫ, 있는, 있ᄂᆞᆫ'으로 쓰였고, '있은'은 연철 표기인 '이신', 중철 표기인 '잇신, 잇슨, 잇ᄉᆞᆫ'으로 쓰였다. 《삼천리》에서 '있는'은 '있는, 잇는'으로 쓰였고, '있은'은 분철 표기인 '있은'이나 연철 표기인 '잇슨, 있슨'으로 쓰였다. 이 표에 제시된 '있다'의 예는 동사로 쓰인 예와 형용사로 쓰인 예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173) 이안구(2001:351)에 따르면 중세국어에서 '-은'과 결합된 '있다'는 '故, 것, ᄢᅳ, ᄢᅢ, 時節, 적, 제, 後, 然後, 則' 등의 한정된 체언 앞에 실현되다가 근대국어에서는 '적, 제, 後, 然後, 則' 앞으로 분포가 더욱 축소되었다.

못하엿슴니다.<1931-10-삼천리03-10-60>

(60a), (60b), (60c)에서처럼 '있은' 뒤에 온 시간 명사로는 '다음, 다음날, 뒤, 이래, 이후, 적, 전날, 지, 직후, 후'가 있었다. 이러한 쓰임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60d)와 같이 의존명사 '것'이 오거나, (60e), (60f), (60g)와 같이 시간 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가 오는 예도 전체 용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돈 잇은 독신여자'는 오늘날이라면 '돈 있는 독신여자'로, '오래 잇슨 사람'과 '…나는 원산에 잇슨 까닭에'는 각각 '오래 있었던 사람', '…나는 원산에 있었던 까닭에'로 써야 할 것이다.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도 (60d)와 같이 의존명사 '것'이 쓰인 예는 있었지만 시간과 무관한 일반 명사가 쓰인 예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쓰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는 20세기 전반기의 특이한 용법이라 할 수 있다.

'없다'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주로 '-은'과 결합되었고 별다른 분포상의 제약 없이 '-는'과도 결합되었다. 그러다 20세기에 들어 '-는'과 결합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고, 반대로 '-은'과 결합하는 비중은 급격히 줄었다. 다음은 《세종역사》, 《삼천리》, 《현대》의 세 말뭉치에서 '없다'의 관형사형 활용형을 조사한 것이다.

<표 34> '없다'의 관형사형 활용의 변화[174]

	세종역사		삼천리		현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없는	460	22.6%	6,114	99.2%	3,023	100.0%
없은	1,577	77.4%	49	0.8%	1	0.0%
총합	2,037	100%	6,163	100%	3,024	100%

위의 표를 보면, 《세종역사》에 '없다'가 관형형으로 쓰인 용례의 22.6%는 '-는'과 결합되었고 77.4%는 '-은'과 결합되었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없다'의 관형형으로는 '없은'이 '없는'보다 우세했던 것이다. 하지만 《삼천리》의 용례를 보면 이러한

174) 《세종》에서 '없는'은 '업는'으로 쓰였고, '없은'은 연철 표기인 '업슨, 없슨, 없슨'으로 쓰였다. 《삼천리》에서 '없는'은 '없는, 업는'으로, '없은'은 분철 표기인 '없은'이나 연철 표기인 '업슨'으로 쓰였다.

경향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삼천리》에서 '없다'가 관형형으로 쓰인 용례를 보면 99.2%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용례에서 '-는'과 결합된 것이다. 이러한 쓰임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이제 '없은'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다음은 《삼천리》에 나타난 '없은'의 예이다.

(61) a. …[저들 중에는 오날까지 그 덕과 그 힘을 가진 사람이 한아도 업슨] 까닭이다.<1932-02-삼천리04-02-7>
b. 氏는…근엄 강직한 인격자로서 [청렴결백하기 짝이 업슨] 이로…<1933-09-삼천리05-09-61>
c. …[천여 년간을 아모도 注意한 이가 없은] 所致로…<1935-09-삼천리07-08-265>

이처럼 20세기에 들어 '없다'의 활용형이 기존의 '없은'에서 '없는'으로 굳어지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변화가 '있다'의 활용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시기에 '있다'가 '있은'으로 쓰인 예는 머리 명사가 시간 명사일 경우로 한정됐는데 20세기 전반기에 들어 이런 안정성이 깨지고 '있은'의 분포가 시간 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들 앞으로 확대되었다. 20세기 전반기에 '없다'의 활용형이 '없은'에서 '없는'으로 변화하면서 '없다'의 활용형에 나타난 변이에 유추되어 '있다'의 활용형에도 일시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3.2.3.4. 관형절의 속격 주어

앞서 명사절에 대한 논의에서 속격 주어에 대해 살펴봤는데 관형절에서도 속격 주어가 흔히 나타났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관계 관형절에 나타난 속격 주어의 예이다.

(62) a. …『타고르』가 잇슴으로 [인도인의 밧는] 세계적 聲價도 경미한 바가 아닙니다.<1929-06삼천리01-01-5>

b. [어제ㅅ밤에 한 女人의 親切히 준] 白飯이 아직까지 다 먹지 못하고 남아잇는데…<1931-04-삼천리03-04-42>

c. …이 역사의 힘이라 함은 [짓밟히는 者의 正當히 밧을] 승리다.<1931-01-삼천리03-01-41>

(62a)는 '-는' 관형절, (62b)는 '-은' 관형절, (62c)는 '-을' 관형절의 예로, 관형절의 의미상의 주어가 속격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래와 같은 동격 관형절에서도 널리 나타났다.

(63) a. [성문을 직히든 군사의 고전하는] 모양과…<1929-06삼천리01-01-40>

b. [春園의 사퇴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담도…<1935-03-삼천리07-03-36>

c. …이 점은 [勞農계급의 가장 주의할] 점이다.<1931-01-삼천리03-01-13>

(63a)는 '-는' 관형절, (63b)는 '-은' 관형절, (63c)는 '-을' 관형절의 예로, 관형절의 의미상의 주어가 속격으로 실현되었다. 관형절의 주어가 주격으로 실현되느냐 속격으로 실현되느냐에는 일정한 원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삼천리》에 쓰인 관형사형 어미의 쓰임을 분석해 20세기 전반기 관형절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20세기 전반기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시간 표시 기능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아 서로 다른 형태 간의 혼용 현상이 보였다. 또한 명사절과 마찬가지로 관형절에서도 속격 주어의 쓰임이 확인됐다. 이어지는 3.2.4에서는 《삼천리》에 나타난 용례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부사절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3.2.4. 부사절

부사절은 문장에서 부사처럼 쓰이는 절을 말한다. 최현배(1937:987)은 이를 "어찌마디"라고 하고, 어찌마디를 "어찌씨같이 쓰히는 마디"라고 정의하였다[175]. 최현배(1937:987)에서는 "어찌마디의 풀이말인 풀이씨는 어찌꼴로 됨이 그 보람이니라."라고 하고 "낯이 뜨뜻하게", "우리의 눈힘이 모자라게", "소리도 없이", "아무도 못 말리게"의 예를 들었는데, 이때 '-게'는 오늘날에도 부사형 전성어미로 여겨지지만 '-이'는 오늘날에는 전성어미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는 그 분포가 특정 용언 뒤로 한정돼 전성어미로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부사절을 이끄는 '없이', '있이', '같이', '달리' 등의 쓰임을 분석하되 '-이'를 부사형 전성어미로 기술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말뭉치의 용례를 보면 '-듯이'나 '-도록'도 부사형 어미로 쓰였으므로 논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부사절은 '듯이', '채', '대로', '김' 등 부사성 의존명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현배(1937:1120)에서는 "어찌마디는 그 풀이말이 어찌꼴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월들은, 마디를 包含하고 또 어찌씨처럼 쓰힌 것이로되, 어찌마디는 아니요, 그저 마디를 包含한 어찌말이라 함이 옳을 것이니라."라고 하고 "나도,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했소", "이 길이 인제, 사람이 단길 만큼, 되었네.", "이 담배는, 香氣가 좋은 이 만큼, 값이 비싸다."의 예를 들었다. 이는 "어떤마디가 特別한 不完全 이름씨와 이어서 다시 어찌말로 된 것"으로 오늘날에는 이를 부사성 의존명사라 부른다(남기심・고영근, 1993:77).

이처럼 20세기 전반기에 부사절을 이루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3.2.4.1에

---

175) 최현배(1937:342-349)에서는 어찌꼴로 '-아(-어)', '-게', '-지', '-고'를 들었지만 어찌마디의 예를 보인 부분(1118쪽)에서는 '-게'와 '-이'의 예만 제시했다. 이러한 기술은 이익섭(2003)에서 비판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외솔이 '절을 이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어찌꼴을 구분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말본』에서 어찌꼴로 '-아', '-게', '-지', '-고'를 들었지만 실제로 어찌마디의 예에서는 이를 보이지 않았고, '-어 보다', '-게 하다', '-고 싶다' 등을 홑월의 예에서 제시한 것이다(최현배, 1937:1100).

서는 부사형 전성어미에 대해, 3.2.4.2에서는 부사성 의존명사에 대해 살펴보겠다. 부사절의 경우는 《삼천리》에 나타난 용법이 오늘날과 특별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특징을 밝히기보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쓰임을 기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3.2.4.1. 부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에는 '-게, -듯이, -도록' 등이 있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부사형 전성어미의 예이다.

(64) a. 과연 드러가 보니 부엌에는 고기 냄새가 [코가 누리게] 맛터진다.<1935-03-삼천리07-03-197>
b. 말시도 [꾀고리 울듯이] 입뿌게 한다.<1935-07-삼천리07-06-197>
c. …영숙이는 [밤이 늣도록] 돌아오지를 안엇다.<1931-10-삼천리03-10-79>

최현배(1937:675)에서는 '-이'도 어떻씨의 어찌꼴에 포함시켰지만 《삼천리》에 쓰인 용례를 분석해 보면 '-이'는 동사나 지정사와는 결합되지 못하고 형용사에만 결합되었으며, '-이'가 결합된 말이 부사절을 이끄는 쓰임은 '없이', '있이', '같이', '달리' 등 일부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당시 '-이'가 생산성을 가진 부사형 전성어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은 《삼천리》에서 '없이', '있이', '같이', '달리'가 부사절을 이끈 예이다.

(65) a. 그때만 해도 영자신문 쯤은 [꺼리낌이 업시] 보아왓섯지만은…<1929-06삼천리01-01-7>
b. 묘지명은 「兒孩들에게 형제 자매간 [우애 있이] 살어라」 <1940-03-삼천리12-03-101>

c. [春園이 말슴한 것과 같이] 우리는 누구나 다 결점이 만코…<1933-10-삼천리05-10-48>

d. 푸른 테-불에 놓인 투실한 최교장의 손은 [그의 얼굴과 달리] 히고,…<1938-05-삼천리10-05-265>

지금까지 《삼천리》에 쓰인 부사형 전성어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부사절을 이루는 특수한 의존명사에 대해 살펴보겠다.

3.2.4.2. 부사성 의존명사

부사절은 ‘듯이, 채, 대로, 김’ 등 특정 유형의 의존명사에 의해 형성되기도 했다. 이들 의존명사는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와 결합될 수 없고 지정사와도 결합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통의 의존명사와 성격이 다르다. 또한 이들 의존명사는 수식 대상이 문장의 서술어라는 점에서 부사적 성격을 갖는다. 즉, 선행 성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사처럼 쓰이지만, 후행 성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사처럼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존명사를 부사성 의존명사라 한다(남기심・고영근, 1993:77).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부사성 의존명사의 예이다.

(66) a.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시침이를 떼고…<1931-10-삼천리03-10-74>

b. [그 여자의 하라는] 대로 나는 움즉이엿다.<1932-12-삼천리04-12-75>

c. 세민은 [말이 난] 김에 아조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하엿다.<1938-10-삼천리10-10-262>

d. 나는 [두 눈이 멀둥멀둥한] 채로 뻬트우에 그대로 누어서…<1931-01-삼천리03-01-54>

부사성 의존명사는 부사격조사와의 결합 여부에 있어서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66a)와 (66b)에서처럼 ‘듯이’나 ‘대로’는 부사격조사와 결합되지 않았다. 반면 ‘김’

은 (66c)에서처럼 항상 ‘-에’와 결합되어 ‘[~ㄴ/는] 김에’로 쓰였다. 그리고 ‘채’는 (66d)에서처럼 ‘-으로’와 결합되어 쓰이기도 하고 조사 없이 단독으로 쓰이기도 했다.

부사성 의존명사 중 ‘대로’는 ‘-을’ 관형절의 수식을 받을 때 ‘V-을 대로 V’의 반복 구성을 이뤘다. 몇몇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67) a. 밤은 깊을 대로 깊어 고요하고 승객들도 모다 곤히 잠드러 잇섯다.<1933-10-삼천리 05-10-92>
b. 어쨋든 하로에 열네 시간 勞働으로 몸은 피로할 대로 피로하고…<1938-11-삼천리 10-11-210>
c. 단청도 낡을 대로 낡고…<1938-12-삼천리10-12-126>

위의 예에서 ‘대로’는 ‘깊을 대로 깊어’, ‘피로할 대로 피로하고’, ‘낡을 대로 낡고’로 쓰여 반복 구성을 이뤘다.

지금까지 《삼천리》에 쓰인 부사형 어미와 부사성 의존명사의 쓰임을 분석해 보았다. 이어지는 3.2.5에서는 《삼천리》에 나타난 용례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서술절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3.2.5. 서술절

서술절은 문장에서 동사나 형용사처럼 쓰이는 절을 말하는 것으로 최현배(1937:986)은 이를 “풀이마디”라 하고, 풀이마디를 “풀이씨(用言)같이 쓰히는 마디”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풀이마디의 풀이말인 풀이씨는 마침법으로 됨이 그 보람이니라.”라고 하여 서술절은 다른 절과 달리 고유의 전성어미를 취하지 않고 종결어미를 취한다고 하였다. 『우리말본』에서 풀이마디를 설정한 이후로 서술절 설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절의 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보

다는 1930년대 문법서의 기술과 당시 언어 자료를 비교해 본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삼천리》에 나타난 서술절 해당 용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3.2.5.1에서는 서술절을 내포한 문장의 상위문 주어와 서술절 주어의 의미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3.2.5.2에서는 서술절의 주어가 상위문 주어와 동격 관계를 이루는 예를 중심으로 《삼천리》에 나타난 서술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

3.2.5.1. 서술절 주어와 상위문 주어의 의미 관계

서술절을 내포한 문장 중에는 서술절의 주어(NP_2)와 상위문의 주어(NP_1)가 특정한 의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있다. 서술절 주어가 상위문 주어의 일부이거나 수량을 나타내거나 속성을 나타내는 등의 의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허웅(1999:764)에서 그 의미 관계가 매우 다양해 엄격한 논리로 갈래를 세우기는 어렵다고 한 것처럼 NP_1과 NP_2의 의미 관계를 모두 포괄할 만한 분류 틀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삼천리》에 쓰인 서술절의 용례에서 널리 나타난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최현배(1937:986)은 풀이마디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는데, 이 예문에서의 NP_1과 NP_2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68) a. 오늘 밤은 <u>달이 밝다</u>.
b. 한강은 <u>물이 맑다</u>.
c. 토끼는 <u>앞발이 짜르다</u>.
d. 소귀 牛耳洞는 <u>벚꽃이 많다</u>.
e. 牧丹花는 <u>香氣가 없다</u>.

위의 예문에서 NP_1과 NP_2의 관계는 시간, 장소, 신체 부위, 속성 등으로 다양하지

만 넓은 의미로 볼 때에는 공통적으로 NP_2가 NP_1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68a)에서 '달'이 뜬 시간은 '오늘 밤'으로 NP_2가 NP_1에 시간적 차원에서 소속돼 있다. (68b)에서 '물'은 '한강'에 속해 있고 (68c)에서 '앞발'은 '토끼'의 신체 일부이므로 역시 소속 관계를 갖는다. (68d)에서 '벚꽃'이 핀 장소는 '우이동'으로 NP_2는 NP_1에 공간적 차원에서 소속돼 있는 것이다. (68e)에서 '향기'는 '목단화'의 속성이므로 역시 소속 관계를 갖는다.

이처럼 서술절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에 속해 있는 의미 관계는 《삼천리》에서도 널리 나타났다.

(69) a. 그해 륙월은 장마도 흔하더니 어느 비 개인 날 오후에…<1931-06-삼천리03-06-75>
b. 그새 봄은 꽃이 많이 피였습니다.<1940-06-삼천리12-06-113>
c. 녯날의 조선은 그 가정이 오늘보다도 훨신 집단적(集團的)이엇고 대가족제(大家族制) 시대엇스니까…<1931-06-삼천리03-06-64>
d. 학생들의 례를 받고 나오는 K선생은 머리가 우쩍그리고 다리가 허청그려진다.<1938-05-삼천리10-05-264>

(69a)의 '그해 륙월'과 '장마', (69b)의 '봄'과 '꽃', (69c)의 '녯날의 조선'과 '그 가정', (69d)의 'K선생'과 '머리' 및 '다리'를 보면 모두 의미적으로 NP_1이 NP_2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69)의 예에서는 NP_2가 NP_1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속해 있는 관계였지만 (70)의 예에서는 NP_2가 NP_1의 속성을 나타낸다.

(70) a. 여긔에 배태될 우리 문학이 힘이 잇고, 빗이 나는 것이 된다면…1932-05-삼천리04-06-27>
b. …日本의 전략적 지위가 米國보다 훨신 우세이여서 좀처럼 米國이 승산이 업다고 한

다.<1931-10-삼천리03-10-6>

c. 부탁하실 때부터 재료 수집이 가능성이 업스니 할 수 업다는 것을 말하엿다.<1931-07-삼천리03-07-27>

d. …이것은 선생이 지인지감이 잇는 것은 말한 이야기임니다.<1932-05-삼천리04-06-34>

(70a)의 '우리 문학'과 '힘', (70b)의 '미국'과 '승산', (70c)의 '재료 수집'과 '가능성', (70d)의 '선생'과 '지인지감'을 보면 NP_2가 NP_1의 속성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소속 관계나 속성 관계와 더불어 《삼천리》에는 NP_2가 NP_1의 수량을 나타내는 예도 널리 나타났다.

(71) a. 그때 朴박사의 손에는 病理學 비용이 8천 원이 지급되엇다.<1934-06-삼천리06-07-16>

b. 또 全羅道 等 다섯 곳에서 한꺼번에 림꺽정이 다섯이 낫다고 함니다.<1933-09-삼천리05-09-72>

c. 자식은 둘이 있으나 앓해는 없읍니다.<1938-11-삼천리10-11-174>

d. 그 사이에 鑛山科 출신이 여럿이 잇섯겟는데…<1933-09-삼천리05-09-80>

e. 그는 동생이 둘이 잇다.<1930-11-삼천리02-07-17>

(71a)의 '병리학 비용'과 '8천 원', (71b)의 '림꺽정'과 '다섯', (71c)의 '자식'과 '둘', (71d)의 '광산과 출신'과 '여럿'을 보면 서술절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에 대한 구체적 수량이나 수량의 정도를 나타낸다. (71e)는 서술절이 그 안에 다시 서술절을 내포한 예로, 그 구조는 '[그는 [동생이 [둘이 있다.]]]'이며 이때 '둘'은 '동생'의 수를 표시해 준다.

하지만 (71d)와 같은 문장은 《삼천리》에서는 대체로 맨 앞의 명사구가 '에게'나 '에'와 결합해 부사어로 실현되었다. 즉, (71)에서처럼 'NP_1은 NP_2가 NP_3가 V'의 구조로 나타나기보다는 (72)에서처럼 'NP_1에게/에(는) NP_2가 NP_3가 V'의 구조로 나타났

던 것이다.

(72) a. …그네게 아들이 둘이 잇습니다.<1931-05-삼천리03-05-66>

b. 은희에게는 고향이 넷이 잇다.<1931-01-삼천리03-01-63>

c. 죽은 滿州王 張作霖에게는 夫人이 여섯이 잇섯다.<1931-04-삼천리03-04-42>

d. 아메리카에는 대통령이 둘이 잇다.<1931-09-삼천리03-09-56>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서술절 주어와 상위문 주어 사이의 특별한 의미 관계는 서술절을 안은 모든 문장에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삼천리》에는 상위문 주어와 서술절 주어 간에 특별한 의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예도 많았다.

(73) a. 그러나 수향은 서울이 첫거름인데…<1929-09삼천리01-02-51>

b. 어렷을 때에 長編은 두어 편 쓴 일이 잇습니다, 만은 신문소설이 이번이 처음이라, 처음 몇 회분은, 사실 어려웟습니다,<1933-10-삼천리05-10-50>

c. …설사 열칠팔의 소년의 가슴에 性의 고민과 사랑이 싹이 움도닷다 할지라도 그 대상을 구하기가 어려웟스니…<1929-11삼천리01-03-25>

d. 貧困한 大多數의 印度人이 留學이 不可能한 것은 明白하다.<1931-07-삼천리03-07-52>

e. 서반아인은 일반이 말이 만탄다.<1934-06-삼천리06-07-133>

한편, 《삼천리》에 쓰인 서술절의 예 중에는 상위문이 의문형으로 종결되고 서술절의 주어에 의문사가 쓰인 것이 있다. 이러한 예에서는 서술절의 주어 자리에 주로 '무엇'이 쓰였다.

(74) a. 욕먹은 것이 무엇이 원통해.<1934-11-삼천리06-11-258>

b. 이곳서 보는 꽃이 무엇이 아름다우랴<1934-09-삼천리06-09-298>

c. 사랑하는 사람 사이끼리에 임신하고 아해를 낫는 것이 무엇이 붓그러운 일일가요.<1931-06-삼천리03-06-76>

d. 이 사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 그리 유쾌하드냐?<1933-09-삼천리05-09-18>

e. 그까짓 적이 무엇이 무서워서 못 간단 말이오.<1935-08-삼천리07-07-102>

일반적으로 의문문에 의문사가 쓰이면 그 의문사가 나타내는 물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논항은 문장에 실현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의 예에 나타난 의문사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논항과 함께 쓰였다. (74a)의 '욕먹은 것이 무엇이 원통해?'는 의문문을 만드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면 '욕먹은 것이 원통해?'나 '무엇이 원통해'로 쓰였어야 한다. 하지만 '욕먹은 것'과 '무엇'이 공기한 것이다. 이는 (74)의 다른 예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74)에 제시된 의문문은 보통의 의문문과는 구조적 성격이 다르며 위의 예에 나타난 '무엇이'는 실질적으로 '어째서', '왜'의 의미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서술절의 주어와 상위문의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쓰인 예이다.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삼천리》에서 서술절의 주어나 상위문의 주어 자리에는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이 두루 나타났다.

(75) a. 이것을 보아 生을 好하고 死를 惡함은 고금이 일반이며 인생의 본능적 욕망임을 알 수 잇다.<1932-03-삼천리04-03-17>

b. …先驅者의 貴重한 體驗이란 一點에서 이 一文을 실음이 뜻이 깁다 할 것이외다.<1931-04-삼천리03-04-36>

c.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는 비록 잘못은 하엿다 하드래도 영숙이가 불상하기가 짝이 업섯다.<1931-10-삼천리03-10-80>

d. 시골에서 지나든 그 생활이야 말로 실로 원시적이고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였고 답답하기가 한량이 없었음니다.<1935-10-삼천리07-09-173>

(75a)와 (75b)에는 '-음' 명사절이 상위문의 주어로 쓰였고 (75c)와 (75d)에는 '-기'

명사절이 상위문의 주어로 쓰였다. 이 중 (75c)의 '[~기]가 짝이 없다'는 오늘날 조사 '-가'가 탈락된 채 '[~기] 짝이 없다'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천리》에서도 '-가'가 안 쓰인 예가 더 많지만 일부 예에서는 '-가'가 실현되었다.

이 절에서 살펴본 20세기 전반기 서술절의 실현 양상은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삼천리》에 쓰인 서술절의 용례 중에는 서술절의 주어 자리에 상위문의 주어를 받는 대명사가 쓰인 예들이 있는데 이러한 용법은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러한 용례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서술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

3.2.5.2. 서술절의 주어로 쓰인 대명사의 동격 관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술절의 주어와 상위문의 주어 사이에는 특별한 의미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었다. 《삼천리》에 나타난 서술절의 용례 중에는 서술절의 주어 자리에 대명사가 쓰인 예가 있었는데 이때에는 서술절 주어와 상위문 주어 사이에 동격 관계가 성립됐다. 다음은 서술절 주어 자리에 지시 대명사 '이것'이 쓰인 예이다.

(76) a. 나이 만타고 운동을 못한다는 것이 <u>이것이 무엇인냐</u> 말임니다.<1935-07-삼천리07-06-67>

b. 그런데 가장 주목을 끄으는 것은 <u>이것은 뿌르조아 녀학생과 푸로레타리아 녀학생을 구분하여 본 것이다</u>.<1932-12-삼천리04-12-68>

c. 또 하나 말할 것은 <u>이것은 특히 文化工作에 從事하고 게시는 분에게 드리는 意見입니다만은</u>,…<1941-01-삼천리13-01-55>

위의 예에서 '이것'은 상위문의 주어를 지시한다. 이는 서술절의 주어 자리에 '그것'

이 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77) a. …그 큰 결정을 지워 놓고 간 것이 그것이 幼穉하고 그것이 산만한 것이라 해도… <1941-06-삼천리13-06-241>

b. 방원이가 게집을 치는 것은 그것이 주먹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롱담이다.<1935-09-삼천리07-08-286>

c. 내가 明治文豪 尾崎紅葉의 「金色夜叉」를 長恨夢이란 일홈으로 변안하여 낸 것이 그것이 己未前이엇스니…<1934-09-삼천리06-09-233>

위의 예에서 '그것'은 상위문의 주어를 지시한다. 이처럼 서술절의 주어 자리에 지시 대명사가 쓰여 상위문 주어를 지시하며 동격 관계를 이루는 예는 상위문 주어가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 '것' 구성일 때에 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장은 오늘날 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삼천리》에서는 여러 기사에 두루 나타났다.

하지만 서술절에 지시 대명사가 쓰였다고 해서 반드시 상위문 주어와 서술절 주어가 동격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래의 예에서처럼 동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예도 있었다.

(78) a. 밤중에 문호를 찾어가기는 이것이 처음이다.<1936-12-삼천리08-12-172>

b. 내가 현미경으로 물건을 본 것은 그것이 처음이닛가요.<1930-05삼천리02-03-39>

c. 친척관계가 아닌 이성으로부터의 레-타를 밧기는 이것이 처음이엇스니…<1933-03-삼천리05-03-35>

d. 내가 이 곳에 와서 奉仕하기는 이것이 처음인 만치 얼마나 속으로 깃분지 헤아릴 수 업섯다.<1931-04-삼천리03-04-40>

위의 예에서 서술절의 주어 자리에 쓰인 지시 대명사는 상위문 주어를 지시하지

않고 문장 밖의 특정 상황을 지시하므로 동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삼천리》에 쓰인 서술절의 쓰임을 분석해 보았다. 서술절의 주어와 상위문 주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서술절 주어 자리에 상위문 주어와 동격 관계에 있는 '이것', '저것'과 같은 지시 대명사가 쓰이는 용법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3.2.6에서는 《삼천리》에 나타난 용례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인용절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3.2.6. 인용절

발화나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장이 인용의 형식으로 상위문에 내포되어 쓰인 것을 인용절이라 한다. 다른 내포절이 상위문에서 특정 품사처럼 기능하는 데 반해 인용절은 특정 품사에 대응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따로 떼어 놓았을 때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는, 주술 관계를 갖춘 통사 단위가 한 문장의 구성 요소로 쓰인다는 점에서 절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인용절은 전성어미에 의해 실현되지는 않지만 인용 동사와 인용 표지라는 형식적 요건이 있다.

인용 동사는 인용절을 이끄는 상위문 동사로, 발화 동사가 주를 이루지만 동사의 의미가 인용의 형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면 발화 동사가 아니라도 인용 동사에 포함된다. 오늘날 인용 동사는 인용절 뒤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어순이 확립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는 오히려 인용 동사가 인용절 앞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0세기 전반기 인용 동사의 위치는 그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는데 3.2.6.1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인용절의 또 다른 형식적 요건인 인용 표지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18세기 말에 발생하여 19세기 말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이현희 1994b, 권재일 1998). 3.2.6.2에서는 인용 표지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인용절은 통사 구조에 있

어서도 문법 형태의 쓰임에 있어서도 20세기 전반기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삼천리》에 나타난 인용절의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변화의 진행 과정을 상세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3.2.6.1. 인용 동사의 위치

인용 동사는 동사가 지시하는 행위의 내용이 인용의 형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동사를 말한다. 인용 동사의 전형은 '말하다, 대답하다, 묻다' 등의 발화 동사이지만 '쓰다, 기록하다, 약속하다, 부탁하다' 등 그 행위의 내용이 인용절로 구체화될 수 있는 동사들도 인용 동사의 범위에 속한다. 그리고 '상상하다, 생각하다, 의심하다, 간주하다' 등의 인지 동사도 그것이 지시하는 행위의 내용이 인용의 형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용 동사로 볼 수 있다.

《삼천리》에 쓰인 인용절을 안은 문장은 그 구조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176]. 첫째,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선행한 유형, 둘째,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선행하고 인용절 뒤에 '하다'가 쓰인 유형, 셋째,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후행한 유형이다[177].

(79) a. 제1유형: 인용 동사 + [인용절]
b. 제2유형: 인용 동사 + [인용절] + 하다
c. 제3유형: [인용절] + 인용 동사

---

176) 2.3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천리》에 쓰인 용례 중에는 아래와 같이 '인용 동사+인용절+인용 동사'의 예도 보이지만 용례의 수가 극히 적어 유형 분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 그러나 내가 가장 조와하는 사람 또는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말하되 [「그대가 권투를 조와하는냐?」]고 뭇는다면, 나는 서슴지 안코, 「나는 그다지 권투를 조와하지 안는다.」라고 대답하지 안을 수 업는 사실입니다.<1935-10-삼천리07-09-42>

177) 물론 인용절의 앞뒤로 상위문의 주어, 목적어 등 다른 성분들, 그리고 인용 표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인용 동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논의 사항이 되는 성분들을 중심으로 문장의 구조를 단순화하여 제시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1유형과 제2유형은 중세국어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구문이고 제3유형은 19세기 말부터 널리 쓰이게 된 구문이다. 제1유형은 한문의 어순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제2유형은 한문의 어순에 구결문의 영향이 함께 반영된 것이며 제3유형은 국어의 어순에 따른 것으로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조이다. 인용절을 안은 문장의 구조는 제1유형과 제2유형에서 제3유형으로 바뀌었는데 20세기 전반기에는 세 유형이 뒤섞여 쓰였다.

다음은 인용 동사가 인용절 앞에 쓰인 제1유형의 예이다.

(80) a. 陳君이 突然 말하기를

[지금 胡漢民先生이 도라온 모양이니 만나볼 생각이 업느냐]<1931-04-삼천리03-04-46>

b. 이때에 대사는 말슴하되

[전일에 석가래 배개를 가릴때에는 참례치 못 하엿으나 오늘날 들뽀하니를 쓸때에는 오직 내 혼자로구나.] <1935-07-삼천리07-06-224>

c. 古人이 云하되

[『懸岸에 勒馬』라 함은 곳 가장 艱難할 공작이라 함인데 세계 정치사상에서 그러케 많이 불 수 없는 것이다.]<1937-01-삼천리09-01-85>

위의 예를 보면, '말하다', '말씀하다', '云하다'가 인용절 앞에 쓰였고 인용절이 끝나는 부분에서 상위문도 종결되었다. 이때 인용 동사에는 '-기를'이[178] 결합되기도 했고 '-되'가 결합되기도 했다. 한문에서는 동사가 목적어 앞에 쓰이기 때문에 한문의 인용 구문에서는 '曰, 謂, 云' 등의 발화 동사가 발화 내용을 나타내는 구절에 선행한다. 언해 과정에서 한문의 어순을 그대로 우리말에 적용해 'ᄀᆞᄅᆞ샤ᄃᆡ, ᄀᆞᆯ오ᄃᆡ' 등의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선행하는 구조가 발생한 것이다[179]. 그리고 그러한 구조의 인

178) 권재일(1998:70)은 인용절에 선행하는 인용 동사에 '-기를'이 결합된 쓰임은 개화기 무렵부터 확산되었다고 하였다.

179) '인용 동사+인용절'의 제1유형은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인용문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아래의 두 예는 중세국어의 제1유형 인용문을 제시한 것으로, 한문 원문과 언해문을 비교해 보면 한문에서 인용 동사

용문은 20세기 전반기까지도 계속 사용되었다.

제2유형은 제1유형과 마찬가지로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선행하지만, 그와 더불어 인용절 뒤에 ‘하다’가 쓰인 구조이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제2유형의 예이다.

(81) a. 孫中山先生은 유언하되 [세계에서 우리를 평등으로 대하는 민족을 연합하여 共同奮鬪하라!』 하였다.<1937-01-삼천리09-01-91>

b.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獨逸兵士의 節制와 寬大를 謝禮하는 것이다] 하얏다.<1935-06-삼천리07-05-71>

c. 그런 고로 孟子께서 性善를 일카라 말삼마다 堯舜을 반다시 일크르사써 實證하야 가라사되 [사람이 다-可히씨 堯舜이 될 수 있다] 하섰다.<1939-04-삼천리11-04-100>

d. 그러자 밤 자정 경에 牧溪 갓든 李君이 돌아왓다. 고등과장에게 曰 [당신네들이 그처럼 모든 것을 비밀히 하야 … 그러케 비밀히 할 것 가트면 우리에게도 좀 편의를 보아 주구려.] 한다.<1932-05-삼천리04-05-36>

위의 예들을 보면, 인용 동사 자리에 ‘유언하다’, ‘말하다’, ‘가라사되’, ‘曰’이 쓰였는데, 인용절 뒤에 또 다시 ‘하다’가 쓰였다. 즉, 제2유형은 상위문이 두 개의 서술어를 갖는 특이한 구조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휘 의미를 갖는 것은 인용절에 선행하는 인용 동사이고, ‘하다’는 형식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제2유형도 중세국어 자료에 그 예가 보인다. 중세국어의 제2유형 인용문에 나타난 ‘하다’에 대해서는 이현희(1986), 권재일(1998) 등의 논의가 있다. 이현희(1986:207)은 인용문에 나타난 ‘하다’는 ‘니ᄅᆞ다’ 등의 인용 동사에 대한 대동사 역할을 한다고 하

가 쓰인 위치가 언해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을 볼 수 있다.
예) 한문 원문: 第子職曰[先生施敎弟子是則溫恭自虛所受是極]
언해문: 第子職에 ᄀᆞᆯ오ᄃᆡ [先生이 ᄀᆞᄅᆞ치ᄆᆞᆯ 베프거시든 弟子ㅣ 이예 법 바다 온화ᄒᆞ며 공손ᄒᆞ야 스스로 허심ᄒᆞ야 ᄇᆡ호ᄂᆞᆫ 바ᄅᆞᆯ 이예 극진히 ᄒᆞᆯ디니라]<1586소학언,01,013a>
예) 한문 원문: 曲禮曰[子之事親也三諫而不聽則號泣而隨之]
언해문: 曲禮예 ᄀᆞᆯ오ᄃᆡ [ᄌᆞ식이 어버이 셤굠애 세 번 諫호ᄃᆡ 듣디 아니커시든 블으지져 울며 조ᄎᆞᆯ디니라]<1586소학언,02,022b>

였고, 권재일(1998:63)도 '하다'는 인용 동사를 대치한 것이라고 하였다. 제2유형은 인용절을 내포한 상위문에 서술어가 두 개가 쓰였기 때문에 그 통사 구조를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다. 권재일(1998:63)은 '[주어+인용 동사+인용절+하다]'와 같은 구문에 대해 '[주어+인용 동사]' 부분을 도입절이라 하고 맨 뒤의 '하다'는 앞의 인용 동사를 대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도입절의 통사적 지위가 무엇인지, 도입절과 인용절을 안은 상위문은 어떤 관계인지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왜 인용문에서만 특별히 도입절이라는 통사 단위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제2유형 인용문 구조에 나타난 '하다'는 도입절 뒤에 나타나는 대동사라기보다는 구결문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결문과 언해문이 나란히 실려 있는 중세국어 자료에서 각각에 쓰인 인용절을 비교해 보면, 구결을 다는 단계에서 인용 부분 뒤에 첨가된 '하다'가 언해문의 '하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중세국어의 제2유형 인용문의 예이다.

(82) a. 구결문: 子思子ㅣ <u>曰</u> [天命之謂性이오 率性之爲道ㅣ오 修道之謂教ㅣ라] **ᄒᆞ시니**

a′. 언해문: 子思子ㅣ <u>ᄀᆞᄅᆞ샤ᄃᆡ</u> [하ᄂᆞᆯ히 命ᄒᆞ신 거ᄉᆞᆯ 닐온 性이오 性을 조ᄎᆞᆷ을 닐온 道ㅣ오 道ᄅᆞᆯ 닷고믈 닐운 教ㅣ라] **ᄒᆞ시니**<1586소학언,01,001b>

b. 구결문: 人이 或 <u>曰</u> [可以去矣라] **ᄒᆞ야ᄂᆞᆯ** 箕子ㅣ <u>曰</u> [爲人臣ᄒᆞ야 諫不聽而去ㅣ면 是ᄂᆞᆫ 彰君之惡而自說於民이니 吾不忍爲也ㅣ라] **ᄒᆞ시고**…故로 傳之 <u>曰</u> [箕子操ㅣ라] **ᄒᆞ니라**

b′. 언해문: 사ᄅᆞᆷ이 或 <u>닐오ᄃᆡ</u> [可히 ᄡᅥ 갈 거시로다] **ᄒᆞ야ᄂᆞᆯ** 箕子ㅣ <u>ᄀᆞᆯᄋᆞ샤ᄃᆡ</u> [사ᄅᆞᆷ의 신해 되어셔 諫ᄒᆞ야 듣디 아니ᄒᆞ거든 나가면 이ᄂᆞᆫ 님금 사오나옴ᄋᆞᆯ 나토고 스스로 ᄇᆡᆨ셩의게 깃김이니 내 ᄎᆞᆷ아 ᄒᆞ디 몯ᄒᆞ노라] **ᄒᆞ시고**…그러모로 傳ᄒᆞ야 <u>ᄀᆞᆯ오ᄃᆡ</u> [箕子ㅅ 곡되라] **ᄒᆞ니라**<1586소학언,04,025b>

c. 구결문: 門巷果木을 必方列ᄒᆞ야 <u>曰</u> [無苟亂也ㅣ라] **ᄒᆞ더라**

c′. 언해문: 문 오래며 과실 남글 반ᄃᆞ시 방졍히 버렷게 ᄒᆞ야 <u>ᄀᆞᆯ오ᄃᆡ</u> [구챠히 어즐업게 아닐 거시라] **ᄒᆞ더라**<1586소학언,06,088b-89a>

위의 예를 보면, 모두 구결문 단계에서 인용절 뒤에 'ᄒᆞ시니, ᄒᆞ야늘, ᄒᆞ시고, ᄒᆞ니라, ᄒᆞ더라' 등의 구결이 첨가되었고 그 구결이 언해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구결문에서 '하다'가 연결형으로 쓰이면 연결어미를 통해 이어지는 절과의 논리적 관계가 표시된다. 구결문에서 '하다'가 종결형으로 쓰이면 선어말어미가 시제와 관련된 문법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처럼 구결문에 첨가된 '하다'는 절과 절의 관계나 문장의 문법적 정보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고립어인 한문에서는 문맥의 의미 속에 잠재돼 있는 정보들도 교착어인 한국어에서는 구체적인 문법 형태로 드러나야 하는데 인용절 뒤에 첨가된 '하다'는 바로 그러한 언어 유형적 차이를 매개해 주는 장치로 쓰인 것이다.

제2유형 인용문에 쓰인 '하다'가 구결문의 영향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소학언해(1586)』 권1에서 권6에 나타난 구결문과 언해문에서의 인용절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는 구결문에서의 '하다' 사용 여부가 언해문에서의 사용 여부와 일치하는 정도를 계량화한 것이다[180].

<표 35> 『소학언해(1586)』 권1~권6의 구결문과 언해문에 쓰인 인용 구문의 대응 관계

		구결문	
		동사+인용절	동사+인용절+**하다**
언해문	동사+인용절	295	0
	동사+인용절+**하다**	6	86

구결문에서 '하다' 없이 '동사+인용절'로 쓰인 295개의 문장은 언해문에서도 대체로 '동사+인용절'로 쓰였는데 6개의 예에서는 언해문에서 '하다'가 추가됐다. 이 6개의 용례는 모두 인용절 안에 '謂'가 쓰여, 이러한 쓰임은 특정 맥락에서의 예외적 쓰임이

180) 말뭉치에는 구결문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학언해』 영인본(1972, 대제각) 권1~권6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분석 과정에서는 한문에 '曰, 云, 言, 問' 등의 인용 동사가 쓰인 문장을 대상으로 언해문의 대응 부분을 확인하였다. 이때 한문에 '曰'이 쓰였지만 그것이 '골온'으로 언해돼 인용절을 이끌지 않고 동사의 관형형으로만 쓰인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결문에서 '동사+인용절+하다'로 쓰인 86개의 문장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언해문에서 그대로 '동사+인용절+하다'의 구조로 쓰였다. 즉, 구결문에서 인용절 뒤에 '하다'를 현결했느냐의 여부가 곧 언해문에 쓰인 인용문의 구조를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제2유형 인용문은 한문 어순의 영향과 구결문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한 것으로 20세기 전반기까지도 이러한 구조의 인용문이 널리 쓰였다.

제3유형에서는 우리말의 어순을 따라 인용절이 인용 동사에 선행한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제3유형 인용문의 예이다.

(83) a. 蔣介石보고 [그러면 네가 왜 컴무니스트가 못되느냐]고 反問할 수도 잇을지나 그는 別問題이외다.<1934-08-삼천리06-08-58>

b. 역에 나와서 스가-렛드는 아슈레를 물그럼이 처다보면서 [몸조심 하시고 잘 단여 오세요.]라고 겨우 말하였다.<1938-12-삼천리10-12-244>

c. 길진이는…[하지만 그것도 그럴게다!]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였다.<1938-10-삼천리10-10-291>

위의 예를 보면, 인용 동사 '반문하다', '말하다', '생각하다'가 인용절 뒤에 쓰였다. 그리고 인용절 뒤에 '-고', '-라고'와 같은 인용 표지가 붙어 있는데 인용 표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제3유형 인용문은 《삼천리》에서 가장 널리 쓰인 인용문의 유형이다[181].

『우리말본』에서는 인용절을 절의 유형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이음법에 대한 기술 중 '-으되'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인용절을 포함한 문장을 예문으로 제시하였다. 최현배(1937:397-398)이 그 부분인데, 여기에 제시된 예문은 모두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선행하는 제1유형 인용문이다. 해당 예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밑줄은

181) 《삼천리》에서 대표적인 인용 동사인 '말하다'의 용례를 추출해 '말하다'가 이끄는 인용절의 유형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말하다'가 인용절에 선행하는 경우, 즉 제1유형과 제2유형은 용례 수는 총 200개였다. 반면, '말하다'가 인용절에 후행하는 제3유형의 용례는 581개로,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용례를 합한 것보다도 월등히 많았다.

필자).

(84) a. 그 사람이 말하되, 『나는 그런 것 본 일이 없다』고.

b. 孔子ㅣ 가라사대, 배화서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c. 子ㅣ 가라사대, 아침에 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可하니라.

d. 니고데모가 예수를 보고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선생께서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느이다. 하느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선생의 행하시는 이적을 아무 사람도 하지 못함이니이다. 예수ㅣ 대답하야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느님나라를 보지 못하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도 다시 나겠읍니가? 예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니고데모 대답하야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나이가? 예수ㅣ 가라사대……(新約 요한 福音 三○一-十)

위의 예문에 나타난 인용문은 모두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선행하는 구조를 취했다. (84a)는 인용절 뒤에 인용 표지 '-고'가 쓰였지만 나머지 예에서는 인용절의 종결과 함께 문장이 끝나 있다. 하지만 《삼천리》에 쓰인 인용절의 용례를 분석해 보면 당시 제1～제3유형의 인용절이 두루 쓰이고 있었고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후행하는 제3유형이 가장 널리 쓰이던 유형이었다.

3.2.6.2. 인용 표지의 쓰임

인용절에는 '-고', '-라고', '-하고[182]'와 같은 인용 표지가 쓰였다. 인용 표지는 18

182) 용례 분석 시 인용절 뒤에 쓰인 '-하고'에 대해서는 뒤에 인용 동사가 나타난 경우에는 인용 표지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 동사로 보았다. 즉 예1)에서는 인용 동사 '말하다'가 쓰였기 때문에 그 앞의 '-하고'를 인용 표지로 분석하였고 예2)에서는 뒤에 별도의 인용 동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 '하다'의 활용형으로 분석하였다.

예1) 인용 표지로 쓰인 '-하고': [어떤 나라의 문학은 못쓴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1930-10삼천리 02-06-69>

세기 말부터 쓰였고 19세기 말부터 문헌상에 널리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날 인용 표지 '-고'는 간접 인용절에 쓰이고 '-라고'나 '-하고'는 직접 인용절에 쓰인다. 하지만 최현배(1937:856)에서 "풀이씨 뒤에 쓰히는 따옴 토씨의 "고"는 바로 따옴과 건너 따옴의 두 가지에 두루 쓰히고, "라고"는 바로 따옴에만 쓰히느니라."라고 한 것처럼 '-고'는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에 모두 쓰였다[183]. 다음은 《삼천리》에서 '-고'가 직접 인용절에 쓰인 예이다.

(85) a. 두식이는 획 몸을 돌이켜서 하인을 향하여 그 명함을 보이며 「이 분은 어듸 게시냐?」 고 물엇다.<1932-12-삼천리04-12-94>

b. 참말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런 일이 업다』고 대답한다.<1934-05-삼천리06-05-138>

c. 車中에는 발서 경관들이 올너와서 『무기를 휴대한 분들은 미리 말하라』고 주의를 식힌다.<1935-01-삼천리07-01-68>

d. 이 다리를 건너보지 못한 이들은 『豈滿江의 기차 다리는 굉장히도 크리라』고 생각할 것이다.<1935-01-삼천리07-01-68>

위의 예문에 나타난 인용절은 당시 대화의 인용에 흔히 쓰였던 「 」 기호로 묶여 있는 직접 인용절이다. 특히 (85a)에는 문장 부호도 명시돼 있어 직접 인용절이 분명한데도 인용 표지가 '-고'가 쓰였다. 직접 인용절에 인용 표지 '-고'가 쓰인 예는 《삼천리》에서는 결코 예외적 현상이 아니었다. '-고'는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간접 인용절에도 널리 쓰였다.

예2) 인용 동사로 쓰인 '하고': [그럼 감니다] 하고 도라나왓슬 분입니다.<1935-08-삼천리07-07-32>

183) 이와 같이 직접 인용절에 쓰인 인용 표지 '-고'에 대해서는 1932년 『한글』 창간호에 실린 이호성의 "「傳言吐」와 日文글 直譯的 誤謬" 라는 글에서 그 잘못을 지적한 기록이 보인다. 이 글을 보면 "근래 조선문 신문 잡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투가 눈에 많이 뜨인다."라고 하며 직접 인용문 뒤에 '-고'가 결합된 문장은 "부자연하고, 빽빽하고, 서툴으고,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림을, 누구나 다 느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러한 오류가 발생한 원인으로 구두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어조에 대한 관념이 박약하며, 우리말의 관습을 존중하지 않고 일본어의 「と」를 직역해서 쓰는 언어 습관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구별해 직접 인용일 경우에는 '-하고'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6) a. 그랬드니 어느 한 분은 [서양 무덤보다 조선 무덤이 더 로맨틱하다]고 말슴하셨읍니다.<1938-10-삼천리10-10-181>

b. 다만 그가 다소라도 朝鮮의 社會的事業에 奉仕한다고 하는 점에서 [좋은 사람이며 고마운 부자라]고 생각하였다.<1935-12-삼천리07-11-51>

c. 백모는 [저녁을 먹고 가라]고 권햇스나…<1933-09-삼천리05-09-118>

d. 年前에 어느 農村問題講演會가 끗난 後에 [講演을 잘하드냐]고 물엇드니…<1931-06-삼천리03-06-4>

간접 인용절에서 '-고'는 위의 예에서와 같이 인용절 서술어의 종결어미에 결합돼 '-다고, -라고, -냐고, -자고' 등으로 쓰였다. 이러한 예에 나타난 '-고'의 쓰임은 현재의 쓰임과 일치한다. 하지만 아래의 예에서처럼 오늘날과 다른 용법도 보인다.

(87) a. 또는 [엇든 사실을 만들어서 정부를 비난 공격할 것인가]고 물어보고 십흐다.<1931-03-삼천리03-03-13>

b. [號外를 못하면 다음날 본지 석간에 셋스면 안될 일이 잇던가]고 물을런지 몰은다.<1931-10-삼천리03-10-65>

c. 그럼으로 나는 [간다면 西伯利亞로 집단적 移住함이 유일의 길이 아닐가]고 생각한다<1932-10-삼천리04-10-50>

d. …오히려 [불철저하지만 이 방법을 採 하는 것도 一案이 아닐는가]고 생각한다.<1931-11-삼천리03-11-13>

위의 예에서 '-고'는 '-는가', '-던가', '-을가', '-을는가'로 끝난 의문문에 결합돼 인용 표지로 쓰였다. 오늘날에는 의문문이 인용절로 내포될 때 의문형 어미가 '-냐'가 아닌 경우에는 '-고'가 쓰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여러 의문형 어미 뒤에 '-고'가 쓰일 수 있었다[184].

인용문의 두 가지 특징인 인용 동사와 인용 표지 중 인용 동사의 실현은 필수적이었지만 인용 표지의 실현은 수의적이었다. 인용 표지의 실현 여부는 인용절의 서법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실현된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평서형의 순서였다. 아래의 표는 《삼천리》에 쓰인 간접 인용절의 용례를 분석해 서법에 따른 인용 표지의 실현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185].

<표 36> 간접 인용절의 서법에 따른 인용 표지의 실현 여부[186]

서법 / 인용 표지	평서형(-다)		의문형(-냐)		명령형(-라)		청유형(-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실현	12,494	59%	301	95%	644	77%	221	69%
비실현	8,604	41%	18	5%	193	23%	101	31%
총합	21,098	100%	319	100%	837	100%	322	100%

위의 표를 보면, 간접 인용절에서 인용 표지와 결합한 용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의문형 어미(95%)였다. 명령형(77%), 청유형(69%)이 뒤를 이었으며 평서형(59%)이 인용 표지의 실현율이 가장 낮았다.

인용 표지의 용법과 관련해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인용절과 그에 후행하는 인용 동사, 즉 상위문의 서술어 사이에 다른 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용례 분석 결과, 인용 표지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모든 용례에서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직접 후행했지만, 인용 표지가 실현된 경우는 그 사이에 상위문의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이 삽입될 수 있었다. 다음은 인용 표지가 실현된 인용문에서 인용절과 인용 동사 사이에 기타 성분이 개재된 예이다.

184) 하지만 《삼천리》에서 의문형 종결어미 '-는지' 뒤에는 인용 표지 '-고'가 쓰인 예가 보이지 않았다.
185) 의문형의 경우 앞서 지적한 대로 '-는가', '-을까' 뒤에도 '-고'가 결합될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의문문이 인용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던 형태인 '-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86) 인용절 종결어미 자리에 쓰인 '-라'는 명령형 어미인 경우도 있고 평서형 종결어미 '-다'의 이형태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 절에 제시된 모든 분석 결과에는 이 둘을 구별하여 제시한 것이다. '-다'의 이형태로 '-라'가 나타난 환경은 선어말어미 '-노(로)-, -리-, -더-' 뒤와 지정사 '이다, 아니다' 뒤였다.

(88) a. [日本의 對支外交의 시야는 太狹하고 또는 日本의 貴國에 대한 이해도 불충분하었다]고 나는 말한다.<1937-01-삼천리09-01-89>

b. […약도 약이려니와 그보다 원긔를 도들 것을 조금 먹여야 하겟다]고 길진이는 생각한 것이다.<1938-10-삼천리10-10-290>

c. [이리하야 「음모」라거나 「소요」를 진정하려 하엿다]고 그는 솔직하게 말하엿다.<1931-11-삼천리03-11-12>

d. 속으로는 [자기도 이만하면 상당하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싶었다.<1936-11-삼천리08-11-235>

e. 君은 [營口留宿費는 염려말라]고 나를 慰勞하엿다.<1930-07삼천리02-04-22>

(88a)에서는 '나는', (88b)에서는 '길진이는', (88c)에서는 '그는 솔직하게', (88d)에서는 '스스로', (88e)에서는 '나를'이 인용절과 인용 동사 사이에 쓰였다. 위의 예에서 인용절과 인용 동사 사이에 나타난 상위문의 문장 성분들은 인용 표지가 쓰이지 않은 문장에서라면 모두 인용절 앞에 나타났다. 즉, 인용 표지가 없는 문장에서는 인용절과 인용 동사의 위치가 고정적이었으나 인용 표지가 있는 문장에서는 인용절과 인용 동사의 위치상의 고정성이 약화되어 어순의 자유가 허용됐던 것이다. 조사가 없는 인구어에서는 문장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그 통사적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순이 고정적인 데 반해 교착어인 한국어는 조사가 그 통사적 기능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순이 자유롭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인용절의 경우에도 '-고'가 결합돼 인용절이라는 점이 유표적으로 드러난다면 인용 동사가 직접 후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절은 인용절로서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어순에도 자유가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3.3. 요약

지금까지 《삼천리》에 나타난 용례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구성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3.1에서는 명사구와 동사구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구 구성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고, 3.2에서는 접속절,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절 구성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부터 3장의 논의를 통해 밝혀진 20세기 전반기 구 구성과 절 구성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1) 20세기 전반기 구 구성의 특징

3.1에서는 명사구와 동사구의 쓰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명사구의 수식 구성에서는 근대국어까지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쓰임들이 확인된 반면 명사구의 접속 구성에서는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중세·근대국어 시기의 용법이 잔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한문과 구결문의 영향으로 나타난 특징들이 이 시기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사구의 쓰임에서는 한문 언해 관습으로 나타나던 '1음절 한자+하다' 파생 부사가 20세기 전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고, '한문구+하다' 구성에서 구성 단위나 어순 등 내적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1에서 다루어진 20세기 전반기 명사구의 첫 번째 특징은 근대국어 시기까지는 보이지 않던 '-적' 파생 명사에 의한 수식 구성이 널리 확산됐다는 점이다. '-적'은 신생 2음절 한자어 어기에 결합돼 19세기 말부터 국어 문장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인 1890~1900년대에는 격조사와 결합해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기도 했지만 1920~1930년대에는 그런 쓰임이 거의 사라졌다. 한편, 초창기에는 주로 관형어로 쓰

였지만 후대로 올수록 관형어로 쓰인 용례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 대신 부사어나 서술어로 쓰인 용례의 비중이 높아졌다(<표 5> 참조). '-적' 파생 명사가 관형어로 쓰인 경우 1890~1900년대에는 'XX적 NP'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20세기 전반기로 오면서 '이다'와 결합해 'XX적인 NP'로 쓰이게 되었다(<표 6> 참고).

20세기 전반기 명사구의 두 번째 특징은 조사 '-의'를 매개로 한 수식 구조가 길게 확장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NP의 NP의 NP의 NP의 NP의 NP'와 같이 명사구 6개가 이어진 구성도 나타났지만 널리 쓰인 유형은 'NP의 NP', 'NP의 NP의 NP', 'NP의 NP의 NP의 NP' 구성이다. 이 중 첫 번째는 오늘날도 많이 쓰이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오늘날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세 개의 명사구가 수식 관계로 이어질 때 서술성 명사 제약이나 동격 명사구 제약, 의미상의 주어 제약 등에 따라 '-의'가 모든 명사구에 결합되지 않고 대개 한 번만 실현된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그러한 제약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네 개의 명사구가 수식 관계로 이어질 때 그 내적 구조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어순에 따라 차례로 확장되는 구조와 앞의 두 명사구, 뒤의 두 명사구가 각각 수식 관계를 맺은 다음 상위 단계에서 앞뒤 명사구가 다시 수식 관계를 맺는 유형이 주를 이뤘다(<표 8> 참고).

20세기 전반기 명사구의 세 번째 특징은 중세국어에서처럼 명사구 접속 구성에서 마지막 명사구 뒤에 '-과'가 실현되는 용법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시기에는 해당 명사구가 목적어로 쓰일 때 이런 쓰임이 가장 많이 보였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해당 명사구가 관형어로 쓰일 때 이런 용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 9> 참고).

20세기 전반기 명사구의 네 번째 특징은 명사구 접속 구성에서 접속조사와 접속부사가 중첩된 쓰임이다. 이는 한문의 접속사를 접속부사로 번역하면서 동시에 구결문의 접속조사를 언해문에 그대로 반영한 결과, 언해문에 흔히 나타나던 현상이었다. 이러한 쓰임은 20세기 전반기 자료에서는 흔히 나타났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졌

다.

20세기 전반기 명사구의 다섯 번째 특징은 명사구 접속 구성에 후행한 동격 명사구의 쓰임이다. 명사구 접속 구성의 용례 중에는 접속된 명사구의 내용을 아우르는 동격 명사구가 후행한 예들이 있었다. 이때 접속 명사구와 동격 명사구 사이에 '-의'가 쓰이는 용법이 나타났는데 이는 중세국어 시기의 용법이 이어진 결과였다.

한편, 3.1.2에서 다루어진 20세기 전반기 동사구의 첫 번째 특징은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에 의한 수식 구성이다. 'X히' 꼴의 파생 부사는 전통적으로 언해 과정에서 한문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한자에 '-히'를 결합시켜 사용한 것으로, 20세기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되었다(<표 10> 참고). 역사적으로 높은 빈도로 쓰인 'X히' 파생 부사는 대체로 오늘날까지 그 쓰임을 유지하고 있는데, 20세기 전반기에는 그 이전 시기에는 잘 쓰이지 않던 '特히'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20세기 전반기 동사구의 두 번째 특징은 주로 'XXXX하다'의 꼴로 쓰이던 '한문구+하다' 구성에서 그 구성 단위와 어순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XXXX하다' 구성에서는 개개의 한자가 의미적으로 주어나 목적어 등의 구실을 했는데 이 시기부터는 2음절 명사로 구성 단위가 바뀌기 시작했다. 또한 전통적으로는 한문의 어순을 따라 목적어가 서술어에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시기부터는 우리말 어순에 따르는 예가 많아졌다. 한편, 'XX'와 'XX'가 둘 다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날이라면 'XX하고 XX하다' 등으로 쓰여야 하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이를 'XXXX하다'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2) 20세기 전반기 절 구성의 특징

3.2에서는 접속절과 내포절의 쓰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접속절과 관형절에서는 주로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접속절에서는 새로운 연결어미의 쓰임이 나타났고 관형절에서는 문법 형태 간의 기능이 분화되는 과정, 즉 각

문법 형태가 고유의 기능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문법적 변이가 나타났다. 한편 명사절이나 인용절에서는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와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한 변화가 모두 확인되었다. 명사절에서는 한문의 기능어를 직역하면서 발생한 구문 구조들이 당시까지도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한편으로 '-음'이나 '-기'가 다른 문법 형태들과 경쟁 양상을 보이며 기능을 확립해 가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용 동사와 인용절의 위치를 분석해 보면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장 구조상의 변이를 볼 수 있었고, 인용 표지의 쓰임을 분석해 보면 새로운 문법 형태의 정착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부사절이나 서술절은 대체로 오늘날의 쓰임과 큰 차이가 없었다.

3.2.1에서는 접속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접속절을 내포한 복문에서 선행절은 연결어미를 매개로 후행절과 이어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연결어미가 매개하는 선후행절의 관계를 가정, 인과, 양보, 대조, 나열, 의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세기 전반기에는 가정의 연결어미로는 '-거드면', '-거든01', '-노라면', '-는다면', '-더라면', '-더면', '-던들', '-으려면', '-으면', '-을지면', '-을진대', '-자면' 등이 쓰였고, 인과의 연결어미로는 '-거늘', '-기', '-기에', '-기로01', '-길래', '-나니', '-는지라', '-더니', '-어서', '-으니', '-으니까', '-으매', '-으므로', '-은즉', '-을지니' 등이 쓰였다. 양보의 연결어미로는 '-더라도', '-은들', '-을망정', '-을지라도', '-을지언정' 등이 쓰였고, 대조의 연결어미로는 '-거니와', '-건마는(건만)', '-더나', '-어도', '-으나', '-으나마', '-으되01', '-지마는(지만)', '-지만서도' 등이 쓰였다. 나열의 연결어미로는 '-고', '-고서', '-으며', '-으면서', '-을지며' 등이 쓰였고, 의도의 연결어미로는 '-고자', '-느라', '-느라고', '-으려', '-으려고' 등이 쓰였다. 이상의 유형들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밖에도 '-어야', '-는데', '-는바', '-으되02', '-을새', '-거든02', '-자', '-다가', '-을뿐더러', '-기로02' 등의 연결어미가 쓰였다. 각 유형별 연결어미의 빈도와 보조사,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양상은 <표 11>~<표 25>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접속절에서 연결어미와 접속부사가 중첩되어 쓰인 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이는 앞서 명사구 접속 구성에 나타

난 접속조사와 접속부사의 중첩 현상과 마찬가지로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3.2.2에서는 명사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20세기 전반기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의 성분별 쓰임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표 27> 참고), 두 유형 모두 주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쓰였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음' 명사절은 지정사와 결합해 서술어로 쓰이기도 했던 반면 '-기' 명사절은 서술어로 쓰이지 않았다. 한편 '-기' 명사절은 관형어로 쓰이기도 했던 반면 '-음' 명사절은 관형어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각 명사절이 주어나 목적어로 쓰인 용례를 대상으로 고빈도 상위 서술어의 목록을 작성해 본 결과, 당시 국어에 나타나던 특정 구문들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8>~<표 31> 참고). '-음' 명사절이 주어로 쓰일 때 상위 서술어 자리에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은 지정사 '이다'였다. '[~음]이 NP이다'로 쓰인 용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는 주로 'NP가 [~음]이다'의 분열문임을 알 수 있었다. '-음' 명사절이 주어로 쓰일 때 상위 서술어 자리에는 '있다'와 '없다'도 빈번히 나타났는데 '[~음]이 있다/없다' 구문에서 '있다'와 '없다'는 각각 존재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명제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나타냈다. 이러한 용법은 언해문에서 '有ᄒᆞ다'와 '無ᄒᆞ다'가 '-음' 명사절을 주어로 취한 구문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음'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인 경우 상위 서술어 자리에는 '得하다'나 '要하다'처럼 한문의 기능어 '得', '要'에 '-하다'를 결합해 만든 동사들이 종종 쓰였는데, 이때 '得하다'는 한문에서 '得'의 기능에 따라 가능 여부를 나타냈고 '要하다'는 한문에서의 '要'의 기능에 따라 당위를 나타냈다. '得하다'는 '얻다'로 번역되어 '[~음]을 얻다' 구문을 낳기도 했다. 또한 의문문이 명사절처럼 쓰여 내포되었을 때 '-ㄴ지', '-ㄹ지' 등의 의문형 어미가 쓰일 자리에 '-음'이 쓰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구문은 '얼마나' 등 의문사가 쓰인 경우에 특히 많이 나타났다. 한편, '-기'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경우 상위 서술어 자리에 '이다'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기]는 NP이다' 구문을 살펴보면 NP가 시간과 관련된 명사일 경우, 오늘날 '-은 것'이 쓰일 자리에 '-기'가 쓰인 예가

많았다. 한편, NP 자리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쓰인 '[~기] NP에/만이다' 구문에서는 오늘날 '-ㄴ 지'가 쓰일 자리에 '-기'가 쓰이기도 했다. 또한 명사절의 용례 중에는 속격 주어가 쓰인 예도 확인되었다.

3.2.3에서는 관형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다른 전성어미와 달리 명제의 시간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데 20세기 전반기에는 이러한 시제 표시 기능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처럼 당시에도 '-은'은 과거 시제를 나타냈는데 일부 예에서는 '-은' 대신 '-었는'이 쓰이기도 했다. '-을'은 시간 명사 앞에서는 관형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일치함을 나타냈는데 20세기 전반기에는 이 경우 '-을' 대신 '-는/은'이 쓰이기도 했다. 또한 오늘날 관형사형으로 쓰일 때 '-는'과 결합하는 '있다'와 '없다'는 당시에는 '있은', '없은'으로 쓰이기도 했다(<표 33>, <표 34> 참고). 그리고 명사절과 마찬가지로 관형절에서도 주어가 속격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3.2.4에서는 부사형 전성어미와 부사성 의존명사를 중심으로 부사절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날과 특별히 다른 점은 보이지 않았다. 3.2.5에서는 서술절의 주어와 상위문 주어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서술절의 주어 자리에 상위문 주어와 동격 관계의 대명사가 쓰인 용법이 특징적이었다.

3.2.6에서는 인용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용 동사와 인용절의 위치를 중심으로 용례를 분석해 본 결과,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선행하는 제1유형,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선행하되 인용절 뒤에 '하다'가 쓰인 제2유형,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후행하는 제3유형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제1유형은 한문의 어순을 반영한 것이고 제2유형은 한문의 영향과 구결문의 영향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며 제3유형은 우리말 어순에 맞게 쓴 것이다. 그 중 제3유형이 가장 널리 쓰였다. 한편, 19세기 말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한 인용 표지 '-고'는 이 시기에는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에 두루 쓰였는데, 간접 인용절에서는 서법에 따라 실현 여부에 차이를 보였다(<표 36> 참고). 또한 인용 표지가 실현되지 않은 구문에서는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직접 후행했지만 인용 표지가 실현된 구문에서는 인용절과 인용 동사 사이에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이 개재될 수 있어, 인용 표지의 쓰임으로 인해 어순의 자유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이와 같이 구와 절에 나타난 문법적 변이를 기술하고 이를 통해 변화의 방향성을 확인해 보았다. 4장에서는 《삼천리》에 나타난 시제 표현, 높임 표현, 부정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의 용례를 분석해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양상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

4.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양상적 특징

이 장에서는 《삼천리》에 나타난 용례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양상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Fillmore(1968:23)에서 문장을 명제와 양상으로 구분한 것에 따라 명제를 구성하는 구와 절, 그리고 양상을 나타나는 요소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3장에서는 《삼천리》에 쓰인 구와 절에 대해 분석하였고 4장에서는 양상 표현에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4.1에서는 20세기 전반기 문장에 쓰인 시간 표현의 특징, 4.2에서는 높임 표현의 특징, 4.3에서는 부정 표현의 특징, 4.4에서는 사동 표현의 특징, 4.5에서는 피동 표현의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4.1. 시간 표현

국어의 문장에서 명제에 시간성을 부여해 주는 문법적 요소에는 선어말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보조용언 구성 등이 있다. 선어말어미와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주로 명제가 나타내는 사건이나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 주고, 보조용언 구성은 주로 명제가 나타내는 사건의 시간적 구조를 드러내 준다. 이 중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대해서는 3장의 3.2.3에서 자세히 논의하였으므로 이 절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삼천리》의 용례에 나타난 시간 표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말본』의 기술을 살펴보겠다. 『우리말본』에서는 움직씨(동사), 어떻씨(형용사), 잡음씨(지정사)에 대해 각각의 때매김법을 기술했는데, 베풂꼴(서술형)의 때매김법에 대한 논의에서 선어말어미와 보조용언에 의한 때매김법을 다루었고 어떤꼴(관형사형)의 때매김법에 대한 논의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의한 때매김법을 다루었다

베풂꼴의 때매김법은 이제, 지난적, 올적의 체계를 갖는데 각각은 으뜸때, 마침때, 이음때, 이음의마침때의 네 가지로 실현된다. 최현배(1937:605)의 움직씨 베풂꼴의 때

매김법 체계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187].

<표 37> 최현배(1937:605) 움직씨 베풂꼴의 때매김법 체계[189]

	이제	지난적	올적
씨몸	ㄱ. 자 ㄴ. 잡 ㄷ. 주 ㄹ. 줄	ㄱ. 자 ㄴ. 잡 ㄷ. 주 ㄹ. 줄	ㄱ. 자 ㄴ. 잡 ㄷ. 주 ㄹ. 줄
으뜸때	-다	-았다 -었다	-겠다[188]
마침때	-았다 -었다	-았었다 -었었다	-았겠다 -었겠다
이음때	-고 있다 -ㄴ다 -는다 -ㄴ다 -다	-고 있었다	-고 있겠다
이음의 마침때	-고 있었다	-고 있었었다	-고 있었겠다

위의 표에는 선어말어미 '-었-', '-겠-', '-었었-'이 쓰였고 보조용언 '-고 있다'가 쓰였다. 한편 최현배(1937)에서는 '-더-'를 도로생각때매김(회상시제)으로 설정하였는데 위의 표에 나타난 활용꼴에 '-더-'를 더하고 종결어미를 '-다'에서 '-라'로 바꾸면 도로생각때매김의 체계가 된다. 위의 표에 제시된 각각의 활용형은 오늘날의 쓰임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이는 최현배(1937:736)의 어떻씨의 때매김법 체계나 최현배(1937:777)의 잡음씨의 때매김법 체계도 마찬가지이다.

《삼천리》에 쓰인 시간 표현의 문법 요소들을 살펴보면, 선어말어미의 용법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각 어미의 용법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3.2.2에서 살펴본 것처럼 '-었는'과 '-은'이 서로 대치되거나, '-을'과 '-는', '-을'과 '-은'이 서로 대치되는 등 각각의 전성어미의 기능이 뚜렷하게 분화되어

187) 이 표에 나타난 시제 체계는 '과거-현재-미래'의 삼분시를 토대로 하지만 '-겠-'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시제 문법 형태가 아니라 추측법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로 논의된다. '-더-'에 대해서도 회상법이나 기준 시점 이동 기능 등 이를 시제 문법 형태로 보지 않는 논의가 많다. 하지만 이 연구는 체계의 설정보다는 용법에 대한 분석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말본』의 시제 체계를 따르고 시제 체계의 설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188) 때매김법의 표에는 올적의 문법 형태로 '-겠-'만 제시하였으나 때매김법에 대한 기술이나 때도움줄기의 목록을 제시한 부분(최현배, 1937:466)에서는 '-으리-'도 올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189) 원문은 세로쓰기 방식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원문의 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도록 되어 있지만 이 글은 가로쓰기 방식이므로 표의 내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도록 수정해 인용하였다.

있지 않았다. 보조용언 구성의 경우 '-고 있다'가 완료상을 나타내거나 '-어 있다'가 타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는 등 오늘날과 매우 다른 용법을 보였다.

이 절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시간 표현 중 오늘날과 차이를 보인 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시간 표현의 선어말어미는 대체로 오늘날과 용법이 일치했지만 '-었-'의 경우 일부 예에서 '-어 있-' 대신 쓰여 완료상을 나타내는 용법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4.1.1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조용언 구성에 나타난 특징을 기술하려고 하는데 4.1.2에서는 오늘날 타동사와의 결합이 제약되는 '-어 있다'가 타동사에 결합돼 완료상을 나타내는 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4.1.3에서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것이 주된 용법인 '-고 있다'가 완료상을 나타내는 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4.1.4에서는 오늘날 형용사와의 결합이 제약되는 '-어 있다'가 형용사에 결합한 예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4.1.5에서는 '-어 가다'와 '-어 오다'가 형용사와 결합한 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4.1.1. 완료상의 '-었-'

20세기 전반기에도 '-었-'의 기본적인 기능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삼천리》에 쓰인 '-었-'의 용례 중에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었-'은 근대국어 시기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보다 완료상을 나타내는 기능이 더 발달돼 있었는데 이는 중세국어 시기의 '-어 잇-' 구문의 완료적인 의미가 유지된 것이다(김유범, 2007:165). 다음은 《삼천리》에서 '-었-'이 완료상을 나타낸 예이다.

(1) a. 그거 어떠케 面前에서 거절한단 말슴이서요. 겨테 안젓는 내 얼굴이 뜨거워요 <1932-05-삼천리04-06-5>

b. 하로난 저녁 후에 누엇스랴니까 甥姪이 名卸 한 장을 들고 드러와서 「아주머니 이 사람이 차저왓서요」 한다. <1935-07-삼천리07-06-129><1935-07-삼천리07-06-128>

c. …白衣의 農夫가 우둑허니 섯는데 荒凉한 거친 뚝에는 新春을 마저 肥料運搬하는 큼직한 황소가 엉기엉기 기어간다.<1931-03-삼천리03-03-54>

(1a)의 '안젓는'은 '앉아 있는', (1b)는 '누엇스랴니까'는 '누워 있으려니까', (1c)의 '섯는데'는 '서 있는데'의 의미이다. 위의 예에 나타난 '앉다', '눕다', '서다' 등 신체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완료상을 나타낼 때 '-어 있다'보다 '-었-'과 결합한 예가 더 많았다.

4.1.2. 타동사+'-어 있다'

'-고 있다'는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어 있다'는 동작이 이루어진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 표시 기능으로 인해 각각은 결합될 수 있는 용언에 제약을 갖는다.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다'는 형용사나 지정사처럼 원칙적으로 동작 진행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용언과는 결합될 수 없다. 즉, '그녀는 예쁘고 있다'나 '이것은 사과이고 있다'와 같은 문장은 비문이다. 한편 완료상을 나타내는 '-어 있다'는 타동사와의 결합이 제약된다. 즉, '밥을 먹어 있다'는 비문이 되는데, 타동사는 목적어에 미치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완료상으로는 쓰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두 표본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나 '몇 시간째 진을 친 경찰이 통로를 봉쇄하고 있다.' 등과 같이 일부 동사는 '-고 있다'가 결합됐을 때 완료상이 실현된다. 이 두 예에서 '이루고 있다'나 '봉쇄하고 있다'는 '이룬 상태', '봉쇄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이처럼 '-고 있다'와 결합해 완료상으로 실현되는 동사들은 타동성이 약한 동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삼천리》의 예처럼 20세기 전반기에도 '-고 있다'가 일부 타동사에 결합해 완료상을 나타냈다.

(2) a. 그러나 당시 정부를 형성하고 잇는 內閣各省中에서는…<1931-05-삼천리03-05-45>

b. 그 판매도 150만 부를 돌파하고 있는 바…<1940-12-삼천리12-10-162>

c. 최근 수년 래에 朝鮮의 민족주의자는 점차 급속한 보조로 좌우兩翼의 대립을 이루고 잇섯다.<1932-10-삼천리04-10-23>

d. 과거 우리 사회에는 여러 방면으로 보와 文學이 발전될만한-상당한 條作을 구비하고 잇슨 것이 분명하다. 또<1935-09-삼천리07-08-265>

e. …동양사 강의에 잇서서는 학생들의 인기를 혼자 독점하고 잇다.<1930-11-삼천리02-07-43>

f. 내부의 반봉건제와 외부로부터 오는 歐米의 帝國主義가 긴밀한 결탁을 짓고 있는 데 그 기본 원인이 있읍니다.<1940-04-삼천리12-04-72>

g. 이렇케 된 오날에 잇서 교원된 자는 학생들에게 정신적 師表가 되지 못하고 거긔에는 오즉 팔고 사고 하는 商取引이 잇서 연결식키고 잇다.<1935-08-삼천리07-07-38>

위의 예에 쓰인 '형성하다', '돌파하다', '이루다', '구비하다', '독점하다', '짓다', '연결시키다'는 모두 어휘 의미에 시간의 폭이 전제되지 않는 순간적 동작을 나타낸다. 이 동사들에 '-고 있다'가 결합되면, 순간적 동작이 이루어진 후, 즉 상태의 전환점을 지나친 후에 그 결과가 지속되는 상황을 나타내게 된다.

그런데 20세기 전반기에는 바로 이런 경우에 '-고 있다'가 아닌 '-어 있다'도 쓰일 수 있었다. 다음은 (2)에 쓰인 동사들이 《삼천리》에서 '-어 있다'와 결합한 예이다.

(3) a. …人家가 잇는 곳에는 반드시 조고만 마을을 形成하여 잇다.<1930-09-삼천리02-05-46>

b. 이상으로 畓이 155만3천여 町步, 田이 278만4천 町步를 돌파하여 잇고…<1933-01-삼천리05-01-64>

c. 米國 加奈陀 濠太利 알젠틴 등 지방은 농산물의 산액이 너머나 만허서 곤궁한 농민의 생활과 이상한 대조를 닐우어 잇스며…<1933-01-삼천리05-01-66>

d. 중학교만 마치면 대개의 상식을 구비하여 잇슬 터이니까…<1935-01-삼천리07-01-133>

e. …王福壽 孃은 지금 장안 안의 인긔를 독점하여 잇지 안는가.<1935-06-삼천리07-05-139>

f. 그들은 멸망함이 없으리라 하는 新約의 말로서 결말을 지어 있다.<1940-04-삼천리12-04-208>

g. …米國의 해군근거지는 米國本洲로부터 시작하여 하와이, 꾸암, 마닐라를 연결시켜 있으며…<1941-11-삼천리13-11-26>

(3)의 예에서도 (2)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문장의 동사들은 순간적 동작이 이루어진 후에 그 결과가 지속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위의 예문들을 오늘날의 쓰임대로 고쳐 본다면 '-어 있다'는 모두 '-고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이 동사들에는 '-고 있다'가 아니라 위의 예에서처럼 완료상의 '-어 있다'가 결합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순간적 동작을 나타내는 특정 타동사와의 결합이 아닌 일반적인 쓰임에서 '-고 있다'는 진행상을 나타내고 '-어 있다'는 완료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왜 (3)과 같은 쓰임은 사라졌고 (2)와 같이 순간적 동작을 나타내는 타동사들이 '-고 있다'와 결합해 완료상을 나타내는 것일까?

오늘날 '-어 있다'는 선행 용언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다. 원칙적으로 타동사나 형용사에는 결합이 불가능하고 자동사에만 결합된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까지 '-어 있다'는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에 모두 결합될 수 있었다. 형용사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일단 타동사와 자동사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 20세기 전반기에는 자동사냐 타동사냐, 즉 해당 동사의 어휘 범주나 통사 구조가 어떠하냐보다는 의미에 어떤 상적 속성이 내재돼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어휘의 상적 속성보다는 어휘 범주나 통사 구조가 더 중시되고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즉, '-고 있다'와 '-어 있다'의 선택의 기준이 어휘의 상적 의미에서 어휘 범주 및 통사 구조로 바뀐 것이다[190].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통시적으로 '-고 있다'가 점차 '-어 있다'의 영역을 침범해 왔고 그러한 과정이 20세기 전반기에도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중세국어에서는 '-어 있다'가 자동사뿐 아니라 타동사에도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었고 '-고 있다'는 막 태동한 단계였는데, 그 이후 '-고 있다'가 '-어 있다'의 영역을 점점 침범해 오며 '-어 있다'의 분포가 자동사에 후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고영근·구본관, 2008:415). 이렇게 본다면 20세기 전반기에 동사의 동작이 순간적인 전환점을 나타내는 동사 부류에 한해서는 '-고 있다'가 '-어 있다'의 영역을 완전히 침범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어 있다'가 오늘날 '-고 있다'의 자리에 쓰여 완료상을 나타내는 용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어 있다'는 오늘날에도 타동사와의 결합에 제한이 있어 타동사의 완료상은 '-고 있다'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순간적 동작을 나타내는 타동사에 한해 '-어 있다'가 완료상을 표시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4.1.3에서는 거꾸로 오늘날 '-어 있다'가 쓰일 자리에 '-고 있다'가 쓰인 용례들을 분석해 보겠다.

4.1.3. '-고 있다'의 완료상 표시 기능

앞 절에서 논의한 대로 20세기 전반기에는 순간적 동작을 나타내는 타동사가 완료상으로 실현될 때 '-고 있다' 및 '-어 있다'와 두루 결합될 수 있었다. 그런데 완료상과 관련해 논의를 더 복잡해지게 하는 또 다른 용례들이 있다. 아래와 같이 자동사에 결합된 '-고 있다'가 완료상을 나타내는 용례들이다.

(4) a. 그 하늘 아래 몟만 년 동안이나 아모 말 업시 서고 잇는 北岳!<1931-10-삼천리

190) 하지만 자동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어 있다'의 결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사 중에도 '수영하다'와 같은 동작성이 강한 동사들은 '수영해 있다'와 같이 쓰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어휘 의미에 내재된 상적 속성에 의한 제약은 자동사의 범주 내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03-10-124>

b. …그리로 오른쪽으로 꼽으러지는 곳에 목제 2층의 큰 건물이 웃둑 서고 잇스니 이것이 대등학교(大東學校)요.<1932-03-삼천리04-03-75>

c. …그리로 어두운 길을 패어드러가노라면 빈집 가튼 조용한 집 한 채가 서고 잇다.<1933-09-삼천리05-09-20>

d. …층층대를 너머서면 目前에 약 20尺가량 될 것 같은 크다란 石碑가 서고 있는데…<1939-04-삼천리11-04-23>

위의 문장들은 '서다'가 '-고 있다'와 결합된 예로 그 주어가 '북악(산), 건물, 집, 석비'인 것을 볼 때 도무지 '서다'라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진행상이 아니라 완료상인데도 '-고 있다'가 결합된 쓰임인 것이다. 이러한 용례 중에 '서고 있다'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지만 아래와 같이 다른 자동사의 용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다.

(5) a. 첫재는 운동에 지친 남편의 몸이 아조 起居하지도 못하야 병석에 오래 드러눕고 잇다 합시다.<1930-11-삼천리02-07-38>

b. 이 뒷날 三南街路 큰 길가 버들방축 미테 한줌 흙이 되어서 눕고 잇는 이 몸의 무덤을 보시거든 <1931-04-삼천리03-04-32>

c. 조선의 하늘우에 떠서 明滅하든 만흔 별 중에는 이미 자최를 감춘 것도 잇고 그대로 뜨고 잇는 것도 잇다.<1931-06-삼천리03-06-22>

d. …한쪽 편에는 저절로 난 꼿인지 화초가 반조고레 적막하게 피고 잇다.<1934-05-삼천리06-05-137>

e. 그 때 아직도 세인의 기억에 남고 잇는 저 유명한 許憲씨로부터 제기된 控訴不受理의 판결도 亦 立川재판장이 판결내린 것이엇다.<1935-03-삼천리07-03-41>

f. …猶太人은 돈 모이는 天才로써만 알녀지고 잇지마는 그들의 文化的 社會的 活動을 無視하는 것은 큰 冒瀆이다.<1935-02-삼천리07-02-43>

(5a)의 '드러눕고 잇다'는 병자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지 눕는 동작 자체가 오랫동안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5b)는 자신이 나중에 죽었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죽은 사람이 눕고 잇다는 것은 역시 눕는 동작이 아니라 누워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5c)의 '뜨고 있는'은 별이 그대로 떠 있는 상황을 나타내며 (5d)의 '피고 있다'도 꽃이 피는 동작 자체가 아니라 피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5e)의 '남고 있다'도 기억에 남아 있는 상황을 나타내며 (5f)의 '알려지고 있다' 역시 알려져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처럼 (5)의 용례들은 완료상으로 표현되어야 할 상황에서 '-고 있다'가 쓰인 경우이다. 이러한 용례들을 통해 볼 때 20세기 전반기의 '-고 있다'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로서 아직 완전히 정착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어 있다'가 순간적 동작을 나타내는 타동사에 결합돼 완료상을 나타내거나, '-고 있다'가 자동사에 결합해 완료상을 나타내는 등, 《삼천리》에서는 오늘날의 쓰임과 다른 용법들이 확인되었다. 자동사와 타동사뿐 아니라 형용사도 시상 보조용언과의 결합 관계에서 오늘날과 다른 쓰임을 보였는데 이어지는 4.1.4에서는 먼저 형용사에 '-어 있다'가 결합된 용례들을 살펴보겠다.

4.1.4. 형용사+'-어 있다'

오늘날 '-어 있다'는 형용사에 결합되지 않지만 《삼천리》에는 형용사에 '-어 있다'가 결합된 예가 종종 보인다. 최현배(1937:507, 728)에서도 보조용언의 갈래를 설명하며 '있다'를 동사와 형용사에 모두 결합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고 '-어 있다'가 형용사와 결합된 예들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형용사+어 있다'의 예이다.

(6) a. 「떠러지는 꼿만 붉어 잇도다」<1936-01-삼천리08-01-156>

b. …지붕 우으로 긔숙사 울타리인 백양나무 가지가 반공중에 푸르러 잇섯다.<1932-09-삼천리04-09-97>

c. …욱어진 가을 풀에 달빗만 밝아 잇는 반면으로…<1931-12-삼천리03-12-18>

d. 하늘은 언제나 흐리터분하게 흐려 있지 않으면 濛濛하게 小雨가 내리고 있다.<1940-07-삼천리12-07-112>

이러한 예에 나타난 용법은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에 '-어 있다'가 결합되던 용법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진호(2006:236)는 중세국어 문헌 중에 특히 『두시언해』에서 이러한 용례가 많이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인이 보고 느끼는 상태를 현장감 있게 표현"할 때 주로 이런 쓰임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천리》에서 형용사가 완료상의 '-어 있다'와 결합된 예들은 (6a) 같은 운문이나 (6b)~(6d) 같은 수필의 성격을 갖는 글에서 주로 발견된다.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거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묘사와 감정 전달에 중점을 두는 글에서 주로 '붉어 있다', '푸르러 있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이상으로 형용사에 '-어 있다'가 결합된 용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삼천리》에는 그밖에도 형용사가 '-어 가다'나 '-어 오다'에 결합돼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용례들이 있었는데 4.1.5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4.1.5. 형용사+'-어 가다/오다'

'-어 가다'와 '-어 오다'는 어떤 동작이 계속해서 진행됨을 나타내는데, 이때 특정한 방향성이 전제된다. '-어 가다'는 기준 시점 이후에 동작이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어 오다'는 기준 시점 이전에 동작이 진행된 과정을 나타낸다. 이때 기준 시

점은 발화시일 수도 있지만 발화시 이전 혹은 이후일 수도 있다. 오늘날 '-어 가다'와 '-어 오다'는 동사에 결합돼 그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특정 방향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하지만 《삼천리》에는 아래와 같이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에 결합된 예가 나타난다[191].

(7) a. …당신이 가진 가슴 속의 「情熱」만은 더욱 더욱 猛烈해 가고 젊어 가고 아름다워 가 주셨으면 합니다.<1941-01-삼천리13-01-54>
b. 오호라. 거칠어 가는 이 땅에는 그만한 일꾼도 진일 복이 업섯든가?<1930-07삼천리02-04-29>
c. 먼 산에는 난데업는 불(山火)이 나서 어두어 가는 밤 속에 새밝안 색채가 선명하게 피여올낫다.<1933-01-삼천리05-01-109>
d. …朝鮮내 자본가의 투자가 많어 가는 것은 기뿐 현상이외다.<1940-10-삼천리12-09-66>
e. 그러나 차차 그를 만나게 될수롤 「동지」라는 늣김은 엷어 가고 「녀자」라는 늣김이 그에게서 밧는 늣김의 거의 전부이엿다.<1932-03-삼천리04-03-104>
f. …제 가장 가깝고 사랑하든 언니가 차차 제게서 멀어 가는 것 같어서…<1934-09-삼천리06-09-295>

위의 예에서 '-어 가다'는 형용사 '맹렬하다', '젊다', '아름답다', '거칠다', '어둡다', '많다', '엷다', '멀다' 뒤에 쓰여 상태가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형용사에 먼저 '-어 지-'를 결합해 동사로 만든 다음에 '-어 가다'를 붙여야 한다[192]. 즉, '맹렬해져 가다', '많아져 가다', '멀어져 가다' 등과 같이 써야 한다. 하지만 당시에 '-어 가다'는 '-어 지-'의 매개 없이 형용사와 직접 결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쓰임의 기원은 중세국어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보

191) 최현배(1937:520)에서는 "늙어 간다.", "도로 젊어 온다."와 같이 어떻씨에 '-어 가다', '-어 오다'가 결합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때 용언은 어떻씨가 아니라 움직씨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192) 《삼천리》 전체에서 '햇빛이 차츰 누렇게 엷어져 갑니다.<1940-06-삼천리12-06-118>'의 단 한 예를 제외하고는 형용사에 '-어 지-'가 결합되고 보조동사 '가다'가 이어진 용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동사 '가다'는 동사보다도 주로 형용사에 후행하여 형용사의 상태 변화의 지속을 나타냈는데(손세모돌, 1994:193) 이러한 쓰임이 20세기 전반기까지도 지속된 것이다.

'-어 가다'에 비해 용례 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 오다' 역시 형용사에 직접 후행할 수 있었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8) a. 仁淑의 용태가 점점 위중해 오니 明燁는 난산과, 모체의 위험을 생각하야…<1937-01-삼천리09-01-296>

b. 그랫더니 한참 잇다가 사내의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닌다. 처음에는 모긔소리만치 가늘더니 점점점 굵어 오는데…<1930-07삼천리02-04-45>

위의 예에서 '-어 오다'는 형용사 '위중하다', '굵다'에 결합돼 각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가 점점 심화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삼천리》에 나타난 시제 표현의 선어말어미 및 보조용언의 쓰임을 분석해 보았다. 20세기 전반기에는 '-었-'이 완료상을 나타내는 용법이 남아 있었고 '-고 있다'나 '-어 있다', '-어 가다', '-어 오다' 등 시상 표현 보조용언의 품사 결합 제약이 오늘날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어지는 4.2에서는 20세기 전반기 높임 표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

4.2. 높임 표현

국어의 문장에서 높임 표현을 담당하는 문법 요소에는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가 있다. 최현배(1937:461-466)은 높임 표현을 담당하는 선어말어미로 '-삽-'과 '-으시-'를 들고, 전자를 낮훔도움줄기, 후자를 높힘도움줄기라고 하였다. 낮훔도움줄기는 "그 말하는이 스스로를 낮후는 同時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을 높이는 뜻"을 나타내고 높힘도움줄기는 "그 움직임을 하는 사람을 높이는 뜻"을 나타낸다. 한편 최현배(1937:309)

에서는 마침법에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 정도에 따라 “해라(아주낮홈)”, “하게(예사낮홈)”, “하오(예사높힘)”, “합쇼(아주높힘)”의 네 가지 등분이 있고 그밖에도 “반말”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종결어미를 제시했는데 한 예로 움직씨의 베풂꼴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현배, 1937:315).

(9) a. 해라 -두루쓰히는 것: -다, -(으)니라, -(더, 리)라, -(으)마, -느니라(-나니라), -노라
-느낌에만 쓰히는 것: -구나(-고나), -도다
b. 하게: -네, -(으)ㅁ세, -데, -(는, 았, 겠)구려
c. 하오: -오(-으오, -소), -지요, -아요(-어요)
d. 합쇼: -니다[193](-느이다, -나이다, -노이다), -이다
e. 반말: -아(-어), -지

앞선 연구들에서[194] 지적한 것처럼 20세기 전반기에는 종결어미에 의한 높임의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만, 이를 위해서는 등장인물들 간의 다양한 관계, 즉 연령 차이, 성별 차이, 신분 차이 등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삼천리》에도 소설 자료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대면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 글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종결어미에 의한 상대 높임의 실현을 분석하기에는 이상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기로 하고 이 절에서는 선어말어미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높임 표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리말본』에 제시된 ‘-으시-’의 쓰임은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지만 《삼천리》

193) 합쇼체 목록을 보면 오늘날에는 하나의 어미로 인식되는 ‘-습니다’를 ‘-삽-’ 아래 오는 ‘-니다’로 분석하였다. 당시에 아직 ‘-삽-’이 선어말어미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분리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194) 강윤호(1975), 임재수(1993), 민현식(1984, 1999:209-224), 강규선(1989), 이경우(1989, 1988), 정길남(1992, 1997, 2002, 2004), 김형철(1997:318-319), 김동언(1999:83), 김의수(2000), 이명천(2000), 강지영(2007) 등이 있다.

에서는 '-으시-'가 주체 높임 외에도 상대 높임의 기능을 한 예가 보인다. 4.2.1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으시-'의 상대 높임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다. 4.2.2에서는 당시 선어말어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상대 높임의 '-삽-'에 대해 논의한다. 4.2.3에서는 '-더-'나 '-나-' 뒤에, 또는 '-삽-'의 이형태인 '-오-' 뒤에만 나타났던 상대 높임의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4.2.1. 상대 높임의 '-으시-'

《삼천리》에 쓰인 '-으시-'는 대개 아래와 같이 문장에 기술된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했다.

(10) a. …세월은 다시 순하게 흐르게 되여 명성후께서는 다시 환궁(還宮)하시엇다.<1930-07 삼천리02-04-19>

b. …祖父께서는 흔히 맛손자 되는 나를 불너 세이고, … 北征의 經綸이 결코 그릇된 國策이 아니란 말을 늘 들려주시엇다.<1933-09-삼천리05-09-91>

c. 님금은 금을 밧으시고 리용익을 불느셧다.<1930-07삼천리02-04-19>

d. 女士는 東京高師 出身으로 當時 東京 3美人 중의 한 분이시엇다.<1935-01-삼천리07-01-153>

위의 예에서 높임의 대상이 된 '명성후, 님금, 조부, 여사'는 모두 주어이다.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가 쓰였을 때에는 (10a), (10b)에서와 같이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께서'가 쓰이기도 했고, (10c), (10d)에서와 같이 쓰이지 않기도 했다.

그런데 '-으시-'가 주체 높임이 아니라 마치 듣는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 쓰인 용례들도 발견된다. 이런 예는 모두 대화체에서 나타났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으시-'의 용례 중 상대 높임의 기능을 하는 예이다.

(11) a. 형님 망녕의 말씀이시구려.<1929-06삼천리01-01-48>

b. 물론 연애 결혼이시겟지요?<1933-03-삼천리05-03-80>

c. 아, 이게 웬일이시우?<1940-10-삼천리12-09-239>

(11a)는 화자가 연장자에게 하는 말이고, (11b)는 기자가 주요한 씨 부인에게 인터뷰를 하며 질문한 것이며, (11c)는 감옥에서 죄수가 간수에게 물벼락을 맞고 난 뒤 하는 말이다. (11a)와 (11b)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굳이 주어를 상정한다 해도 (11a)는 '그것'이나 '그 말씀', (11b)는 '결혼' 등이 될 텐데, 어느 것도 주체 높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11a)의 '-으시-'는 청자인 형님을 높이고, (11b)의 '-으시-'는 문장에 드러나지 않은 인터뷰 대상자 '주요한 씨 부인'을 높인다. (11c)에는 주어가 실현되어 있다. 하지만 주어인 '이거'는 '-으시-'의 높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예들은 항상 대면 상황을 가정한 문장에서 나타났다. 임동훈(2000:149)에서 현대국어의 '-으시-'가 청자를 높이는 기능에 대해 "인지상의 출발점이 된 명사구가 주체가 된 것"이라 한 것처럼, 듣는 이가 일시적으로 문장의 주체로 상정되며 주체 높임의 '-으시-'와 호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세기 전반기에도 인지상의 출발점이 된 명사구가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대화의 상대가 될 경우에 한해서 '-으시-'는 상대 높임의 용법을 갖기도 했다.

4.2.2. 상대 높임의 '-삽-'

《삼천리》에 쓰인 선어말어미 '-삽-'은 '-잡-', '-압-', '-사오-', '-자오-', '-오-' 등의 이형태로도 실현되었다[195]. 선어말어미 '-삽-'은 15세기에는 목적어나 부사어로

195) 《삼천리》에 나타난 '-삽-'의 이형태 실현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잇삽기에', '덥삽고'와 같이 선행

쓰인 명사구를 높이는 객체 높임의 문법 요소였다. 그런데 16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문장에 실현되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한편, 객체가 아닌 상대를 높이는 용법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근대국어에 와서는 상대 높임의 문법 요소로 널리 쓰이게 됐다[196]. 선어말어미 '-삽-'은 20세기 전반기에도 주로 상대 높임을 나타내다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

《삼천리》에서 '-삽-'의 쓰임을 살펴보면, 용례의 거의 대부분이 각 호의 마지막에 실린 편집 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편집 후기는 잡지의 편집자가 독자들에게 양해나 부탁의 뜻을 전하기 위해 쓴 글이다. 수많은 지면에서 유독 편집 후기에 '-삽-'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주목을 끈다.

(12) a. 그 대신 來月의 신년호는 조선 잡지계에 稀有의 장관을 가지고 출현하겟사오니 「삼천리」의 성장을 위하야 만히 愛顧하여 주시압.<1931-12-삼천리03-12-103>

b. 본지 신년호는 비상한 환영을 밧어 거대한 부수가 발매된 후에도 아직까지 계속 주문하는 이가 잇삽기 부득이 증쇄하엿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30錢 송금하여 주문하여 주시압.<1932-02-삼천리04-02-66>

음절의 말음이 'ㅅ(ㅆ), ㅂ' 혹은 'ㄱ, ㄴ(ㄶ), ㅂ, ㅌ, ㅍ'이며 후행 음절의 두음이 자음일 경우에는 '-삽-'으로 쓰였고, 선행 음절의 조건은 동일하되 후행 음절의 말음이 모음인 경우에는 '적사오니'와 같이 '-사오-'로 실현되었다. 또한 '받잡고'와 같이 선행 음절의 말음이 'ㄷ'이고 후행 음절의 두음이 자음이면 '-잡-'으로 나타났고, '받자오니'와 같이 선행 음절의 말음이 'ㄷ'이고 후행 음절의 두음이 모음이면 '-자오-'로 실현되었다. '드르시압시며'와 같이 선행 음절의 말음이 모음이고 후행 음절의 두음이 자음이면 '-압-'으로 쓰였고, '그러하시오면'과 같이 선행 음절의 말음과 후행 음절의 두음이 모두 모음이면 '-오-'로 실현되었다. 하지만 '믿다'의 경우는 이형태 실현에 있어서 혼란이 보인다. 표기가 'ㅅ' 받침으로 나타난 '밋자오니'에서는 '-자오-'로 쓰인 반면, 'ㄷ' 받침으로 쓰인 '믿삽고, 믿사오며, 믿사오나' 등에서는 '-삽-', '-사오-'로 쓰였다. 20세기 초기 '-삽-'의 형태적 변화 및 변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황국정(2000:158-162)을 참고할 수 있다.

196) 허웅(1963)은 『첩해신어(捷解新語)』에 쓰인 '-습-'이 모두 상대 높임을 나타낸다는 점을 지적하며 17세기에 '-습-'의 높임의 대상이 객체에서 상대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이어 이현규(1985)는 16세기 후기 자료에서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여러 예들을 제시하고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상대 높임으로 변화가 시작되었고 17세기 무렵에는 이미 그런 용법이 안정화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석주연(2004)는 '-삽-'과 '-오-'가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현주(2006)은 후기 근대국어 자료에 나타난 '-숩-'과 '-읍-'은 상대 높임을 나타내지만 '-줍-'은 여전히 객체 높임의 쓰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로부터 '-줍-'이 '-숩-'의 이형태 목록을 벗어나 동사의 어근에 객체 높임의 의미를 더하는 접사로 독립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c. 來월호부터는 배전의 용기와 정성을 가지고 조흔 잡지를 꾸미어 드리겟사오니 끗까지 돌보아 주시압.<1931-10-삼천리03-10-135>

d. 화려강산 우리 반도가 나은 「삼천리일색」은 본사에서 일즉 모집을 개시한 이래 해내 해외로부터 삼백이십륙 매의 다수한 응모 사진이 드러왓삽나이다.<1931-10-삼천리03-10-38>

e. 이번 號도 매우 充實한 內容을 가지고 世上에 나오려 하엿삽든 바 아는 분이나 아실는지 마지 못할 여러 가지 事情으로 이 모양이 되어 나가게 되엇슴을 슬퍼함니다.<1929-11삼천리01-03-40>

위의 문장은 모두 『삼천리』의 편집 후기에 쓰인 '-삽-'의 예이다. 편집 후기에서는 필자가 독자에게 최대한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2a)~(12e)를 보면, 선어말어미 '-삽-' 외에도 종결어미 '-압[197], -나이다, -ㅂ니다'가 상대 높임을 나타냈다. 일반적인 글이라면 종결어미만으로도 상대 높임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독자에 대한 존경의 뜻을 최대화하여 표현하기 위해 선어말어미까지 동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삽-'은 종결어미뿐 아니라 연결어미나 전성어미 앞에도 결합되므로 문장의 끝 부분에서뿐 아니라 중간 중간에서도 높임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 '계속 주문하는 분이 있기에 부득이 증쇄하였으니'라고만 써도 문법상으로나 의미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곳곳에 '-삽-'을 첨가해 이를 '계속 주문하는 분이 있삽기에 부즉이 증쇄하였사오니'라고 쓰면 독자에 대한 높임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삼천리》에 쓰인 '-삽-'은 거의 대부분 상대 높임을 나타냈지만 일부 용례에서는 중세국어 시기처럼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객체 높임 '-삽-'의 예이다.

197) '-압'은 역사적으로 언간에서 많이 쓰였는데, 그 뒤에 '-소서' 등의 극존칭 종결어미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전반기에도 '-압'과 '-압소서'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천리》에 쓰인 편집자의 말 중에 "편집자 附記:…그러나 그 점은 양해하고 용서하여 주압소서.<1932-01-삼천리04-01-8>"와 같이 '-압-' 뒤에 '-소서'가 결합된 예들도 다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13) a. 나는 칙명을 받**잡**고 암행어사로 경상도에 두 번 단녀왔는데 지금 말하라 하는 것은 벌서 35년 전 甲辰년 때 일이외다.<1938-08-삼천리10-08-119>

b. 지원병 수만 하여도 매년 육군 대신이 上奏하와 御裁可를 받**잡**게 되는 것이다.<1940-05-삼천리12-05-218>

c. 붓그러움을 무릅쓰고 한 마듸 선생님께 이 말을 뭇**삽**나이다.<1931-03-삼천리03-03-43>

d. 그동안 兄의게서 편지는 몃 번이나 밧고서 回答을 못 하엿**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요.<1936-02-삼천리08-02-147>

(13a), (13b)는 높임의 대상이 목적어이다. (13a)에서는 임금의 명령을 뜻하는 '칙명'이, (13b)에서는 임금의 허락을 뜻하는 '어재가'가 높임의 대상이다. (13c), (13d)는 높임의 대상이 부사어이다. (13c)에서는 '선생님'이, (13d)에서는 '형'이 높임의 대상이다. 높임의 대상이 목적어인 경우는 객체 높임으로 쓰인 것이 분명하지만, (13c), (13d)와 같이 높임의 대상이 부사어인 경우는 '선생님', '형'이 곧 청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 높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4.2.3. 상대 높임의 '-이-'

20세기 전반기에 '-이-'는 선어말어미로서의 자격은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상대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형태소의 자격은 유지하고 있었다. 원래 '-이-'는 중세국어에서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였지만 점차 그 기능이 약화되면서 문장 내에서 탈락되는 일이 잦아졌고 현재에 와서는 형태소의 자격마저 잃게 되었다.

《삼천리》에 쓰인 용례를 보면, '-이-'는 용언의 어간에 바로 결합되지 못하고[198)]

198)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간에 직접 결합될 수 있었다.
예) 對答ᄒᆞ샤ᄃᆡ 뉘읏브디 아니ᄒᆞ이다 ᄒᆞ시고…<1459월인석,07,054-3a>

'-나이다', '-더이다', '-리이다', '-오이다'와 같이 언제나 다른 선어말어미에 후행하였다. 다음은 '-이-'가 '-나-, -더-, -리-, -삽-(-오-)'에 후행한 예이다.

(14) a. 나는 그때 西伯利亞鐵道에서 돈지갑을 자조 경계하면서 피곤한 잠을 드러섯나이다.<1931-05-삼천리03-05-61>
b. …上海停車場을 떠날 때는 까닭 모를 눈물까지 흐르더이다.<1930-09-삼천리02-05-54>
c. …이야기를 듣고서는 속으로 픽 하지 아니할 수 없으리이다.<1936-06-삼천리08-06-212>
d. 이리되면 民族的 自恰에 吾族은 勇躍歡喜하오이다.<1933-04-삼천리05-04-16>

위의 예에서 '-이-'는 모두 상대 높임을 나타낸다. 위의 예에 나타난 '-나이-', '-더이-', '-오이-'는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내-', '-데-', '-외-'로 축약되어 쓰이기도 했다.

(15) a. 귀하의 번창을 축하하옵내다.<1932-02-삼천리04-02-108>
b. 오늘 노마아비가 장에 가서 밤 한 말 사왓는데 길기는 커넝 동글동글합데다.<1930-10삼천리02-06-41>
c. …女性을 좀 깔보는 듯하야 마지메한 對答을 하기가 甚히 거북하외다.<1930-09-삼천리02-05-51>

이처럼 축약이 되었다 해도 '-이-'는 여전히 상대 높임을 나타내며 형태소의 자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당시 '-습니다', '-습디다'와 같이 '-이-'가 형태소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음운론적 축약형인 '-습내다', '습데다'와 달리 '-습니다', '-습디다'는 형태론적 재구조화의 결과이다.

예) 대인의 소견이 극히 맛당ᄒᆞ이다.<1760낙무십,208>

(16) a. 조용한 틈에 말슴하려구 급히 왓습니다.<1935-01-삼천리07-01-213>

b. 갈맥이 날고 배가 갑니다.<1934-06-삼천리06-07-195>

c. 건물은 모다 벽돌노 큼직큼직하게 지엿습디다.<1935-09-삼천리07-08-60>

d. 듯싸온 則 高雄港에는 조선동포 재산가 2, 3명이 이서서 모든 것을 잘해 나간다고 합디다.<1935-09-삼천리07-08-61>

오늘날에는 '-습니다'와 '-습디다'만 쓰인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삽나이다>-삽내다>-습니다', '(-삽더이다)>-삽데다>-습디다'의 단계별 형태가 뒤섞여 쓰였다. 서로 다른 형태소가 결합한 형태, 음운론적으로 축약된 형태, 형태론적 재구조화를 겪은 형태 중 어떤 것이 가장 우세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천리》에 나타난 용례를 분석해 보았다. 변이형을 모두 포함해 용례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99].

<표 38> '-삽나이다/-삽내다/-습니다', '-삽더이다/-삽데다/-습디다'의 빈도

	빈도	백분율
-{삽}+나+이+다	41	0.3%
-{삽}+내+다	6	0.0%
-{습}+니+다	12,305	99.6%
-{삽}+더+이+다	0	0%
-{삽}+데+다	175	82.2%
-{습}+디+다	38	17.8%

'-삽나이다/-삽내다/-습니다'의 경우, '-습니다'가 99%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기 때문에 '-삽나이다'나 '-삽내다'는 극소수의 용례에 나타난 화석형 정도로 보아도 무방하다. 즉, 20세기 전반기에 이미 종결어미 '-습니다'가 형태적으로 정착돼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삽더이다/-삽데다/-습디다'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

199) 용례 추출 시 깜짝새에서 검색어별로 종성만 일치시키는 조건 '3'과 어절이 일치해야 하는 조건 '7'을 사용하여 그 변이형들을 모두 추출하였다(삽나이다(3777), 삽내다(377), 습니다(377), 삽더이다(3777), 삽데다(377), 습디다(377)). 그런 다음 검색어를 정렬해 '반갑나이다' 등과 같이 어간 말음이 'ㅂ'일 뿐 '-삽-'의 예가 아닌 용례들을 제외하였다.

삽더이다'의 용례는 보이지 않지만, 그 축약형인 '-삽데다'가 82.2%로 가장 많이 쓰였고 '-습디다'는 17.8%였다. 이러한 쓰임을 통해 볼 때 '-습니다'에 비해 '-습디다'는 당시 아직 하나의 문법 형태로 굳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습니다'와 '-습디다'의 정착 정도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나-'와 '-더-'의 형태소로서의 위상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당시 거의 소멸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쉽게 '-니-'로 대체될 수 있었을 것이고, '-습니다'가 '-삽나이다'로 소급된다는 인식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더-'는 오늘날처럼 당시에도 선어말어미로 널리 쓰였기 때문에 '-더이-'는 쉽게 '-디-'로 대체될 수 없었고, '-습디다'가 '-삽더이다'로 소급된다는 인식도 상대적으로 컸을 것이다.

지금까지 《삼천리》에 나타난 높임의 선어말어미를 분석해 20세기 전반기 높임 표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어지는 4.3에서는 20세기 전반기 부정 표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

4.3. 부정 표현

국어의 문장에서 부정 표현을 담당하는 문법적 요소에는 부정 부사와와 부정 보조용언이 있다. 최현배(1937)에서는 부정 부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지만 부정 보조용언을 '지음도움움직씨'라 하고 그 목록으로 "하지 아니함을 보이는 '아니하다'", "할 수 없음을 보이는 '못하다'", "말림이나 그만둠을 보이는 '말다'"의 세 가지를 들었다(514쪽). 이때 '아니하다'의 예에 '않다' 꼴을 포함시켜 '아니하다'와 '않다'를 하나로 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말본』에 기술된 부정 표현은 오늘날의 쓰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삼천리》에 쓰인 용례들을 살펴보면 문체론적으로 그리고 문법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러 가지 변화가 확인된다.

20세기 전반기는 부정 표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일단 '아니하다'에서 '않

다'로의 재구조화가 진행되던 시기였고 그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안하다'도 함께 쓰이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부정 부사 '아니'와 '안'도 공존 양상을 보였는데 《삼천리》에는 이들 부정 부사가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개재된 쓰임도 보였다. 그밖에도 '아니다'가 '-지 아니다'의 꼴로 부정의 보조용언으로 쓰이기도 했으며, '말다'의 금지의 의미나 서법 제약이 오늘날보다 약해 '아니하다'와 '말다'가 서로 대치되는 쓰임도 보였다. 이러한 문법적 변화로 인한 변이 외에도 한문의 영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이도 눈에 띈다. 용언 앞에 결합된 '不'이 명제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거나 '無하다', '없다'가 부정 용언 대신 쓰이기도 했다.

4.3.1에서는 부정 부사 '아니'와 '안'의 공존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4.3.2에서는 부정 부사가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개재된 쓰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4.3.3에서는 부정의 보조용언도 '아니하다', '안하다', '않다'의 공존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각 형태의 용법과 분포에 대해 알아보겠다. 4.3.4에서는 부정의 보조용언으로 쓰인 '아니다'의 쓰임에 대해, 4.3.5에서는 부정의 보조용언 '말다'의 쓰임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리고 4.3.6에서는 한문의 부정소 '不' 등이 우리말 문장에서 그대로 쓰여 명제에 대한 부정을 나타낸 용례들에 대해 논의하고, 4.3.7에서는 역시 한문의 영향으로 우리말 문장에 남아 있던 부정 표현 '無하다', '없다'에 대해 논의하겠다. 마지막으로 4.3.6에서는 부정의 요소가 두 번 쓰여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중부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4.3.1. '아니'와 '안'

'안'은 '아니'의 축약형으로 19세기 말부터 문헌상에 나타났다(이지영, 2008a:51)[200].

---

200) 《세종역사》에서 검색했을 때 부사 '안'의 최초 용례는 『국한회어(1895)』에 나타난다. 『국한회어』는 우리말을 표제어로 하고 이를 한자나 한문으로 뜻풀이 한 최초의 국한대역사전이다. 이 자료에 보면 '공든 탑이 안 문어진다 功塔不壞<1895국한회,031>, 꿩의 기름 안 먹다 雉膏不食<1895국한회,054>' 등과 같은 용례들이 보이는데, '안'은 한자 '不'로 뜻풀이 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안'을 사용하고 의고적인 문체의 효과를 낼 때에만 '아니'가 쓰이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아니'도 '안'과 함께 널리 쓰였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아니'의 예이다.

(17) a. 그것도 얼마 지난 후에 한쪽 신을 안이 신엇다는 것을 알게쯤 되여스니까요.<1930-04삼천리02-02-57>

b. 獨逸이 膠州灣을 中國으로부터 빼앗자 露西阿도 몃츨이 아니 지나서 旅順大運을 점령하고 말엇다.<1930-05삼천리02-03-17>

c. 이 아니 깃분 일인가.<1935-11-삼천리07-10-199>

위의 예에서처럼 '아니'는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널리 쓰였지만 당시 '아니'는 19세기 말부터 나타난 '안'과 경쟁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20세기 전반기에 '안'과 '아니'의 쓰임을 계량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 《삼천리》에 쓰인 '아니'와 '안'의 빈도를 조사하고, 이를 《1890-1900학회지》와 《현대》에서의 빈도와 비교해 보았다[201]. 여기서 《세종역사》를 이용하지 않고 학회지 말뭉치를 이용한 까닭은 축약형 '안'의 용례가 처음 나타난 것이 19세기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890-1900학회지》는 그 규모가 약 35만 어절로 《삼천리》나 《현대》에 비해 작기 때문에 총 규모를 300만 어절로 가정하고 빈도를 정규화하였다.

201) 《세종역사》와 《삼천리》에 쓰인 용례를 추출하기 위해 깜짝새에서 검색어에 '아니', '안이', '안'을 넣고 용례를 뽑은 뒤, 보조용언으로 쓰인 '-지 아니하다/안이하다/안하다' 및 형용사 '아니다'의 용례를 제외하였다. 또한 명사 '안'과 '알다'의 활용형 '안' 등을 제외하였다. 《현대》는 어휘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미 분류 번호를 이용해 부사로 쓰인 용례를 바로 추출할 수 있었다. 또한 보조용언이 아닌 '아니 하다'는 부사 '아니'와 동사 '하다'로 나누어 분석해 해당 용례를 '아니'의 용례에 포함시켰다. 분석 대상 용례에 쓰인 '아니 하다'는 모두 '안 하다'로 치환이 되고, '않다'로는 치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용언이 아니라 부사 '아니'가 '하다'를 수식하는 구조로 분석한 것이다. 이는 '안 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표 39> 부정 부사 ‘아니’와 ‘안’의 빈도 비교

	1890-1900학회지		삼천리		현대	
	정규화 빈도[202]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니	591	99%	2,102	41%	443	12%
안	9	1%	3,039	59%	3,257	88%
총합	600	100%	5,141	100%	3,700	100%

위의 표를 보면, 《1890-1900학회지》에서는 ‘아니’의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삼천리》로 오면서 ‘안’이 ‘아니’를 약간 앞서게 됐고, 《현대》에서는 ‘안’이 ‘아니’보다 훨씬 더 우세한 쓰임을 보이게 됐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20세기 전반기에는 ‘안’과 ‘아니’가 둘 다 널리 쓰였지만 ‘안’이 점차 득세해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삼천리》의 용례를 살펴보면 ‘안’과 ‘아니’는 서로 교체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같은 유형의 구문에 쓰인 ‘아니’와 ‘안’의 예를 대응시켜 제시한 것이다.

(18) a. 앗차 여기서 빼노하서는 **아니** 될 것이 잇다.<1934-06-삼천리06-07-88>

a′. 이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1941-03-삼천리13-03-95>

b. 한편 아버지를 해외에 보낸 그의 따님은 금년 15살밧게 **아니** 되엇스나…<1930-07삼천리02-04-56>

b′. …數字로 따지면 겨우 3년재밧게 **안** 된 것이다.<1931-10-삼천리03-10-121>

c. …삽시간에 4, 5台의 「택시-」가 우-몰려와서 「령감 택시-**아니** 타시렵니까?」<1930-09-삼천리02-05-59>

c′. 『댁에 눈 **안** 치시렵니까?』 『어려니 칠가봐 걱정이오』 <1935-03-삼천리07-03-261>

위의 대응 쌍을 보면, 단순한 명제 부정의 경우는 물론이고 문맥에 따라 미묘한

202) 정규화하기 이전의 빈도는 ‘아니’가 69, ‘안’이 1이었다.

뉘앙스를 전달하는 경우까지도 ‘아니’와 ‘안’은 서로 교체될 수 있었다. (18a)의 ‘~어서는 아니/안 되다’ 구문에서 부정 부사는 문맥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정을 나타고, 그 결과 금지의 뉘앙스를 전달한다. 이 경우 ‘아니’와 ‘안’은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었다. (18b)의 ‘~밖에 아니/안 되다’ 구문에서 ‘아니/안’은 조사 ‘-밖에’와 어울려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 경우에도 ‘아니’와 ‘안’은 서로 교체될 수 있었다. (18c)는 ‘아니/안 ~으렵니까?’의 의문문으로, 부정 부사와 의문형 종결어미가 만나 완곡하게 권유의 뜻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도 ‘아니’와 ‘안’은 서로 바꿔 쓸 수 있었다.

이처럼 20세기 전반기에 ‘안’과 ‘아니’는 일반적으로 서로 교체가 가능했지만 극소수의 특정 구문에 한해서는 교체가 불가능했다. 부정 부사 ‘아니’의 전형적인 구문 중에 ‘아니’ 대신 ‘안’이 쓰인 예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로는 ‘그 아니 ~은가’와 같은 수사 의문문이 있다.

(19) a. 그 對照가 이 **아니** 좃슴니까.<1931-04-삼천리03-04-34>
b. …그 手段 그 **아니** 놀나운가.<1934-08-삼천리06-08-64>
c. 겨우 50만원의 주식회사로서 상반기 6개월 동안에 100여 만원을 버을었다니 이 **아니** 놀나운 일인가.<1938-12-삼천리10-12-12>
d. 제가 기와집 쓰고 살면 남들도 다 긔와집을 쓰고 살게 되어야 그 **아니** 조흘 것일가.<1938-05-삼천리10-05-335>

‘지시 대명사+아니+용언+의문형 종결어미’로 구성된 위와 같은 의문문은 사실 의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반어법으로 표현한 수사 의문문이다. 《삼천리》에서 수사 의문문에 부정 부사 ‘아니’ 대신 ‘안’이 쓰인 예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구문에서는 ‘아니’와 ‘안’이 자유롭게 교체되었는데 유독 수사 의문문에서만 ‘안’을 쓰지 않은 것은, 해당 구문이 ‘안’이 등장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굳어진 표현으

로 전해져 내려 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예는 중세·근대국어 자료에 나타난 수사 의문문이다.

(20) a. 眞實로 그러ᄒᆞ니여 이 **아니** 내 鹿母夫人ᄋᆡ 나ᄒᆞᆫ 고진가<1447석보상,11:032b>
  b. 無去無來亦無住를 이 **아니** 허물일가<1796인과곡,참선곡,001b>
  c. 그ᄃᆡ 내 ᄆᆞᄋᆞᆷ이 금옥 ᄀᆞᆺᄐᆞ믈 귀히 너기라 이 **아니** 즐거오냐.<17??낙선삼,113>
  d. 이제 ᄆᆡᄌᆞ의 곳다온 ᄌᆞ질로ᄡᅥ 이런 사ᄅᆞᆷ의게 의탁ᄒᆞ믈 앗겨 ᄒᆞᄂᆞ니 이 **아니** 가련ᄒᆞ냐?<17??낙형오,120>

이처럼 '이 아니 ~은가/으냐'의 구조를 갖는 수사 의문문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자료에 널리 나타났다. 이러한 구문 유형은 축약형인 '안'이 등장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굳어진 표현으로 쓰였기 때문에 《삼천리》에서도 해당 구문에 '안'이 쓰인 예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4.3.2. $V_{본}$+부정 부사+$V_{보조}$

오늘날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쓰일 때 부정부사는 본용언 앞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부정부사가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올 수도 있었다. 《삼천리》에 쓰인 용례 중에는 '아니', '안', '못'이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나타난 예가 상당수이다[203].

203)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쓰일 때 부정 부사의 위치는 표준어에서는 부정 부사가 본용언에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방언에 따라서는 《삼천리》에 쓰인 용법과 같이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부정 부사가 쓰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또한 본용언 자리에 형용사가 쓰이느냐 동사가 쓰이느냐에 따라 부정 부사의 삽입에 대한 거부감의 정도도 다를 수 있다. 즉, '무서워 안 해'라고 했을 때는 어색하긴 하지만 허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반면 '먹게 안 돼'라고 했을 때는 단번에 비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21) a. 그 원인은 노동자가 부족하여 김매는 일, 기타 작업이 충분하게 **아니** 되어서였다.<1938-10-삼천리10-10-47>
b. 저는 죽엄을 두려워 **아니** 하고 생명을 다하려 합니다.<1938-08-삼천리10-08-199>
c. 그도 사람인데 어찌하여 조곰도 무서워 **안** 하고 한 무리가 되어 가지고 나를 잡아먹고저 하는가?<1935-06-삼천리07-05-295>
d. 朝鮮엔 아직 그 이름이 알려 **안** 졌으나…<1940-05-삼천리12-05-162>
e. 奔忙한 몸이 소설 1회도 매일 계속하여 보게 **못** 되엿다.<1932-12-삼천리04-12-66>
f. 아직 茶는 맨들어 **못** 봤어요. 저두 맨들 줄 모르지만 저이두 모르실 검니다.<1939-06-삼천리11-07-115>

위의 예를 보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어미가 '-어'이든 '-게'이든, '아니', '안', '못'이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쓰였다. 이처럼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부정 부사가 쓰이는 것은 20세기 전반기에 흔히 나타나던 현상이었다.

이상으로 4.3.1과 4.3.2에서는 《삼천리》에 나타난 부정 부사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부정 용언의 용례들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부정 용언에서도 부정 부사와 마찬가지로 당시 '아니'에서 '안'으로의 축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아니하다', '안하다', '않다'가 공존하고 있었다.

4.3.3. '아니하다>안하다>않다'의 재구조화 과정

20세기 전반기 자료에 공존하던 부정의 보조용언 '아니하다', '안하다', '않다'는 역사적으로 볼 때 순차적 발전을 보여주는 형태들이다. '아니하다'에서 '아니'가 '안'으로 축약되며 '안하다'라는 형태가 생겨났고, 또 다시 '하-'가 어간 말 모음 'ㅎ'으로 변화해 '않다'가 된 것이다. 이지영(2008b:51)에서는 18세기 이전에 '아니ᄒᆞ다>안ᄒᆞ다'로의 1단계 변화가 일어났고 18세기 후반에 '안ᄒᆞ다>않다'의 2단계 변화가 일어나 '안ᄒᆞ다'

와 '않다'가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공존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2단계 변화는 비슷한 시기에 '만ᄒᆞ다'가 '많다'로 재구조화되는 등 형태가 유사한 다른 용언의 변화에 유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20세기 소설 자료를 10년 단위로 계량적으로 분석한 남윤진(2011)은 '않다'가 '아니하다'의 빈도를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 1920년대부터라고 하여 20세기 전반기에 '않다'와 '아니하다'가 쓰인 비중이 크게 변화했다고 하였다.

《삼천리》에서도 '아니하다', '안하다', '않다'의 예가 모두 나타났는데 이 절에서는 이 세 보조용언의 쓰임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통시적 변이형들의 경쟁 양상이 어떠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는 '않다'가 쓰이고 고어 투를 사용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아니하다'가 쓰이며 '안하다'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20세기 전반기에도 '안하다'는 일부 용례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아니하다'보다 '않다'가 더 널리 쓰였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보조용언 '아니하다', '안하다', '않다'의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40> 부정 보조용언 '아니하다', '안하다', '않다'의 빈도 및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지 아니하다	2,092	14%
-지 안하다	98	1%
-지 않다	12,250	85%
총합	14,440	100%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아니하다, 안하다, 않다' 전체 용례 중 '않다'가 85%였고, '아니하다'가 14%, '안하다'가 1%를 차지했다. 즉,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않다'가 《삼천리》에서도 제일 우세한 쓰임을 보였고, '아니하다'도 일부 용례에서 쓰임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니하다'에서 '않다'로 오는 중간적 형태에 해당하는 '안하다'는 1%로 매우 적은 쓰임을 보였고 결국 후대로 오며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변화 이전의 형태와 변화가 종착된 이후의 형태는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안하다’는 사라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니하다’와 ‘않다’의 매개 역할을 한 ‘안하다’의 존재는 20세기 전반기 문헌에 나타난 용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 a. 畓은 이와 가치 增加되엇스되 自作畓의 增加는 겨우 1천3백4십2 町步밧게 되지 안하고…<1931-05-삼천리03-05-20>
b. …에서 말하려는 殖産은행을 눌너갈 재벌이 아즉까지는 생겨나지 안하얏다.<1932-04-삼천리04-04-23>
c. …우리는 이에 대하야 가장 면밀한 주의와 정확한 분석을 파악하지 안하면 아니 될 줄로 자신한다.<1932-05-삼천리04-05-10>
d. …그 후 얼마 되지 안하야 第一 중요한 左手에 激熱한 神經痛이 생겨…<1932-12-삼천리04-12-79>
e. …세계 엇던 민족에 비겨도 북그럽지 안할 만한 문명의 생활을 하야왓다는 유일의 증거품이오 과장품이다.<1929-06삼천리01-01-18>
f. 나는 여긔 대해서 대답하고 십지 안햇지만…<1931-04-삼천리03-04-41>
g. …엇더한 상태가 전쟁이냐 아니냐 하는 의문을 生하는 實例도 적지 안하다.<1935-11-삼천리07-10-69>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안하다’는 ‘생겨나지 안하얏다’와 같이 동사를 부정하기도 하고 ‘적지 안하다’와 같이 형용사를 부정하기도 했다. 또한 ‘안햇다’와 같이 종결형으로 쓰일 수도 있었고 ‘안햇지만’, ‘안햇스나’와 같이 연결형으로 쓰일 수도 있었으며 ‘안하는’, ‘안한’, ‘안할’과 같이 관형형으로도 쓰이기도 했다. 그리고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해 ‘안하얏다’, ‘안햇다’ 등으로 쓰일 수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활용형을 볼 때, ‘안하다’는 그 용례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아니하다’나 ‘않다’와 마찬가지로 당대 화자의 직관 속에 살아 있던 문법 형태였다고 생각된다.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지 아니하다’, ‘-지 안하다’, ‘-지 않다’는 분포 환경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23) a. 저러케 만히 煙氣를 삼켜도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잇을가 하는 생각도 업지 아니하엿습니다.<1931-03-삼천리03-03-47>

b. …엇던 국가든지 上古史를 뒤지면 擧皆此類의 사상이 업지 안하지마는…<1933-04-삼천리05-04-32>

c. …그들과 合流할 수 없다는 둥 이러한 種類의 反對意見이 없지 않다.<1934-08-삼천리06-08-152>

위의 예는 모두 '없다'에 보조용언이 후행하는 예로, 20세기 전반기에 '아니하다', '안하다', '않다'가 대치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4.3.4. '-지 아니다'의 쓰임

오늘날 '아니다'는 본용언으로만 쓰이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지 아니다'로 실현돼 보조용언으로 쓰이기도 했다.

(24) a. 만천하 諸君子 그 누가 김씨의 世間의 公約과 違反된 행위에 驚愕하지 아니며 따라 憤慨하지 아니할가.<1935-09-삼천리07-08-67>

b. 그렇지 아니면 茶社나 戱院에서 正午 12시부터 夜 12시까지 세월을 보내고 있다.<1941-06-삼천리13-06-147>

c. 그러치 아니면 일부러 당하고 인난가?<1932-01-01-삼천리04-01-42>

d. …통일적으로 한 진영에 합류치 아니면 아니 될 것이다. <1933-03-삼천리05-03-27>

하지만 위의 예에서와 같이 '아니다'가 부정의 보조용언으로 쓰인 예는 다른 부정

보조용언에 비해 매우 적었고, (24b), (24c)처럼 '그렇지 아니면'의 꼴로 쓰인 예나 (24d)처럼 이중 부정에 쓰인 예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부정 보조용언 '아니다'는 분포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데다 그 기능도 '아니하다'류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후대로 오며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4.3.5. '-지 말다'의 쓰임

부정의 보조용언 중 '말다'는 오늘날 서법 제약을 받아 주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쓰이고 일부 예외적 구문에서만 평서문이나 의문문에 쓰인다[204]. '말다'가 평서문에 쓰인 예들은 상위문 동사가 바람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거나, '말다' 뒤에 '~어야 하다'가 결합돼 의무를 나타낼 때 정도로 한정된다. '말다'가 의문문에 쓰이는 경우는 '갈까 말까?'나 '내일 모임에 가지 말까?'처럼 상대가 '가.' 또는 '가지 마.'와 같이 명령문으로 대답할 것을 가정하고 질문할 때에 한정된다.

20세기 전반기에도 부정의 보조용언 '말다'는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주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쓰였다.

(25) a. 「살아서는 <u>도라오지 말어라</u>」하는 엄숙한 어머니의 교훈과…<1938-08-삼천리10-08-189>

b. 내가 당신을 안다고 <u>생각지 마시오</u>.<1937-01-삼천리09-01-330>

c. 이쑤시개질을 남의 압헤서 <u>하지 말자</u>.<1934-08-삼천리06-08-143>

d. 난 날부터 죽는 날 까지 배호자는 정신을 하로도 <u>잇지 맙시다</u>.<1933-04-삼천리05-04-101>

---

204) '좀 하지 말지?'처럼 의문문에 쓰일 때도 있지만 이때 의문문은 명령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문문과는 차이가 있다.

보조용언 ‘말다’는 위와 같이 주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쓰였지만 일부 예에서는 평서문이나 의문문에 쓰이기도 했다. 아래의 표는 《삼천리》에서 ‘-지 말다’가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쓰인 용례가 ‘-지 말다’의 전체 용례 중 어느 정도였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표 41> ‘말다’가 명령문, 청유문에 쓰인 예[205]

	빈도	백분율
명령문	630	56%
청유문	115	10%
기타	387	34%
총합	1,132	100%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지 말다’의 전체 용례 중 56%는 명령문에 쓰인 예였고 10%는 청유문에 쓰인 예였다. 그리고 나머지 34%는 평서문이나 의문문에 쓰인 예였다. 이 절의 남은 부분에서는 34%에 해당하는 예들에서 어떠한 쓰임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삼천리》에는 ‘말다’가 명령문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금지의 의미가 뚜렷한 예가 있었다. 아래와 같이 ‘∼지 말 것’, ‘∼지 말 바’, ‘∼지 말 사(事)’, ‘∼지 말 일’ 등으로 쓰인 예들이다.

(26) a. 다이야몬드의 색을 분별하는 데는 (1) … (4) 전기라든가 기타 인공적인 광선에서는 보지 말 것.<1935-09-삼천리07-08-298>

b. 참말의 그리스찬 된 자는 결코 제 재산을 가지지 말 바이다.<1933-10-삼천리05-10-74>

c. 그런 고로 百千가지 예방법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爲先 제1조에 절대적 관심 又는 경계

205) 《삼천리》에서 ‘-지 말다’의 용례 검색 시 깜짝새에서 키워드에 ‘지_말’, ‘지말’, ‘지_마’, ‘지마’, ‘지_맙’, ‘지맙’, ‘치_말’, ‘치말’, ‘치_마’, ‘치마’, ‘치맙’을 넣고 용례를 추출한 뒤 눈으로 검토하며 불필요한 예를 제외하였다.

를 가저야 할 것은 어데까지 환자의게 불안과 불평을 주지 말 事다.<1941-06-삼천리13-06-141>

d. 남녀 간 피차 理智的으로 판단하고 감정에 흐르지 말 일.<1933-04-삼천리05-04-44>

위의 예는 명사로 끝나거나 지정사가 결합돼 평서형으로 끝났지만 의미상으로는 명령을 나타낸다. ‘말다’는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어야 하다’와 결합돼 의무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때에도 금지의 의미가 실현됐다고 볼 수 있다.

(27) a. …이 기대를 저바리지 말어야 할 것임니다.<1931-10-삼천리03-10-13>

b. 인제는 정말 나서지를 말어야지. 설교를 하지 말어야지.<1935-09-삼천리07-08-258>

한편,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금지의 뜻을 갖지 않는 ‘말다’가 ‘-기’ 명사절에서 부정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때 상위문 서술어 자리에는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바람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였다.

(28) a. 秋汀은 내가 떠나지 말기를 바란 듯하나 말로는 표시하지 아니하엿다.<1930-11-삼천리02-07-34>

b. …이 점을 深思하야 不適者가 不適所에 오래 머믈지 말기를 요망한다.<1935-10-삼천리07-09-158>

c. …나는 日本국민이 다시는 『日中親善』이라는 말을 하지 말기를 진정으로 간구한다.<1937-01-삼천리09-01-83>

d. …그들의 이상이 공상에 끈치지 말어지기를 빌며…<1932-03-삼천리04-03-62>

위의 예를 보면, 상위 서술어로 ‘바라다’, ‘요망하다’, ‘간구하다’, ‘빌다’와 같이 바람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쓰였다. 상위 서술어 자리에 바람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아래와 같이 ‘～지 말 걸’, ‘～지 말았으면 ～했을 텐데’와 같이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에서도 평서문에 ‘말다’가 쓰였다.

(29) a. 「별을 안거든 울지 말걸」<1935-10-삼천리07-09-269>

b. 보지 말고, 듯지 말고, 말하지 말엇스면 벌서 成佛이라도 하엿스련만…<1930-11-삼천리02-07-56>

c. …차라리 봄을 보지 말앗드면 하는 생각까지 난다.<1930-05삼천리02-03-76>

이러한 예도 바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28)의 예들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상위 서술어 자리에 약속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일 때도 ‘-기’ 명사절에 ‘말다’가 쓰일 수 있었다.

(30) a. 그러고 그 다리를 다 건닐 때까지 결코 환성을 치지 말기로 약속하자.<1930-11-삼천리02-07-1>

b. 이 단체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활동의 평가에는 일절 언급치 말기로 하고 …<1932-03-삼천리04-03-23>

c. …또 인도 청년은 히마라야 산맥(山脈)의 힌눈으로 영원히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변치 말기를 맹세하엿습니다.<1932-05-삼천리04-05-14>

위의 예에서 ‘말다’가 쓰인 ‘-기’ 명사절은 사실상 청유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0a)는 ‘환성을 치지 말자고 약속하자’, (30b)는 ‘일절 언급치 말자고 하고’, (30c)는 ‘사랑이 변치 말자고 맹세하엿습니다’의 의미인 것이다.

아래의 예는 《삼천리》에서 ‘말다’가 평서문에 쓰인 또 다른 예로, 금지의 뜻을 갖지도 않고 바람이나 약속을 나타내는 상위 서술어가 쓰이지도 않았다.

(31) a. 문인이 직혀야 할 절개에 두 가지가 잇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죄인이 되지 말메 잇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文學上 주장을 朝夕輒變하지 말메 잇다.<1930-04삼천리

02-02-24>

b. …王宮一手의 群臣들은 王妃의 뜻에 어그러지지 말기에 汲汲하엿스며…<1930-04삼천리02-02-28>

c. 黃과 姜은 벌서 못 참겟다는 드시 머리를 숙이고 잇다. 아마 내려오는 눈물을 病人에게 보이지 말려고 하는 애처러운 로력이리라.<1930-07삼천리02-04-35>

d. 오락은 오락하는 그 사람에게 수고를 주지 말면서 어데까지든지 긴장하고 발랄하야 피로한 신체에 원기를 고무하도록 되여야 된다.<1932-02-삼천리04-02-68>

e. 그러고 단오나 추석가튼 명절에 경품을 걸고 떰핑的 大廉賣市를 백화점에서 버리면 비록 상품은 빈약하나마, 그 亦 남을 따라 모다 廉賣市를 버리어 상품 시장을 빼앗기지 말기에 노력햇다.<1935-11-삼천리07-10-144>

f. …돈이나 받고 백이라는 대로 백여 놓기만 한 무주의한 사진도 내여 놓지 말도록 주의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1937-01-삼천리09-01-265>

21세기 화자의 직관으로 볼 때 (31a)는 '하나는 죄인이 되지 않음에 있고'로, (31b)는 '군신들은 왕비의 뜻에 어그러지지 않기에 급급하였고'로, (31c)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로, (31d)는 '오락은 오락하는 그 사람에게 수고를 주지 않으면서'로, (31e)는 '상품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에 노력했다'로, (31f)는 '무주의한 사진도 내여 놓지 않도록 주의하고'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이처럼 '않다'가 쓰일 자리에 '말다'를 쓸 때가 많았다[206]. 이러한 쓰임을 볼 때 20세기 전반기에 '말다'와 '않다'는 그 용법이 완전히 구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6) 허재영(2002:182)는 15~18세기까지는 '-디 말다'가 주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쓰였고 간혹 '아니ᄒᆞ다'를 대체하는 경우가 발견되었지만 19세기 자료에는 '말다'가 '아니ᄒᆞ다'를 대체한 사례가 매우 많아졌다고 하였다. 《삼천리》에서도 '말다'가 '아니하다'처럼 단순 부정을 나타낸 예가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이 중세·근대국어 시기에는 많지 않다가 후대로 오며 증가한 것이라면 이것이 '말다'의 문법적·의미적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후대로 오며 자료의 유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문면에 드러나게 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

4.3.6. 명제를 부정하는 ‘不’

《삼천리》에 쓰인 부정 표현 중 ‘不’은 당시 문장에 남아 있던 한문의 영향을 보여준다.

(32) a. 그러나 長鞭이 馬腹에 不及함을 엇지하리요.<1929-09삼천리01-02-12>
b. 日本軍이 이에 應戰은 하엿스나 衆寡不敵으로 敗負를 不免케 되엇더라.<1929-09삼천리01-02-13>
c. 世人이 요구하는 방향이 不同하니 혹은 權位 혹은 勢力 혹은 金錢 혹은 名譽 등이다.<1929-09삼천리01-02-15>
d. 中國 작가동맹의 작가들은 시나 소설을 집필함에 際하야 서명은 不記하며…<1931-12-삼천리03-12-64>

(32a)의 ‘不及하다’는 ‘미치지 못하다’라는 뜻이고 (32b)의 ‘不免케 되다’는 ‘면치 못하게 되다’라는 뜻이다. (32c)의 ‘不同하다’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고 (32d)의 ‘不記하다’는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즉, 단순 부정의 ‘아니하다’, ‘않다’나 능력 부정의 ‘못하다’ 등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한문 투로 표현한 것이다.

위의 예에서 ‘不’은 서술어로 쓰인 용언에 결합됐지만 아래와 같이 실질적인 서술어 뒤에 나타난 양상적 요소에 결합되기도 했다.

(33) a. 安南은 佛蘭西의 保護를 承認하고 順化駐剳佛國監督官의 仝意들 엇지 못하면 他國과 交通함을 不得함.<1930-09-삼천리02-05-16>
b. 이제는 음악과 예술이 獨逸을 위로하기에 不能하다.<1935-08-삼천리07-07-111>
c. …도덕적 반항주의는 당시 청년의 洽然히 歸依한 바 된 감이 不無하얏던 것이다.<1929-09삼천리01-02-17>

(33a)에서 '他國과 交通함을 不得함'은 '타국과 교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때 '得'은 한문의 가능 조동사인데 언해문에서 흔히 '得ᄒᆞ다'로 쓰였던 것이 20세기 전반기까지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不得하다'는 명제의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한 부정을 나타낸다. (33b)의 '不能하다' 역시 '~을 수 없다'의 의미이며 (33c)의 '不無하다'는 '없지 않다'로 풀이될 수 있는 이중부정형이다. 이처럼 '不'은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한문식 표현에 결합돼 문장을 부정할 수 있었고, 부정을 나타내는 용언에 결합돼 이중부정을 실현시킬 수도 있었다.

4.3.7. '無하다'와 '없다'

20세기 전반기의 부정 표현 중에는 '無하다'와 그에 대응되는 고유어인 '없다'도 있었다. '無하다'와 '없다'는 '-음' 명사절을 주어로 취해 '[~음]이 無하다'나 '[~음]이 없다'로 쓰였는데, 의미적으로 볼 때 '-음' 명사절에는 명제의 내용이 포함되고 '無하다'나 '없다'가 명제를 부정하는 역할을 했다. 다음은 《삼천리》에 쓰인 부정 표현 '無하다'와 '없다'의 예이다.

(34) a. …一切를 岐視함이 無한 眞意를 揭示함이요.<1935-12-삼천리07-11-171>
b. 이제 余가 당돌하게도 이들 웅변가를 論하기에 恐縮함이 不無하나…<1935-03-삼천리07-03-136>
c. 그러나 想涉으로 대표된 제2기의 문단에는 人道를 說하고 이상을 고취함이 업섯다.<1930-05삼천리02-03-69>
d. 본령에 잇서서는 병적 편입 후의 신분 취급상 內地人과의 간에 하등 차별을 設함이 업다.<1938-05-삼천리10-05-45>

(34a)의 '一切을 岐視함이 無한'은 '一切을 岐視하지 않는'의 의미이고 (34b)의 '恐

縮함이 不無하나'는 '恐縮함이 없지 않으나'의 의미로, 이때 '無'은 각각 '않다' 및 '없다'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34c)의 '이상을 고취함이 없었다'는 '이상을 고취하지 않았다'의 의미이고 (34d)의 '하등 차별을 設함이 없다'는 '하등 차별을 설하지 않는다'의 의미로, 이때 '없다'는 '않다'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無하다'와 '없다'는 문장에서 명제의 내용을 부정하는 기능을 했는데 각각은 '有하다', '있다'로 끝난 긍정문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35) a. 결핵균이 混在한 음식물을 먹은 사람은 소화관내에 결핵균이 침입되여…腸粘膜淋巴濾胞에 침입되여 그 곳에서 발병함도 有하고…<1935-09-삼천리07-08-135>

b. 如斯한 위정당국의 열의는 물론 민간의 관심도 환기함이 다소 有하였다.<1940-03-삼천리12-03-258>

c. 지도자는 시대의 변천을 따라 대중을 엇더케 지도하여야 할가 함에 관심함이 잇슬 뿐이다.<1932-10-삼천리04-10-17>

d. 그러한 그도 또한 袁世凱의 暴狀에 불평을 갖어 명치 21년 淸韓論 (Chin0aud C0rea)를 저서하야 淸國의 간섭을 비난함이 있었다.<1938-08-삼천리10-08-217>

(35a)의 '발병함도 有하고'는 '발병하기도 하고'의 의미이고 (35b)의 '민간의 관심도 환기함이 다소 有하였다'는 '민간의 관심을 다소 환기하였다'의 의미로, 이때 '有하다'는 명제에 대한 긍정을 나타낸다. (35c)의 '관심함이 잇슬 뿐이다'는 '관심을 둘 뿐이다'의 의미이고 (35d)의 '비난함이 있었다'는 '비난하였다'의 의미로, 이때 '있다'는 명제에 대한 긍정을 나타낸다. 이처럼 20세기 전반기에는 '有하다'와 '있다'가 각각 '無하다', '없다'에 대응하여 긍정문을 나타내는 기능을 했다.

《삼천리》에는 긍정/부정 표현으로 쓰인 '有하다'나 '無하다'의 예는 많지 않았지만 그에 대응되는 '있다', '없다'의 예는 널리 나타났다. 이러한 쓰임은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20세기 전반기 '有하다/無하다', '있다/없다'의 쓰임은 언

해문에 반영되었던 한문의 영향이 이어져 내려온 결과였다. 한문에 쓰인 '有', '無' 등 조동사적 요소가 언해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뒤에 '-ᄒᆞ다'가 결합한 채로 우리말 문장에서 용언처럼 쓰인 것이다[207].

4.3.8. 이중 부정

이중 부정은 부정의 문법 요소가 한 문장에 두 번 쓰임으로써 부정이 부정되어 다시 긍정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208]. 《삼천리》에 쓰인 이중 부정문에는 부정 부사와 부정 용언으로 이루어진 것과 두 개의 부정 용언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었다. 부정 부사가 이중 부정에 참여할 경우 이는 부정 용언 앞에 쓰일 수도 있고 뒤에 쓰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부정 부사가 부정 용언 앞에 쓰이면 부정 용언 자리에는 언제나 '없다'가 쓰였다.

(36) a. …그러타고 資本團의 배경을 이러버리고는 민정당의 장래가 문제가 <u>아니 될 수가 업슬 것이다</u>.<1931-02-삼천리03-02-23>

b. …性問題에 대하여는 가장 괴롬을 <u>아니 밧을 수 업섯다</u>.<1931-03-삼천리03-03-52>

207) 한문의 기능어에 대한 직역 결과 언해문에는 '無하다', '有하다', '得하다', '要하다', '可하다' 등 'X하다' 꼴의 용언이 많이 쓰였는데 이러한 언해 관습은 '-음' 명사절의 쓰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1음절 한자에 '하다'가 결합된 용언들이 대개 '-음' 명사절을 논항으로 취했기 때문이다. 언해문의 이러한 특징은 20세기 전반기까지도 이어졌는데 이 글의 3.2.2의 명사절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208) 우리말에서는 '부정+부정=강한 긍정'의 등식이 성립하지만, 이는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대 영어에서는 부정의 문법 요소가 중복되면 '강한 부정'의 의미가 됐다. 셰익스피어의 'I cannot go no further'는 강한 부정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하지만 현대 영어의 경우는 한국어처럼 '부정+부정=강한 긍정'의 등식이 성립한다. 고대 영어의 이중 부정이 현대 영어의 이중 부정으로 바뀌는 과정은 언어적 근대화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이 있다. Hock & Joseph(2009:189-190)는 르네상스를 통한 고전의 재발견은 역으로 고전의 언어, 즉 라틴어에 대응되는 자국어를 재발견하게 했고, 동시에 라틴 문법에 비해 영어는 문법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자각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문법 학자들은 라틴 문법을 모방해 영어의 문법을 정립하려 했고, 그 결과 영어 본연의 '부정+부정=강한 부정'이 라틴어의 '부정+부정=강한 긍정'의 도식으로 대치되었다고 하였다. 오늘날 표준 영어에서는 'I cannot go any further'로 쓰이고 있지만 비표준 영어에서는 여전히 강한 부정의 의미로 'I cannot go no further'와 같이 고대 영어의 쓰임이 유지되고 있다.

c. 左便車에서 右便車로 짐을 옴기는 뽀이가 行李 一個에 大洋 80錢式 밧는대는 아니 놀날 수 업섯다.<1932-12-삼천리04-12-62>

d. 불의의 暗擊을 당하야 一怒를 안 가질 수 업든 나엿지마는…<1932-05-삼천리04-06-4>

e. 넉을 일허 버린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이 현실을 못 볼 수가 업슬 것이다.<1932-02-삼천리04-02-71>

위의 예를 보면, '아니', '안', '못' 등 부정 부사가 선행할 때 동사 뒤에는 모두 '~을 수 없다' 구성이 쓰였다. 부정 부사에 의해 부정된 용언은 후행하는 '~을 수 없다'에 의해 재차 부정되며 결과적으로 강한 긍정의 의미가 된다.

부정 부사가 부정 용언 뒤에 나타난 이중 부정문에서는 거의 대부분 부정 용언 자리에 '않다'가 쓰이고 부정 부사 자리에 '아니(안)'가 나타났다. 이 경우 아래의 예와 같이 '~지 않아서는 아니(안) 되다'나 '~지 않으면 아니(안) 되다'의 구문이 주를 이루었다.

(37) a. 시가도 이러한 방식으로 쓰지 안아서는 아니 됩니다.<1931-11-삼천리03-11-54>

b. 아모래도 차가 떠나지 안으면 아니 된다.<1934-06-삼천리06-07-297>

c. 그들은 그들의 민족적 운명의 급격한 운명에 대하야 너무나 정치적 관심에 몰두하지 안으면 안 되엿다.<1933-03-삼천리05-03-17>

d. …참된 예술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1938-08-삼천리10-08-88>

부정 용언만으로 이루어진 이중 부정문에서는 '아니하다(안하다, 않다)'나 '못하다', '말다', '없다'가 쓰였다. 이중 부정에 참여하는 용언들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수치로만 본다면 경우의 수는 16이 되지만 실제 용례에는 열여섯 가지의 조합이 모두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래의 표는 선행 용언을 세로로, 후행 용언을 가로로 나열한 뒤 각 결합이 말뭉치에 나타난 빈도를 표시한 것이다. 표에는 '아니하다, 안하다, 않다'를

따로 제시하였는데 편의상 이 셋을 아울러 지칭할 때에는 ‘{아니하다}’로 부르겠다. 그리고 선행 용언에 한해서 ‘못하다’는 ‘못지 아니하다’에서처럼 ‘하’가 탈락된 예가 보이기 때문에 이를 따로 표시하였고, ‘말다’도 ‘마지 아니하다’에서처럼 ‘ㄹ’이 탈락된 예가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 따로 표시하였다. 이 두 경우도 원형과 축약형을 함께 지칭할 때는 ‘{못하다}’와 ‘{말다}’로 부른다[209].

<표 42> 이중 부정에 쓰인 용언들의 결합 양상[210]

후행 / 선행	아니하다	안하다	않다	못하다	말다	(-을 수) 없다
아니하다	-	-	-	156	-	401
안하다	-	-	-	1	-	8
않다	-	-	-	2	-	759
못하다	4	-	31	-	-	2
못-	5	-	23	-	1	-
말다	12	-	10	2	-	-
마-	30	1	138	22	-	-
없다	136	5	306	64	-	-

표에서 음영 표시된 부분을 보면, 선행 용언과 후행 용언 자리에 같은 용언은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세종역사》에서는 ‘~지 아니치 아니하다’처럼 같은 용언이 앞뒤로 쓰이기도 했지만[211] 《삼천리》에는 이러한 용법은 보이지 않았다.

위의 표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변이형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선행 용언 자리에 쓰인 ‘{아니하다}’는 어떤 부정의 용언이 후행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변이형이 선택되는 경향이 보인다. ‘못하다’가 후행할 때는 절대적으로 ‘아니하다’의 꼴이

209) 아래의 예와 같이 ‘못하다/말다’와 ‘않다’가 앞뒤로 쓰였지만 의미적으로 이중 부정이 아니라 설의법으로 쓰인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 엇잿든지 日本의 재판소에는 일년 가도 이혼소송은 불과 2, 3건에 지내지 못하지 안느냐<1929-09 삼천리01-02-39>
예) …인제는 녀자로서 절대의 생명인 그의 정조까지 무참이도 유린당하고 말지 안엇는가?<1934-06-삼천리06-07-165>

210) 표 안의 ‘-’는 용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211) 근대국어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 내 량덕으로 뼈 젼후에 계칙ᄒᆞ야 힘ᄡᅳ미 브즐언치 아니치 아니ᄒᆞ되…<1746어자해,自省編外,019b>

선택되었고(아니치 못하다), '없다'가 후행할 때는 '않다'가 더 선호되었으나(않을 수 없다) '아니하다'도 선택되었다. '아니하다'는 15세기부터 쓰였고, 그 축약형인 '않다'는 19세기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이다. '아니치 못하다'는 중세국어 시기부터 널리 쓰여 왔지만, '없다'가 참여한 '~을 수 없다' 구문은 그 자체가 19세기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새로 생겨난 구문 구조에서는 새로 생겨난 형태인 '않다'가 선호되었던 것이다.

이제 위의 표에 나타난 결합 양상을 용례와 함께 살펴보겠다. '{아니하다}'가 선행 용언으로 쓰일 때 그 뒤에는 '못하다'나 '~을 수 없다'가 이어져 이중 부정 구성을 이루었다. 다음은 선행 용언으로 '{아니하다}'가, 후행 용언으로 '못하다'가 쓰인 예이다.

(38) a. 그러나 及其 老母를 대하야 그는 甚히 預想과 相反됨을 스스로 놀라지 아니치 못하얏다.<1935-06-삼천리07-05-66>
b. 나는 즉시 總督府病院으로 달려가지 안이치 못하엿다.<1931-07-삼천리03-07-67>

다음은 '{아니하다}'와 '없다'가 결합된 이중 부정의 예이다. 이때는 앞서 언급했듯이 '않을 수 없다'가 가장 많이 쓰이던 꼴이지만 용례는 '아니하다, 안하다, 않다'를 모두 제시한다.

(39) a. …나는 姜氏의 自叙傳이 너무 無氣力한데 놀내지 아니할 수 업스며…<1931-06-삼천리03-06-78>
b. …盲人이 갑작이 눈을 뜬 듯 恍惚이 놀내지 안할 수 업섯다.<1931-04-삼천리03-04-40>
c. 우리는 그만 놀나지 않을 수 없읍니다.<1934-11-삼천리06-11-105>

‘{못하다}’가 선행 용언으로 쓰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후행 용언 자리에 ‘{아니하다}’가 쓰여 공기 관계에 있어서 뚜렷한 선호도를 보였다. ‘못하다’는 선행 용언으로 쓰일 경우 ‘하’가 탈락한 변이형으로도 쓰일 수 있었는데, ‘못하지’와 ‘못지’는 의미도 분포 환경도 동일했다. (40)은 ‘못하지’로 쓰인 예, (41)은 ‘못지’로 쓰인 예이다.

(40) a. 음식솜씨가 남만 못하지 안슴니다.<1934-08-삼천리06-08-196>
b. 넬敎授 역시 앨넨 교장에 못하지 않게 깊은 교양과 새로운 각성을 주든 분이였다.<1936-08-삼천리08-08-43>
c. …그 농촌현실에 대한 형상화의 진실성은 결코 싸베-트聯邦 이외의 다른 나라의 작가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1936-04-삼천리08-04-319>

(41) a. 그 이유는 圖們驛에서 그 시가까지 걸어가자면 南陽에서붙어 거러오는 수고만 못지 아니하다는 것이다.<1935-01-삼천리07-01-68>
b. 對中무역은 원료와 상품의 거래가 主이니 실질적 이해관계는 결코 對米무역에 못지 안타.<1931-10-삼천리03-10-5>
c. 오늘까지 饑死보다 못지 않은 가시의 길을 해염처 나온 몸이니…<1936-12-삼천리08-12-195>

‘{못하다}’와 ‘{아니하다}’의 결합으로 형성된 이중 부정은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명사구에 특정 조사가 결합되었다. 위의 예들을 보면, ‘못하지 않다’와 ‘못지 않다’는 둘 다 조사 ‘-만’, ‘-에’, ‘-보다’에 후행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못하지 않다’와 ‘못지 않다’가 선행 조사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 ‘못지 않다’는 그 앞에 조사가 쓰일 경우 오직 ‘-에’만이 허용된다.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 혹은 ‘전문가에 못지않은 실력’으로는 쓸 수 있지만, 조사 ‘-만’이나 ‘-보다’는 쓸 수 없다. 반대로 ‘못하지 않다’ 앞에는 주로 ‘-보다’나 ‘-만’이 쓰이고 ‘-에’는 쓸 수 없다. 다시 말해, 오늘날 이중 부정형

‘못지 않다’와 ‘못하지 않다’는 그 앞에 쓰이는 조사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갖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아직 그러한 분포의 차이를 갖지 않았던 것이다.

선행 용언 자리에 ‘{말다}’가 쓰인 경우에는 그 후행 용언으로 ‘{아니하다}’나 ‘못하다’가 쓰일 수 있었다. 이 경우 ‘말지’보다는 ‘ㄹ’이 탈락한 ‘마지’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42) a. …소위 地主級은 課稅대로 본래 관습을 이용하야 耕作者에게 徵收하기를 말지 안이하고…<1931-05-삼천리03-05-33>
b. 金家의 執事는 意外의 일에 놀나기을 마지 안이하엿스며…<1935-02-삼천리07-02-194>
c. …現下의 國際情勢는 戰爭을 世界的으로 惹起하지 아니하고는 말지 못하게 되엿다.<1934-08-삼천리06-08-60>
d. …이 사람이 엇저자고 이러나 하면서 나도 마지 못하야 인사하엿다.<1930-09-삼천리02-05-57>

앞서 살펴본 ‘못하지 않다’와 ‘못지 않다’가 오늘날 분포적 차이를 갖고 공존하게 된 데 반해 ‘말지 않다’와 ‘마지 않다’는 후자만 남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없다’가 선행 용언으로 쓰인 경우, 그 후행 용언으로 ‘{아니하다}’와 ‘못하다’가 쓰일 수 있었다. 다음은 ‘없다’ 뒤에 ‘않다, 아니하다, 안하다’가 쓰인 이중 부정의 예이다.

(43) a. 조간까지 내보내자면 일이 산 가치 싸인 感이 업지 안엇다.<1931-10-삼천리03-10-65>
b. 「부젠코」는 얼마큼 의외라는 생각도 업지 아니하엿스나…<1932-01-삼천리04-01-121>
c. 이 以外에도 陸海軍과 같히 法律 그대로 朝鮮에 施行되는 者가 업지 안하나…<1934-06-삼천리06-07-82>

한편 ‘없지 못하다’처럼 선행 용언으로 ‘없다’, 후행 용언으로 ‘못하다’가 쓰인 이중 부정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없지 않다’와 마찬가지로 결국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들이다.

(44) a. 네가 잘못 가지고 가다가는 유실할 염녀가 업지 못하니…<1935-07-삼천리07-06-222>

b. …각각 萬分의 一의 힘을 다하는 이가 萬사람만 힘을 다 가치 하는 날이면 60萬圓 사업은 그만두고 비록 600萬圓 6.000萬圓의 大事業일지라도 容易히 遂行할 수 잇다는 느낌이 업지 못하다.<1936-06-삼천리08-06-78>

그런데 이런 예는 ‘없지 못하다’의 용례 중 극소수에 불과하며, 거의 대부분이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된다’ 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의 의미로 쓰였다.

(45) a. …신문도 그가 한 개의 상품이나 발달된 오날의 우리의 생활방법에는 또한 업지 못할 필수품이다.<1935-08-삼천리07-07-40>

b. 또한 今日의 현대인에겐 이 쩌나리즘이란 업지 못할 必要不可缺한 日常의 도구로 되고 말엇다.<1935-11-삼천리07-10-137>

c. 요리점과 카페가 남자의 활약 지대에 업지 못할 사교장이며 의논석이 되는 現형세에 딸하 자기의 남편으로 하야곰 참가케 한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처단일 것이다.<1931-07-삼천리03-07-33>

d. 우리가 상당한 공통적 방침 하에 서로 믿고 모이어 협동적으로 나아가려 하면 없지 못할 필요한 물건이 지도자이다.<1937-01-삼천리09-01-49>

e. (다시 높흐게 웨치면서)운동과 경기는 업지 못할 것입니다. 운동과 경기는 깨끗하고도 건전한 정신을 가진 인민을 만들며…<1936-01-삼천리08-01-17>

(45a)에서 신문을 ‘업지 못할 필수품’이라 하였고, (45b)에서 ‘쩌나리즘이란 업지 못

할 필요불가결한 일상의 도구'라 하였는데, 여기서 '업지 못할'은 바로 뒤의 '필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없어서는 안 될'이라는 의미이다. (45c)에서도 요리점과 카페가 남자의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사교장이며 의논석이므로 남편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드시 있어야 한다'의 의미로 '업지 못할'이라는 표현을 썼다. (45d)에서도 단체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업지 못할'이라는 표현을 썼다. (45e)는 연설문의 일부로, 운동과 경기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운동과 경기는 업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표현했다. 이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운동과 경기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가 된다. 이처럼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을 넘어 당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금까지 《삼천리》에 나타난 부정 부사와 부정 용언의 용례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부정 표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어지는 4.4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사동 표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4.4. 사동 표현

국어의 문장에서 사동 표현을 담당하는 문법적 요소에는 사동 접미사와 사동 보조용언이 있다. 최현배(1937:452)은 사동 접미사를 "시킴도움줄기"라고 하고 이를 "움직씨의 몸에 붙어서, 다른 것(客體)으로 하여금 그 움직임을 하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212]. 그리고 시킴도움줄기 중에는 '-이-'가 가장 "普遍的 原則의 것"이되 '-리-', '-우-', '-기-', '-히-'도 쓰이고, 그밖에도 '-시키다'도 시킴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

212) 최현배(1937:536)에서는 사동, 즉 "시킴 움직임"은 원칙적으로 "임자의 意志의 發露"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자의 不德, 薄福, 運數의 所致인 것도 있다."라고 하여 실제 구문에서 실현되는 사동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남을 밝혔다. 즉, "나는 그만 아이를 죽였지요."나 "그는 집을 태웠읍니다." 같은 문장에 나타난 사건은 사동의 주체의 의지에 따라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부덕이나 박복, 운수의 소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한 최현배(1937:516)은 사동 보조용언을 “시킴도움움직씨”라고 하고 이를 “으뜸되는 풀이말의 內容이 實際的으로 그리 되게 만드는 뜻을 보이는 도움움직씨”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시킴도움움직씨의 목록으로 “하다”와 “만들다”를 들었다.

이와 같은 『우리말본』의 기술은 《삼천리》에서도 두루 확인되지만, 《삼천리》에 쓰인 사동 표현의 용례에는 외솔이 제시한 ‘-이-’, ‘-리-’, ‘-우-’, ‘-기-’, ‘-히-’ 외에도 ‘-구-’, ‘-추-’, ‘-키-’, ‘-후-’와 같은 사동 접미사도 쓰였다. 또한 『우리말본』에는 기술돼 있지 않지만 실제 용례에는 사동 접미사가 이중으로 실현된 예도 다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4.4.1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사동 접미사의 쓰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사동 보조용언은 20세기 전반기에 뚜렷한 특징은 없었지만 사동 접미사와 중첩돼 쓰인 예들이 보였다. 4.4.2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사동 보조용언의 쓰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최현배(1937:550)에서 “시킴움직임으로 풀이를 삼는 월에는 반드시 부림말(客語, 目的語)이 있나니”라고 한 것처럼 사동 구문은 그것이 타동 구문임을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동의 행위를 당하는 피행위주 논항에는 ‘-를’이 결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현배(1937:552)에서 보인 것처럼 사동 구문의 피행위주 논항에는 ‘-에게’가 쓰이기도 했다. 이상의 기술은 오늘날의 쓰임과도 일치하지만 《삼천리》에 쓰인 용례를 보면 사동 구문의 피행위주 논항에 ‘-가’가 결합된 예도 보이고 ‘-으로 하여금’ 등이 결합된 예도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4.4.3에서는 ‘-게 하다’ 사동 구문의 피행위주 표시 형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4.4.1. 사동 접미사의 쓰임

《삼천리》에 쓰인 사동 접미사에는 ‘-구-’, ‘-기-’, ‘-리-’, ‘-우-’, ‘-이-’, ‘-추-’, ‘-키-’, ‘-후-’, ‘-히-’가 있었다. 다음은 각 사동 접미사의 예이다.

(46) a. 원체 演題가 내 힘을 돗구고 熱을 올니게 해 주엇든 까닭이겟지만…<1933-04-삼천리05-04-36>

b. …그 뒤차에는 두 살 먹은 어린애를 계집종 碧霞에게 안기어 어머니가 함께 올라타고 있었다.<1940-06-삼천리12-06-259>

c. …그가 소설 『殉愛譜』를 쓴 것은 자기가 체득한 이 정신을 노래하여서 인류동포에게 들리자는 것이다.<1940-07-삼천리12-07-197>

d. …전녁 먹고 어린 것 재우고 겨우 틈을 만드러 책상에 안즈니…<1933-04-삼천리05-04-109>

e. …그 안해가 그 고마운 남편에게 맛있는 반찬을 먹이고 싶어서 양렴을 할 적에…<1935-10-삼천리07-09-215>

f. 그러나 臺灣당국은 의연히 그 탄압의 손을 늣추지 안어서…<1930-07삼천리02-04-4>

g. 商界에 몸을 숨킨 才子 鄭漢景은 과연 때 이르러 부를 때에 다시 나올 것인가?<1933-03-삼천리05-03-43>

h. 이리하여서 그의 남 유달니 焦燥한 性味에 맞후어 婚姻은 하였으나…<1940-12-삼천리12-10-174>

i. 우리 둘은 커-텐을 올니고 부혀케 언 창을 입김으로 동그라케 녹힌 후…<1932-03-삼천리04-03-60>

'녹히다, 맞후다, 숨키다'는 오늘날에는 '녹이다, 맞추다, 숨기다'로 쓰여 사동접미사의 종류가 달라졌다. 《삼천리》에 쓰인 사동 접미사 '-히-', '-후-', '-키-'는 대개 오늘날 '-이-', '-추-', '-기-'로 바뀌었다. 또한 (46c)에 쓰인 '들리다'는 오늘날에는 사동사로 쓰이기보다 '들려주다'와 같이 복합 동사로 쓰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러한 예를 통해 20세기 전반기 사동 접미사의 용법이 오늘날과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동사는 이미 사동 접미사가 결합돼 있는데 또 다시 '-우-'나 '-이-'가 덧나기도 했다. '-우-'나 '-이-' 자체도 사동 접미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중

사동형이라 볼 수 있다. 아래 제시된 예는 사동 접미사가 중첩된 예이다.

(47) a. 전세계를 놀내이든 그는 엇던 인 물?<1931-09-삼천리03-09-57>

b. …우리가 잇때까지 공개 못해 본 중대 사실을 만천하 독자에게 알리우겟다는 생각이 잇섯다.<1931-10-삼천리03-10-65>

c. 만일 그 草稿가 우선 발표되어 가지고 그것이 당초에 朝鮮 사람에게 읽히우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朝鮮 사람에게 읽히워 질 수 잇을 것이 想定될 때에는 이를 朝鮮文學에 編入하는 것을 容許하여도 조타고 나는 생각한다.<1936-08-삼천리08-08-87>

(47a)의 '놀래이다'는 '놀라+ㅣ+이+다'의 구조로 '-이-'가 두 번 쓰였고, (47b)의 '알리우다'는 '알+리+우+다'의 구조로 '-리-'와 '-우-'가 모두 쓰였다. (47c)의 '읽히우다'는 '읽+히+우+다'의 구조로 '-히-'와 '-우-'가 모두 쓰였다. 외솔은 이처럼 문법적 기능이 같은 두 형태소가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최현배(1937)은 사동사의 실제 용법을 거의 인정했지만 이중 사동형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즉, 다음의 인용문에서처럼 '재우다', '태우다'를 버리고 '재다', '태다'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48) 어떤 경우에는 『이』와 『우』를 함께 쓰는 일이 없지 아니하다. 그 보기:

서다(立)—세다(서이다)—서우다—세우다.

그러나, 다음의 것들은 『이』 하나만 쓰는 것으로 대중삼을 것이니, 곧

자다(眠)-재다, 재우다.

타다(乘, 燒)-태다, 태우다.

따위는 『재다』, 『태다』로 대중삼을 것이니라(최현배(1937:455) [잡이2]).

위의 인용문을 보면 '서다'의 경우는 이중 사동형 '세우다'를 사동사로 인정하되,

‘자다’의 이중 사동형 ‘재우다’나 ‘타다(乘, 燒)’의 이중 사동형 ‘태우다’는 인정하지 않고 ‘재다, 태다’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삼천리』에 쓰인 용례들을 분석해 보면, ‘자다’의 사동사가 ‘재다’로 쓰인 예는 하나도 없었고 모두 ‘재우다’로 쓰였으며, ‘타다(乘)’와 ‘타다(燒)’의 사동사는 모두 ‘태다’보다는 ‘태우다’로 쓰인 예가 훨씬 더 많았다. 다음은 《삼천리》에 나타난 이들 용언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43> 《삼천리》에 쓰인 단일 사동형과 이중 사동형의 빈도[213]

	자다	타다(乘)	타다(燒)
단일 사동형	(재다) 0	(태다) 1	(태다) 7
이중 사동형	(재우다) 10	(태우다) 32	(태우다) 61

위의 표를 보면, 세 동사 모두 이중 사동형의 빈도가 훨씬 높았고, 이를 통해 당시의 문법 기술과 언어 현실 사이의 간극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간극이 결국 이후 『우리말본』의 문법 기술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앞서 인용한 초판의 기술과 달리 제3판을 보면 ‘타다(乘, 燒)’의 사동사로 이중 사동형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1961년에 출판된 『우리말본』 제3판의 기술이다.

(49) 어떤 경우에는 “이”와 “우”를 함께 쓰는 일이 없지 아니하니, 이로써 대종을 삼았느니라. 그 보기:

서다(立)—세다(서이다)—서우다—세우다.

자다(眠)—재다—재우다.

213) ‘재다, 재우다’의 용례 검색 방법은 깜짝새에서 검색어에 ‘를 재’를 넣고 조건에 ‘377’을 넣어 검색한 것이다(3: 종성만 일치, 7: 음절 일치). ‘태다, 태우다’도 마찬가지로 검색어에 ‘를 태’를 넣고 조건에 ‘377’을 넣어 검색한 뒤 추출된 용례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타다(乘)’의 사동사와 ‘타다(燒)’의 사동사를 추려낸 것이다. 이렇게 검색한 결과는 목적어가 동사에 직접 선행한 예밖에 포함하지 않지만 검색어를 ‘재, 태’로만 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용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을 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방법이 결과를 크게 오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타다(乘, 燒)—태다—태우다." (최현배(1961:352) [잡이2])

위의 인용문을 보면, 제3판에서는 '세우다'와 마찬가지로 '재우다'와 '태우다'를 표준형으로 제시해 초판의 기술에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말본』에서는 이처럼 이중 사동형뿐 아니라 사동 접미사의 형태가 피동 접미사와 일치하는 것도 문제시하였다. 피동 접미사 중에는 '-이-', '-히-', '-리-', '-기-'처럼 사동 접미사와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이들은 문맥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것이 사동을 나타내는지 피동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다. 《삼천리》 등 당시 자료에는 '-이-', '-히-', '-리-', '-기-'가 피동 접미사로도 사동 접미사로도 널리 쓰였지만 외솔은 하나의 문법 형태가 둘 이상의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문제시하고 이들 접미사의 쓰임을 정비하려고 하였다.

『우리말본』에서는 사동 접미사의 기본형을 '-이-'라고 보고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이-'가 '-히-', '-리-', '-기-', '-우-'로 변하기도 하고[214] 여기서 발음을 더 똑똑히 하기 위해 '-기-'가 '-키-'로, '-우-'가 '-후-'로 변하기도 한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기술에서 보이는 두 가지 태도는 당시 쓰이던 사동 접미사를 모두 사동의 문법 요소로 인정한 점, 그리고 하나의 기본 형태로부터 일정한 조건에 의해 변이형이 생겨나는 규칙을 세우고자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히-'에 대해서는 음운론적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원래 "입음도움줄기임이 원칙인데, 혹 예외로 시킴의 뜻을 들어내는 시킴도움줄기 노릇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여 원래 피동 접미사가 예외적으로 사동 접미사로 쓰인 것이라고 보았다(최현배,

214) 최현배(1937:452)의 기술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시킴도움줄기는 『이』가 가장 普遍的 原則의 것이로되, 간혹 어떤 움직씨에 限하여는 『리』, 『우』, 『기』와 『히』 따위가 쓰히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러한 변화의 조건으로, "ㄹ벗어난 움직씨"나 "ㄷ벗어난 움직씨"에는 '-리-'가 쓰이고, "어두운 홀소리로 끝진 줄기를 가진 움직씨" 아래에는 '-우-'가 쓰이며, "후음(ㄴ, ㅁ)과 밀폐활음(ㅅ, ㅊ, ㅌ 등)의 아래"에는 '-기-'가 쓰인다고 그 음운론적 조건을 기술하였다. 또한 '-히-'의 경우에 대해서는 음운론적 조건을 기술하지 않고 원래 피동접미사가 예외적으로 사동접미사로 쓰인 것이라고 하였다(최현배 1937:453-454). 같은 책 539-544쪽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

1937:453-454). 그리고 “시킴의 뜻으로 『이』와 『히』가 두루 쓰히는 것은 마땅히 『이』로 본을 삼을 것이니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외솔은 사동 접미사의 목록은 대체로 현실에서의 쓰임을 그대로 인정하였지만 피동 접미사의 목록은 ‘-기-’, ‘-히-’로 대폭 축소해 피사동의 문법 형태가 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아래의 표는 최현배(1937)에서 제시한 사동 접미사와 사동사의 목록을 《삼천리》에 쓰인 것과 비교한 것이다. 비교 방법은 일차적으로 최현배(1937)에 제시된 형태가 《삼천리》에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차적으로 해당 동사의 기본형이 다른 사동 접미사와 결합한 예가 있는지를 말뭉치에서 찾아본 것이다. 표에서 밑줄 표시가 된 부분은 『삼천리』에는 용례가 나타나지만 최현배(1937)에는 언급되지 않은 경우이다.

<표 44> 최현배(1937)에 제시된 사동사의 『삼천리』에서의 쓰임

사동 접미사	최현배(1937)	삼천리
-이-	자이다, 재다(眠)	재우다
	자이다, 재다(宿)	재우다
	나이다, 내다(出)	내다, 내이다
	녹이다(鎔)	녹이다
	줄이다(約)	줄이다
	젛이다(‘위협하다’의 옛말)	×
	닿이다, 대다(接)	닿이다, 대다, 대이다
	먹이다(食)	먹이다
	보이다(示)	보이다
	쓰이다(用)	×
	씨이다(書)	씨우다
-리-	날리다(飛)	날리다, 날리우다
	벌리다, 벌이다(張)[215]	벌리다, 벌이다
	돌리다(廻)	돌리다
	달리다(馳)	달리다
	놀리다(遊)	놀리다
	들리다(聞)	들리다
	들리다(擧)	들리다
	불리다(나발을)	×
	흘리다(流)	흘리다
	말리다(乾)	말리다
	발리다(塗)	발리우다
-우-	일우다(興)	일우다
	길우다(콩나물을)	길우다
	새우다, 새이다(夜明)	새우다, 새이다
	지우다(負)	지우다
	비우다(空)	비우다
	깨우다(覺眠)	깨우다
	지우다(負荷)	지우다

	짊구다(載荷)	×
-기-	남기다(餘) 숨기다(隱) 안기다(抱) 감기다(머리를) 넘기다(越) 빗기다(梳) 벗기다(脫) 젓기다(배를) 뜯기다(毟) 맏기다(任)	남기다 숨기다 안기다 × 넘기다 빗기다 벗기다 × × 맏기다
-히-	녹히다, 녹이다 익히다(習) 잡히다(옷을 전당포에) 읽히다(讀) 입히다(被)	녹히다, 녹이다 익히다 잡히다 읽히다, <u>읽히우다</u> 입히다
-후-	익후다, 익히다(熟) 맞후다, 맞히다(合, 中) 갖후다(備) 맞후다, 맞히다(매를)	익히다 맞후다, 맞히다 갖후다 ×
-키-	숨키다, 숨기다	숨키다, 숨기다

위의 표를 보면, 『우리말본』의 기술과 《삼천리》에서의 쓰임은 대체로 일치했다. 특히, '녹히다'와 '녹이다', '숨키다'와 '숨기다' 등 하나의 어근에 둘 이상의 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복수의 형태가 말뭉치에 나타났는데 최현배(1937)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우-'나 '-이-'가 덧난 이중 사동형은 《삼천리》에는 널리 쓰였지만 『우리말본』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솔은 사동 표현에 대해 기술할 때에 언어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는 태도를 취했지만[216], 이중 사동형은 문법적 기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4.4.2. '-게 하다' 사동 구문

《삼천리》에 쓰인 사동 표현 중에는 '-게 하다'도 있었다. '-게 하다'는 대응되는 파생 사동사가 있는 동사든 없는 동사든 가리지 않고 결합될 수 있었다. 다음은 파

215) 20세기 전반기에 '벌다'는 '틈이 벌다'와 같이 자동사로 쓰였다.
216) 4.6에서 살펴보겠지만 최현배(1937)의 피동 표현에 대한 기술은 실제 언어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생 사동사의 쌍이 존재하던 '-게 하다' 사동형의 예이다.

(50) a. 抱月 氏는 爲先 須磨子의 자리를 잡어 주고 風枕에 공기까지 부러 너허서 편안히 자게 한 뒤에 자긔도 風枕에 지대어서 졸더라.<1933-04-삼천리05-04-46>
b. 그러고 새로 온 사환만이 거기 남게 하엿다.<1934-08-삼천리06-08-197>
c. 나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 전에 點心이나 한 끼 잘 먹게 하는 것이 人情에 올흔 줄을 알고…<1935-06-삼천리07-05-69>

위의 예에 쓰인 '자다', '남다', '먹다'는 각각 사동사 '재우다', '남기다', '먹이다'로도 쓰였는데, 오늘날처럼 '-게 하다'의 결합으로 사동법이 실현되면 사동사로 쓰일 때에 비해 사동의 행위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은 대응 사동사가 없던 동사에 '-게 하다'가 결합된 예이다.

(51) a. …거이 붓잡을나 하면 큰 물결이 또 툭 밀어처서 멀어지게 하고 멀어지면 또 헤염을 치고 하엿다.<1929-09삼천리01-02-21>
b. 第三者들의 이러한 행동은 돌이어 當者로 하야곰 아즉 충분한 이해준비도 업시 넘어 속히 戀愛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수가 만타. 또는<1929-09삼천리01-02-33>
c. …마음대로 손을 더듬어 물그릇을 찻게 하되 맨 처음 에 정한 물그릇에 손이 다으면 순결한 남자 혹은 녀자를 언게 되고…<1929-09삼천리01-02-50>

위의 예에서 '-게 하다'와 결합된 '멀어지다', '들어가다', '찾다'와 같이 대응되는 파생 사동사가 없는 동사들은 사동 표현으로 쓰일 때 항상 '-게 하다'와 결합됐다.

한편, 한 동사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됐는데 그 뒤에 '-게 하다'가 다시 결합돼 이중 사동형을 이루기도 했다. 이러한 이중 사동형 중에는 사동 접미사와 '-게 하다'가 각각 서로 다른 사동의 관계를 실현시킨 예도 있었고, 별개의 기능 없이 중첩돼 쓰인 예도 있었다. 아래의 예는 사동사 '알리다'에 '-게 하다'가 결합된 문장들이다.

(52) a. 그럼으로 海內海外의 教育者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海內의 教育的 모든 事情을 海外의 教育者들에게 알니게 하는 同時에…<1936-08-삼천리08-08-36>

b. 이러한 것도 본부에서 각 지방장관에 전달하야 … 그 정책의 진의를 전반도 壯丁에게 알니게 한다면…<1938-05-삼천리10-05-31>

(52a)에서 '-리-'와 '-게 하다'는 둘 다 '(행사의) 주체'가 '교육자'들에게 가하는 사동의 행위를 나타낸다. 둘 중 하나만 써도 사동의 의미 관계는 충분히 드러나는데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 것은 불필요한 중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52b)에서는 '-리-'와 '-게 하다'가 서로 다른 사동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 문장에는 사동의 행위주가 '본부'와 '지방장관'의 둘인데, '-게 하다'는 본부의 사동 행위를, '-리-'는 지방장관의 사동 행위를 나타낸다.

4.4.3. 사동 구문의 피행위주 표시 형식

사동 구문 안에서는 주어가 목적어나 부사어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의미 관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 관계 속에서 주어는 사동 행위의 주체임으로 행위주라 할 수 있고 목적어나 부사어는 행위를 당하는 존재이므로 피(被)행위주라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사동 구문은 곧 타동 구문임을 전제한다. 따라서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피행위주에는 보통 목적격조사 '-를'이 결합된다.

(53) a. …[너머 깊이 안빈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시]$_{NP2}$ [한끗 애처러운 운명]$_{NP1}$을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되지나 않을가요?<1938-12-삼천리10-12-199>

b. [줄다리기]$_{NP2}$도 역시 강력비교의 일종오락이오 또한 [團體心 勝癖心]$_{NP1}$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1941-04-삼천리13-04-215>

c. …꼿팔기 花園에는 [빗치 빨간 장미꼿]$_{NP2}$이 [사람의 눈살]$_{NP1}$**을** 부시게 하고 잇섯다.<1929-09삼천리01-02-42>

d. [마시루도와의 結婚]$_{NP2}$은 [나]$_{NP1}$**를** 無限히 행복스럽게 하엿다<1935-06-삼천리07-05-198>

(53a)와 (53b)에서는 자동사 ‘발생하다’와 ‘생기다’가 사동 구문을 이루면서 자동사의 주어였던 명사에 ‘-를’이 결합되었고, (53c)와 (53d)에서는 형용사 ‘부시다’, ‘행복스럽다’가 사동 구문을 이루면서 형용사의 주어였던 명사에 ‘-를’이 결합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 사동 구문에는 ‘-를’과 더불어 ‘-으로 하여금’도 사동 구문의 피행위주를 나타내는 데 널리 쓰였다.

(54) a. …[그 미술적 가치]$_{NP2}$는 [전문 학자]$_{NP1}$**로 하여곰** 놀나게 한다.<1938-08-삼천리10-08-234>

b. [이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착취]$_{NP2}$가 고금을 통하야 [인류]$_{NP1}$**로 하여금** 불안에서 울게 하지 안엇든가요.<1932-03-삼천리04-03-60>

c. [별안간 경수의 표정이 달너진 눈치를 채자 인학은 더욱 설음설음한 구석을 보이는 것]$_{NP2}$이, [경수]$_{NP1}$**로 하야금** 한칭 불유쾌하게 하엿다.<1936-06-삼천리08-06-275>

d. [東光 7월호에 發表한 李光洙氏의 「指導者論」]$_{NP2}$은…[讀者]$_{NP1}$**로 하야곰** 憫然케 한다.<1931-09-삼천리03-09-16>

(54a), (54b)에서는 자동사 ‘놀라다’, ‘울다’의 주어에 ‘-으로 하여금’이 결합되었고, (54c), (54d)에서는 형용사 ‘불유쾌하다’, ‘민연하다’의 주어에 ‘-으로 하여금’이 결합되었다. 이때 쓰인 ‘하여금’은 한문 직역의 관습으로 인해 현대어에까지 남게 된 전이어로, 한문의 ‘使’나 ‘令’ 등의 사동사가 직역 과정에서 ‘-으로 하여금’으로 언해되었던 것이 후대의 창작문에까지도 영향을 준 것이다(김형철, 1997:100-101).

한편, 자동사에 '-게 하다'가 결합된 사동 구문 중에는 자동 구문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도 있었다. 즉, 자동 구문의 주어였던 NP_1이 '-를'과 결합하지 않고 '-가'와의 결합을 유지해 '(NP_2가) NP_1이 V게 하다'로 쓰인 것이다. 이런 예들은 의미상으로 사동을 실현시키는 주체(NP_2)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나 해당 절 안에 사동을 실현시키는 주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55) a. 몃해 전부터 대유행이 든 것 즉 머리를 몹시 지저서 머리우리 새(鳥) 집을 몃 개식 얻고 단이든 것이 지나고 금년 여름에는 그와 아주 반대로 기름을 실컨 발너서 [윤]$_{NP1}$이 흐르게 하는 것이 유행되겟고…<1935-07-삼천리07-06-205>

b. [삯]$_{NP1}$이 나게 하고 자라서 [열매]$_{NP1}$가 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요 神의 일이니까.<1940-07-삼천리12-07-192>

c. 황후는 눈을 내리감고 환신(宦臣)과 두 사람의 사환에게 저리 물너가라고 눈질하엿다. 그러고 [새로온 사환]$_{NP1}$만이 거기 남게 하엿다.<1934-08-삼천리06-08-197>

d. 우리야 아모 때라도 좃치만 [어머님]$_{NP1}$이 안심하시게 해 드려야지요.<1938-12-삼천리10-12-145>

(55a)에서 '윤이 흐르게' 하는 주체, (55b)에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나게' 하는 주체는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는 주어가 생략되었다기보다는 비실현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5c)에서 '사환이 거기 남게' 한 주체는 앞 문장에 쓰인 '황후'이다. '황후'는 사동의 의미를 실현시키며 의미상의 주체이자 통사적인 주어 역할을 하지만 생략된 것이다. (55d)에서도 '어머님이 안심하시게' 하는 주체는 선행절의 주어인 '우리'이지만 후행절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이처럼 사동 구문의 주어가 비실현 혹은 생략된 절에서 자동사의 주어가 주격 표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게 하다' 사동 구문에서 NP_1 논항이 주격 표지를 유지한 예들은 중세국어 자료에서도 일부 나타났는데(고영근, 1997:249-250) 20세기 전반기까지도 이러한 용법이 남아 있었다.

타동사가 이끄는 문장이 사동 구문이 될 때 피행위주 뒤에는 '-에게'나 '-으로 하여금'이 결합됐는데 어떤 때에는 '하여금'이 생략되기도 했다.

(56) a. 그러나 [朴英熙 氏]$_{NP3}$는 … [나]$_{NP1}$**에게** [존경]$_{NP2}$을 갖게 하는 것이다.<1933-09-삼천리05-09-112>

b. [이런 친절하신 李선생님의 말슴]$_{NP2}$은 [제]$_{NP1}$**게** [좋은 글]$_{NP2}$을 쓰게 할 것 같습니다.<1940-06-삼천리12-06-114>

c. [此 상호부조]$_{NP3}$는 [인류]$_{NP1}$**로 하여금** [자아]$_{NP2}$를 무한이 확장케 합니다.<1932-02-삼천리04-02-83>

d. [왕]$_{NP3}$은 곳 황룡사(黃龍寺)에 법석을 베풀고 [대사]$_{NP1}$**로 하야곰** [이것]$_{NP3}$을 강설케 하엿드니…<1935-07-삼천리07-06-223>

e. 더구나 [정부]$_{NP3}$는 … [內地 자본가 특히 三井財閥의 중심인 물산회사]$_{NP1}$**로** [이것]$_{NP2}$을 하게 한다.<1931-03-삼천리03-03-34>

(56a)와 (56b)에서는 타동사 '갖다', '쓰다'의 주어에 '-에게'가 결합되었다. (56c)와 (56d)에서는 '확장하다', '강설하다'의 주어에 '-으로 하여금'이 결합되었지만 (56e)에서는 '하여금'이 생략된 채 '-으로'만 남았다.

지금까지 《삼천리》에 나타난 사동 접미사와 '-게 하다'의 쓰임을 분석해 20세기 전반기 사동 표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동 접미사의 목록이나 기본적인 쓰임은 오늘날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사동 접미사와 어기의 결합 양상이 달리 나타난 예들이 있었고 사동사에 '-우-'나 '-이-'가 덧나거나 사동 접미사와 사동 보조용언이 함께 쓰인 이중 사동형이 널리 쓰였다. 또한 사동 구문에서 피행위주 논항에는 '-를', '-가', '-에게 하여금'이나 '-으로 하여금' 등이 결합되었다. 이어지는 4.5에서는 20세기 전반기 피동 표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

4.5. 피동 표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말에서 피동은 주된 문법 범주는 아니었다.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도 사동법은 나타나지만 피동법은 확인되지 않으며217)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도 피동문보다는 능동문의 쓰임이 훨씬 두드러졌다. 그러다 19세기 말부터는 문헌상에 나타난 피동 표현이 급격히 증가되었다218).

국어의 문장에서 피동 표현을 담당하는 문법적 요소에는 피동 접미사와 피동 보조용언이 있다. 최현배(1937:455)은 피동 접미사를 "입음도움줄기"라고 하고 이를 "움직씨의 몸에 붙어서, 다른 것(客體)으로부터 그 움직임을 입음을 보이는 것"이라 정의하였다219). 그리고 입음도움줄기 중에는 '-히-'가 가장 "普遍的 原則의 것"이되 '-기-'도 쓰이고, '-되다', '-받다', '-당하다'도 입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한편 최현배(1937:517)은 피동 보조용언을 "입음도움움직씨"라고 하고 이를 "입음(被動)을 보이는 도움움직씨"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에는 '지다', '되다'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삼천리》에 나타난 용례에도 두루 적용되지만, 피동 표현에 관한 『우리말본』의 기술과 《삼천리》의 용례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사동 표현과 달리 『우리말본』에서는 피동 접미사의 목록을 '-히-'와 '-기-'로 대폭 축소하였는데 《삼천리》에 쓰인 용례를 보면 그밖에도 '-이-', '-리-'도 피동 접미사

---

217) 김성주(2006)은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 자료들에 피동을 표현하는 구결자나 점토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시대 국어에 피동이 문법 범주로서 아직 정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218) 앞선 연구들에서는 19세기 말부터 피동 표현이 급증한 이유로, 비인칭 주어의 쓰임이 잦은 영어나 일본어 문헌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외국어의 구문 구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논의하였다. 피동 표현의 증가에 대한 일본어의 영향을 분석한 논의로는 송민(1989), 정광(1995), 유민아(2006) 등이 있고, 영어의 영향을 분석한 논의로는 김동언(2003) 등이 있다.

219) 최현배(1937:552)에서는 피동, 즉 "입음 움직임"은 "월의 임자가 스스로 제힘으로 그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힘을 입어서, 그 움직임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입음의 종류에는 "그 사람이 도적놈에게 잡히었소."에서와 같이 "그 말의 임자가 항상 利害를 느끼는" 것과, "이런 덫에도 범이 잡히나?"에서와 같이 "입음임자(被動主體)의 利害를 들어내는 것이 아니요, 저 본대움직임의 임자(本動詞의 主體)가 그 본대움직임을 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 그리고 "오늘은 꿩은 한 마리도 안 잡히고, 토끼만 작고 잡힌다."에서와 같이 "저 본대움직임의 임자가 저절로 그 본대움직임을 하게 되는 것을 보이는 것"의 세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로 널리 쓰였다. 당시 국어에서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동 접미사와 피동 접미사의 대부분이 형태가 일치했는데 외솔은 동일한 형태가 서로 다른 문법 기능을 하는 현상을 문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동 접미사는 현실에서의 쓰임을 되도록 그대로 인정하되 피동 접미사의 목록은 축소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4.5.1에서는 이러한 논점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피동 접미사의 쓰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피동 보조용언은 뚜렷한 특징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피동 접미사와 중첩돼 쓰인 예들이 보였다. 4.5.2에서는 피동 보조용언의 쓰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한편, 피동 구문에서 행위주 논항에는 보통 '-에게'가 결합되지만 행위주 논항으로 무정 명사가 쓰인 경우에는 '-에', '-으로부터', '-으로 말미암아', '-으로 인하여', '-으로 의하여', '-에 의하여', '-에 인하여' 등 다양한 표현이 쓰였다. 4.5.3에서는 《삼천리》에 쓰인 피동 구문의 행위주 논항 표시 형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4.5.1. 피동 접미사의 쓰임

《삼천리》에 쓰인 피동 접미사에는 '-이-', '-히-', '-리-', '-기-'와[220] '-되다', '-당하다', '-받다' 등이 있었다. 그 중 '-이-', '-히-', '-리-', '-기-'는 그 뒤에 '-우-'가 첨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이-', '-히-', '-리-', '-기-'의 예로, (57)은 피동 접미

220)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의 선택은 대체로 어근의 말음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어근 말음이 'ㄱ, ㅂ ㄼ, ㅍ'이면 '-히-'가 결합되었고(박히다, 접히다, 밟히다, 덮히다), 어근 말음이 'ㄹ'이면 '-리-'가 결합되었다(빨리다, 말리다). 어근 말음이 'ㄲ, ㄴ, ㄶ, ㅁ, ㅅ, ㅊ'이면 '-기-'가 결합되었다(섞기다, 안기다, 끊기다, 감기다, 빼앗기다, 쫓기다). 하지만 어근 말음이 모음이거나 'ㅎ'이면 '-이-'나 '-히-'가 둘 다 결합될 수 있어, '보이다/보히다', '놓이다/놓히다'로 모두 쓰일 수 있었다. 어근 말음이 'ㄷ'이어도 '-기-'와 '-히-'가 모두 허용돼, '닫기다/닫히다'로 모두 쓰일 수 있었다. 또한 '듣다'와 같은 'ㄷ' 불규칙 용언은 '듣기다/들리다'의 두 가지 형태로 쓰였다.

사가 하나만 쓰인 예, (58)는 피동 접미사에 '-우-'가 첨가된 예이다.

(57) a. …눈 쌓인 넓고 넓은 들판을 마음대로 뛰여단니며…<1935-12-삼천리07-11-190>
b. 자긔가 남을 먹으려 하며 또 남에게 먹힐까 두려워…<1935-06-삼천리07-05-296>
c. 뒷벽에 놉다랏케 달린 두 창문은 철근과 철사로 된 견고한 것이고나<1930-11-삼천리02-07-51>
d. 유모에게 안긴 어린애는 스가-렛드를 달멋다.<1938-12-삼천리10-12-242>

(58) a. 그때의 間島에는 발서 白雪이 한 자이나 싸이우고 추위는 零下 22도라고 한다.<1935-02-삼천리07-02-105>
b. 누에에게 먹히우는 뽕닙같이…<1936-01-삼천리08-01-310>
c. …죄수는 허공에 달리워 버리고 만다.<1930-11-삼천리02-07-58>
d. 경순이가 인섭의 팔 안에 안기웠음을 인식하자…<1936-08-삼천리08-08-295>

위의 예에서 '쌓다'의 피동사가 '쌓이다', '쌓이우다'로, '먹다'의 피동사가 '먹히다', '먹히우다'로, '달다'의 피동사가 '달리다', '달리우다'로, '안다'의 피동사가 '안기다', '안기우다'로 쓰인 것처럼, 하나의 동사의 피동형이 '-우-'가 덧난 꼴과 그렇지 않을 꼴로 나타난 예는 20세기 전반기 자료에는 흔히 나타난다. 문맥을 통해 볼 때 '-우-'가 첨가된 피동형과 그렇지 않은 피동형 사이에 의미의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피동 접미사로 사용되어 온 '-이-,' '-히-', '-리-', '-기-'와 달리 '-되다'는 20세기 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피동 접미사로 쓰이기 시작했다. 18세기 자료에 '-되다'에 의한 피동 표현이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피동은 극히 비생산적이었고 19세기까지도 피동의 파생 접미사로서의 '-되다'는 매우 드물게 쓰였다. 중세국어 시기부터 널리 쓰이던 파생 접미사들이 있었는데 '되다'가 갑자기 피동 접미사로 용법을 확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삼천리》에 쓰인 '-되다' 파생 용언들은 거의 대부분이 2음절 한자어 어근에 '-

되다'가 결합된 단어들이다. 이 용언들은 능동형으로 쓰일 때에는 'XX하다'로 쓰였고 피동형으로 쓰일 때에 '-하다' 대신 '-되다'가 결합된 것으로, 이때 '-하다'와 '-되다'가 결합되는 어근들은 이 시기에 새로 생겨난 2음절 한자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은 접미사 '-되다'가 2음절 한자어 '편입, 운전, 자유, 평가, 폐지'에 결합돼 피동사를 파생시킨 예이다.

(59) a. 이리하야 이들 두 사람은 가튼 중대에 <u>편입되엿을</u> 뿐 아니라…<1932-01-삼천리04-01-122>

b. …임이 중요도읍간에는 뻐스가 <u>운전되고</u> 있다.<1936-11-삼천리08-11-124>

c. …인류는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제재로부터 <u>자유되기</u> 불능한 것이다.<1937-01-삼천리09-01-87>

d. …이 논문이 너무 과대하게 <u>평가될</u> 우려가 있는 사회적 사정…<1937-05-삼천리09-04-6>

e.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제도는 <u>폐지되고</u>…<1938-05-삼천리10-05-47>

'-되다' 파생 피동사들은 위와 같이 주로 신생 2음절 한자어 어근에 결합되었지만 그 외에도 당시 새로 생겨난 명사들과 결합해 수많은 피동사를 만들어냈다. 아래는 '-되다'가 '계급투쟁화, 상품화, 다양화, 기업화' 등 '-화' 파생 명사들에 결합된 예이다.

(60) a. 만일 新幹運動이 직면으로 <u>계급투쟁화되지</u> 못한다면…<1931-02-삼천리03-02-6>

b. …以上에 例記한 各新聞紙는 거진다 <u>상품화되엿고</u>…<1932-12-삼천리04-12-31>

c. 각종의 사회적 시설이란 것은 그것이 아무리 <u>다양화되여</u> 있다 할지라도…<1937-05-삼천리09-04-8>

d. 조선 영화 사업이 더욱 <u>기업화되는</u> 날에는…<1938-08-삼천리10-08-243>

그뿐 아니라 '-되다'는 영어 등 외국어를 음차한 단어들에 결합돼 피동사를 파생시키기도 했다. 다음은 '파스(pass), 덤핑(dumping), 클로즈업(closeup), 스텁(stop)'에 결합된 접미사 '-되다'의 예이다.

(61) a. …켄슨은…드디어 宿望이든 辯護士 試驗에 優秀한 성적으로 파스되었다.<1938-11-삼천리10-11-169>

b. 서적 시장에서 덤핑되는 신간 문학서류를 잽싸게 구해놓기 때문에<1938-10-삼천리10-10-270>

c. 가지런한 속눈섭으로 장식된 두 눈이 클로즈업된다.<1938-10-삼천리10-10-249>

d. 이 역사적 大饗音 속에 內亂劇의 雜音은 스텁되고…<1939-06-삼천리11-07-103>

이처럼 '-되다' 파생 피동사 중 많은 수는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제도의 유입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명사들을 어기로 취하고 있었고 이는 20세기 전반기에 피동 접미사로서의 '-되다'의 용법이 급격히 확산된 이유를 짐작케 한다.

'-되다'가 본격적으로 피동 접미사로 쓰이기 시작하던 시기에 함께 발달한 피동 접미사로 '-당하다'와 '-받다'가 있다. 다음은 '-당하다'의 예이다.

(62) a. 乙男이로 말할 지라도 代官 때문에 집세간을 沒收당한 터이라…<1931-04-삼천리03-04-63>

b. 이러케도 모조리 동지에게 배반당한 우리들은…<1931-10-삼천리03-10-84>

c. 내 신체는 남편에게 감금당해서 자유를 일엇스니까…<1934-05-삼천리06-05-88>

d. 光緖 30년에 駐藏幇辦大臣 鳳全이 土民에게 殺害당한 것을 機會로 하야…<1935-01-삼천리07-01-40>

위의 예에 나타난 것처럼 '-당하다'는 대체로 '몰수, 배반, 감금, 살해'와 같이 주어

에 미치는 서술어의 작용이 주어의 뜻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쓰였다. 하지만 '-받다'에는 그런 의미적 제약이 없었다.

(63) a. 그대는 명문의 자제요 또한 교육밧은 신분이닛가…<1930-04삼천리02-02-56>

b. 그러치만 비난밧는 것도 그리스챤의 당연한 바이다<1933-10-삼천리05-10-74>

c. 너는 엇쩌다 절깐에 버림받은 몸이 되여서…<1939-06-삼천리11-07-200>

d. 응당 남자에게 귀염받는 女人으로서는…<1935-08-삼천리07-07-237>

위의 예에 나타난 것같이 '-받다'는 2음절 한자어에 결합되기도 했지만 또한 '귀염', '버림' 등과 같이 '-음' 파생 명사에도 결합될 수 있었다는 점이 '-되다'나 '-당하다'와의 차이점이다. 이 절의 앞부분에서 논의한 접미사 '-이-', '-히-', '-리-', '-기-'는 제한된 어근에만 결합되었지만, '-되다, -당하다, -받다'는 당시 새로 생겨난 수많은 명사들에 결합되어 생산적으로 피동사를 만들어냈다.

이 절의 남은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기술한 《삼천리》에서의 피동 접미사의 쓰임과 이에 대한 『우리말본』의 기술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앞 절의 사동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동 접미사 중 '-이-', '-히-', '-리-', '-기-'는 사동 접미사로도 쓰였는데, 최현배(1937)에서는 이 중 '-기-'와 '-히-'만을 피동 접미사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언어 현상에서 '-이-'나 '-리-'가 피동 접미사로 쓰이는 이유는 언어 사용상의 혼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아래의 인용문은 최현배(1937)에서 '-이-'와 '-히-'의 혼란을 지적하며 피동을 나타낼 때에는 '-이-' 대신 '-히-'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이다[221].

221) 최현배(1937:619)에서 "우리말의 본을 풀이함에 있어서 가장 그 본이 整然하지 못한 것은 움직씨의 입음법(被動法)과 때매김법(時制法)이다. 이는 곧 입음법과 때매김법이 우리말에서 아직 잘 發達되지 못한 것을 보임이다."라고 하였고 기술 태도에 있어서도 입음법과 때매김법은 유독 규범적 태도를 취했다.

(64) 『히』가 홀소리로 끝진 움직씨 아래에서는 잘 들어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世上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알아 보지 못하고, 『이』로 쓰기 때문에, 저 시킴도움줄기 『이』와 混同되어 서로 區別이 없어지는 일이 있다. 보기를 들면,

보이다(使見, 示)와 보히다(被見, 可見),

쓰이다(使用하게 함)와 쓰히다(使用됨)

를 마구 서로 같이 쓴다. 이것은 우리말의 理致를 잘 살피지 못한 큰 잘못이다. 나는 이 두 가지의 區別을 하는 것이 語法에 맞을 뿐 아니라 思想發表의 正確性을 얻기에 必要하며 따라 言語發達에도 極히 必要한 일이라 하노라(최현배(1937:456) [잡이1] 인용, 밑줄은 필자).

모음으로 끝난 어근 뒤에서 '-히-'의 소리가 약해져 '-이-'와 혼동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동 접미사이므로 피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히-'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을 통해 사상을 더 정확히 발표할 수 있고, 그 결과 언어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리-'와 '-히-'의 혼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설명이 보인다.

(65) ㄹ로 끝진 움직씨의 몸 아래에 시킴의 『리』나 입음의 『히』가 붙을 적에는 그 ㄹ을 쌍리을(ㄹㄹ)로 내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히』의 ㅎ이 잘 들어나지 아니한다. 그리하야, 世人은 이런 境遇에 시킴과 입음을 區別하지 못하고 글을 적는다. 이를테면,

(시킴) (입음)

들리다(聞케 함)와 들히다(被聞, 可聞) …… (모다 「들리다」로 씀)

물리다(咬케 함)와 물히다(被咬) …… (모다 「물리다」로 씀)

를 區別없이 서로 같이 씐다. 그러나, 이리해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가 發音으로서는 서로 近似하지마는, 이런 것은 法으로 가를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表音文字의 表意化란 것이 되어서, 讀書 能率에 큰 좋은 影響을 주느니라(최현배(1937:456-457) [잡이2] 인용, 밑줄은 필자).

'-을'로 끝나는 어근 뒤에서 '-히-'의 소리가 약화돼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지만 그렇더라도 피동을 나타낼 때에는 '-리-'가 아닌 '-히-'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표음문자의 표의화"를 통해 "독서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기술하였는데, 표음문자의 표의화란 소리를 적는 문자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문자를 통해 뜻까지 식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문법 기술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문자 언어가 음성 언어를 닮아가는 언문일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자 언어가 그 자체로 합리성을 추구해 가는 당대의 언어적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최현배(1937)에는 앞서 '발음이 근사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 그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다.

(66) ㄹ 아래에서는 『히』는 『리』로 나는 것 같다. 이는 그 우의 ㄹ이 ㄹㄹ로 나기 때문에 그 된흐름소리의 影響을 입어서 『ㅎ』이 잘 들어나지 못함이니라. 그렇지마는, 이것이 저 시킴움직임에서 『이』가 ㄹ아래에 설 적에 그 우의 ㄹ이 ㄹㄹ로 나는 때문에, 『이』가 『리』로 나는 것과는 發音上 얼마큼 다름이 있다. 이를테면,

(ㄱ) 이 울안에는 남이 들어오는 것을 <u>말린다</u>. …… 시킴

(ㄴ) 종이가 엷어서 잘 <u>말힌다</u>. …… 입음

의 (ㄱ)의 『말리』는 올림(악센트)이 첫낱내 『말』에 있고, (ㄴ)의 『말히』는 올림(악센트)이 끝낱내 『히』에 있음과 같다. 이 다름은 매우 적어서 不分明하지마는, 시킴과 입음이 同形일 적에는, 올림(악센트)이 시킴에서는 첫낱내에 있고, 입음에서는 끝낱내에 있음은 거의 一般的 現象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중략)…

이와 같이, 시킴과 입음 사이에는 發音上 얼마큼 다름이 있으니<u>(또 다름이 없다 하더라도 그 整理와 區別을 爲하여)</u>, 시킴에서는 『이』와 『리』를 다 認定하여 주었지마는, 입음에서는 『이』와 『리』는 도모지 認定하지 아니하고, 『히』만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최현배(1937:559-560) [잡이3] 인용, 밑줄은 필자).

즉, 사동의 경우는 악센트가 어근 부분에 오고 피동의 경우는 접미사 부분에 오는 발음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발음상의 차이가 분명치 않고 설령 아예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정리와 구별을 위해서는 사동 접미사와 피동 접미사를 구별해 쓰는 것이 좋다고 기술하였다. 그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말뜻의 정확한 전달과 표음문자의 표의화를 통한 언어 발달의 도모에 있었다.

한편, 앞서 《삼천리》에 피동사에 '-우-'가 첨가된 예를 살펴보았는데, 『우리말본』에는 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 이를 피동의 형태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본』에는 이러한 쓰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1937년에 나온 『한글』 50호의 "물음과 대답(73쪽)" 코너를 보면 이중 피동형의 쓰임에 대한 독자의 질문에 외솔이 답변을 하며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부분이 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67) Q: "흔히 입음꼴로 쓰이는 "날리우다(被飛)", "돌리우다(被回)", "웃기우다(被笑)", "벗기우다(被脫)", "감기우다(被浴)"의 "우다"는 무엇으로 처리될까요."

A: ""우"를 입읍에 쓰는 일이 있으나, 大概는 獨立的 存在로써 쓰히지 아니하고, 加外의 것으로 쓰힙니다. 곧 없어도 좋은데다가 공연히 하나 덧붙여서 쓰는 일이 예사이외다. 이를테면 "먹다"의 입음으로 "먹우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먹히우다"라 함과 같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먹히다"만으로써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로써 OO(필자: 판독불가)한 입음도움줄기로 잡지 아니하였읍니다. 만일 "우"를 獨立한 입음도움줄기라 하면, "깎기우다"는 "깎다"의 입음이 아니라 "깎기다"의 입음이 될 것이외다. ("우리말본" 지은이 최현배)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덧나는 '-우-'는 단독으로 피동 접미사로 쓰이지 못하고 언제나 '-히-'나 '-기-'에 덧붙어 쓰이는데다, '-우-' 없이 '-히-'나 '-기-'만으로도 피동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동 접미사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최현배(1937:558)에서는 파생 피동사의 목록을 표로 제시하였는데, 그 목록을 토대로 《삼천리》의 용례들을 조사한 뒤 두 결과를 대조해 보았다. 아래의 표는 일차적으로 최현배(1937)에서 '-히-' 파생 피동사로 제시된 동사들이 『삼천리』에 실제로 쓰였는지를 조사하고, 이차적으로는 그 어근이 된 동사가 다른 피동 접미사와 결합된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삼천리』에 용례가 없는 경우(표에 ×로 표시된 경우)는 '-어 지다'꼴로 나타난 예가 있는지도 함께 찾아봐 해당 용례가 있을 경우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양쪽의 목록 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하였다.

<표 45> 최현배(1937)에 제시된 '-히-' 파생 피동사들의 『삼천리』에서의 쓰임

어근 말음	최현배(1937)	삼천리
ㄱ	먹히다(食)	먹히다, 먹히우다
	박히다(釘, 印)	박히다, 박이다
ㄹ	알히다(知)	× (알려 지다, 알리워 지다)
	달히다(縣)	달리다, 달리우다
	빨히다(滌, 吮)	빨리다, 빨리우다
	물히다(咬)	물리다, 물리우다
	말히다(卷)	말리다
	걸히다(掛)	걸리다, 걸리우다
ㄶ	앓히다(通)	×
ㅂ	잡히다(捕)	잡히다, 잡히우다
	접히다(摺)	접히다
	업히다(負)	업히다
	잡히다(質)	잡히다
	뽑히다(選拔)	뽑히다, 뽑히우다
	꼽히다(屈指)	꼽히다
ㄼ	밟히다(踏)	밟히다, 밟히우다
ㅌ	흩히다(散)	× (흩어 지다)
ㄾ	핥히다(舐)	×
	훑히다(벼를)	×
ㅍ	짚히다(杖)	짚히우다
	덮히다(蓋)	덮히다
	엎히다(覆)	× (엎어 지다)
	갚히다(報)	×
ㅎ	놓히다(放置)	놓히다, 놓이다

홀소리	쌓히다(積)	쌓이다, 쌓이우다
	타히다(和)	×
	켜히다(鋸木, 點火)	켜이다
	보히다(見)	보히다, 보이다
	쏘히다(射)	쏘히다, 쏘이다
	쓰히다(用)	쓰히다, 쓰이다
	트히다(通)	트이다
	씨히다(書)	씨히다, 씨이다

이 표로부터 당대의 규범과 언어 현실 사이의 몇 가지 차이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대로 어근 말음이 'ㄹ'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 최현배(1937)에서는 '달히다', '빨히다', '물히다', '말히다', '걸히다'와 같이 '-히-'가 결합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삼천리』에서는 '-리-'가 결합된 쓰임만이 확인되었다. 둘째, 거의 대부분의 피동사들이 '-우-'가 덧나는 꼴로도 쓰였지만 최현배(1937)에서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최현배(1937)에 '-히-' 파생 피동사로 제시된 목록 중에 『삼천리』에 그 용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알다'의 피동사로 제시된 '알히다', '앓다'의 피동사로 제시된 '앓히다', '핥다'의 피동사로 제시된 '핥히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동사들은 '알려 지다'와 같이 '-어 지다'와 결합돼 쓰이기도 했다. 넷째, 실제 용례에서는 '-히-'와 '-이-'를 모두 취한 보이는 동사들이 있었는데, 주로 어근 말음이 'ㅎ'이나 모음인 경우에 그런 양상이 집중되어 있었다.

피동 접미사 '-기-'는 '-히-'와 달리 '-이-'나 '-리-'와 발음상의 혼란이 없었기 때문에 최현배(1937)에서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위의 표와 마찬가지로 최현배(1937:561)에 제시된 '-기-' 파생 피동사의 목록을 말뭉치의 용례와 비교해 보았다.

<표 46> 최현배(1937)에 제시된 '-기-' 파생 피동사들의 『삼천리』에서의 쓰임

어근 말음	최현배(1937)	삼천리
ㄴ	안기다(抱)	안기다, 안기우다
ㄶ	끊기다(絶)	끊기다
	꼲기다(擧, 考査)	꼲기다
ㅁ	감기다(卷)	감기다, 감기우다
	심기다(植)	심기다, 심기우다
ㄻ	삶기다(烹)	×
ㅅ	벗기다(脫)	벗기다
	빼앗기다(奪)	빼앗기다, 빼앗기우다
	짓기다(作)	× (지어 지다)
	잇기다(續)	× (이어 지다)
	웃기다(笑)	×
	줏기다(拾)	×
	긋기다(劃)	×
	씻기다(拭)	씻기다, 씻기우다
ㅊ	씻기다(洗)	× (씻겨 지다)
	쫓기다(逐)	쫓기다, 쫓기우다
ㄲ	깎기다(削)	깎기다, 깎기우다
	꺾기다(折)	꺾기다, 꺽기우다
	낚기다(釣)	×
	닦기다(磨)	닦기다, 닦기우다
	섞기다(混)	섞기다, 섞기우다
	볶기다(灼)	볶기다
	엮기다(編)	엮기다

'-기-' 파생 피동사에 대한 문법서의 기술과 실제 용례상의 차이는 주로 '-우-'가 덧난 꼴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었다. 최현배(1937)에서는 '-우-'가 덧난 꼴을 사동사의 목록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삼천리》에 쓰인 실제 용례들 중 상당수는 '-기-'와 '-우-'가 함께 쓰인 경우였다. 한편, 최현배(1937)에 제시된 '삶기다, 잇기다, 웃기다, 긋기다' 등의 피동사는 《삼천리》에서는 그 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4.5.2. '-어 지다' 피동 구문

《삼천리》에 쓰인 피동 표현 중에는 '-어 지다'도 있었다. '-어 지다'는 대응되는

파생 피동사가 있는 동사든 없는 동사든 가리지 않고 결합될 수 있었다. 다음은 파생 피동사의 쌍이 존재하던 '-어 지다' 피동형의 예이다.

(68) a. 이런 광경을 볼 때에 두 소년의 용긔는 꺾어 젔다.<1934-09-삼천리06-09-288>
b. 그 뒤부터 K子(敬元)씨의 소식은 영영 끊어 지고 말았다.<1936-04-삼천리08-04-285>
c. …處女作이라도 그 作品이 健全히 써 진 까닭이다.<1935-01-삼천리07-01-157>
d. 그러나 이 시대는 일로부터 올 좀 더 확고한 기초와 방향을 가진 朝鮮映畵의 준비를 위하야 은연 중에 토대가 쌓아 지고 있는 시대였다.<1941-06-삼천리13-06-199>

위의 예에서 '꺾어 지다, 끊어 지다, 써 지다, 쌓아 지다'의 능동사 '꺾다, 끊다, 쓰다, 쌓다'는 피동 접미사와 결합해 '꺾기다, 끊기다, 쓰히다, 쌓이다'의 피동사로 쓰이기도 했다. 다음은 대응 피동사가 없던 능동사에 '-어 지다'가 결합된 예이다.

(69) a. …그것에 대한 분명한 解得과 방법이 자연 알아 지는 것이외다.<1936-02-삼천리08-02-190>
b. …깨어진 기와쌍이 한두 개 흐터 저 잇는 것도…<1932-05-삼천리04-06-19>
c. 방원의 가슴은 이 『만은』이라는 말 뒤에 이어 질 말을 밀이 깨달은 듯이…<1931-09-삼천리03-09-93>
d. 그러면 이 劇場의 이름은 어떠케 지어 질 것가?<1936-06-삼천리08-06-102>

위의 예에서 '-어 지다'와 결합된 '알다', '흩다', '잇다', '짓다'는 최현배(1937)에는 '알히다', '흩히다', '잇기다', '짓기다'의 대응 피동사가 있는 것으로 기술돼 있지만, 《삼천리》에는 파생 피동사로 쓰인 용례는 보이지 않고 '-어 지다'와 결합한 형태만 보였다.

한편, 한 동사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됐는데 그 뒤에 '-어 지다'가 다시 결합된 이중 피동형을 이루기도 했다.

(70) a.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하나도 사진으로 찍혀 지지 안엇다.<1932-01-삼천리04-01-117>

b. 손꼬락에 힘을 주어 꾹 눌느니 과연 철거닥 소리 내며 뚝경이 열려 지면서…<1933-10-삼천리05-10-106>

c. …더위에 눈이 폭폭 감기여 지는 때에…<1932-09-삼천리04-09-81>

위의 예를 보면, '찍+히+다', '열+리+다', '감+기+다'의 구성을 가진 파생 피동사에 다시 '-어 지다'가 결합돼 피동형이 이중으로 실현됐다. 하지만 이때 피동 접미사와 '-어 지다'가 별개의 피동 행위를 나타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불필요한 중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5.3. 피동 구문의 행위주 표시 형식

피동 구문에서는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주어로 쓰이고 동작을 가하는 행위주가 부사어로 쓰인다. 이때 행위주에 해당하는 부사어에는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주로 '-에게'가 결합됐다.

(71) a. …신라의 부산현령(夫山縣令)으로 잇든 조미압(租未押)이 백제 군사**에게** 잡히어 백제의 좌평(左平) 벼슬한 임자의 집 종이 되엇섯는데…<1935-08-삼천리07-07-100>

b. …그는 서백리아 鑛山에서 전구라파 급 아메리까를 넘어서 「칼포니아」에 이르기까지 수백만의 동무들**에게** 존경되엇고…<1929-06삼천리01-01-9>

c. …孫傳芳씨가 … 背後에 잇든 모던風의 婦人**의게** 拳銃암살당하엿다.<1936-02-삼천리08-02-177>

위의 예에서 행위주는 모두 유정 명사로 그 뒤에 '-에게'가 결합됐다. 피동 구문의 행위주가 유정 명사일 때는 '-에게' 외에도 '-한테'나 '-에'가 결합되기도 했다.

(72) a. 그 무리들은 진노우**한테** 다 쫏기어 갓다.<1935-06-삼천리07-05-297>

b. 印度巡査는 전력을 다해서 군중을 전차선로 저편까지 물리첫스나 다시 욱 달려드는 군중**에** 밀려서 순포방문으로 퇴각을 아니할 수 업섯다.<1930-05삼천리02-03-5>

피동 구문의 행위주에 '-에'가 결합된 예 중에는 (72b)처럼 행위주가 유정 명사인 경우도 있었지만 아래의 예에서처럼 무정 명사인 경우도 있었다.

(73) a. …술**에** 흥분된 마음에 그는 게집의 품이 몹시 그리워 저서…<1931-09-삼천리03-09-94>

b. 평소에 세 사람이나 合力하야 능히 들어 올리며 깰 수 잇는 것도 군중의 一人으로써 전 대중의 기분**에** 자극되어 借力하면 능히 혼자서 그리한 것을 들거나 깨트리는 수 잇는 반면에…<1930-05삼천리02-03-10>

c. …위선 조직부터 하여 놋코 투쟁은 후일에 개시한다는 막연한 관념**에** 지배되여 가지고 명부상 양적 조직에만 몰두하는 반면에…<1931-03-삼천리03-03-18>

(73a)에서는 '술이 마음을 흥분시키다'가 '마음이 술에 흥분되다'로, (73b)에서는 '전 대중의 기분이 (차력꾼을) 자극하다'가 '(차력꾼이) 전 대중의 기분에 자극되다'로, (73c)에서는 '막연한 관념이 (사람을) 지배하다'가 '(사람이) 막연한 관념에 지배되다'로 피동 구문이 됐다. 이 예에서 행위주 논항에는 모두 '-에'가 결합됐다.

피동 구문의 행위주 논항에는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으로부터'나 '-으로 말미암아', '-으로 인하여', '-으로 의하여'가 결합되기도 했다.

(74) a. …그는 陳獨秀와 共히 彼 등의 지도방침이 小뿌르적인 것을 후일 컴민턴**으로부터**

비판됨에 이르렀다.<1930-10삼천리02-06-71>

b. 금시에 꺼질 목숨이 확실히 주사로 **말미암아** 연장되고- 구원되는 것이다. <1934-11-삼천리06-11-255>

c. 필자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학의 純諺文化가 뒤미처 일어나는 日本文化輸入熱**로 인하야** 깨어저 버린 것이다.<1929-09삼천리01-02-16>

d. 오전5시 營舍 南門은 그 직전에 어느 부속가옥 내에 支那軍의 放置된 대포의 2彈**으로 의하야** 파괴되고 同 6時 全兵舍가 점령되여 일본측 兵卒 死者<1932-12-삼천리04-12-16>

이러한 예들은 (74a)에서처럼 행동주가 유정 명사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74b)~(74d)처럼 행동주가 무정 명사였다. 이는 아래의 '-에 의하여', '-에 인하여'가 행위주에 결합된 피동 구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75) a. 모-든 問題의 解決이 國家나 個人을 莫論하고 力量**에 의하야** 左右되는 것이니… <1934-09-삼천리06-09-114>

b. 그러나 1926년에 이르러서는 일반 정세의 변화와 또는 맑스주의적 사상의 심화**에 인하야** 藝術同盟은 再發起되어 가지고 실로 「일하는 단체」가 되엿다.<1929-09삼천리01-02-19>

위의 예에서도 '-에 의하여', '-에 인하여'는 '역량', '심화' 등 무정물이 행위주로 쓰인 피동 구문에서 행위주 표시 형식으로 쓰였다.

4.6. 요약

지금까지 《삼천리》에 나타난 용례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양상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4.1에서는 시간 표현, 4.2에서는 높임 표현, 4.3에서는 부정 표

현, 4.4에서는 사동 표현, 4.5에서는 피동 표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4장의 논의를 통해 밝혀진 20세기 전반기 양상 표현 특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1) 시간 표현

4.1에서는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선어말어미와 보조용언에 대해 살펴보았다. 20세기 전반기에는 '-었-'이 '-어 잇-'의 용법을 유지한 채 완료상을 나타내는 일부 예를 제외하면 '-었-'과 '-었었-', '-겠-', '-더-' 등 선어말어미의 쓰임은 대체로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3장의 관형절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본 대로 관형사형 전성어미에서는 '-었는'과 '-은'이 혼용되거나 '-은'과 '-을'이 혼용되는 등 각 어미의 시제 표시 기능이 확립되지 않았었다. 상 표현의 보조용언들도 상 표시 기능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어 있다'가 순간적 동작을 나타내는 타동사에 결합돼 완료상을 나타내거나 '-고 있다'가 자동사에 결합해 완료상을 나타내고, '-어 있다'가 형용사와 결합해 완료상을 나타내는 등 오늘날과 다른 용법이 확인되었다. 또한 '-어 가다'나 '-어 오다'가 형용사에 결합해 상태 변화를 나타내기도 했다.

2) 높임 표현

4.2에서는 선어말어미의 쓰임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높임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다. 당시 '-으시-'는 대개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했지만 일부 예에서는 상대 높임을 나타낸 쓰임도 보였다. '-삽-'은 당시 상대 높임의 기능을 했지만 일부 예에서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선어말어미로서의 자격을 잃고 형태소의 자격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삽-'과 '-이-'는 '-삽나이다>-삽내다>-습니다', '(-삽더이다)>-삽데다>-습디다'의 과정을 거쳐 종결어미의 일부로 편입되기도 했다(<표 38>

참고).

3) 부정 표현

4.3에서는 부정 부사와 부정 보조용언의 쓰임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부정 표현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시에는 '아니'에서 '안'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부정 부사 '아니'와 '안'은 당시 비슷한 정도로 쓰였지만(<표 39> 참고) '아니하다'와 '않다'는 후자가 훨씬 더 우세한 쓰임을 보였다(<표 40> 참고). '아니하다'와 '않다'의 중간적 형태인 '안하다'의 쓰임도 확인됐다. '아니하다>안하다>않다'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각 단계에 속한 형태들은 보통은 기능상의 차이 없이 쓰였지만 이중 부정에서는 각각이 결합되는 부정 용언이 서로 달리 나타났다(<표 42> 참고). 한편, 당시 용례에는 부정 부사가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개재된 쓰임이 널리 나타났고, '아니다'가 부정 보조용언으로 쓰인 예가 발견됐다. 보조용언 '말다'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일부 예에서는 평서문이나 의문문에 쓰였고(<표 41> 참고), 금지의 뜻이 아닌 단순 부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4) 사동 표현

4.4에서는 사동 접미사와 사동 보조용언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사동 표현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동 접미사나 '-게 하다'의 기본적인 쓰임은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사동 접미사와 어기의 결합 양상에서는 오늘날과 다른 쓰임이 확인되기도 했고 사동 접미사 두 개가 중첩되거나 사동 접미사와 사동 보조용언이 중첩되는 이중 사동형의 쓰임이 널리 나타났다. 사동 구문에서 피행위자 논항에는 보통 '-를'이 결합됐는데 행위주가 불분명하거나 생략된 경우에는 자동 구문의 구조가 유지돼 '-가'가 쓰이기도 했다. 또한 피행위자 논항 뒤에 '-에게'나 '-로 (하여금)'이 쓰이기도

했다.

5) 피동 표현

4.5에서는 피동 접미사와 피동 보조용언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피동 표현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동 접미사나 '-어 지다'의 기본적인 쓰임은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피동 접미사에 '-우-'가 덧나거나 피동 접미사와 피동 보조용언이 중첩되는 이중 피동형이 널리 쓰였다. 피동 구문에서 행위자 논항에 보통 '-에게'나 '-한테'가 결합됐지만 행위자가 무정물인 경우에는 '-에'나 '-으로부터', '-으로 말미암아', '-으로 인하여', '-으로 의하여', '-에 의하여', '-에 인하여' 등 다양한 표지가 쓰였다.

5. 《삼천리》의 문장의 특징과 『우리말본』의 비교

지금까지 3장과 4장의 논의를 통해 《삼천리》에 쓰인 문장의 구성적 특징과 양상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3~4장의 각 절에서는 말뭉치에 나타난 용례의 양적·질적 분석과 더불어 『우리말본』 초판에 나타난 문법 기술과의 비교도 이루어졌는데 이 장에서는 각 절의 비교 결과를 종합해 실제 언어 현상과 문법서의 기술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5.1에서는 3장과 4장의 논의를 통해 밝혀진 《삼천리》의 문장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5.2에서는 《삼천리》의 문장의 특징 중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을 반영한 특징들은 대부분 『우리말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해당 특징들이 당대 문장에 널리 나타났음에도 문법서의 기술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3에서는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이 아닌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한 변이가 『우리말본』에서 어떤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법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취사선택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5.1.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특징

《삼천리》의 분석 결과 20세기 전반기 문장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1) a. 문법 형태 간의 기능 미분화로 인한 혼용
b. 재구조화 과정의 각 단계에 속하는 문법 형태의 공존
c. 새로운 문법 형태 및 통사 구조의 정착 과정
d. 기능이 같은 서로 다른 문법 형태의 중복 사용

e. 한문의 어순에 따른 통사 구조와 국어의 어순에 따른 통사 구조의 공존
f.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의 잔재
g. 일본어에서 유래한 문법 형태의 쓰임

(1a) 서로 다른 문법 형태가 기능이 분화되지 않은 채 혼용되던 현상으로는 명사형 전성어미 '-기'와 '-ㄴ 것' 또는 '-ㄴ 지'의 혼용, 연결어미 '-기'와 '-기에'의 혼용, 명사형 전성어미 '-음'과 의문형 어미 '-ㄴ지' 또는 '-ㄹ지'의 혼용,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과 '-었는'의 혼용, 관형사형 전성어미 '-을'과 '-는' 또는 '-은'의 혼용, '-고 있다'와 '-어 있다'의 혼용 등이 있었다.

(1b) 재구조화 과정의 각 단계에 속하는 문법 형태들이 공존하는 현상은 높임 표현의 '-삽나이다', '-삽내다', '-습니다'의 쓰임과 '-삽데다', '-습디다'의 쓰임에서 나타났고, 부정의 보조용언 '아니'와 '안', '아니하다'와 '안하다'와 '않다'의 쓰임에서도 나타났다.

(1c) 20세기 전반기에 그 쓰임이 급격히 확산되며 국어 문법 체계에 정착해 가는 모습을 보인 문법 형태도 있었는데 명사형 전성어미 '-적', 인용 표지 '-고', 피동 접미사 '-되다', '-당하다', '-받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20세기 전반기에 확산된 새로운 통사 구조에는 네 개 이상의 명사구가 '-의'를 매개로 이어진 명사구 수식 구성, 인용 동사가 인용절에 후행하는 인용문의 구조 등이 있었다.

(1d) 20세기 전반기 문장에서 기능이 같은 서로 다른 문법 형태가 중복 사용되는 현상은 접속조사와 접속부사의 중첩이나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중첩, 사동 접미사와 사동 보조용언, 피동 접미사와 피동 보조용언의 중첩, 둘 이상의 사동 접미사의 중첩 등이 있었다.

(1e) 한문의 어순에 따른 통사 구조와 국어 어순에 따른 통사 구조의 공존하는 현상은 '한문구+하다' 구성의 내적 구조나 앞서 기술한 인용문의 구조 등에서 발견되었다.

(1f) 한문이나 구결문의 영향이 20세기 전반기 문장에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접속조사와 접속부사의 중첩,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중첩, '한문구+하다' 구문, '1음절 한자+하다' 용언이 '-ㅁ' 명사절을 논항으로 취한 구문들, '1음절 한자+히' 파생 부사의 쓰임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

(1g) 20세기 전반기에는 사회・문화 전반에 일본의 영향이 있었고 이는 언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당시의 언어 현상 중 어떤 것이 일본어의 영향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파생 접미사 '-적'의 쓰임은 일본어 '-的'의 영향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어지는 5.2에서는 이상의 특징들 중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을 반영한 특징들이 『우리말본』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검토하고, 5.3에서는 그 밖의 언어 내적 변화로 인해 나타난 특징들이 『우리말본』의 문법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5.2.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에 대한 『우리말본』의 태도

앞 절에서 기술한 《삼천리》 문장의 특징은 언어 내적 변화로 인해 나타난 것도 있고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이 잔재한 결과 나타난 것도 있으며 일본어의 영향으로 나탄 것도 있다. 이 중 언어 내적 변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들과 일본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용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리말본』에도 기술이 되어 있지만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을 반영한 현상들은 대부분 『우리말본』에서는 설명으로도 예문으로도 언급되지 않았다.

'~과 밋 ~' 등 접속조사와 접속부사의 중첩, '~으나 그러나' 등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중첩, '한문구+하다' 구문, '[~음]이 있다(有하다)/없다(無하다)', '[~음]을 얻다(得하다)' 등 '1음절 한자+하다' 용언이나 대응 고유어 용언이 '-ㅁ' 명사절을 논항

으로 취하는 현상 등에 대한 기술은 『우리말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삼천리》의 문장은 당시 여타의 근대적 매체에 사용되던 문장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일러두기에서 "이 책은, 오늘날의 조선말의 큰 것, 작은 것을 빼지 않고, 그 본을 풀어서, 다 말본에서의 一定한 자리와 그 運用을 밝히고자 하였다."라고 밝힌 것처럼 외솔은 문법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당시 언어의 실제 쓰임을 면밀히 관찰해 상당히 기술적 태도를 취했다. 그런데도 당대의 문장에 흔히 나타나던 언어 현상이 『우리말본』의 문법 기술에서는 빠져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말본』의 일러두기에서는 이 책을 통해 "오늘날에 實際로 쓰히는 입말(口語)과 글말(文語)의 본(法)을 풀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말본』에서 언급되지 않은 《삼천리》 문장의 특징들은 당시에 문어 차원에서만 쓰이고 실제로 발화되지는 않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삼천리》의 분석 결과와 『우리말본』 사이의 간극은 당시 문장에 남아 있던 언문 불일치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는 것이다.

『우리말본』의 문법 체계가 당시의 문어와 구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언어 현상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뿐 아니라 'NP의 NP의 NP의 NP' 등 길게 확장된 명사구 수식 구성처럼 《삼천리》에서 흔히 보이던 특징들이 『우리말본』에 기술되지 않은 것도 해당 표현이 구어에서는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5.3. 『우리말본』의 문법 체계와 문법적 변이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으로 당시 문장에 나타나던 특징들은 대체로 『우리말본』의 문법 기술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삼천리》에서 발견된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한 문법적 변이는 『우리말본』 곳곳에 반영되어 있었다.

『우리말본』 초판의 머리말에 기술된 것처럼 이 책은 “조선말의 말본을 닦아서, 그 理致를 밝히며, 그 法則을 들어내며, 그 온전한 體系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변이에 대한 기술보다는 체계의 확립에 더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법의 각 항목에 대해 체계를 제시한 뒤 ‘잡이’라는 코너를 따로 마련하여 당시에 어떤 변이가 나타났고 그 중에 왜 특정 형태, 혹은 특정 용법을 문법 체계에 포함시켰는지를 상술하였다.

이때 변이의 반영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①각 항목별 기술에서 첫째꼴과 둘째꼴이 있음을 밝혀 실제 언어 사용상의 변이를 모두 문법 체계에 받아들이기도 했고 ②여러 변이 중 하나만 문법 체계 속에 받아들이기도 했다. 아래의 표는 3~4장에서 기술한 문법적 변이 중 『우리말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표 47> 《삼천리》에 나타난 문법적 변이에 대한 『우리말본』의 기술

《삼천리》		『우리말본』	문법 항목(쪽수)
①	직접 인용의 ‘-고’ / 간접 인용의 ‘-고’	바로 따옴과 건너 따옴의 두 용법 모두 인정	따옴 토씨 ‘-고’(856쪽)
①	‘-었는’ / ‘-은’	‘-었는’과 ‘-은’을 모두 인정 : 옛적법과 이제법/쓰이는 범위 차이	어떤꼴의 지난적 ‘-었는’과 ‘-은’(618-619쪽)
①	‘-을’ / ‘-은’ (형용사)	‘-을’과 ‘-은’을 모두 인정 : ‘-을’은 순간적, ‘-은’은 고정적 의미	어떻씨 어떤꼴 이제(737-741쪽)
②	‘-을’ / ‘-는’ (동사)	‘-을’만 인정: 현실적으로는 주로 ‘-는’을 쓴다고 덧붙임	움직씨 어떤꼴 이제 ‘-을’(618쪽)
②	NP와 NP / NP와 NP와	NP와 NP만 인정 : 중의성이 발생할 때에는 ‘NP와 NP와’로 쓸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이음토씨 ‘-과’(883쪽)
②	사동 접미사 / 사동 접미사+‘-우/이-’	단일 사동형만 인정, 이중 사동형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바로잡음.	시킴도움줄기(537-541쪽)
②	사동 접미사 / 사동 접미사+‘-게 하다’	단일 사동형만 인정	시킴도움줄기(537-541쪽), 시킴움직씨(550-552쪽)
②	피동 접미사 / 피동 접미사+‘-우-’	‘-우-’가 덧나지 않은 꼴만 인정	입음도움줄기(557-558쪽)
②	피동 접미사 / 피동 접미사+‘-어 지다’	단일 피동형만 인정	입음도움줄기(557-558쪽), 입음움직씨(569-570쪽)

위의 표에서 ①로 표시한 것은 《삼천리》에 나타난 해당 항목의 변이가 『우리말본』의 문법 체계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②로 표시한 것은 변이 중 하나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①과 ② 각각의 경우 안에서도 서로 다른 기술 태도가 보인다.

《삼천리》에 나타난 문법적 변이를 『우리말본』에서 그대로 인정한 경우, 세 가지 서로 다른 태도가 보였다. 인용 표지 '-고'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모두 쓰이는 용법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대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관형절의 과거 시제가 '-었는'과 '-은'으로 표시되던 용법에 대해서는 둘 다 인정하되 '-었는'으로 쓰는 것은 옛적법이며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쓰이는 등 사용 범위가 좁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시간 명사 앞에서 '-을'과 '-은'이 혼용되던 현상에 대해서는 둘 사이에 의미 차이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외솔은 『우리말본』 전반에서 문법에 대한 합리적 기술을 추구했다. 즉, 실제 용법에서 하나의 문법 형태가 둘 이상의 기능을 할 때, 해당 기능 중 어느 하나를 담당하는 다른 문법 형태가 존재한다면, 서로 다른 문법 형태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용 표지 '-고'의 경우 '-고'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두루 쓰여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당시 직접 인용 표지로 '-라고'도 쓰였기 때문에 직접 인용의 경우 '-고'와 '-라고'가 같은 기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인용 표지에 대해서는 체계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당대의 현실적 용법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대해서는 '-었는'이 옛날식 용법이며 그 사용 범위도 한정적이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은'의 사용을 유도했고, 실제 용법에서는 형용사에 결합된 '-을'과 '-은'이 뒤섞여 쓰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의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해 둘 사이의 기능을 명확히 구별하려 하였다.

《삼천리》에 나타난 문법적 변이 중 어느 하나만을 인정한 경우 역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태도가 보였다. 동사에 결합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중 '-을'과 '-는'은 모두 관형절의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었는데 『우리말본』에서는 '-을'만을 제시하

였다. 하지만 덧붙인 설명에서는 실제로는 '-는'이 더 많이 쓰인다고 하여 실제 용법과 괴리가 있더라도 '-을'을 쓰는 것이 옳다는 뜻을 표했다. 한편, 명사구 접속 구성에서 마지막 명사구 뒤에 '-과'가 탈락되는 꼴을 표준으로 잡으면서도 중의성이 발생할 때는 마지막 '-과'를 살려 쓸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사동 접미사가 쓰인 이중 사동형에 대해서는 이중 사동형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동 접미사와 사동 보조용언이 같이 쓰인 경우나, 피동 접미사와 피동 보조용언이 같이 쓰인 경우, 피동 접미사에 '-우-'가 덧난 현상 등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올바른 쓰임이 무엇인지만 제시하였다.

이처럼 언어적 변이가 극심하던 당시의 언어 현실에서 문법 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를 문법적 쓰임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판단을 요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말본』의 때매김법 부분을 보면 언어 현실과 체계 사이의 괴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보인다. 외솔은 12가지로 때매김법의 체계를 세우면서[222] 이러한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을 덧붙였다(밑줄은 필자).

(2) "그러나 다시 생각하건대, 그 열 두 가지의 때매김 혹은 스물 네 가지의 말모양은 다만 語法的 論理에 衣하야 整頓한 것이요, 그 各各의 말모양이 實地로 다 쓰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쓰히고, 어떤 것은 쓰히지 아니하야, 一定한 準則이 없다. 그러므로, 다만 오늘날의 말씨(言語使用)로써만 그 법을 삼는다면, 그것이 넘어도 不完全 不整齊하여서 足히 法이 있다 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것을 規則的으로 排列하여 놓았다. 그러므로, 元來 말본이란 것은 實際로 사용되는 말의 뒤를 좇아가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는 도리어 얼마큼 말본이 말 그것보다 앞선 봄(觀)이 없지 아니하다. 그렇지마는, 오늘의 우리의 생각은 이미 높은 程度로 發達되어서, 그러한 正確한 때매김있는 發表를 要求하게 된 것도 또한 事實이다. 그래서 一邊에서는 實地의 使用을 보고, 他邊에서는

222) 외솔은 관형절의 시제를 기본적으로 이제(現在), 지난적(過去), 올적(未來)으로 나누고, 각각을 마침(完了)과 이음(繼續), 이음의 마침(繼續完了)으로 나누어, 이제, 이제마침, 이제이음, 이제이음의 마침, 지난적, 지난적마침, 지난적이음, 지난적이음의 마침, 올적, 올적마침, 올적이음, 올적이음의 마침의 열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法的으로 實地 使用의 可能性을 參照하야, 다음과 같이, 整理한 것이다. 要ㅎ건대, 이 어떤꼴의 때매김은 나의 우리말본 가운데에서 가장 마뜩지 못한 部分임을 여기서 사뢰어 두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최현배 1937:619-620)."

위의 기술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말본』의 문법 체계는 한편으로는 실제의 사용을 반영하고 한편으로는 어법적 논리에 따르되 실제 사용의 가능 여부를 고려해 세워진 것이었다. 외솔 자신이 "얼마큼 말본이 말 그것보다 앞선 봄(觀)"이 있다고 언급한 것처럼 『우리말본』의 문법 체계는 당대의 실제 언어 사용과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우리말본』의 입음법에 대한 기술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민이 보인다. 당시 '잃다, 그리다, 줍다' 등의 동사는 그에 대응되는 파생 피동사가 없었기 때문에 형태적 피동법은 빈자리가 많은 불안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우리말본』이 제시한 해결책은 '-히-'나 '-기-'에 의한 형태적 피동법을 "억지로 응용하여서" "잃힌 진주, 그리힌 산수, 주힌 물품" 등으로 쓰게 하거나, '지다'에 의한 통사적 피동법을 확장하여 "잃어 진 진주, 그리어 진 산수, 주어 진 물품"과 같이 쓰게 하자는 것이었다(최현배, 1937:433). 이러한 제안을 하며 외솔은 '문법이란 있는 그대로의 언어 현실을 충실히 기술하는 것에 그쳐야 하는가' 아니면 '언어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지침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피력한다. 본문에서는 한 단락으로 이어져 있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밑줄은 필자).

(3) a. 오늘날 우리의 생각의 피동적(被動的) 발표의 요구에 응하여, 우리는 우리 배달말을 이 두 가지로 발달시켜야 할 마당에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어떤 이는 말하리라: --- 말본 책의 임무는 다만 사실로 존재하는 말의 본연을 찾아 정리함에, 다시 말하면 귀납적(歸納的)으로 정리된 법으로써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말을 설명함에 있을 따름이

다. 말본책의 지은이는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이제 너는 연역적(演繹的)으로 새 경지에 응용하려 하며, 또 확장적(擴張的)으로 새 뜻을 부여(附與)하려 하니, 너무도 말본책(語法書)의 본분(本分)을 벗어난 참월(僭越)이 아니냐? 고. 그렇다. 나도 그러함을 안다(최현배, 1937:433, 밑줄은 필자)."

b. 그러나, 말이란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의 진보를 따라서 늘 변해 간다.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한다. 현재의 말본은 현재의 말에 대하여 설명적이요, 그 말을 쓰는 사람에게 대하연 규범적(規範的)이요, 따라 새로 말을 만들어 가는 사람의 언어 생활의 창조적 활동에 대하연 역시 규범적(물론 절대적 규범은 될 수 없겠지마는) 일 것이다(최현배, 1937:433, 밑줄은 필자).

c. 설혹, 한걸음 사양하여, 이 규범성을 전연 부인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살이(言語生活)가 줄창 창조적임을 깨쳐야 한다. 이제는 없는 것이라도 생활의 필요를 따라 자꾸 만들어 가는 것임을 깨쳐야 한다. 이는 단순한 공리(空理)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바이다(최현배, 1937:433, 밑줄은 필자).

(3a)의 첫 문장에서는 우리말이 생각의 피동적 요구를 담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보인다. 문법 기술에서는 마땅히 귀납적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피동법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연역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b)에서는 말이라는 것이 본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이 변해감에 따라 함께 변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말을 적극적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말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기술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말의 속성에 따라 문법이란 것은 설명적이면서도 동시에 그 언어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규범적일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3c)를 보면, 설사 문법의 규범성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말의 창조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하며 이는 단지 공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임이라고 하였다. 당시는 피동문을 별로 쓰지 않던 우리말에 갑자기 피동 표현이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난 때였다. 말이라는 것이 어차피 변하는 것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그 말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당위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5장에서는 3~4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특징을 정리하고, 《삼천리》에 나타난 문장의 변이와 『우리말본』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전통적 문장 쓰기 관습이 계승된 결과 《삼천리》에 나타난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은 『우리말본』에는 거의 기술되지 않았지만, 그 밖의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한 변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법 체계에 반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6. 결론

이 연구는 20세기 전반기 우리말 문장의 특징을 밝히기 위한 연구로 1929년부터 1942년까지 발행된 대중종합지 『삼천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20세기 전반기 우리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문법에 대한 연구도 높임법이나 연결어미에 집중된 경향이 보였으며 대부분이 1910년 이전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화기 국어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 대상 시기를 확장해 1920~1940년대까지 포함한 20세기 전반기를 연구 대상 시기로 설정했다. 또한 그동안 국어학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중적 종합잡지 『삼천리』를 분석 자료로 삼아 그 안에 나타난 문장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삼천리』에 나타난 언어의 변화와 변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약 290만 어절의 《삼천리말뭉치》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20세기 전반기 문장이 중세 및 근대국어, 그리고 현재와 어떤 차이를 가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15~19세기 자료로 구성된 《세종역사》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기에 발행된 학회지로 구성된 《1890-1900학회지》, 1990년 이후에 발행된 자료로 구성된 《현대》를 보조 말뭉치로 활용하였다.

2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며, 언해문을 통해 형성돼 수백 년간 유지되던 전통적 문장 쓰기 관습이 19세기 말부터 급격히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체적 실험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법적 변이도 나타났음을 확인했는데, 이 시기에는 구형과 신형이 공존하는 양상이 일반적으로 언어의 공시태 속에 나타나는 양상과는 매우 달랐다. 즉, 수백 년의 시간적 거리를 둔 문법 형태들이 뒤섞여 쓰였는데 이는 당시에 그만큼 문법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언어는 본래 점진적으로 꾸준히 변화하는 속성을 갖지만 20세기 전반기처럼 언어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그에 따라 언어, 특히 문장 자체도 급격히 바뀌어야 했던 상황 속에서는 기존의 문법사적인 점진적 발달 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언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적 변이에 대한 기술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광범위한 용례 분석을 통해 기술된 언어의 변이 속에서 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구성적 특징과 양상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3장의 주제인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구성적 특징은 구 구조와 절 구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3.1에서는 《삼천리》에 나타난 명사구와 동사구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고, 3.2에서는 《삼천리》에 나타난 접속절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등 내포절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4장의 주제인 20세기 전반기 문장의 양상적 특징은 《삼천리》에 나타난 시간 표현, 높임 표현, 부정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의 각 절에서는 말뭉치에 나타난 변이를 기술하고 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당시 언어적 변이 속에서 발견되는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삼천리》의 분석 결과 나타난 문장의 특징들을 1937년에 발행된 『우리말본』 초판의 기술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당대 문장에 남아 있었던 한문 및 구결문의 영향은 대부분 『우리말본』의 문법 기술에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특징들이 당시에 구어로 발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한편, 언어 내적 변화로 인해 나타난 문법적 변이들은 『우리말본』의 문법 체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20세기 전반기 자료에 나타난 다양한 언어적 변이와 이에 내재된 언어 변화는 국어가 걸어온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과도적 시기를 거치지 않았더라면, 혹은 다른 방식으로 겪었더라면 현대국어는 지금과는 무척 다른 모습일 수 있다. 언어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 언어의 사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시기에 대한 연구는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세국어 문법 체계, 현대국어 문법 체계

등이 성립하는 것은 해당 시기의 언어가 체계를 통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체계보다는 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시기의 언어에 대해서는 변이 양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그 안에서 변화의 방향성을 찾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논의를 마치기 전에 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들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문장 사용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 변인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20세기 전반기 문장에 나타난 전반적 특징을 드러냈다면 앞으로는 보다 세밀한 자료 설계를 통해 장르에 따른 문장의 특징, 필자의 수학 배경이나 연령, 성별 등에 따른 문장의 특징 등이 보다 세부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언어적 격동기를 지나 현대국어의 문장이 오늘날의 틀을 갖추게 된 과정을 보다 자세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20세기 전반기 문장 사용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자료로서 당대에 널리 읽혔던 대중종합지를 선택했지만, 당시 잡지보다 더 대중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신문 자료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였던 만큼, 다수의 독본과 작문법 교재들이 편찬되었는데 이러한 자료도 국어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우리말본』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지만 당시 '언어의 실제 사용 양상과 문법 체계의 정립 과정'이라는 주제로 연구 자료를 보다 확장시켜 분석할 필요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 전반기 문법서 중 그 이후로 판을 고쳐 꾸준히 발행된 것을 대상으로 개정판에서 어떤 내용이 변화됐는지를 검토해 보고,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이 실제 언어 사용과의 괴리 때문이거나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의 변화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고찰해 볼 필요도 있다. 이 연구의 사동 표현을 다룬 부분에서, 『우리말본』 초판에서는 이중사동형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판본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문법 기술이 바뀐 것을 확인했다. 이는 《삼

천리》 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당시에 이중사동형이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실제 용법을 반영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문어에 한정되지만 20세기 전반기 국어에 대한 연구는 구어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국어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20세기 전반기는 실제의 음성 자료를 통해 우리말 구어를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이다. 그 무렵부터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기 때문이다. 앞으로 20세기 전반기 음성 자료들로 연구 대상을 확장시킨다면 공시적 연구로서 20세기 전반기 구어와 문어의 비교 연구, 혹은 통시적 연구로서 오늘날의 구어와 20세기 전반기 구어의 비교 연구 등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라타니 고진 저/조영일 역(2009).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b.

강규선(1989). 「20世紀 初期 國語의 敬語法 硏究: 「新小說」을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윤호(1975).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교육출판사.

강지영(2007). 「20세기 초기 국어 상대경어법의 등급과 실현 양상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영근(1997). 「개정판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고영근(1998). 「한국어문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고영진・김병문・조태린 편(2012). 「식민지 시기 전후의 언어문제」. 소명출판.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2007). 「연구 보고서: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특수자료 구축(연구 책임자: 서상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2). 「연구 보고서: 일본어 투 어휘자료 구축(연구 책임자: 이한섭)」. 국립국어원.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권재일(1994). "개화기 국어의 접속문 연구: 교과서 자료를 대상으로". 「한국학연구」6.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13-247쪽.

권재일(1995). "20세기 초기 국어의 명사화 구문 연구", 「한글」229. 한글학회. 203-232쪽.

권재일(1998).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권재일(2005). 「20세기 초기 국어의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김근수(1980). 「한국잡지사」. 청록출판사.

김동언(1999). “개화기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61-114쪽.

김동언(2003). “현대국어 번역 문체 변천 연구: 천로역정과 성경을 중심으로”. 「어문논집」47. 민족어문학회. 129-159쪽.

김미형(1997). “언해문(諺解文)의 문체 특징 연구”. 「어문학연구」6.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35-55쪽.

김미형(1998). “한국어 문체의 현대화 과정 연구: 신문 문장을 중심으로”. 「어문학연구」7.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23-147쪽.

김미형(2004). “한국어 언문일치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글」265. 한글학회. 171-199쪽.

김미형(2005). 「우리말의 어제와 오늘: 정신의 변화를 안고 흐른 국어의 역사」. 제이앤씨.

김병문(2000). 「말과 글에 대한 담론의 근대적 전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병문(2008). “발화기원 소거로서의 언문일치체의 의미에 관하여: 이광수의 1910년대 작품의 경우”. 『사회언어학』16-2. 한국사회언어학회. 81-103쪽.

김병문(2009). “‘國語’를 찾아서: 주시경의 경우”. 「사회언어학」17-2. 한국사회언어학회. 25-55쪽.

김병문(2012). 「주시경의 근대적 언어 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상대(1985). 「中世國語 口訣文의 國語學的 硏究」. 한신문화사.

김상대(1989). “언해문과 구결문의 대조적 특성 고찰”, 「국어교육」67. 한국어교육학회. 1-12쪽.

김석득(1983). 「우리말 연구사」. 정음문화사.
김성주(2005). “석독구결의 사동 표현”. 「구결연구」14. 구결학회. 147-171쪽.
김성주(2006). “석독구결(釋讀口訣)의 피동 표현”. 「구결연구」16. 구결학회. 119-140쪽.
김영민(1997). 「한국근대소설사」. 솔.
김영민(2005).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출판.
김영민(2008). “『만세보』와 부속국문체 연구”. 「대동문화연구」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15-453쪽.
김영민(2009). “근대계몽기 문체 연구: 유길준을 중심으로”. 「동방학지」1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91-428쪽.
김영민(2010). “근대 유학생 잡지의 문체와 한글체 소설의 형성 과정: 『여자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41. 한국문학연구학회. 39-69쪽.
김영민(2011). “근대 매체의 독자(讀者) 창작 참여 제도 연구(1)”. 「현대문학의 연구」43. 한국문학연구학회. 97-128쪽.
김영식(2004). 「아버지 巴人 金東煥」. 國學資料院.
김영식 편(2002). 「巴人 金東煥誕生 100周年紀念集」. 도서출판 선인.
김완진(1960). “능엄경언해에 관한 몇 가지 과제”. 「한글」127. 한글학회. 70-83쪽.
김일환(2005). “명사형 어미 ‘-기’의 특이성”. 「한국어학」28. 한국어학회. 39-53쪽.
김의수(2000). “현대국어 대우법의 형성과 변천”.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3」. 박이정. 9-30쪽.
김정호(2011). “20세기 초기 국어 청자 높임법의 변화에 대한 통계적 분석: 대화 참여자의 성별 요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어사 연구론」. 도서출판 경진. 238-298쪽.
김종택(1983). “석보상절의 표현구조”. 「배달말」8. 배달말학회. 115-133쪽.
김태훈・박상진(2011). “신어의 정착 연구: 1920~1930년대 대중 잡지에 소개된 신어

를 대상으로". 「한국어의미학」35. 한국어의미학회. 71-99쪽.
김현주(2006). "후기 근대국어 존대법: 객체존대법의 소멸과 청자존대법의 발달을 중심으로". 「후기 근대국어 통사의 연구」. 역락. 55-91쪽.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학교출판부.
김형철(2010). 「국어 어휘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김흥수(1988). "언어학적 문체론의 위상과 과제". 「국어국문학」100. 국어국문학회. 63-74쪽.
김흥수(1993). "국어 문체의 통사적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31. 한국언어문학회. 83-101쪽.
김흥수(2004). "이른바 개화기의 표기체 유형과 양상". 「국어문학」39. 국어문학회. 58-76쪽.
남기심(1972). "現代國語 時制에 關한 問題". 「국어국문학」55·56·57. 국어국문학회. 213-238쪽.
남기심(1977). "개화기의 국어 문체에 대하여". 「연세교육과학」12. 연세대학교. 71-86쪽.
남기심(1980). "이른바 國語時制의 基準時點 問題에 對하여". 「한국학논집」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409-442쪽.
남기심(2001).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남윤진(2011). "소설자료를 통해 본 20세기 한국어의 부정문 사용양상". 「한국어와 문화」9.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89-319쪽.
남풍현(1972). "「杜詩諺解」 註釋文의 '-로'에 대한 考察: 國語에 미친 漢語의 文法的 影響을 中心으로". 「論文集」(단국대학교) 6.
문혜윤(2008). 「문학어의 근대: 조선어로 글을 쓴다는 것」. 소명출판.
미쓰이 다카시(2003). "植民地下 朝鮮에서의 言語支配: 朝鮮語 規範化 問題를 中心으

로”. 「한일민족문제연구」4. 한일민족문제학회. 203-233쪽.
미쓰이 다카시(2011). “근대 조선 언어운동사, 어떻게 볼 것인가?: 언어 운동과 정책, 그리고 권력의 관점에서”. 「제1회 인문언어학 국제 포럼: 한일관계 속의 인문언어학의 모색 발표자료집」. 51-63쪽.
미쓰이 다카시(2012).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言語の政治學: 朝鮮言語政策・社會史再考”. 「한림일본학」20.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61-104쪽.
민현식(1984). “개화기 국어의 경어법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9-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5-149쪽.
민현식(1994a). “개화기 국어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111. 국어국문학회. 37-61쪽.
민현식(1994b).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 (1)”, 「국어교육」 83. 113-152쪽.
민현식(1999). “개화기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63-234쪽.
박갑수 편저(1994). 「국어문체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박상진(2011). “1920~1930년대 대중잡지의 어휘소개에 대하여: 현황과 명칭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3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29~173쪽.
박제가 저, 박정주 역(2003). 「북학의」. 서해문집.
박진호(2006).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 잇-’의 상적 의미”. 「구결연구」17. 구결학회. 227-242쪽.
박진호(2007). “문자생활사의 관점에서 본 구결(口訣)”. 「한말연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말연구학회. 20-31쪽.
배수찬(2008).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 논설문의 성립 환경과 문장모델을 중심으로」. 소명출판.
베르너 파울슈티히 저, 황대현 역(2007). 「근대 초기 매체의 역사: 매체로 본 지배와 반란의 사회 문화사」. 지식의 풍경.

서상규(1991). 「16세기 국어의 말재어찌씨의 통어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상규(2002), “국어정보학 연구의 현황과 방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국어학 연구 50년」. 혜안.
서상규(2008). “한글의 번수 조사와 외솔 최 현배”. 「한글」 281. 35-72쪽
서상규(2010). “최 현배의 『우리말본』 첫재매 유인본 연구”. 「한글」289. 한글학회. 151-178쪽.
서상규(2011). “최 현배의 『우리말본』 둘재매 유인본 연구”. 「한글」291. 한글학회. 229-270쪽.
서상규・한영균(1999). 「국어정보학 입문」. 태학사.
서은아(2003). 「국어 명사형 어미 연구」. 박이정.
서정수(1994). 「국어 문법」. 뿌리깊은나무.
석주연(2004). “서술의 시점과 국어문법현상의 이해: ‘-삽-’과 ‘-오-’를 중심으로”. 「국어학」43. 국어학회. 273-298쪽.
션궈웨이 저, 이한섭・김지연・윤재숙・이자호・정영숙・황미정 역(2012). 「근대중일어휘교류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소강춘(2002). “정보처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SynKDP를 중심으로”. 홍윤표 외 「한국어와 정보화(愚山 洪允杓 敎授 回甲 紀念 論文集)」. 태학사. 567-641쪽.
손세모돌(1994). “중세국어의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24.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75-217쪽.
송민(1979). “言語의 接觸과 干涉類型에 대하여: 現代韓國語와 日本語의 경우”. 「성심여자대학 논문집」10. 성심여자대학교. 29-62쪽.
송민(1985). “派生語形成 存在形態素 ‘-的’의 始原”. 「어문논집」24・25. 민족어문학회. 285-301쪽.
송민(1989). “韓國語內의 日本的 外來語 問題”. 「일본학보」23. 한국일본학회. 3-23

쪽.
송민(2013). “漢字語에 대한 어휘사적 조명”. 「국어학」66. 국어학회. 3-40쪽.
송철의・이현희・이용・양정호・서형국・이지영(2007). 「일제 식민지 시기의 어휘: 어휘를 통해 본 문물의 수용 양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심재기(1999). 「국어 문체변천사」. 집문당.
안예리(2006). 「최근세국어 타동구문 연구: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예리(2008). “현대국어 초기 명사절의 사용 양상”. 「한글」281. 한글학회. 255-288쪽.
안예리(2009). “‘삼다’ 구문의 통시적 변화”. 「한국어학」43. 한국어학회. 1-28쪽.
안예리(2010).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과 순한글판의 문장 연구: 번역에 따른 형태·통사적 대응 관계”. 「연세학술논집」50.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435-474쪽.
안예리(2011). “유의어 분석을 통한 어휘사 연구: 1930년대 대중종합지 『삼천리』를 중심으로”. 「언어 사실과 관점」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9-235쪽.
안예리(2012). “시문체의 국어학적 분석”. 「한국학논집」4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31-262쪽.
안예리(2013).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통시적 변화: 말뭉치 언어학적 접근”. 「한국어학」58. 한국어학회. 107-133쪽.
안예리・김선영(2009). “1930년대 학술지 「한글」과 「정음」에 사용된 월의 문체적 특성”. 「한글」286. 한글학회. 67-107쪽.
안주호(1999). “‘-기’ 형 연결어미 ‘-기에, -길내 , -기로’ 의 특성과 문법화 과정: 20세기 초기 국어를 중심으로”. 「언어학」24. 한국언어학회. 187-211쪽.
양정호(2005). “名詞形語尾 體系의 變化에 대하여”. 「語文硏究」.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3-4. 57-80쪽.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HK사업단(2012). 「풀어쓰는 국문론집성」. 박이정.
오성호(2001). 「김동환: 한 근대주의자의 행로」. 건국대학교 출판부.
우인혜(1988). “개화기국어의 시제와 상 및 서법에 관하여: 당시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13.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13-252쪽.
유민아(2006). “일한 수동표현에 관한 대조 연구: 1900-1920년대 대역자료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31. 한국일본어문학회. 1-17쪽.
유석환(2009). “1930년대 잡지시장의 변동과 잡지 『비판』의 대응: 경쟁하는 잡지들, 확산되는 문학”. 「사이」6.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39-271쪽.
유수연(2008). 「한・일어 피동 표현의 비교 연구: 19세기 말 이후 대역 자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창돈(1964).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 출판부.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유현경(2001). “간접인용절에 대한 연구”. 「국어문법의 탐구Ⅴ」. 태학사.
유현경(2002). “부사형 어미와 접속어미”. 「한국어학」16. 한국어학회. 333-352쪽.
윤용선(2003). 「15세기 언해자료와 구결문」. 역락.
윤용선(2006). “『소학언해』의 구결체계에 대한 검토”. 「진단학보」102. 진단학회. 179-227쪽.
윤용선(2009). “조선 후기의 구결 사용에 대한 고찰:『句讀解法』의 분석을 중심으로”. 「진단학보」107. 진단학회. 177-212쪽.
이경우(1989). “개화기 국어의 경어법 연구”. 「인문논총」8. 호서대학교.
이경우(1998). 「최근세국어 경어법연구」. 태학사.
이경호(2000). “현대국어 접속문의 통시적 양상”.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2: 통사」. 박이정. 317-344쪽.
이관규(2002).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와 전망”. 「한국어학」16. 105-147쪽.
이광호(1976). “중세국어 속격어미의 일고찰: 주어적·목적어적 속격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70. 국어국문학회. 27-46쪽.
이기문(1970). 「開化期의 國文研究」. 일조각.
이기문(1972). 「國語史概說: 改訂版」. 탑출판사.
이기문(1988). “한국어 文體의 발달”. 「한국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229-254쪽.
이동석(2009). “국어의 주어적 속격에 대한 연구”. 「언어학연구」15. 한국중원언어학회. 133-147쪽.
이동석(2011). “일부 국어 관형 표현의 일본어 영향설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39. 우리어문학회. 241-273쪽.
이동혁(2000). “현대국어 연결어미의 형성”.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1: 음운・형태」. 박이정. 207-236쪽.
이명천(2000). 「개화기 국어 교과서 대우 표현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상섭(1989). “뭉치 언어학적으로 본 사전 편찬의 실제 문제: 『님의 침묵의 용례 색인』을 예로 들어”. 「사전편찬학연구」2. 연세대학교언어정보연구원 162-197쪽.
이상욱(2006). “主語的 屬格에 대한 再論”. 「형태론」8-1. 박이정. 1-27쪽.
이상욱(2007). “언해문에서 관찰되는 ‘내이’, ‘네의’형에 대한 관견: 15세기 자료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30-3. 한국학중앙연구원. 203-225쪽.
이안구(2001). “‘있다’와 ‘없다’의 활용양상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2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41-361쪽.
이연숙 저, 고영진・임경화 역(2006). 「국어라는 사상: 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 소명출판.
이응호(1975). 「개화기의 한글 운동사」. 성청사.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이지연・김민국・윤정원(2008). “근대 계몽기의 격조사 목록과 기능 연구”. 「국제어문」 44. 107-141쪽.
이지영(2004). “否定副詞 ‘안’과 否定敍述語 ‘않-’의 형성”. 「어문연구」3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65-186쪽.
이지영(2008a). 「한국어 용언부정문의 역사적 변화」. 태학사.
이지영(2008b). “‘-은지’와 ‘-을지’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53. 국어학회. 113-140쪽.
이현규(1985). “객체존대 「-숩-」의 변화”. 「배달말」10. 배달말학회. 55-86쪽.
이현희(1986). “중세국어 내적 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3. 한신대학교 출판부. 191-228쪽.
이현희(1994a). 「中世國語 構文硏究」. 신구문화사.
이현희(1994b).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1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57-81쪽.
임동훈(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구조”. 「한국문화」1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1-66쪽.
임동훈(2000).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국어학회.
임상석(2008).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임용기・홍윤표 편(2006).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임재수(1983). 「20세기 초기 國語의 敬語法體系에 대한 硏究: 特히 銀世界·雪中梅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홍빈(1974). “명사화의 의미특성에 대하여”. 「국어학」2. 국어학회. 83-104쪽.
정광(1995). “1920-30년대 문학작품에 보이는 일본어 構文의 영향”. 「한국어학」2. 한국어학회. 379-398쪽.
정길남(1992). 「19세기 성서의 우리말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정길남(1997). 「개화기 교과서의 우리말 연구」. 박이정.

정길남(2002). 「신소설의 우리말 연구」. 한국문화사.
정길남(2004). “개화기 교과서의 존대법 연구”. 「한국어문학연구」4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9-55쪽.
정영숙(1994). “日本語 接辭 ″的″의 成立 및 韓國語로의 流入問題 考察”. 「일어일문학연구」25. 한국일어일문학회. 27-55쪽.
정재영(1996). 「의존명사 ‘ᄃᆞ’의 문법화」국어학총서 23. 태학사.
정주리・시정곤(2011). 「조선언문실록: 실록으로 보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한글 사용기」. 고즈윈.
정진석(1990). 「한국언론사」. 나남출판.
정진석(2000). “파인 김동환과 <삼천리>”. 김영식 편, 「언론인 파인 김동환연구」3. 신성출판사.
정진석(2002). “언론인 巴人 金東煥”. 김영식 편, 「巴人 金東煥誕生 100周年紀念集」. 도서출판 선인. 144-161쪽.
정진석(2003). “개화기 언론 출판문화의 생성”. 「동양학」3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39-251쪽.
정진석・이중한・신인섭・박암종・전영표・고정기・김원석・감태준・유경환・오경호・김형윤・양문길・이의용(1995). 「한국잡지 100년」.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정혜선(2007). “개화기 접속어미 “-거드면”, “-을뿐더러”, “-지마는″에 관한 연구: 형태, 통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사회」8.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97-113쪽.
정희정(2000). 「한국어 명사 연구」. 한국문화사.
조태린(1998). 「일제시대의 언어정책과 언어운동에 관한 연구: 언어관과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채백(2008).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과 개화기 출판”. 「한국언론정보학보」41. 한국언

론정보학회. 7-40쪽.
채완(1979). “명사화소(名詞化素) ‘-기’ 에 대하여”. 「국어학」8. 국어학회. 95-107쪽.
채완(2005a). “일제 시대 광고 카피의 연구: 문체와 그 선택 요인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11.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27쪽.
채완(2005b). “일제시대 광고문의 형식과 전략”. 「이중언어학」27. 이중언어학회. 227-251쪽.
채완(2010). “개화기 광고문의 문체”. 「어문논집」43. 중앙어문학회. 117-148쪽.
천정환(2003). 「근대의 책 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천정환(2008). “초기 『삼천리』의 지향과 1930년대 문화민족주의”.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4-235쪽.
천정환・이경돈・손유경・박숙자 편저(2010). 「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최경봉(2012). “근대적 언어관의 전개와 국어정립이라는 과제의 인식 양상: 한국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동방학지」158. 연세대학교출판부. 231-269쪽.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출판부.
한동완(1996). 「국어의 시제 연구」. 태학사.
한영균(2008). “現代 國漢 混用 文體의 定着과 語彙의 變化”. 「국어학」51. 국어학회. 229-256쪽.
한영균(2009). “文體 現代性 判別의 語彙的 準據와 그 變化”. 「구결연구」23. 구결학회. 305-342쪽.
한영균(2011). “『西遊見聞』文體 硏究의 現況과 課題”. 「국어학」62. 국어학회. 225-70쪽.
한영균(2013). “近代啓蒙期 國漢混用文의 類型·文體 特性·使用 樣相”. 「구결연구」30. 구결학회. 219-256쪽.
허웅(1963). 「중세국어연구」. 정음사.

허웅(1975). 「우리 옛말본: 형태론」. 샘문화사.

허웅(1983).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허웅(1991). 「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 탑출판사.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허웅(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허재영(2002). 「부정문의 통시적 연구」. 역락.

허재영(2003). “근대계몽기의 어문문제와 어문운동의 흐름”. 「국어교육연구」1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457-490쪽.

허재영(2008). “일제 강점이 우리말 연구의 경향과 의미: 잡지,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3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89-310쪽.

허재영(2010). 「근대 계몽기 어문 정책과 국어 교육」. 보고사.

허재영(2011a). “문자 사용 방식에 따른 국어 문체 변천사”. 「새로운 국어사 연구론」. 도서출판 경진. 515-548쪽.

허재영(2011b). 「일제강점기 어문 정책과 어문 생활」. 도서출판 경진.

호정은(1999). “개화기 국어의 명사화 연구: 독립신문 전산 자료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3. 경희대 인문학연구소.

홍윤표(1969). “중세국어의 격연구”. 「국어연구」21. 국어연구회. 55-68쪽.

홍윤표(1980). “근대국어의 격연구: 속격”. 「연암 현평효 박사 회갑 기념 논총」. 형설출판사. 725-751쪽.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홍윤표(1995). “명사화소 ‘-기’”. 「국어사와 차자표기: 남풍현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홍윤표(2002). “국어학 연구와 정보화”. 「한국어와 정보화」. 태학사.

홍윤표(2004). “이백시언해(李白詩諺解)의 국어학적 가치”. 「국어사연구」4. 국어사학회. 27-45쪽.

홍윤표(2008a). “컴퓨터를 이용한 국어 자료 처리 방법”. 「국어문학」44. 국어문학회. 5-53쪽.
홍윤표(2008b). “한국 어문생활사”. 「제2회 한국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어학회.
홍윤표(2010). “인문언어학의 구상과 전망 : 인문학에서 자료의 구축과 활용”. 「언어 사실과 관점」26.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5-46쪽.
홍윤표(2012). 「국어 정보학」. 태학사.
홍종선(1983a). “名詞化 語尾의 變遷”. 「국어국문학」89. 국어국문학회. 31-52쪽.
홍종선(1983b). “명사화 어미 ‘-음’과 ‘-기’”. 「언어」8-2. 한국언어학회.
홍종선(1990). 「국어체언화구문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홍종선(1996). “개화기 시대 문장의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117. 국어국문학회. 33-58쪽.
홍종선(2000). “현대국어 문체의 발달: 한문・한자의 어휘적 실현과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3」. 박이정. 9-30쪽.
홍종선(2009). “20세기 국어 문법의 통시적 변화”. 「국어국문학」152. 국어국문학회. 35-61쪽.
홍종선 외(2000).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1-3. 박이정.
황국정(2000). “현대국어 선어말어미의 형태・기능 변화”.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1): 음운・형태」. 박이정. 149-206쪽.
황국정(2009). 「국어 동사 구문구조의 통시적 연구」. 제이앤씨.
황용주(2007). 「연어 구성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신소설 말뭉치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호덕(2002). 「한국 근대 형성기의 문장 배치와 국문 담론: 타자·교통·번역·에크리튀르,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nderson, Benedict. 1983/2006. *Imagined Communities* (3rd ed.). London and New York: Verso.

Anthony, Laurence. 2004. AntConc: A Learner and Classroom Friendly, Multi-Platform Corpus Analysis Toolkit. In *Proceedings of IWLeL 2004: An Interactive Workshop on Language e-Learning*. p. 7-13.

Campbell, Lyle. 2004. *Historical Linguistics: An Introduction* (2nd ed.).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Campbell, Lyle & Mixco, Mauricio J. 2007. *A Glossary of Historical Linguistics*.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Comrie, Bernard. 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owley, Terry. 1997.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Linguistics*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ante, Alighieri. Edited and translated by Steven Botterill. 1996. *Dante: De Vulari Eloquent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udden, Alexis. 2005.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Discourse and Power*.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Fillmore, Charles J. 1968. The Case for Case. In Emmon Bach and Robert Thomas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p. 1-88.

Gunn, Edward. 1991. *Rewriting Chinese: Style and Innovation in Twentieth-Century Chinese Pros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Inoue, Miyako. 2006. *Vicarious Language: Gender and Linguistic Modernity in Japa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Jacobsen, Wesley M. 2007. Reference Time, Temporal Adverbials, and the Tense/Aspect Interface in Japanese. In *Current Issues in the History and*

Structure of Japanese (edited by B. Frellesvig, M. Shibatani, and J. C. Smith). Tokyo: Kurosio Publishers. p. 1-26.

Johansson, Stig. 2008. Some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Corpus Linguistics in the 1970s and 1980s. In *Corpus Linguis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Vol 1 (Edited by A. Lüdeling & M. Kytö). Berlin: Walter de Gruyter. p. 33-53.

Harris, Alice C. & Campbell, Lyle. 1995. *Historical Syntax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Ferguson, Charles A. 1959. Diglossia. *Word* 15. p.325-340. (Repr. 1972. In Pier Paolo Gigliolo (ed.) *Language and Social Context*. p.232-251.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Hock, Hans Henrich & Joseph, Brian D. 2009. *Language History, Language Change and Language Relationship: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2nd rev. ed.).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Labov, William. 1994.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Vol 1: Internal Factors*. Oxford, UK/Cambridge, MA: Blackwell.

Labov, William. 2001.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Vol 2: Social Factors*. Oxford, UK/Cambridge, MA: Blackwell.

Lass, Roger. 1997. *Historical Linguistics and Languag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Lightfoot, David. W. 1979. *Principles of Diachronic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üdeling, Anke & Kytö, Merja (eds.) 2008. *Corpus Linguis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Vol 1-2. Berlin: Walter de Gruyter.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ssanen, Matti. 2008. Corpus Linguistics and Historical Linguistics. In *Corpus Linguis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Vol 1 (Edited by A. Lüdeling & M. Kytö). Berlin: Walter de Gruyter. p. 53-68.

Romaine, Suzanne. 1982. *Socio-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endl, Herbert. 2001. *Historical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rask, Robert Lawrence. 1996. *Historical Linguistics*. London: Edward Arnold.

Vendler, Zeno. 1967. Verbs and Times. In *Liguistics and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 97-121.

Yoo, Hyunkyung & An, Yelee. 2012. Conceptualization of the Individual as a Modern Subject in Korea: Analysis of Co-occurence Relations. *Korea Journal*, 52-4. p. 12-35.

Zhou, Gang. 2011. *Placing the Modern Chinese Vernacular in Transnational Literatu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広田栄太郎(1969). 「近代訳語考」. 東京堂出版.

國立國語研究所編(2005), 「雜誌『太陽』による確立期現代語の研究」. 博文館新社.

龜井孝, 河野六郎, 千野榮一 編著(1988). 「言語學 大辭典: 術語編」. 東京: 三省堂

柳父 章(1976). 「飜譯とはなにか：日本語と飜譯文化」. 法政大學出版局.

石塚正英・柴田隆行 監修(2003).「哲學・思想飜譯語事典」. 東京: 論創社.

小木曾智信(2005). “漢語サ変動詞の可能の形：～てきるの展開”. 國立國語研究所編, 「雜誌『太陽』による確立期現代語の研究」. 博文館新社. p. 251-269.

田中牧郎(2005). “言語資料としての雜誌『太陽』の考察と『太陽コーパス』の設計”. 國立國語研究所編, 「雜誌『太陽』による確立期現代語の研究」. 博文館新社. p. 1-48.

ABSTRACT

A Study on Sentence Composition in Early 20th Century Korean

-Corpus Linguistics Analysis of Public Magazine *Samcheolli* (1929～1942)-

An, Yelee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grammatical variations in early 20th century Korean sentences and discuss linguistic shifts that emerg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rom pre-modern to modern Korean. With the assumption that a sentence consists of a proposition and modality, I examined phrases and clauses, which comprise the propositions of sentences, and expressions of time, respect, negation, causation, and passivity, all of which manifest the modalities of sentences.

In the early 20th century, Korea experienced dramatic social and cultural changes, and the corresponding linguistic situation also underwent a comprehensive upheaval. While it is true that language always changes and therefore any state of synchrony includes the co-existence of old and new forms, there were nonetheless sudden shifts in the linguistic situation of early 20th century Korean, which together resulted in a number of remarkable transitional features in its orthography, vocabulary, grammar, and writing style. The evolutionary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early 20th century can

be explained by examining such linguistic variations.

To explain such changes in a language by describing linguistic variations, it is indispensable to investigate a huge amount of usage example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refore, this study adopts a corpus linguistics methodology. The corpus for this study contains texts from the general consumer magazine *Samcheolli* published between 1929 and 1942. This *Samcheolli* Corpus consists of 2.9 million *eojeol* raw corpus items: 44% are literary texts including novels, essays, travelogues, and memoirs; and 56% are non-literary texts including editorials, reports, criticisms, surveys, and editor's notes.

This study considered both intra-linguistic and extra-linguistic factors as major causes of the emergence of linguistic variations and shifts in the early 20th century; as analyses of early 20th century texts show, not only in-between grammatical forms, which link the grammatical system of pre-modern Korean to that of modern Korean, but also grammatical variations seem to be caused by shifts in writing styles and foreign influences, such as those from the Japanese language. Therefore,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were considered whe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phrases, clauses, and modal expressions. 1) Do the variations illustrated in *Samcheolli* reflect each stage of grammatical evolution? 2) Do the variations shown in *Samcheolli* indicate changes in writing practices that came to prefer vernacular writing styles to traditional writing styles, which had been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Classical Chinese and *gugyeolmun*? 3) Were there any new phenomena exhibiting a Japanese influence?

The Korean language of the early 20th century is better explained with a focus on variations than on the overall linguistic system. Newspapers and magazines of the period in question, for example, illustrate very complex variations in

practically every aspect of the language. However, at the same time it was an era in which very earnest efforts to standardize the language throughout the country were implemented. Among such efforts, *Urimalbon*, a book written by Hyun-bai Choi, is considered one of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 Korean grammatical system. In each chapter of this study, the corpus analysis results with respect to the variations in *Samcheolli* were compared to their corresponding descriptions in *Urimalbon* to account for which aspects of the actual language in use were included, and which aspects were dropped, in the grammatical system outlined in *Urimalbon*.

This study consists of six chapters. Chapter 1 introduces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previous research on this topic; it also describes the corpus data and methodology. Chapter 2 discusses the background of this research, with a focus on the linguistic situation of early 20th century Korean. Chapter 3 examines the features of the phrases and clauses used in the early 20th century. Chapter 4 explores the modal characteristics of early 20th century sentences by investigating the usage of time, respect, negation, causation, and passivity expressions. Chapter 5 compares the linguistic variations in *Samcheolli* discussed in Chapter 3 and 4 to the grammatical description in *Urimalbon*. Chapter 6, the conclusion, describes the implications and remaining issues of this study.

Key words: 20th century, Enlightenment Period, Colonial Period, *Samcheolli*, sentence, writing style, variation, grammatical change, corpus, *Urimalbon*